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글·사진 미추홀시민기록단
역·음 미추홀학산문화원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 발간사	0 7
· 축사	1 0
· 미추홀시민기록단 소개	1 2
· 들어가며	1 4

3 3 2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3 5 8

3 8 2

4 0 6

문 짝

‘나는 행복한 작은 거인’ 차기대 (고려목공소)	2 4
‘나무를 닮은 듯 편안한 목공인’ 이복섭 (보령목공)	4 8

목가구

‘맞춤 제작의 달인’ 김창선 (노아목재)	7 4
‘조각부터 인테리어까지, 일명 맥가이버’ 이길학 (성원인테리어)	9 6
‘윈스턴 스피커의 울림을 담은 장인’ 변경인 (서울목공예)	1 2 2
‘목공예 마을의 정직한 제페토’ 윤덕환 (명진공예사)	1 3 6
‘짜맞춤으로 가구를 만드는 똑심’ 조한일 (모던목공방)	1 5 4
‘목재의 숨결을 느끼며 나무를 바라보다’ 김종필 (한일원목목공)	1 6 6

목조각·목각

‘목공예의 달인’ 강오원 (고전공예사)	1 9 2
‘상감으로 나무에 혼을 불어넣는 장인’ 김인규 (미추홀공예사)	2 1 2
‘목간판에 새긴 나만의 글씨’ 진교욱 (인일조각)	2 3 4
‘조각에 무아지경의 매력을 느끼는 장인’ 박호만 (인일조각)	2 5 8

목선반

‘로구로 외길 인생’ 원철성 (대우공예)	2 7 6
‘백반집 같은 목공 장인’ 이철희 (대한공예)	3 0 2
‘마루칼, 평칼, 삼부칼, 그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안희식 (신정목공예)	3 2 2

톱 연마

‘88세 노장 연마장이’ 김유일 (유성톱연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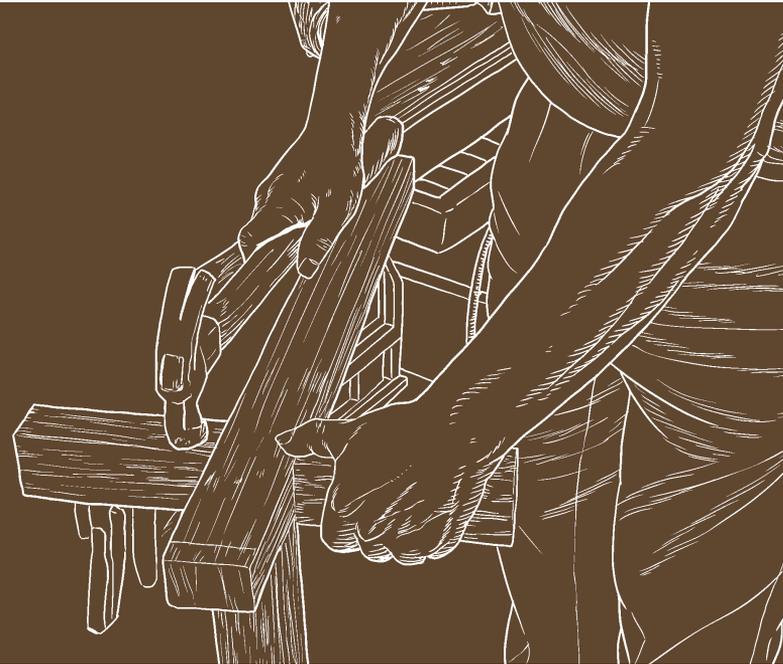
미래를 그리다

‘벽화쟁이가 나무에 그린 그림’ 이현준 (준아트)	
‘목공, 교육으로 꽃 피우다’ 서희원 (아셀트리목공방)	
‘차세대 목공산업으로 전환할 때’ 박승화 (송의목공예센터)	

· 기록후기	4 2 6
· 기록일지	4 3 8
· 단어사전	4 4 1



발 간 사



일러두기

1. 본 책자는 2022년 미추홀기록사업의 시민기록단 활동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구술인터뷰 원고들을 편집하여 수록한 것이다.
2. 수록된 원고는 구술인터뷰의 발언을 살리되, 독자의 이해를 위해 내용을 편집·정리하였다.
수록하지 못한 인터뷰 전문은 미추홀시민아카이브(archivecenter.net/Michuhol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본 책자에 실린 내용은 참여자들의 의견이며 미추홀학산문화원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다.
4. 말의 흐름을 보충 설명하는 주석은 각주로 [1], [2]...로 표기했으며, 단어의 뜻에 대한 주석은 미주로 * 기호로 표기하여 도서의 뒷부분에 배치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우리는 지역의 역사를 과거에 묶어두면서, 정작 근현대사에 대한 기록의 역사가 짧고 부족합니다. 급격한 산업변화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기록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미추홀은 마을들이 재개발로 아파트단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와 마을을 이루고 있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이렇게 사라지고, 살아지는 지역 이야기를 기록하여, 역사로 남겨놓고자 「미추홀, 살아지다」 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 송의목공예마을에 자리를 잡은 목공장인 열아홉 명의 삶을 담은 구술집, ‘미추홀, 살아지다6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내기 위해 시작한 목공 일이 평생의 업이 된 목공장인들의 생애를 담은 구술사입니다. 이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배다리, 송의운동장, 도원역 인근 등 목공예 상가들이 밀집해있던 지역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사용하는 나무의 종류, 접착제와 사용하는 기계들이 달라지는 과정을 통해 인천 나무산업의 흥망성쇠의 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송의목공예마을은 1세대 목공장인들의 은퇴가 진행 중이며, 오래된 목공 가게가 차츰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 년 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이 송의목공예마을을 전통 목공예 지역특화거리로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변의 도시 개발은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목도(目睹)하며 송의목 공인들과 송의목공예거리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송의목공장인들의 생애 구술기록이 단지 기록을 위한 기록으로 남지 않고, 과거를 통해 현재 삶을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은 미추홀시민기록단이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어 송의목공장인들의 삶을 기록하고자, 사전 준비, 현장방문, 면담, 촬영, 원고정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서 탄생한 시민 구술 기록서입니다. 이번 구술집은 민간인에 의한 구술 기록물의 가치와 힘을 보여주는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추홀시민기록단도 이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성장했고, 지역과 사람에 애정을 담은 공동체 기록의 가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기꺼이 자신의 삶과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송의목공예마을의 열아홉 분 목공장인과, 사라져가는 지역 이야기를 기록해주신 미추홀시민기록단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록과정의 멘토를 맡아주신 허은심 인천사연연구소 연구원님, 구술 기록자들의 원활한 면담을 주선해주신 박승화 송의목공예센터장님과 민후남 송의평화시장 꽃차

마실 대표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술 기록 등 사라져가는 지역의 자원을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미추홀구청과 미추홀학산문화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이야기들이 변화 속에 단절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미추홀, 살아지다」 시리즈의 지속적인 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3.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장 정형서

축 사

미추홀 지역문화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책자 발간에 아낌없이 노력을 기울여주신 정형서 미추홀학산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미추홀시민기록단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유일의 송의목공예마을은 2012년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원도심 경제를 살리고, 전통 공예를 전승하기 위한 특화 사업으로 조성되어 그동안 목재친화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에는 이곳이 ‘제물포 Station-J 뉴딜사업’의 일부에 포함되어 미추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특화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송의목공예마을은 배다리에서 시작해 철길과 도로의 확장으로 도원동을 거쳐 송의동에 정착하여 3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온 목공장인들이 지켜온 곳입니다. 인천의 목공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인 송의동의 목공장인의 인생을 구술 기록한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은 미추홀구의 과거와 현재를 미래 세대로 이어낼 수 있는 훌륭한 기억의 저장고이자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미추홀시민기록단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노력, 그리고 장인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미추홀구가 창의적 인재들이 육성되고 다양한 분야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3.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이영훈

축
사

이번 미추홀학산문화원 출판기념회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41만 미추홀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는 미추홀학산문화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추홀구는 구도심으로,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과 변화는 미래 지향적 지역발전을 지향함과 더불어, 다른 한 축으로는 사라지고 있는 지역의 기록을 남기는 일들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출간 소식이 들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술 책은 미추홀구 주민들로 구성된 미추홀시민기록단의 손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에 더욱 큰 의

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째 지속적인 기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기록 활동을 매개로 우리 이웃과 지역을 기록하며 애정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미추홀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록들이 후대에 전해지면, 주민의 힘으로 미추홀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출간을 축하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 배상록

지역의 역사는 지역주민들이 실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경험이 모여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시민의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해나가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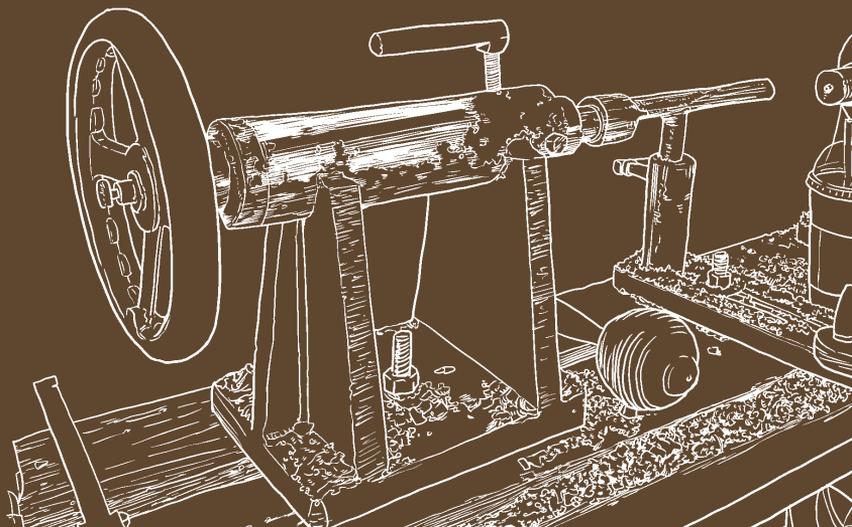
‘미추홀시민기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명의 미추홀시민기록단은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19명을 만나,

그들의 삶과 직업, 지역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구술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김용경



이혜숙



정은주



정지선



조연희



표기자



허은영



김순옥

시민기록단 기록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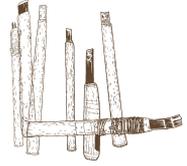
허은심

- 2019. 10.~12. 미추홀시민기록단 1기 모집
미추홀 시민기록자 인문교육 (10강)
- 2020. 6.~10. 미추홀시민기록단 양성 교육 (10강)
「미추홀, 살아지다3 미추홀, 안부를 묻다-삶」 구술자 참여
- 2021. 6.~11. 「미추홀 음식」 기록활동(21인의 구술 기록)
「미추홀, 살아지다4 미추홀 사람들은 이 맛을 안다」 수록
- 2022. 6.~12. 미추홀시민기록단 2기 모집
「송의목공예마을」 기록활동(19인의 구술 기록)
- 2023. 3. 「미추홀, 살아지다6 나뭇걸 따라 살아온 삶」 수록



들
어
가
며





목공예 활성화를 위하여

김용구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목(木)제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던 친밀한 것이었다. 예컨대 의식주와 관련한 책장, 장롱, 반닫이, 탁자, 소반, 찬합, 경대, 촛대, 농기계. 어구, 쟁기, 호미, 지게 등이 있으며, 운반에 쓰던 가마, 수레, 우마차 등 우리 생활과 함께하던 민속 유산이다.

조선 후기에 서유구가 지은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인천 주안면 소암장(疎巖場)은 매월 4일과 9일, 부평 황어면 발라장(鉢羅場)은 매월 3일과 8일에 미곡(米穀), 면포(綿布), 마포(麻布), 어염(魚鹽), 철물(鐵物), 인석(茵席, 돛자리), 연초(煙草), 우독(牛犢, 송아지) 등과 더불어 목물(木物)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한다.

나무를 다루는 장인을 목수라고 부르고 집을 짓는 대목장과 가구나 문짝을 짜는 사람은 소목장, 나무 그릇을 만드는 장인은 갈이장이라고 한다. 일반 목수들이 나무를 다루는 작업에는 ①전통 기법으로 가구·기물을 만드는 목공예, 목조각, ②가구제작, ③창호제작, ④인테리어 작업, ⑤가구나 문짝의 수리 작업을 하는 목공 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목공예는 나무를 이용하여 예술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1962년 법률 제정 당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라고 지칭하였으나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하며 동시에 “인간문화재”라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도 국가무형문화재에 포함되어 있다.

인천의 목재산업 입지

우리나라는 원목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인천이 항구도시로 최적지였다. 목재에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높여 급격한 함수율의 변화를 억제하여 뒤틀림과 활열(수축하면서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위해 해안가에 목재를 쌓아두기 좋은 조건이었다. 특히 1971년 서구에 인천 제재 단지를 조성하고 대한제재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목재 건조장을 설치하여 목재 관련 산업이 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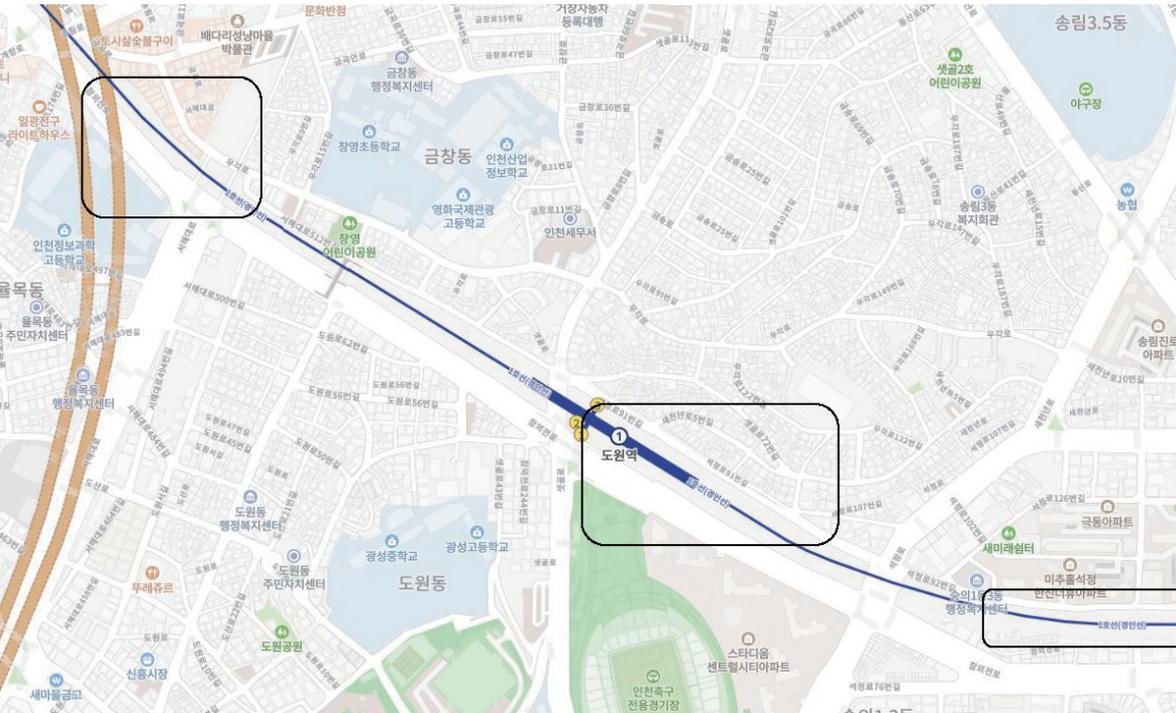
배다리 주변에는 1950년부터 일반시장, 철공소, 죽(대나무)공예, 혼수용품, 문방구 등 다양한 업종이 발달하였다. 1979년 배다리 지하상가가 생기자 공예인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배다리 주변에는 4~5개소 목공예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부친이 운영하던 목공소가 1970년 신포동에서 도원역 주변으로 이사를 가서 가업을 이어받아 2010년까지 송의운동장 주변에서 사업을 하였던 지식(63세) 대표에 의하면 “1970년 당시 도원역 앞뒤로 가구, 씽크, 문짝, 공예, 합판, 철물, 낫그릇 등 생활에 필요한 업종들이 50여 개 업체가 있었다.”고 하며, “이 중에서 목공 관련 업체는 30여 개로 추정된다.”고 기억하고 있다. 사업이 한창 잘 나간 시절에는 강원도, 충청도, 인천 섬 지방 사람들이 찾아와 번성을 누렸

다고 한다.

1978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 승의운동장 주변 정비, 1994년 7월 11일 도원역 개통으로 도원역 자리에 있던 업종들은 배다리 주변이나 현재의 승의목공예 거리,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도원역 건너편에 남아있던 13~15개 정도 업종은 2010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설립과 주변 개발로 인하여 영업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 하거나 폐업하였다.

지석(63세) 대표에 의하면 “2010년 당시 13개 목공예 관련 업체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의 승의 목공예거리로 이전한 업체는 4~5개 정도이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였다.”고 한다.



목공예 업체 밀집지의 이동 경로



배다리 상가 일대



도원역 (송의축구경기장) 일대



송의 목공예거리 일대

승의 목공예거리와 협동조합

미추홀구 승의 1, 3동 참외전로 291-321번지에 조성된 승의 목공예거리는 목공소 및 건자재, 주거지 등 30여 개 점포가 있고, 뒤쪽 주거지에는 30여 개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필자가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있었던 지난 2014년 5월 승의 목공예거리 상인들 대상으로 사업자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실시하여 승의 목공예마을 협동조합을 설립을 도와주었다. 그 이후 협동조합에서는 목공예 지도사 자격증, 디자인역량 강화사업, 목공예거리 간판정비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018년 협동조합은 조합 내 내부 문제로 해체수순을 밟았다.



승의 목공예마을 협동조합 창립총회. 2014년

인천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사업체수

2019년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인천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사업체 수는 다음과 같다. 제재 및 목재 가공업과 나무제품 제조업은 서구 124개, 220개소 가장 많다. 서구는 1971년 인천제재단지를 조성하여 공동목재 건조장을 설치하여 목재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다.

표준산업 분류		인천시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75	1	9	2	35	1	0	124	2	1
162	나무제품 제조업	397	14	17	6	81	18	14	220	21	6

통계청, 인천시, 2019년

미추홀구는 서구나 남동구와 다르게 목재 관련 공단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나무제품 제조업(표준산업 분류 162)이 21개소로 다른 군·구 보다 많고, 그 중에서 송의 1, 3동에 66.7%(14개소)가 존재하고 있다.

표준산업 분류		송의 1, 3동	송의4동	주안5동	주안6동	문학동	용현 1, 4동	도화 2, 3동	합계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0	0	0	0	2	0	0	2
162	나무제품 제조업	14	1	1	1	1	1	2	21

통계청, 인천시, 2019년

송의 목공예거리 활성화되어야

목공예는 생활 속의 취미 및 여가생활이나 미술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여 소규모 창업도 가능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SNS 발달, 개인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개성에 맞는 목공예 주문 제작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목공예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예술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제재 및 목재 가공업과 나무제품 제조업으로 구분한다. 목공예는 예술작품과 산업적 측면의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다.

송의 목공예거리는 인천의 대표 산업이었던 목재 관련 업종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공예 거리이다. 예술작품과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에서 보면 송의 목공예거리는 보존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목재 분류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제조업 중에서 목재 관련 제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과 가구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은 제재 및 목재 가공업(161), 나무제품 제조업(162)으로 나뉜다.

중분류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은 원목이나 제재목을 제재하거나 분쇄, 대패질 또는 기타 표면 가공하여 목재 및 나무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분류코드	분류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처리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문헌

나무신문(imwood.co.kr)

디지털 시흥문화대전(siheung.grandculture.net/sihe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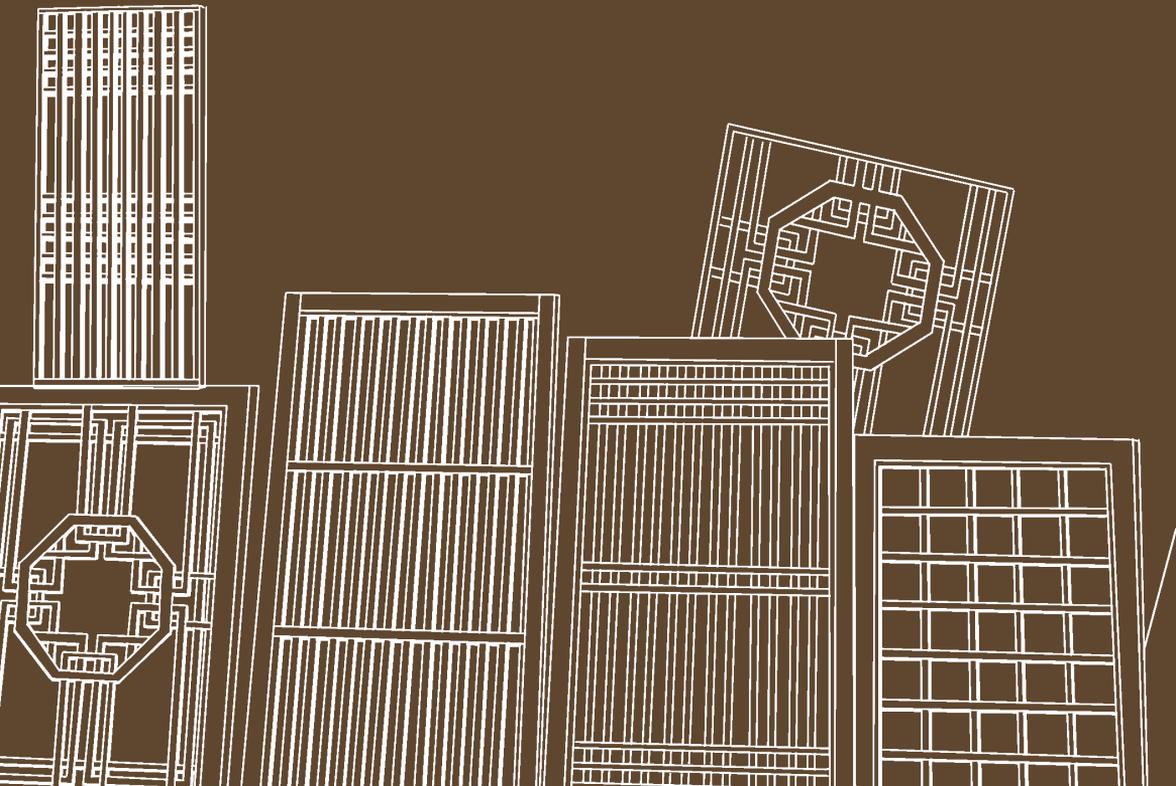
인천광역시(incheon.go.kr)

이권형, 인천목재가구산업 현황 및 활성화방안, 인천연구원, 2011.

최병은, 인천 목재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경영대학원, 2014.

통계청(kostat.go.kr)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문 짜

'나는 행복한 작은 거인' 차기대
고령목공소

'나무를 닮은 듯 편안한 목공인' 이복섭
보령목공



나는 행복한 작은 거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따라와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목공일, 군대 생활, 결혼생활,
자녀들 모두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작은 거인입니다.







고려목공소 차기대 (1948년생)

충남에서 14세 때 인천으로 올라와 신포동에서 목수 일을 하며 문짚과 창살 제작 등을 배웠다. 군대 목공방에서 근무했으며, 제대 후 도원동 일대에서 목공 일을 하다가 인근에 '대흥목공'를 차리며 독립했다. 일대가 헐린 후 현재 자리로 이사하여 '고려목공소'로 이름을 짓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9월 5일, 22년 9월 27일
면담, 원고정리 정지선
면담지원 허은영

17세, 목공 일을 시작하다

인천에는 언제부터 거주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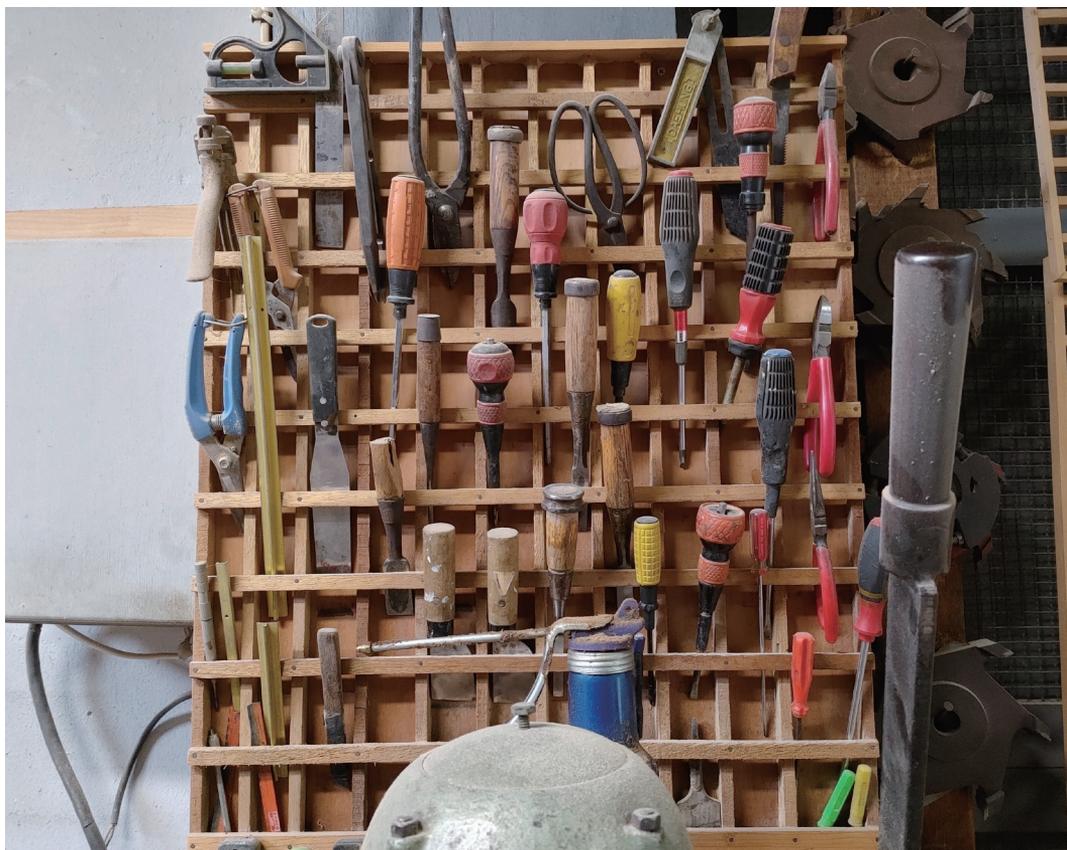
충남 대산면 대로리에서 할머니와 큰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14살 때 인천에 처음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살 때 아침 먹으면 저녁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워낙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서산에서 사는 큰 고모님 댁으로 가시고 큰아버지하고 나랑 인천으로 온 거예요. 와 가지고 신포동 백반집을 들어갔지. 거기 골목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그때는 백반집이었는데 지금 벌써 몇십 년이 흘러서 없어졌지만,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일전에 나도 궁금해 갖고 한번 가봤는데, 나 있을 때 그 주인 양반들은 다 돌아가시고 대폿집으로 바뀌었더라고. 그 집에서 한 4년 동안 일했죠.

14살에 인천 올라오셔서 한 4년 정도 백반집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목공 일은 언제 처음 하신 거예요?

17살 때. 그때 목수를 어떻게 배우게 됐냐 하면 저기가 백반집이니까 소주도 한 잔씩 팔고 그랬는데, 조 씨 아저씨라는 손님이 “야! 너 기술을 배워야지! 응? 기술 배워야 이다음에 먹고산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맨 처음에는 이발소를 며칠 다녔어요. 근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이다음에 벌어 먹고살기는 목수 일이 괜찮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포동에 있는 목공소에서 목수를 시작했죠. 그 목공소는 간판도 없었어요. 위치는 신포시장 닭강정 파는데 고쪽에 있었어요. 닭강정 집 근처에 있던 신신옥*이라는 옛날 우동집 옆에 우리 주인아저씨가 가게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들어갔을 때 주

인아저씨랑 직원(유희전 씨)이 한 분 계셨어요. 목공 일이 계산도 좀 할 줄
알아야 해요. 저런 창살 같은 게 그냥 다 계산상으로 해서 작업해야 하는
거라, 그런 걸 유 씨한테 많이 배웠죠.

그때는 기계화가 없기 때문에 다 손으로 막 끝 구녕 파고 톱질하고 그랬어
요. 저기 걸려 있는 것을 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 문짝들은 지금처럼 이
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하기 어려운 것도
하죠. 나만의 기술 같은 것도 좀 생기고(말끝을 흐리시며 쑥스러워하며 웃
으심).



문틀이랑 문짝을 처음 배울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어요?

보통 손으로 수작업을 하니까. 그때는 문틀 같은 거 홈도 파고. 그거를 이해하실까 모르겠네(고개를 가우뚱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게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홈을 파야 되거든요. 이 홈을 팔려면 사쿠리*라고 하는데, 생나무를 대패질해 가지고 홈을 파는 작업이에요. 아~~ 그 과정이 굉장하죠(그 시절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는 표정으로). 우선 문틀을 만들어야 문짝을 만들 수 있거든. 그거 문틀 만들고 홈 파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런 줄(인터뷰와 촬영을 할 줄) 알았더라면 그런 걸 내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목공 일을 배운 경력으로 군대 목공방에서 근무하다

그렇게 간판도 없는 곳에서 목수 일을 배우다가 21살 때 신포동에 신신 목공소라는 곳으로 잠깐 이탈했어요. 원래 있었던 곳이랑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곳이었었는데, 그 집에 가서 한 일 년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아(기억을 더듬으시면서)! 69년도 5월 27일 날인가. 저어기 조치원으로 입대를 했어요. 저는 군대 가니까 너무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가서 자리도 참 좋은 자리로 했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왔죠(허허허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군대 가기 전에 병역 신고할 때 “너 사회에서 뭐 했냐?” 그래서 “나는 사회에서 목수 일을 4년 했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기록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원에 있다가 김해 공병학교로 갔는데 거기도 이런 다이가* 짝 있어요. 그럼, 일개 중대가 거기 들어가서 톱으로 자르고 그러죠.

6주 동안 중대에 있다가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우고 실제 자기 3년 동안 근무할 자리로 가는 거죠. 배정받은 근무지는 대구 오관구였어요. 관구 안에 공시대라고, 우리 부대 이름이 오관구 공시대의 공병이라고 해야 하나. 그때 오관구 들어와서도 대기병으로 얼마 있다가 근무지가 정해지면 가는 거였는데, 저는 이중대에 들어가서 목공방으로 들어갔죠. 사령부 안에 큰 목공소 있는 곳으로 파견 나간 셈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군대나 사회나 똑같아요. 군대에서도 목수가 필요해. 나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목공방에 들어가서 아주 대우도 받고 착하게 있었죠.

파견 나가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공소 안에도 이런 기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민간인 문관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문관 중에는 목수도 있고 배관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현역(군인)이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선임하사 그다음에 고참 병장, 그다음에 나. 선임하사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고참 병장이 제대하면은 내가 고참이 되고 밑으로 쫓따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죠. 파견 나간 거라 밥도 직접 해서 먹었는데, 위에 이렇게 철사 끈으로 되어가지고 네 모난 통을 항고^{*}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국도 타다 먹고 했던 건데 중대에서 일주일 치 쌀을 주면 혼자서 항고에다 밥을 해 먹었지요. 거기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최고로.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은 혼자 목공소 있으면서 혼자 밥해 먹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한 일은 문관들이 다 퇴근하면은 목공소 톱밥을 깨끗하게 치워놓는 거였어요. 그래야 아침에 그 문관들이 나와서 또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군대에서 목공 일로 만들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문관들이 있어서 그 양반들이 다 했었는데, 타 부대 사람들이 목재를 수령 해서 오면 문관들이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쫓 때 그런 거 다 켜주고 그랬어요. 물론 쫓병 때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했었지만, 제가 고참일 때는 송판 가지고 키러 오면은 제가 켜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한 20mm 정도 그렇게 나가는 거 송판을 갖고 오면은 내가 한 30mm 정도 이렇게 짹짹 켜주는 거예요. 그때 가져온 송판 규격을 원 바이 식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 난 영어도 배웠다니까요(다 같이 하하하 웃으면서). 그걸 이렇게 짹짹 켜주면 그걸 갖다가 몰딩 돌리는 거지. 그렇게 해주면 군인들이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꼭 켜 가는 거예요. 켜 가면은 어느 부대에서 뭐 해갔다. 뭐 해갔다. 그런 거 적고. 문관들이 그 안에서 작업하는 거는 어디서 책상다리가 부러져서 고쳤다. 어디서 뭐 했다. 그러면 그 결제하는 게 다 있어요. 우리 고참이 하다가 제대 하면, 내가 하고 그랬어요. 당시에 다른 목공 일을 받아서 사제로 눈 감고 할 수는 있었지만, 문관들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지금도 군대에 목공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만 해도 대량 생산이 되던 시절이 아니니까 군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됐었던 거고 지금은 그냥 사재를 많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시 어떤 종류의 나무였었나요?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고 거의 다 미제 합판, 미송이었어요. 그 당시 미군들한테 지원받는 거라고 하나? 조달? 공급? 우리가 공병대기 때문에 하사관들이 나무를 수령해오는 거야. 우리 부대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가져오는데 사실 수령 해오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거엔 관심이 없었으니까.

목공 장인의 길로 들어섰던 청년 시절

군 제대 후 목공소로 다시 돌아가셨나요?

군대 제대하고는 제가 4년 동안 있던 집으로 갔죠. 그 집도 변화가 돼 가지고 도원동으로 왔어요. 그때 여기 도원역 쪽으로 와 가지고 그 간판이 건설 목공소였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봉급생활했죠. 그 건설목공소 주인아저씨도 착하고 주인아줌마도 착하고 그래서 이십 년 동안 일했어요. 이북 양반인데 그 양반도 나처럼 배움이 없어가지고 자기 이름도 못 쓸 정도로 그래서 그 집에 가서 4년 동안 있다가 군대 갔다가 다시 그 집에 가니까 반겨 주셨지요. 거기서 한 이십 년 동안 거의 내가 만들어 팔다시피 하면서 운영하고 그랬어요. 그때 직원이 3명도 있다가 2명도 있다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69년에 군대 가서 72년도에 제대했는데 제대해서 다시 목공 일했을 때 월급이 6,7만 원 정도 한 거 같아요.

당시에 도원역 자리 양쪽에 목공소가 짝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풍경과 지금 송의 목공예 마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억나실까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았죠. 그때 도원동에 양쪽으로 목공소가 짝 있을 때 문짝 같은 거 해서 팔고, 뭐 혼문*도 팔고 사고 그랬어요.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미추홀구나 인천시에서 목공소가 자꾸 없어지니까 여기다가 송의 목공예마을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도원동 목공 거리 뒷골목에 포장마차 거리도 있었는데, 포장마차나 대폿집 같은 게 있었어요. 포장마차 거리는 배다리 쪽이 아니라 공설 운동장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때 대부분 안주 없이 잔술 먹고 소금 짝어 먹고 그랬어

요. 그때 내가 생각나는 거는 주점 집에서 목로*에다 이렇게 놓고 잔술을 파는 거예요. 잔 한 잔에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걸리도 팔고 소주도 팔고, 거기서는 돈이 없으면은 안주를 못 사 먹는 거예요. 이렇게 깨소금 조금 해 가지고 찍어 먹고, 돈이 있으신 분은 두부 같은 거 부침개 한 접시 가지고 먹고. 저는 주로 막걸리를 마셨어요. 창영동에 막걸리 공장¹⁾이 있었는데 거기가 무슨 막걸리 공장이었는지 잘 모르겠네. 그 사람이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소성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때는 주점에서 향아리에 이렇게 해 가지고 대폿집에 갔다 주면 마시고 그랬어요. 그때가 사람 사는 맛이 나고 그런 게 좋았어요.

독립해서 목공소 개업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일했다고 했던 ‘건설목공소’ 거기에서 참 열심히 착실하게 일했는데, 거기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이십 년 동안 있다가 주인아주머니가 소개한 조카딸 되는 아내와 결혼해서, 그 맞은 편(도원역 자리)에 가게가 마침 있어 갖고 거기로 독립했죠. 독립해서 대흥목공소 간판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흘러가지고(헐러가지고) 지금 이곳으로 이사 오니깐 바로 여기 삼거리 코너에 대흥목공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요 삼거리 건너가면 애완용 팔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코너집에. 그게 원래 목공소 자리예요. 그 집 간판이 대흥목공소더라고. 그 사람이 나보다 오래된 거지. 근데 그 양반이와 갖고 대흥목공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물건 배송에 혼란이 오지 않겠냐 해서 내가 간판을 고려목공소로 바꿔 달았지. ‘무슨 목공소, 무슨 목공소’ 하다가 제 혼자 생각에 그냥 뭐 고려가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고려 목공소라

1) 배다리에 위치했던 인천양조장은 1891년생 황해도 평산읍 출신 상공인 최병두 선생이 24세 때 인천에 정착하여 정미업을 운영하다 1926년 양조업으로 전업하여 설립한 공장 중의 하나

이름을 내가 지었지. 사실 애들 이름도 내가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은 거예요. 큰 애는 차 천호인데, ‘하늘 천’ 뭐 ‘무슨 호’ 해 가지고, 어디 가서 이름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했고 작은 애는 차 두호인데, 하여튼 뭐(허허).

개업하면 다들 그러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특히 안식구가 엄청 고생 많이 했어. 진짜로. 그때 남자애 하나는 업고 하나는 유치원 보내고 나면 일꾼들 점심을 해줘야지 새참* 해줘야지. 안식구가 엄청 고생했어요.

나를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주는 가족 이야기

예전 직장 주인아주머니 소개로 사모님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25살에 제대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32살에 결혼을 했어요. 사실 32살 먹어서 돈 벌어 놓은 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때 막 겁나더라고. 그래도 그 주인아줌마가 내가 착실하고 잘하니까는 남 주긴 아깝다면서 서울 금호동에 사는 조카딸을 소개해 줬죠(사모님 생각하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며). 안사람 이름은 송연숙인데 나하고 8살 차이로 안사람 나이가 24살에 결혼했죠(허허허 웃으시면서). 한 2, 3년 연애했는데, 인천에서 일 끝나면 늦으니까 택시 타고 금호동까지 가서 데이트하고 그랬어요. 당시에 택시비가 만이천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월급이 6~7만 원이었던 시절이었지만 매일 서울 갔던 건 아니라 아깝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인천 동원예식장에서 했어요. 지금 건물 짓다가 중단된 곳 있죠? 거기서 결혼하고 충남에 있는 온양 온천으로 신혼여행 갔다 왔죠. 신접살림*은 송의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택에서 시작했고, 거기서 애 둘 낳고 나왔어요. 단독주택이었는데 주

인이랑 세 사는 사람이 우리까지 셋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처음 독립해서 차린 대흥목공소 지하실로 살림집을 옮겼어요. 당시에 갠신이(겨우) 이사 온 거였어요. 거기서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전에는 다 셋방살이였는데, 애들 엄마가 세로 있으니깐 “나이 먹고 어찌고 그러면은 어디 가게라도 하나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 갖고 여기 마침 이 가게를 준비하게 돼서 지금 월세는 안 내서 너무 좋아요(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사장님이 행복하다면서 짓는 미소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부럽습니다!

그때 초반에는 애가 둘인데 하나 업고. 큰애는 유치원도 보내고. 나는 배움이 없지만, 애들은 가르쳐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대학까지 보냈더니 애들이 나름대로 자리 잡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다 미추홀구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광성중학교, 인항고등학교.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착실해서 그랬는지 추천장 받아서 시험 안 보고 대학 들어갔어요. 큰애는 인천대학교, 작은애는 순천향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도 들어가고 그랬죠.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자마자 같은 학교 다녔던 며느리랑 바로 결혼시켰어요. 큰아들이 지금 43세. 큰 며느리는 동갑. 작은아들이 41세예요.

저는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해요. 우선 색시를 잘 만났고, 자식들도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었고. 그래서 전 집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도 불러요(하하하 웃으시면서). 창살 문 만드는 일은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손이 가기 때문에 값이 좀 세요. 아무나 못 하고. 요즘은 주문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제작하면 수입이 괜찮아요. 출판사에 다니는 며느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나중에 아버님 이야기를 꼭 책으로 내보고 싶다고 그

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나 스스로 나를 작은 거인이라고 생각해요.

독립해서 자리 잡기까지 함께한 동료 이야기

함께 일했던 동료나 직원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까요?

대부분 남자 동료였어요. 직원도 남자였는데 둘도 됐다가 하나였다가 했어요. 제가 여기 이사 와서도 일꾼 둘이랑 같이했는데, 이런 다이가 3개 있었거든요. 직원 중에는 죽은 친구도 있지만, 나랑 오래 일했던 직원 하나는 지금도 만나요. 애들 엄마도 알고 오래된 친구인데, 경비 나가가지고 밤에 보초 서다가 머리가 아파갔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부터 병원 생활하는 거야.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랬다가. 그게 자꾸 세월이 가니까 지금은 상대방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몸이 좀 불편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생일날은 꼭 만나러 가요.

예전에 한창 일 많았을 때 애들 엄마도 나와서 도와줬어요. 이런 문짝을 짜면은 틀 안쪽으로 옆에다가 붙이는 게 있어요. 그걸 다 해줬지. 그리고 여기다가 또 쫄 대가 들어가요. 합판 켜서. 그럼, 거기다가 못을 박아주는 걸 집사람이 나보다 잘해. 그런 일 해가면서 일꾼들 점심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먹는 사람은 별론데 하다못해 된장찌개 하나 끓여 와도 그냥 여자는 막 힘들은 거야. 집안일도 하고, 내 일도 도와주다 보니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그때 나 몰래 많이 울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무서워. 고생한 걸 아니까 마음적으로(허허허 웃으면서). 마누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지. 진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셋세는 안 내고 사네요.

그래도 당시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어요?

많았죠. 진짜 밤새워서 일을 할 정도로. 그 일을 맡다 보면은 막 일이 몰리게 돼. 그러면 그거 일을 하려면 밤새운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고려목공소는 그냥 아주 떼돈 버는 걸로 소문이 났어요. 목공도 그때는 문틀 같은 거를 이렇게 흠을 다 파가지고 우리가 조립을 해요. 지금은 그냥 다 현장에서 하지만 그때는 조립을 하면은 문틀 5개만 만들어도 용달차로 한 차요. 문틀 하나 해 가지고 다섯 개 짜면 5만 원인데 그거를 짜서 용달에 해서 보내야 되죠. 그 전에 ‘이구이구 용달차²⁾’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구이구 용달차를 많이 이용했죠! 당시 기사님들한테 고려목공소에서 일을 많이 줬죠. 용달차를 얼마나 불렀는지. 사실 문짝, 문틀 만들어서 벌어가지고 다 용달차 줬다니까!

사장님 주변에 좋은 분들이 항상 계시는 것 같아요. IMF 시절 전에 돈 떼먹은 사람 빼고요(하하하 웃으면서).

IMF 전에는 돈 많이 뜯겼어요. 당시에 건축업, 인테리어 상인들 계산이 아주 나빠요(고개를 이리저리 저으면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뭐 재룻값 받고 물건 나갈 때 돈 받지만, 그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 딱 자가용 타고 넥타이하고 인테리어 업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오십 프로도 안 줘. 한 30만 원 정도 걸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 가고 나면 나는 열심히 작업하죠. 그때 창살을 엄청 많이 했어요. 문 만들면 가서 설치할 때까지는 업자가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문 설치 다 하고 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그날 업자가 ‘뭐 이틀 있다 와라 삼일 있다 와라.’ 그래요. 문 설치 완료했다고 딱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걸로

2) 당시에 그 지역에서 물건 배달해주는 용달차를 칭하던 용어. 상호명은 아니라고 함

거의 끝이에요. 돈 받으러 가면 없고. 돈 받으러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업자가 건물을 지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 받고 이 사람이 판 데다가 또 집을 지어. 또 그러면 50만 원 이제 받아야 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나는 돈을 너무 많이 떼이고 그랬어요. 우리뿐 아니라 IMF 전에는 아마 목공 여기에서는 돈 못 받은 거 많았을 거예요. 근데 IMF 후로는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어. 일단 선금을 받고 일하고, 제작 완료되면 잔금 받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해요.



미추홀공예사 사장님과 에너지 충전 시간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하고 제일 친하신 미추홀공예 사장님께서 IMF 시절 지난 후에 이곳에 자리 잡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친하게 되셨어요?

원래 내가 미추홀공예 자리에 있을 당시에 미추홀공예 사장(상감기법 장인)은 서구 쪽에서 엄청 큰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었던라고요. 당시 서구에 목공예사들이 많이 모여서 했더라고요. 거기서 직원도 많이 두고, 아주 잘하다가 우리 옆 가게로 이사 왔더라고요. 한 10년 됐는데, 일하는 부분에

서 잘 맞고, 서로 이해하니깐 친해진 것 같아요. 꼭 이 사람이랑 오후에 한 4시 정도 되면 아주 습관적으로 여기서 그냥 한잔 먹고, 또 조금 좋을 때는 나가서 대폿집 가서 한잔하고 그래요. 주로 대폿집에 가는데 조금 되는 날은 장어집 가서 한잔, 곱창집 가서 한잔. 안 그러면 여기서 한잔 마시고. 좋아요. 일하는 데 힘도 나고.

여기 송의 목공예마을을 걸어 다녀보면 ‘00목공소’도 있고 ‘00목공예’도 있는데 서로 다른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다르죠. 그 차이가 목공소는 지금도 실제로 보면 왜 그 공장 문 파는 데 있잖아요? 공장에서 가져다가 샐시도 팔고.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다 간판이 목공소예요. 원래 말 그대로 창살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끼어 맞추고, 문짝도 만들고, 문틀도 만들고 하는 곳이 목공소*고, 그다음에 무슨 공예 조각하고 다른 것도 만드는 곳을 목공예*로 알고 있어요.

문틀과 문짝이 만들어지기까지

미추홀공예 사장님과 함께 작업하신다고 하시니 저절로 여기 있는 기계를 보게 되었는데, 매우 다양한 기계가 있네요? 어떤 기계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게 각끝* 그리고 자동 대패, 기계 대패, 요게 세깁*인데, 미추홀 공예사 거보다 우리는 간단한 연장이예요. 각끝은 문짝 같은 걸 잘 때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 문짝 잘 때 구멍 뚫어서 맞춰야 하는 거. 이따가 저거 뚫어 갖고 축*도 내서 그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어요. 세깁은 이제 자르기도 하고 켜기도 한다는 뜻이고. 말하면 톱처럼 자르고 키고 하는 세깁이고, 우리나라 말인

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은 거 요거는 기계 대패 말하자면 일반 대패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저쪽 거는 자동 대패 그런 정도로. 이 기계들은 사용한 지 한 40년 됐어요.

이거랑 저거랑(자동대패, 수동대패) 같이 사 왔는데 한성(상표)이든가 어디 붙었을지도 몰라요. 어딘가에 붙어 있을 거예요. 40년 지났지만 나 끝날 때까지는 쓸 거예요. 근데 진짜는 기계를 내가 써야지, 다른 사람은 쓰게 하면 안 돼. 쓰는 사람이 기계 저기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기계 막 돌아갈 때 소리만 들어도 '아! 뭐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여기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거야. 만약 목공 하는 사람이 온다고 그래도 이걸 빌려주면 안 돼요. 연장을 다루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국산이어도 여태 고장 한 번 안 났고, 만약에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리스* 넣는 구멍이 있어요. 그걸로 해결됐었는데, 지금 저쪽 자동 대패라고 그러는 건 로라*가 잘 안 굴러 가가지고 한 번 가서 고쳐온 적이 있어요. 문틀과 문짝 만들 때 이 4가지 기계는 꼭 있어야 해요.



자동대패



수동대패

그리고 옛날 짜던 문틀하고 지금 짜는 문틀하고는 또 틀리는 게. 지금 짜는 문틀은 아시나 모르겠지만 ‘하이샤시 창문’을 아시나 요? 하이샤시 창문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나무 문은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했었고, 이렇게 ‘ㄷ’ 자로 짜갓고 격자로 짜서 했는데 샤시문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틈이 조금 작아도 괜찮고 커도 괜찮더라고요. 그전에 격자로 따는 건 작업하기 아주 불편했어. 근데 샤시한 거를 보면서 나무 문 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흠 들어가는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작아도 괜찮고, 조금 깊어도 괜찮다고 응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각골

나무는 어떤 종류로 어떻게 구매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문틀, 문짝은 나왕*. 그리고 이제 지금 쓰는 거는 미송*. 그다음에 주로 홍송*. 나왕은 우리나라 건 아니죠. 우리나라 소나무는 물려서 사용하기 어려워요. 뭐 별 나무가 다 많이 있겠지만 저는 문짝을 쪽 짜 오면서 그저 나왕으로만 했어요. 주로 옛날에 도원동에서 문틀 막 짜가지고 팔고 많이 했을 때도 나왕이고요. 미송은 나왕보다 좀 고급이라 옷질*이고, 그다음에 미송보다 더 옷질은 홍송이에요. 문틀, 문짝 만드는 홍송 같은 거는 돈이 좀 많은 사람이 하고, 이것(미송)도 나왕보다 좀 비싸니까 이제 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창살 작품



나무는 동명 목재 합판(목재소)에 주문하면 여기로 배송돼요. 우리가 직접 가서 사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목재상)하고 거래한 지가 한 10년이 넘어 오랜 단골이라 조금 더 갖다주기도 해요. 지금 사장 전에는 진흥 박 사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좋았어요. 그 양반이랑 거래하다가 그 양반이 안 오게 돼서 그 후로 동명 사장이랑 거래했어요.

가격대는 지금은 돈 만 원대인데, 나왕이나 미송이나 거의 같아요. 되게 비싸진 거예요. 가끔 미추홀이랑 같이 가서 사 올 때도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나무가 아주 긴 놈하고 짧은 놈하고 좀 가격이 틀려요. 긴 거는 엇그저께도 사 왔지만 8,500원이었어요. 한 사이*가 30mm 각으로 3600짜리 하나가 한 사이예요.

요새는 일본식 풍의 나무 문짝을 많이 해간다면 옛날에는 저런 한옥 모양으로 많이 했나요?

그때는 한옥 문인데, 이 양식 문이 완자라고. 우리는 보통 옛날에 한식 문이고, 그것을 조금 고급으로 하려면 이 완자 식으로 했어요. 이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요즘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려 가지고 와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한옥 문에서 좀 변화시켜서 일본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쪽 길게 하는 문 형태로요.

문짝 디자인 보는 책이 여기 있는데, 이런 거(책에 있는

무늬를 가리키면서) 어렵죠. 보통 이렇게 막 꺾어지고 하는 거는 완자라고 그랬어요. 이 완자무늬는 일본 말로 ‘요코스지*’, 이거는 일본 말로 ‘다데스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일본 문(책에 있는 무늬를 가리키면서)인데, 한식 문이 그래도 지금도 보기가 제일 나아요.

문짝 창살을 보면 무늬가 이렇게 민자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늬 이름이 다른가요?

푹 파인 거를 등미리*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도 옛날에 짚었어요(샘플을 보여주면서). 민자보다 기계를 한 번 더 들어가야 하는 거라 그만큼 공력이 더 들죠. 예전에 송도 회장님이라 그러든가? 그 할머니네 집에 등미리가 들어간 문짝을 짜고 남은 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전시품을 보면 나무색 그대로인 문짝도 있고, 색이 칠해져 있는 문짝도 있는데 사장님께서 칠을 직접 하시나요?

색칠은 공장에서 해 온 거예요. 그전에 우리 거래하던 칠 공장이 여기 문학동에 있었어요. 일 많이 할 때는 칠 공장으로 많이 갔죠. 저 송도 신도시 맨 처음에 생길 때 거짓말 조금 뺏 튀겨서 우리 거래처에서 창살 문을 엄청 많이 갔어요. 진짜 한 20% 우리 거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 사장이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해서 그만두고, 공장장으로 있던 사람이 저 김포 쪽으로 이사 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랑 거래를 했죠. 근데 이제는 일이 없다 보니까 거래를 안 해요. 지금도 칠하게 되면 미추홀 공예사에서 하고, 나는 투명이나 그냥 자연적인 나무색이나 하지 색깔 내고 그러는 건 못 해요. 투명 락카로 나무색이 나오면서 아주 맨질 맨질하고 그래요. 손님이 원하게 되면 그건 해요.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뿌리는 스프레이로 해요.

그리고 가운데 살 들어가는 속에는 솔로 해야죠.

가구 짤 때 제가 봤던 접착제는 본드였는데, 문틀 할 때도 같은 본드를 사용하시나요?

문틀은 구멍에 맞춰서 끼우고, 나사로 하는 거라 본드를 안 써요. 그런데 문짝 만들 때나 창살 만들 때 그리고 가구 만들 때는 꼭 들어가야 돼요. 이름은 '505'도 있고 뭐 공수가 다 다르지만. 저는 '505' 목재 본드를 써요. 우리 같이 조금씩 제작하는 거는 저 목재 본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나무라는 건 마르게 돼 있으니, 마르면 헐렁헐렁 해져. 그런데 이 목재 본드로 딱 해놓으면 짱짱하죠. 이런 데 붙여서 했을 때 나무까지 같이 붙어서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아마 저거 만든 회사는 진짜 땡큐예요(하하하).

그 전에 없을 때는 아교*라는 게 이렇게 기다랗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 사다가 항고(반합)처럼 생긴 용기에 물 넣고 아교를 녹이는 거예요. 지금도 상 만드는 데 있잖아요? 옛날 상.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는 아교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 구린내도 나고 그러죠.

작업하고 나면 톱밥이 많이 나오던데 톱밥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톱밥은 그전에는 부천 쪽에서 개 기르는 데에서 가져갔어요. 개가 똥을 막 싸고 그러니까 바닥에 다 깔아줘야 된 대요. 그 사람이 가져가고, 또 닭 기르는 사람이 가져가고. 또 과수원 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좋아하는데, 저게 문틀 열 개만 짜도 몇 포대가 나와요. 엄청 많이 갈아야 되니까. 지금 가져가는 양반도 태안에 감나무 과수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나무밭에 뿌려 놓으면 퇴비로 좋다고. 그래서 여기다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톱밥은 태울 수 없어서 돈 내고 버려야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니

까 고마워요.

나무 톱밥 날리고 접착제 쓰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직업병은 따로 없으세요?

현재는 나보고 유난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이 없으면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추홀 사장도 나보고 ‘사장님은 뭐 그냥’ 이래요. 근데 체질 자체가 일하면 하나도 안 아파요. 허리도 안 아파. 일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허리 아프고, 몸뚱이가 막 이렇게 날씬해져.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앞으로의 계획과 남기고 싶은 이야기

목공소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지금 몇 살까지는 계획 없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꼭 만들고 싶은 가구나 문틀 이런 게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이거만큼은 내가 하나로 내 작품으로 남겨놓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그냥 뭐. 지금은 다른 거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문틀, 문짝만 잘하고.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는 거의 다 미추홀이랑 같이하고. 내가 다 할 때까지 문틀 문짝은 변함이 없이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특별하게 없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는 말. 지금 세월도 그렇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그런 것도 없고. 나 지금 하던 대로 문틀 문

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려고요. 가끔 우리 손자가 오면 “장인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녀석이 언제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손자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주 자랑스러워요.

정말 ‘장인 할아버지’ 맞으십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행복한 장인 할아버지’요.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기록해주신다니 제가 더 많이 감사합니다.



고려목공소

주요작업 : 문짝, 문틀 제작 및 가구 제작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293

나무를 닦은 듯 편안한 목공인

문짝은 집 다 지은 후 마지막으로 문짝 달고 나서
'이제 집이 다 됐구나'라는 느낌을 주죠.







보령목공 이복섭 (1964년생)

보령에서 태어나 15살에 고향을 떠나와, 18세 때부터 목공 일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용인, 도원역 인근, 용현동, 신흥동 등의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왔다. 91년도부터 현재 자리에서 ‘보령목공’을 시작하여 31년째 운영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8월 29일, 22년 9월 8일
면담, 원고정리 표기자
면담지원 허은영

어린시절과 가족이야기

어릴 적 고향에서 지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삼남이녀 중 둘째. 위에 형님 계십니다. 어릴 때는 시골 보령, 워낙 산골이었으니까, 보령군 미산면 비포장 도로예요. 아마 전기가 70년대 초반에 들어왔을 거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거기서 어렸을 때 시골 사람들 다 뻥하죠. 밭농사 논농사 짓고 겨울방학 때는 형들 따라서 나이가 어리니까 지게는 못 지고 멜빵이라고 해가지고 어깨다가 새끼줄 해가지고 나무를 뒤에 싣고 내려오는 거지. 그리고 위에 형들은 지게로다가 나무해서 내려오고. 겨울에는 그렇게 나무하고 여름이나 이런 때는 농사 지은 거 거둬들이고, 밭농사 짓고 논농사 짓고 고구마 캐고 뭐 그런 거지.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살았죠.

겨울에는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나무하러 가요. 나무해서 쌓아놔야 겨울에 불 때니까. 그때는 연탄 이런 거 없고 보일러도 없고 거의 99%는 아마 나무이지 않을까 싶어요. 연탄 때는 집은 아마 조금 부자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자치기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팽이 돌리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많이 놀았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냥 나왔어요. 친구들과하고 같이. 중학교 졸업을 못 했지.

사장님 간판도 고향 이름을 딴 보령 목공이잖아요. 혹시 고향 이름을 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내 고향이 그냥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간판을 뭐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한하는데 나는 그냥 고향이 좋았으니까. 시골 태어난 데가.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운동하러 가서 탁구장에서 만났어요. 친구들과하고 탁구 치러 온 집사람을 만났죠. 거기서 연이 돼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랬죠. 저는 집사람 만난 거 후회 안 하죠. 집사람이 나를 만난 게 후회일지 모르지만.

현재 일하시고 계신 이 목공 일에 대해서 가족들의 호응은 어떤 편인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때만 해도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활성화된 직업 중에 하나죠. 그때 당시에 목공소 철공소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때죠. 근데 어른들 말씀이 ‘깎는 직업’은 ‘가난하게 산다.’ 이런 말이 있었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목수는 가난하게 산다.’ 목공소에서는 미신 같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도마 밀어달라고 그러면 절대 못 밀었어요. 손 다친다고. 지금은 막 밀어줘요.

자녀들은 사장님이 하시는 일 하고 연관이 있는 일을 하나요?

큰아이는 공항에 근무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예술 쪽이에요. 여기 와서 한 번 촬영도 했어요. 학교에 내는 과제를 여기 와서 촬영하고 했죠. 대학은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출 쪽으로 공부해요. 근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외고 나와 가지고 갑자기 한예종 들어가서 영화 쪽 공부한다고 하니까 반대했죠. 사실상 예술 쪽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드물잖아요.

오랜 세월을 이쪽으로 한 우물만 파고 계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훗날에 사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으시겠어요?

이거 한 가지 직업으로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다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건강만 허락하면은 한 70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게 직장생활보다는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뭘 하나 만들면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애들도 뭐 아빠 직업에 대해서 지금도 좋게 봐요. 긍정적으로. 큰돈은 못 벌지마는 뭐랄까 굴곡이 거의 없으니까 평탄하지 뭐. IMF든 뭐든 경기가 어려워도 다 그냥 헤쳐 나가니까.

부평에서부터 송의동에 오기까지

목공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15살에 고향 떠나와서 나이도 어린 상태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뭐 배고픈 시절이라 그냥 세끼 밥해주고 용돈만 주면 그냥 가서 일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이 일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치 않게 형님 친구분이 목공 쪽 직장생활을 한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는데 그 형이 추천해 준 겁니다. 조그마한 목공소. 그 사람도 월급쟁이였어. 사장은 따로 있었지. 그런데 갔더니만 그냥 맨 뒷일만 시켰었죠. 거기서 좀 일 하다가 부평에 있는 시장 로타리 쪽에 보면 목공소가 좀 많이 있었어요. 78년도에 한일목공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부평에 한두 개만 있고 다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여섯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잠깐 꼬마 생활을 했죠. 한 2~3년 그러다가 회의를 느껴졌고 이 직업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회사 생활을 잠깐 했었지. 18살에 용인에 있는 외삼촌이 다니는 지관 공장이라고, 실 감는 실패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다

가 회사생활이 아닌 것 같아 1년 정도 다니다 그만뒀죠. 그 후 공장에서 가까운 용인 동네에 현대 건업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회사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냥 공돌이 생활이야. 그러다가 목공소가 하나 있길래 거길 아마 내가 직접 찾아간 것 같아. 거기서 일을 배워가지고 진짜 이제 일다운 일을 배웠지. 열여덟 살 때 거기서 한 몇 년 배웠어요.

현대 거기가 김춘식이었나 그 양반 지금은 돌아가셨을지 모르겠다. 그때는 전부 무늬목 작업이었어요. 그 집은 전부 맞춤 작업만 했어요. 옛날에는 도원동에 유명한 기성문 가게들이 짝 있었잖아요. 도원역 앞에 지금은 다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양쪽으로다가 짝 있었거든요. 그런 데는 기성문 판매하고 문짝 제작하고 그런 데였거든. 근데 그 집은 용인에서 고급 문짝만 짰어요. 전부 무늬목 작업해서 하는.

그다음에 80년대 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함병호 씨라고 용현 시장 앞에 대로변에 목공소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간판 이름이 따로 거의 없었고 그냥 함씨 목공소라고 했는데 거기서 몇 년 있었지 또. 그때부터는 이제 중바(중급 기술자)로 들어갔지. 중기술자로 스무 살 초반. 거기서 일하면서 취미 겸, 대회도 나가려고 권투 했었죠. 제물포역 앞에 금강체육관도 다니고, 새벽에 일어나서 송도 유원지까지 달리기 운동하고 그랬죠. 그때는 한참 젊었을 때.

그 후로 또 신흥동에 노씨 목공소로 갔었죠. 그때가 아마 80년대 중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노씨 목공소에서 한 2~3년 있었는데, 거기는 학교 문짝, 학교 창문 이런 거 전문이었는데 거기도 오래된 전통 있는 집이었죠. 거기서 하다가 이제 도원동으로 왔죠. 도원동 대우목공소에서 몇 년 있다가 그다음에 웅진목공소로 갔어요. 도원 목공거리라고 그 도원역 방향에

지금은 다 헐렸지마는 그쪽에 있었어요.

거기는 목공소가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서로서로 일하다가 저쪽이 대우가 좋다면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일 잘한다 그러면 옮겨 다니는 그런 것도 있었죠. 사정상 이쪽이 일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이라도 인건비 줄이려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내가 나가주면 주인 입장에서는 둘이 일하다가 한 사람이 되는 거야. 보통 그 당시에 목공소 일이 많아가지고 보통 두세 명이 있었어요. 도원동의 목공 시절이 그때 제일 호황기였어요. 그때가 80년대 아시안게임 시작하기 전 그때는 목공이 완전히 호황기였어요.

지금까지를 생각하면 목공 산업에선 그때가 가장 호황기였었나요?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까지 그때가 아주 호황이었지. 물론 그전에도 호황이었지만 그때는 내가 꼬마 생활했을 때고 그때도 엄청 일이 많았었죠. 왜 호황이었냐면 인천에 전국 체전이 그때 있어가지고 시에서 이것저것 보조해 줄 때인 것 같기도 하고, 정비 차원에서 한 거지. 그 당시에만 해도 전국 체전이 알아줬잖아요. 전국에서 다 모이니깐 우리 시를 조금 달라 보이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개조하고 했던 시절이라.

초보 시절 지나고 이제 중견급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웅진목공소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내가 기술자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책임자까지 했지. 기술자 한 사람이 자기가 목공소를 차린다고 나갔고 그래서 내가 기술자가 돼서 책임자가 된 거죠. 책임자가 되면은 문짝이나 원목 가구 제작할 때 쓰미를 댑요. 문짝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누고 더하고 해야 해요. 창문이 예를 들어서 몇 짝짜리다 하면 거

기를 이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문 한 짝에 치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려야 돼. 쉽게 말하면 설계 같은 건데 그걸 우리는 쓰미 논다고 하는데, 기술자가 그거 해줘야 그다음 사람이 각종 기계작업을 하고 다 해서 짜 맞추는 거죠. 거기서 한 십 년 하다가 이제 91년도에 현재 송의동으로 넘어와서 창업을 한 거지.

도원동에서 배다리는 안 거치셨나 봐요?

배다리는 사실은 목공이 없었어요. 배다리는 공예 조각 그리고 대나무 공예 그런 쪽으로 있었지. 배다리는 목공소는 거의 없었어요. 공예 쪽으로 있어서 간판 공예.

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목공이고, 목공하고 공예하고 크게는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간판에서 보는 것처럼 사장님은 조각이나 공예 쪽이 아니시고 목공 쪽이신 거죠.

우리는 다대구라고도 하고 자꾸 일본말 쓰는데 일할 때 일본말을 배워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창호 부문이라고 해야 돼. 공예 하는 사람들은 분야가 완전히 다른데 지금은 약간 희석됐어요. 크게 다른 점은 뭐라고 해야 되나 목공은 어떻게 보면 제작이고 공예는 가공이라고 봐야겠다. 그리고 공예 쪽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예 쪽은 오리고 파내고 그런 쪽이죠. 우리는 원목을 갖다가 대패 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입장이죠. 그리고 주로 목공은 우리 같은 경우 주로 문짝이죠. 원목 문짝 뭐 한옥 문짝 주로 이런 쪽으로 하지요. 지금은 공예 하는 사람들이 가구도 짜고 문짝도 짜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공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문짝만 주로 해요. 내 분야만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제 송의동으로 오신 거죠? 지금은 사장님 개인 사업장이시잖아요. 언제부터 개인 사업으로 전환이 됐나요?

그때가 91년도 송의동 오면서요. 31~32년 전에 오면서 지금 이 자리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원래는 저 끝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아는 형님이랑 같이하다가 그 형님이 그만두는 바람에 내가 이 가게를 얻었죠. 동업을 하다가 저 가게(현 가게 옆에 다른 한 칸)가 또 나오는 바람에 저 가게를 얻었지. 여기는 우리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다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다 한 사람 거예요. 몇 사람 빼고는 다 그렇죠. 여기 송의동에선 기성 문짜도 했고. 저쪽 옆에 가게 하나 늘리면서 저걸 늘린 것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IMF 시절

여기 송의동에 계시면서 IMF를 겪으셨잖아요. 그 당시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엄청 바빴어요. IMF 때 많이들 퇴직하고 잘리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가게를 차리기 시작한 거야. 체인점이든 가게를 차려. 그러면 인테리어를 꾸미다 보면 일식집이면 일식 문짜, 한식집이면 한식 문짜, 일반 체인점이면 체인점 문짜 그 일이 나한테 오는 거지. 그래서 일이 엄청 바빴어요.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 김밥 천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김밥천국에 벽에 보편은 한옥문짜으로 이렇게 이미테이션으로 창호지 부착해서 벽 인테리어 문짜 있죠. 가게 하나 당 그게 보통 몇 장씩 들어가요. 또 체인점 지짐이라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 출입문 보편은 다 나무문이었어요. 목재 문 유리 끼갖고 이렇게 문살 약

간 넣어가지고. 그리고 지짐이 가고 나니까 이제 강호동 체인 삼육구 체인 이런 거 개네들이 엄청 또 해가지고 업자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문짝을 짜달라고. 홍대 쪽에 주로 많이 서울 쪽에.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자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방면에서 오죠. 다양하게.

나무 가공의 과거와 현재

IMF 시절 때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사장님한테는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그때가 호황기였다라는 사장님 말씀대로 굴곡진 적 없이 평탄한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애들도 굳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거 하지는 않았으니까. 학교도 다 지들 공부도 잘했고 또 지네들이 알아서 잘 간 것도 있고 아빠는 옆에서 그냥 살짝 도움만 주는 것뿐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가족 건강하고 내 건강. 가장이 건강을 해야죠. 저는 사실은 목표가 이거 목공소를 차리고 나서 50세까지만 하고 50세 이후부터는 어려운 일 안 하고, 하긴 하되 좀 내 개인적으로 생활을 누리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했던 건데 그게 목표대로 안 되더라고요. 막상 오십이 됐는데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또 하는 일이 그다지 그렇게 손 놓고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힘든 일도 아니고.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건 있지만은 갈수록 편해져요. 기계가 잘 나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1차 가공을 해오는 경우가 많고 2차 가공까지 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는 다 잘라서 대패질까지 했지만은 대패질을 다 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대패질을 많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힘든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재만 가져다가 우리가 절단 해서 기술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힘든 일차 이차 가공을 패스하는 거지. 옛날에는 나무 건조까지 다 했어요. 그때는 수입목이 아예 없고 제재목, 그때는 수입목이 없었어요. 통나무 갔다가 다 그랬어요. 원목으로 들어오면 국내에서 제재를 해서 그 쌍목을 사다가 어디 공터에 있으면 나무를 바람에 말렸지. 그리고 다 말린 걸 갖다가 깎아서 가공하고 문짝 만들고 문틀 만들고 그랬죠.

나무 싸놓은 게 저쪽 이쪽 사이트에 쌓아놓은 거 있는데 저거(뒷마당을 가리키며) 지금은 수입목을 다 가져오는데 수입목이 건조가 거의 돼요. 수입에서 배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몇 개월씩 걸리니까 그 컨테이너 안에서 건조가 되고 또 여기 국내에 들어와서 야적장*에다가 싸놓으니까 또 건조가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올 때는 80% 정도는 건조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서 굳이 건조를 잘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일하기가 좀 편하죠. 다만 자재 이런 것은 좀 비싸졌죠.

원목 문짝이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대로다가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제작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자재비 30% 내외 나머지 70%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양에 따라서 틀린 데, 액수가 크면은 당연히 자재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수입을 조금 적게 책정을 하죠. 왜냐면 단가가 매출이 너무 많은 거니까 그런 건 부가가치가 많이 남게끔 주질 않지 업체에서. 그래도 보통 최

하 50%는 마진으로 잡죠.

무늬목 문짝

목공 일 시작 초반에 무늬목 문짝 배우셨다고 했는데 무늬목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무늬목은 말 그대로다가 나무를 얇게 깎아서 문짝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나무로 짠 방 문짝 있죠. 지금도 오래된 집 보면 무늬목으로다 짜가지고 한 거 있어요. 무늬목을 안 붙이면 그냥 합판 문짝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위에다가 각종 무늬목을 붙이는 거예요. 특수목 그런 것은 비싸고 옛날에는 이티무늬목이 제일 저렴했어요. 좀 비싼 원목들은 홍송, 월넛, 오크, 부빙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몇 가지 그런 목재는 수입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내 나무 갖고는 무늬목을 못 만들어요. 그 무늬목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원목을 수입해다가 그걸 얇게 깎아요. 무늬목 공장이라고 그걸 판매하는 데 가서 목공소에서 사다가 목공소에서는 문짝을 제작한 다음에 그 무늬목을 본드로다가 붙여서 이쁘게 내는 거죠. 지금은 그 위에다 무늬목 안 붙이고 유색 페인트 바로 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전에 다 무늬목을 붙였어요.

창호의 변화

지금은 무늬목이 거의 없는 거죠? 이후로 창호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무늬목은 거의 사양길이고 그 이후는 기성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플라스틱 아니면 MDF*로 해서 필름이 붙여져서 나왔지. 필름 문짝이 나오고 그제 좀 들어가면서 ABS* 문짝이 나오기 시작했지. 방문들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원목 문짝. 아예 원목으로 짜는 문짝. 우리가 옛날에는 합판 위에도 문짝을 짰 다음에 원목 마냥 보이기 위해서 무늬목을 발랐어. 그러면 사람들이 ‘원목 문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무늬목을 안 붙이고 원목을 갖다가 문짝을 짜요. 지금은 통원목을 갖다가 그냥 두껍게. 이거 무겁겠죠. 그리고 비싸요. 이런 원목 문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 한옥 아니면은 고급 음식점도. 음식점은 이제 한옥 문살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원목 문짝 같은 경우는 개인 별장이라든가 아니면 단독 주택 그리고 아파트에도 물론 들어가요. ABS가 싫어가지고 원목으로 해달라는 사람들 요즘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수준하고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문짝의 흐름이 무늬목부터 철제, 플라스틱 등 변화가 많은데 사장님은 여전히 원목 문짝을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늬목 문짝은 없어지고, 그리고 나무 문짝들은 자꾸 없어지잖아요. 나무 창문이 다 하이샷시로 바뀌었고, 근데 2~30년 전만 해도 나무 창문들이 많았어요. 밖에다 알루미늄이 있고 2차가 그리고 안으로 다 이중창으로 해갖고, 내부에는 다 목재 창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지금은 샷시로 이중창으로다가 다 하는 바람에 목재 창문이 이제 거의 100% 없어졌다고 봐야 돼. 그래도 이 한옥이라는 문살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활성화될 거고 아무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옥 문짝 한옥 문살 이런 걸로다가 좀 오래

하게 되는 거죠.

나무 문짝은 아무리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도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선택 사항이 나무가 비싸고 무한정 나오는 목재도 아니고 자연환경도 연관돼 있고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하다 보니 수요가 줄 수밖에 없지만 나무 수요는 계속 있어요. 일부에서 꾸준히 나무를 선호하니까 목재 산업이 지금 그냥 호황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되는데 목재는 안 없어져요. 인간이 사는 동안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인조적으로다가 문짝 비슷하게 잘 만든다고 해도 인조적으로 만든 건 자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연목으로 이걸 계속

해도 옛날같이 일이 엄청 바쁘지 않아도 그냥 나 일하는 데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라 한 가지 원목 일을 계속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제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도 제작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거리가 계속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죠.



원목 문짝

목재는 주로 뭐를 쓰세요?

목재는 100% 다 수입 원목인데요. 초창기 때는 나왕을 썼죠. 그 당시에는 수입 나왕인데 제재목이라고 해가지고 원목을 외국에서 들여다가 국내에서 치수별로 제재를 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사다가 건조해. 다음에 그거 갖다가 대패질로 해서 문짝을 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해외에서 자기네들이 다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버려요. 왜냐면은 원목만 달랑 수출해 버리니까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예 치수별로 가공해서 수출을 시키는 거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그쪽에서는 이렇게 가공해서 각 나라로 수출하는 거야. 지금은 생활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고급 목재를 많이 쓰죠.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미송 햄록이라고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햄록이 추운 지방 계 보편화돼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홍송 오크목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햄록이 제일 많이 사용하죠. 한옥 문짝을 주로 하고 원목 문짝 하더라도 나왕이나 햄록 그 두 가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저렴한 게 스프러스목재*라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씩 하고.



가공한 목재들

나무를 평생토록 접하셨는데 나무에 대한 특별한 느낌이 있으세요?

그냥 나무는 말 그대로 편안함. 인간한테 이 나무 문짝을 달아놓은 거 하고 안 달아놓은 거 하고 집 안에 완전히 분위기가 틀려요. 옛날엔 문짝 달으려고 하면은 막 잔치 벌여 줬어요. 닭 삶아서 주고 고기 삶아서 막 먹이고 그랬어요. 우리가 문짝 시공 나가면은 집을 짓고 나서 문짝 달았을 때 이제 집이 다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문짝 다는 것을 중요시 여겼죠. 지금도 뭐 중요시는 하죠.

창호가 바뀌면서 생산체제도 바뀌었을 텐데요. 어떤 방식인지요?

사용하는 나무질은 똑같은데 문제는 대량생산 하는 공장은 기계 자동화 시설이 돼 있고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 기술자들이 60대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마냥 목공소 하다가 혼자 못 버티니까 취직하는 거야. 회사로다가. 그러면 그 회사에 기술자로 들어가서 문짝을 짜는 거야 그런 식이지. 1인 사업장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 동네만 해도 뭐 고려하고 저하고 둘뿐이 더 있어요? 문짝 제대로 오리지널로 짤 수 있는 사람은 거기하고 나하고 둘 뿐이 없어요.



한옥문짝

말씀을 듣다 보니 희소가치의 중요성이나 가치와 연관하여 이런 전통 기법이 사라지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데. 1인 사업자는 사라진다고 보고 이 제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제일 큰 영림이라든가 또 우딘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문짝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개네들은 이제 이런 고급 목재로다가 짜는 게 아니고 변형되게 ABS문짝, ABS도어 이런 거 아니면 필름 그런 걸 로다가 주로 제작하죠.

목공 관련 용어와 도구들

일과 관련한 말씀하실 때 일본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던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목수 선배들, 지금 거의 돌아가셨겠죠. 밑에서 일 배울 때 보면은 밀리(mm)도 사실은 안 썼어요. 밀리도 안 쓰고 다 일본어 했어요. 1mm가 일본어로 따지면 고링이야.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개들이 와서 건축을 다 퍼뜨렸어요. 그때부터 문짝 짜는 법이나 이런 걸 그때 당시에 개들이 와서 다 가르치고 다 배웠지. 그래서 목공 기계들도 일제가 많아요.



완자문살

옛날에는 어쨌든 뭐 일본어로 다 했어요. 목공 손 연장들, 대패도 지금 생각나는 게 단다이 나가다이 이렇게 있어요. 단다이는 짧은 거 나가다이는 좀 긴 거. 그리고 시야기 대패 아라다페 이런 식. 시야기는 이제 뭐 마지막에 깨끗이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1mm 2mm 3mm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밀리로다가 계산한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다 치수로 계산했어요. 이지부 니부 산부 요부 고부 이렇게. 한 치 두 치 세 치 한 자 두 자 세 자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자꾸 변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센티로 밀리로 계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밀리로 쓰게 돼요. 지금 자도 치수 자가 없어지고 다 밀리 자로 써요. 옛날에는 치수 자하고 밀리 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 썼어요.

가공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여기 큰 기계는 지금 다 국내산이에요. 그전에 제작했던 것들. 오래된 거예요. 물론 그전일까지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마 중고로 다 구입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고장 나면 간단한 건 고쳐가면서 쓰는데 대우시(대패기계) 같은 경우는 고장 한 번도 안 나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전에 만든 기계가 참 좋아요. 20년 이상 다 뒀어요. 그 나머지 기계 부



대우시(기계대패)



문짝 타공을 위한 각끌기계

속품들 톱날들 이런 것은 소모품이니까 새로 맞추고 새로 사고 그러는 거고. 장비들이 자꾸 업되고 좋은 게 나오니까 필요하면 사서 쓰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만 해도 저 타카(못 박는 기계)가 없었지요. 다 망치로 박았지. 저기 타카가 나온 지가 아마 글썽요 얼마나 됐나. 한 30년 됐으려나.

사장님 하시는 일이 도구를 다루고 기계를 다루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손을 보니까 일하시면서 사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15살 때 부평에서 초보 시절에 저기 대우시에다가(대패기계) 손가락이 들어가서 3개가 다 날아갔는데 나머지는 다 복원됐어요. 근데 이거 하나가 잘렸지. 완전히 오그러졌지. 붙일 수가 없어 가지고. 15살 때 손가락 병신이 됐다고, 친구랑 부평공원이 부평역 앞에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벤치도 있고 거기서 친구랑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이거 친구들이 손가락 병신 됐다고 약 올리면 그럼 어떡하냐, 그 당시에는 그랬지 어린 마음에. 그러고 나서 그 뒤로 특별히 다친 적 없어요.

거래하는 방식

오랫동안 서로 신뢰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고객이 있으신지요?

오랫동안이라,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세월과 그 유행에 따라서 사라지고 다시 보고 이러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체인사업 할 때는 체인 업자 한 2~3년 했었고 또 인테리어 업자, 한동안 주택

을 지을 때는 주택만 전문적으로 짓는 주택업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몇 년 거래하다가 이제 또 사라졌지. 또 지금은 대부분 인테리어 회사와 주로 거래하죠. 현재 하는 것은 스티디 카페라고 해갖고 스티디 카페에 아카시아 상품을 제작해서 납품하고 칠까지 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촬영 스튜디오 지금 한옥 스튜디오가 촬영할 때 좀 이용하지. 스튜디오는 빨간 문짝이 주로. 제 작품 사진 보려면 네이버에 제작 갤러리 들어가서 사진 직접 보셔도 돼요. 네이버 들어가서 인천 목공소 치면은 제 보령목공이 나와요. 왜냐하면 인천목공소라는 그 사이트를 뭐라고 하던데 그 도메인을 산 거지. 보령목공 하면 모르잖아. 사람들이. 내 제품 가져간 사람만 알지. 명함 가져간 사람만. 우리가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 목공 치면은 연계해서 보령목공 상호가 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세월의 변화라고 봐야죠. 옛날에는 건축업자들이 직접 다 일거리를 갖고 왔어요. 직접 우리한테 와서 맡기고 갔는데 지금은 인터넷 보고 다 거래하고. 그 사진 올린 거 보고 전화로 또는 인터넷 거래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지. 그러고 보니 아날로그에서 완전히 그냥 저걸로 변한 거네.

숭의동 목공예거리의 변화 모습

여기 숭의동 목공예거리 변화상에 대해 궁금한데요. 91년도에 오셨으니까 이제 30년 세월이 넘으셨는데 30년 전에 하고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변에 숭의 평화시장이라든가 깡시장이라고 하는 곳 등 기억나는 모습들이 있으세요?

청과물 시장이 깡시장이지요. 평화시장 청과물 시장 조금 변하기는 했죠. 주

위에 건물이 들어섰다는가 평화시장 건물 그대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장이 좀 활성화됐지만 지금은 시장 역할을 못 하고 있죠. 목공예거리도 사실은 여기보다는 도원동이 더 활성화됐었죠. 그 당시에는 도원동이 목공소가 양쪽으로다가 짝 있었지. 몇십 개가 있었지. 지금은 도원동은 오히려 축소되고 도원동이 아예 다 없어졌지. 지금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거의 다 옮긴 거죠.

30년 전에는 여기가 많았었어. 가게가 저 건너편에도 있었고 한 삼십 개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도원동에서 기성문 판매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열었으니까 기성문 판매하는 사람들은 문짝 판매. 그 나머지 제작하는 사람들. 실제로 문짝 제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없어지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보통 몇십 년씩 됐는데, 내가 이제 고참에 들어가죠. 제일 오래됐지. 거의 30년이니까 이 동네에서. 그리고 요 밑에 고려 목공 거기도 뭐 몇십 년 됐겠네. 그전에 먼저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만두었고 오래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제일 오래 있었다고 봐야죠. 거의. 물론 나하고 비슷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한 10년 전만 해도 활성화됐었죠. 나홀로 아파트들 들어서면서 그 자리 있던 사람들 쫓겨나갔잖아. 땅 주인이 파니까. 오성목공이나 공예들이 몇 군데 없어지고 옛날에는 굉장히 바빴죠. 지금은 조금 쇠퇴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도 말했지만, 목공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예 거리로 지정되고 나서부터 조금 알려진 거지. 또 송의 목공예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버스 정류장도 송의 목공예마을 앞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송의 공예마을인가 보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승의동 목공예거리가 특화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종업계끼리 모여 있는 거 하고 나 홀로 사업을 하는 거 하고 장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모여 있는 게 좋아요. 무조건. 고객 유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자기들만의 기술이 있고 자기들만의 제작법이 다 다르고 또 소비자가 그걸 알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맞추었다가 나중에는 아이 집이 더 잘 나오는구나, 그래서 자기만의 고객이 있고 뭐 굳이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몰려 있는 게 더 이득이죠.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으로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광고를 하니까 가게를 찾아와서 주문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주문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한 70%. 그냥 인터넷 사진만 보고 제가 제작한 사진만 보고 전화로 상담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제작하고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제품 받고 납품하고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요.

목공 일에 대한 소회

앞으로 목공예에 대한 어떤 바람 아니면 예측되는 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바람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건강 허락하는 데까지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죠. 내 일을 여기서 옮기지 않고 이 목공예 마을에서. 그게 바람이고 뭐 특별히 원하는 것은 이 마을 자체가 좀 오래 버텼으면 하는 바람이죠. 개발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 혼자 버텨서도 안 되는 거니까 다른 업체들도 오래 버티고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좀 버텼으면 하는 바람이 그거죠.

바쁘신 데 오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년 후에 여기 이 현장에서 다시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20년은 아니고 10년이라면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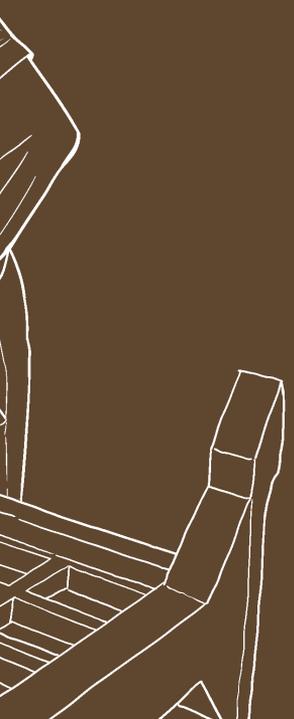
보령목공

주요작업 : 문틀, 문짝, 주문가구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17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목가구

‘맞춤 제작의 달인’ 김창선
노아목재

‘조각부터 인테리어까지, 일명 맥가이버’ 이길학
성원인테리어

‘윈스턴 스피커의 울림을 담은 장인’ 변경인
서울목공예

‘목공예 마을의 정직한 제페토’ 윤덕환
명진공예사

‘짜 맞춤으로 가구를 만드는 목심’ 조한일
모던목공방

‘목재의 숨결을 느끼며 나무를 바라보다’ 김종필
한일원목목공

맞춤 제작의 달인(達人)

의뢰인의 사진만 보고도 똑딱 도면을 파악해 맞춤 제작을 하는 목공 장인.
20년째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는 단골손님의 비결은 튼튼한 물건,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들겠다는 똑심 있는 철학 때문이었다.







노아목재 김창선 (1952년생)

영월에서 태어나 부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군대를 목공 주특기로 들어가 목공
파트 책임으로 목공소를 맡기도 했다. 이후 한국선박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은퇴 후 1999년부터 송의동에서 ‘노아목재’를 운영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11월 2일
면담, 원고정리 조연희
면담지원 최지은

인생 2회차, 목공을 시작하다

고향은 강원도 영월이야. 거기서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으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부천으로 올라왔죠. 뭐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군대 생활도 하고, 제대하고 그다음에 내가 연구소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한국선박연구소라고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그게 정부 통합이 되면서 한국 기계 연구소로 됐어요. 그래서 한국 기계 연구소로 되면서 대전의 연구단지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다가 기계 연구소 본부가 이제 창원에 있어요. 창원에서 근무하면서 창원기능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인천으로 왔지요. 인천으로 올 때는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생산기술연구원 이제 인천 내 부서가 있어서 인천으로 왔죠. 그리고 퇴직할 때는 서울 본사에서 퇴직했어요.

퇴직하고 목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분야가 비슷하니까요. 퇴직을 하고 1999년 노아목재를 시작했어요. 20년이 넘었죠. 1999년 11월 9일 사업자등록을 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군대 생활을 목공 주특기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방위들이 많아서 방위들을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제가 맡고 있었죠. 군대는 사천 3훈련비행단이라고 공군 기술공으로 목공 파트 책임으로 목공소를 맡고 있었어요.

사실 원래 목공은 안 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때 목형*이라고 그 주물을 할 때 만드는 모형이 있어요. 그거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선박 연구소에 가서 그것도 하면서 모형선도 만들면서 그 당시에 적성 검사를 했는데 나한테 이제 목재가 적성에 맞는다고 나왔어요. 학교가 직업 훈련 계통이다 보니까 적성 검사를 철저하게 했죠. 군대 가서 목공을



사장님이 만든 목공 제품

하고 전역한 후에는 연구소에 갔다가 이제 창원 기계연구소로 내려갔죠. 킴*이라는 기계 연구소라고 하이클래스가 있어요. 로봇도 만들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창원기능대학이라고 그때는 기능대학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2년간 공부하고 기능장을 땀죠. 그때는 창원기능대학을 졸업해야 기능장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땀어요.

목공을 처음 배우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나무를 좋아하고 적성에 맞으니까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목형을 했으니까 사실 목공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도 목공 반을 맡아서 집도 지어야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목공에 대한 전체적인 걸 알게 됐어요. 목공 파트에 배정되는 방위들도 아주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이 배정됐거든요. 목공 파트는 특기생들만 오는 곳이라 조각을 한 20년 했던 사람, 가구를 20년 했다는 사람들만 왔어요. 군대에 있을 때 바둑판도 많이 만들어서 전역하는 분들한테 선물도 했어요.

보통 목공 하시는 분들은 도면* 쪽이 좀 약한데, 목형 하는 분들이 도면에 밝아요. 퇴직하고 처음 여기에서 창업했을 때는 사실 조금 어눌했어요. 일을 시켜보기는 했어도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던 일들이라.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좀 어려운 일들은 다 나한테로 보내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분야들이 틀리면 안 해. 도면이 필요한 맞춤 제작이 들어오면 노아목재에 가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온 거야. 그러다 보니 손님 입장에서는 역지사지가 되는 거야. 원하는 물건을 내가 맞춰서 해주니까 다들 좋아하지.

정형화된 기존에 나온 디자인보다 맞춤을 많이 만드셨나 봐요.

거의 뭐 90% 이상이 맞춥이죠. 정형화된 이거 파티션. 맨 처음에는 파티션을 많이 만들었는데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깐 고객들은 비싸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싼 거 없냐고 그래. 그 당시에 중국에서 막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걸 보니깐 내가 만든 것에 한 3분의 1 가격도 안 돼. 고객들한테 가격을 맞춰줘야겠다 싶어서 제작하는 분들을 불렀죠.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인천 파티션 업체 총판으로 됐어요. 덕분에 파티



직접 제작한 바둑판

션이 필요한 분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죠. 내가 맞춤으로 만들면 30만 원, 25만 원 하는데, 기성품으로 받으면 10만 원, 15만 원 하니 싸잖아. 근데 관공서에서는 가격보다는 퀄리티를 따지잖아. 그래서 관공서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여러 개 제작했어. 그리고 나는 내가 못 하는 부분은 전문가나 장인들하고 협업해요. 옷칠 명인들이 있어요. 그런 명장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만든 것에 옷칠을 좀 해달라고 하지. 협업을 할 줄 아니까 전원 주택 같은 것도 지어주고 했어요.

목공을 하면서 힘든 적은 없으세요?

일은 안 힘들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어요. 가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힘들게 하는 고객이 있어요. 물론 업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고객 중에 해달라는 건 다 해줬는데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환불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왔던 아들이 “사장님 미안해요.”라고 해요. 나는 주문 받은 물건을 내가 쓴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튼튼하고 견고해요. 목형을 하나 만들면 그걸로 최소한 물건 오백 개, 천 개, 만 개는 찍어야 해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해서 좀 튼튼한 걸 만드는 습관이 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은 어떤 고객이 와서 이렇게 조그만 탁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 드렸더니 “사장님 뭐가 이렇게 무거워요. 나는 1년에 한두 번씩 옮겨야 하는데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근데 엄청 튼튼해요.”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게 있지. 목공은 튼튼한 것보다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게 좋은 거로구나. 그래서 지금은 많이 융화시켜놨지.

기억에 남는 작품과 20년 단골 이야기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뭐 특별히 국내에서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아요. 쉽게 얘기해서 불란서* 같은 데 가면 살롱*이라고 그래서 커피 마시고 거기는 술 문화니까. 이렇게 와인 진열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온 거야. 서울서부터 오는 거야. 불란서 살롱에서 그런 모양을 봐가지고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사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서 서울에서 다 돌아다녀야 안 돼. 인천은 송의목공예거리가 있잖아요. 인천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집까지 왔어. 이쪽에서 왔으면 첫 번째 집인데, 저 끝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이야. 나한테 와서 “할 수 있느냐?” 그래. 나는 이제 도면을 보니까 사진을 보

고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금액에 상관없이 만들어 달래. 데모*해 본다고 그러죠. 처음 만드는 물건을 대강 만들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번 해봐요. 딱딱 맞춰보니까 각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작업을 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고 가지고 갔어. 그 당시에 하나에 200만 원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와서 또 같은 작업을 2개를 해 달래. 그 대신 150만 원에 해 달래. 첫 번째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두 번째는 착착해 나가면 되니까 쉽죠. 그래서 두 번째는 2개 만들어서 300만 원을 받았지. 그게 이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런 거는 처음 해본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주문받아서 만드니까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또 오신 적은 없으세요?

그분은 이제 안 왔죠. 왜 그러냐면 워낙 퀄리티가 비싸니까. 근데 그걸 했던 사람은 이제 그걸 들고 다른 데 가면은 만들 수 있는 거야. 사진만 보고는 못 해. 근데 물건을 보고는 모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만든 지 꽤 오래됐죠. 벌써 한 10년 훨씬 넘었으니까. 지금은 와인이 일반적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와인 붐이 막 일어.

손님 중에는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까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회사인데 대현금속*이라고 단골손님이 있어요. 신호 등 철주 같은 걸 주로 만드는 회사야. 그런데 거기에서 버스 승강장 의자에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핸드레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2002년도인데 내가 개업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이두현 대리라고 그분이 요 앞에 살았어요. 출퇴근하면서 나한테 의뢰했어

요.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 해드렸지. 그분이 거기서 한 3년 근무했는데, 3년 근무하면서 쪽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분이 성실하니까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 돼 갔는데도 끊어지지 않고 위에 부장님께서 계속 연결해서 엮어져도 납품했는데 거의 20년 단골이에요. 맨 처음에는 제가 돈을 받고 납품했어요. 아직 신뢰가 안 되니까, 근데 한 3년 이렇게 거래를 해 보니까 아주 결제가 정확해. 그때 당시 부장님이 지금은 이사님이 되셨는데, 그 부장님으로 담당자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후불로 받았죠. 먼저 납품하고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올리면 후불로 받는데 바로 들어와요. 일주일 넘기지 않아.

최근에 제작하신 작품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제작한 것도 외국에서 보고 온 건데, 요새 카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카페 문하고 대문하고 뭐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야. 입소문이 났나 봐. 연출연출 해서 노아목재 가봐 이래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여기가 이제 노아목재니깐 저 집은 믿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성당 다니시는 분이나 스님들이나 또 보살 이렇게 점치는 보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와요. 그런 분들은 왜 오나 그랬더니 쪽 물어요. 그분들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묻고 가. 그럼 이제 가격이 나오잖아요. 견적이 나오면 내가 얼마를 얘기했어. 그러면 그분이 이제 쪽 보고 다음에 다시 나한테 와. 사장님이 제일 비싸대. 그러면 싼데 편하신데 가서 하시죠. 그러면 여기가 믿음이 간대. “보살님은 영 발이 있네요.” 그래서 내가 납품해줬더니 아주 흡족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결제해 준 거지. 우리는 계약할 때 50%, 잔금 50%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아요.

현재 주문 들어오는 제품과 과거의 주문이 다른가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는 아직도 처음 만드는 게 있어?” 그러니깐 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왜냐면 우리는 다품종 소량이니깐. 품종이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는 기계로 짹짹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하다못해 상자 하나를 만들어도 그 상자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똑같은 거 잘 안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처음 만드는 게 있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치매가 안 걸린다고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머리를 써야 하니까 우리 계통에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쪽 봐도 치매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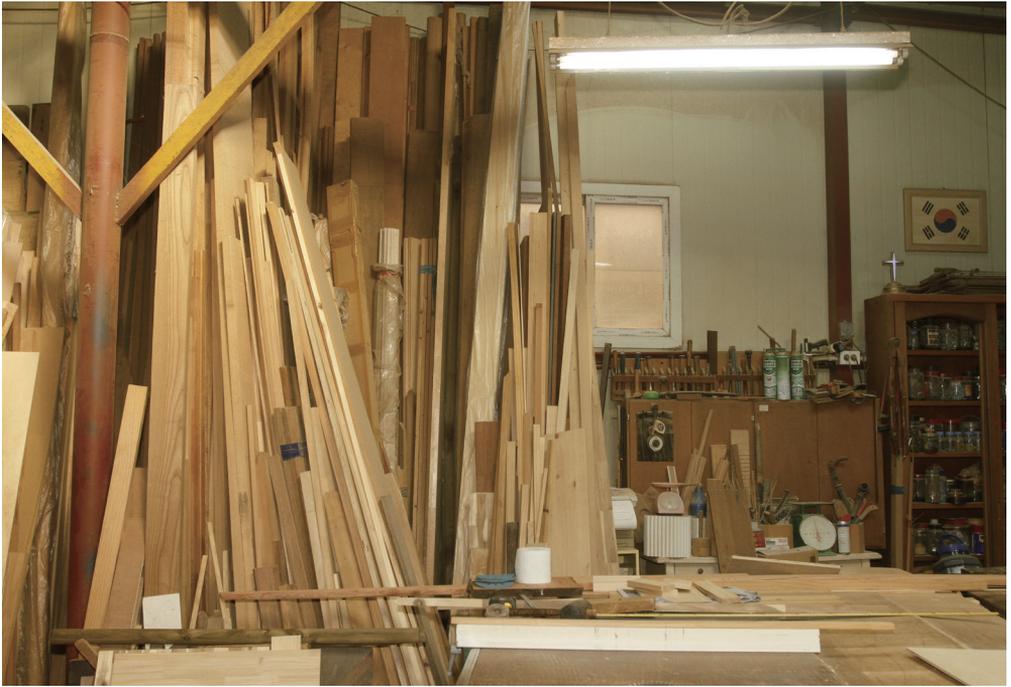
제품을 만드는 뜻심과 고집

노아목재 이름 뜻이 궁금해요

그건 노아*라는 분이 인류에 처음으로 목재 제품을 만든 거야. 그 배가 어떤 배였냐면 온 인류가 구원받은 배야. 거기에 들어가는 건 다 살았어. 그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내리고 온 세계가 물에 잠겼었는데 그 속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 또 짐승이 모두 다 살았어. 하나도 안 다치고 배도 안 망가졌어. 그렇게 튼튼한 물건을 내가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노아목재라고 지었지. 튼튼한 물건 꼭 필요한 물건, 우리 집은 개업할 때부터 원목 콘셉트로 오픈했죠. 우리 집에는 PB* 같은 게 없잖아요. 손님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내가 끊어주기는 하는데 그걸로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원목만 쓴다고 하셨는데, 나무를 선별할 때 좀 까다롭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재는 정품을 받아요. 돈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주는데 목재



공방 내에는 목재만을 고집하는 사장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는 정품으로 받아요. 이렇게 곰팡이가 슬었다든가 깨졌다든가 휘었다든가
 용이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제품에 하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안 받아. 제재소나 목재소 같은 데서 제 물건을 까다롭게 여기죠.
 그래서 '노아목재는 좋은 걸로 줘야 해.' 이런 개념이 돼 있어요. 한 판을 받
 아도 흰 건 안 받아요. 반듯한 거 달라고 빠꾸 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곰보에서 아무리 화장을 해도 곰보는 곰보예요.
 제품을 만들 때 좋은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써야 해요. 그래
 서 저는 재료부터 좋은 걸 써야 한다고 해요. 집성목*하고 솔리드*하고 가
 격 차가 한 장에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도 저는 솔리드만 써요. 고
 객님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지만, 어차피 재료비보다는 인건비가 더 비싸

다고 말씀드려요. 인건비에 비하면 재료비는 별거 아니니까, 대신 제가 튼튼하게 잘 만들어드릴 테니 좋은 재료 쓰세요.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드려. 근데 웬만하면 좋은 재료로 쓰면 좋은 제품이 나오죠. 제거는 물건을 만들어서 가면 망가졌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도리어 가게를 접게 됐으니까 좀 아까우니 가지고 가질 수 없냐고 연락이 오죠. 그러면 나는 내가 만든 걸 가져와요. 나는 내가 만든 거에 딱지 붙이는 거 싫어해요.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만든 거는 연락만 오면 가지고 와요.

지난번에 뭘 만들어 드렸는데 도장을 찍어 달래요. 도장을 찍으려면 그냥 찍지 않잖아요. 화인을 찍어야 하잖아요. 그거 만들려면 25만 원 들어가야 해. 손님이 자기가 준대. 그거 값 준다면서 “내가 이거 지금 2천만 원짜리 만드는데 그래도 장인 손으로 만든 거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찍어드렸어요. 뿌듯함도 있지만 대신 책임감을 느끼죠. 허투루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도 책임감을 갖고 만들죠.

갈림길에도 굴하지 않은 목공 인생

내 후배가 요기에 샤프장*을 오성목형을 했어요. 지금은 겁단에 큰 공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서 목형공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퇴직하니까 “형님 선배님은 나한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도와주다 보니까 옆에 자리가 났다고 “선배님 저쪽에 가서 잠깐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넘겨받았어. 그때 받은 기계도 그냥 쓰고 있어요. 여기 원래 하시던 미산목공이라고 충남 목공

소에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것도 오래된 거예요. 한 20년 이상 했다 그랬나 그러더라고. 그분은 목공만 했는데 목공 일이 그래요. 일당은 나가면 100% 내 돈이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체를 열고 있으면 100%가 아니야. 손님이 없으면 그날은 적자 나는 거잖아요. 일당은 일하러 나가는 날은 무조건 100%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일당을 한다고 나가셨지. 나도 그분 보고 오시라 해서 도움을 받았죠. 이곳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제가 조금 어려울 때는 “형님 좀 와주세요.” 그러면 와서 본인이 쓰던 기계니깐 가르쳐주셔서 많이 배웠죠.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처음 송의 목공예거리 오셨을 때랑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좀 다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직 선진국도 안 들어갔을 때지. 개업했다고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망치도 가져다주고, 줄도 갖고 오고 또 이렇게 하면 떡도 돌리고 요새는 거의 안 돌리더라고요. 그때 나도 개업했다고 떡 돌렸어요. 지금 뭐 거의 그런 거 없어.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개인주의가 많아져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도제식*이라고 할까? 일 배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뭐라 용돈 정도 차비 정도 식사 대접해 주고 일 배우는 거니까 1년 지나야 이제 월급을 줬죠. 기술자 되기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요새는 한 사람을 써도 기본 뭐 이렇게 4대 보험 기본적으로 한 250만 원 그냥 나가니까 못 쓰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2010년부터는 아예 3D업종*이라고 그러고 안 와요 안 배워요. 40대분들은 이제 취미로 배우려고 오는 데 진짜로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 배우면 참 좋을 텐데 알바를 할망정 안 와. 3D업종이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대가 거의 끝이

아닐까 싶어.

선진국에서는 목수 하나 쓰려고 하면 아주 돈 많은 부자나 쓰지 보통 평민들은 못 써요. 전부 자기 연장 사다가 휴가 때 자기네들이 다 작업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조그마한 슈퍼라는데 그 앞에 진열대 그거를 짜더라고. 차 뒤에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따로 달고 다니면 거기는 그냥 달고 다니는 거 봐요. 뒤에다 연장 싣고 이렇게 쓱 끌고 와서는 똑딱똑딱하시더라고. 그래서 슈퍼 사장님한테 물었지. “사장님 저 목수분 부르시면 얼마나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비싸요.” 그래. 우리 사촌 형이 호주에 사셨는데 날 보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우리 기술자는 자격증으로 바로 오케이가 바로 떨어져. 비자가 바로 떨어진 데.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래. 우리 기술은 거기에서는 돈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갈까 했는데 언어가 어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한국말을 해도 다 통한다고 그러네. 몰랐지 뭐야. 근데 안 갔죠. 안 가고 그냥 연구소 들어갔어요. 갈까 말까 고민했을 때, 연구소하고 학교하고 두 군데가 컨택이 됐어요. 학교는 더 발전이 없을 것 같고, 연구소는 그래도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연구소로 들어갔죠.

그러면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연구소 가기 전에 갈림길이 있으셨네요.

근데 안 간 게 참 잘한 거 같애. 지금은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그래.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잖아. 그 당시에는 참 못 살았었는데, 지금은 뭐 호주 가봤더니 넓기만 넓고 고기만 마음대로 먹지.

목공이 굉장히 귀한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제 뭐 이렇게 장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같은 조건인데도 인정을 안 해. 우리나라는 무슨 무슨 쟁이라고 하대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일본은 가 봐요. 우리나라 도자기 쟁이들이 가서 거기에서는 최고로 대대로 대접받잖아요. 일본에 가 봤더니 아주 목형 하시는 분은 최고로 대우해주더라고. 손재주는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손재주가 좋아서 이천 같은 데 가면 도자기 공방이 있잖아요. 그래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나오는 건 비싸요. 거기서 나와서 백화점에 납품해요. 내가 아는 작가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찻잔을 만들다가 요새는 화분 이런 거 만드는데 대단히 많이 받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천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어요. 고객들이 그분 수기가 들어간 것만 산대. 우리도 나름대로 내 도장 찍은 걸 원하듯이 그래서 저는 싸게 안 받아요. 물건 해달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첫 집인데 내가 싸게 하면 저 밑에 집들은 일이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값을 받아요. 내가 인건비가 얼마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알려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딱 데 가요.

그다음에 저는 내가 못 해도 대우공예에서 로구로*를 잘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인일 같은 데는 조각을 잘하고 그다음에 미추홀 같은 데는 또 자기한 그런 제품을 잘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일할 때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작업이 맞는 분들을 조합해요. 그 대신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에게 맞는 예우를 해줘요. 싸게 안 해줘요.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받은 것만큼 주는 거야. 나는 첫 집이라 그런 마인드로 하죠. 가격이 우리 집은 싸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강남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잖아. 장롱 업체가 500만 원짜리 제품

을 판매했는데 아무도 안 사가더라. 그다음에 같은 물건을 1,500만 원에 팔았더니 불티나게 나가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집에 맞는 물건을 가져다 놔야 레벨이 맞는다는 거야.

사랑이 넘치는 가족 이야기

사모님하고는 언제 결혼하셨어요?

78년도 4월에 했지.

날짜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매년 챙겨줘야 하는데.

오늘은 사모님은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점심 먹고 와요. 오전에는 집안일 보고 나는 이제 오전에 와서 내가 할 거 하고. 오후에 혼자 못하는 일들을 같이 도움을 받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서당 개 삼 년이면 라면도 끓이잖아. 우리 집사람은 눈썰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걸 봤다 그러면 그건 최고의 품질이야. 우리 집사람이 어느 것까지 하나면 무늬 모양까지 따져요. 그래서 내가 묻지. 여보 이걸 어떻게 해야 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줘요. 혼자서 못 드는 물건들이 있어요. 큰 것들은 이제 같이 들지.

어떻게 보면 사모님하고 같이 운영하고 계신 거네요.

집사람이 회장이예요. 공동 사업자 강현숙. 나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야.

왜냐면 돈은 다 여기에서 가지고 가. 세무서도 50대 50으로 신고했어요.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두 명. 딸딸이 아빠지. 손주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가족들이 하는 특방이 있어요. 이걸 장학 증서. 공부는 잘 안 하는데 반장, 회장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회장이 돼서 장학금을 받았더라고. 내가 용돈 쓰라고 오만 원 보내 줬지. 축하금 보내줬더니 “할아버지 용돈 잘 받았어요. 아무지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돈 줄 때 카톡이 많이 와. 보통 때는 안 해. 그래도 이렇게 조그만 가게를 하니깐 용돈도 줄 수 있어서 좋지. 둘째는 포스코 다니는데, 거기는 손주가 아들이야. 눈만 뜨면 할아버지, 전화하면 할아버지 바꿔 달래. 어린이집 다니거든. 할머니가 전화 받으면 할아버지. 개는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애. 늘 축복해주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oo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래.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지금 목공예센터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퇴직하신 분 나이 드신 분 또 이렇게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 배워서 자꾸자꾸 많아지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겠나. 또 전국에 목공예 단지로 이렇게 된 곳은 지금 인천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박승화 센터장님이 센터 역할을 잘 운영하고 계세요. 옛날 거는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제 실상에는 뭐라고 그럴까 좀 괴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 것은 좋지만

새로운 것도 빨리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활성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목공업 분야도 자꾸 발전하면 젊은 사람들도 재미있다. AI가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공예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접목돼서 “그거 멋있네, 히트 쳤네, 그것도 돈 되네.” 쉽게 얘기하면 돈 되네 지금은 다 돈이잖아요, 하나를 만들어도 퀄리티가 나네.

나는 물건 주문을 받잖아요. 저는 다 써요. CNC*도 쓰고 레이저도 쓰고 그냥 다 써요. 여기는 범용 기계밖에 없잖아요. 범용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 그렇지만 정밀로 갔을 때는 아니다. CNC 가공해서 내가 마무리하면



되거든. 물론 스카시*로 파면 파지. 한두 개 했을 때는 그게 맞아. 여러 개를 나가는데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CNC로 파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지. 그런 부분들을 접목하면서 퀄리티를 높이는 거야. 저쪽에 동암사라는 간판이 하나 있는데 양각으로 CNC로 팠어요. 50만 원. 지금 하면 내가 100만 원에 해. 나뭇값이 배가 올랐거든요. 나뭇값이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하면 100만 원, 퀄리티가 높으니까. 하여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다음에 특화를 자꾸 시켜야 해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높이고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접목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생각해요.

사장님께 목공이란 어떤 의미세요.

생활이지. 하다못해 식탁서부터 젓가락까지 다 나무로 하니깐. 그래서 생활이에요. 생활이니까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돼.

노아목재는 언제까지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85세까지는 할 수 있겠지. 지금은 연령들이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한 85세까지 내 마음은 85세까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그래도 육체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참 좋은 후배 기수가 나오면 요새는 기계가 좋기 때문에 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 1년 정도 가르쳐서 대물림하고,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면 참 좋겠다. 지금 제가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새터민*분들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세 모녀가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굶어 죽다니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여러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개방이 안 돼서 내가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도 정보가 없다 보니까. 거기는 꽃제비*로 넘어오신 분



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데. 배우 차인표가 이복 갔었잖아. 그때 선물로 받았다는데 기가 막히게 정교하더라.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고. 그런 그분들은 다 놓고 왔잖아.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 한번 키워볼까 그런 마음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할 것 같으니까. 85세까지 일하는 거는 다 넘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같은 거는 기계값이 얼마니까 봉급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 넘겨줄게. 하면 부담 없이 다 할 수 있잖아.

지금 대현금속 거래하는 것도 벌써 한 20년 동안 지냈죠. 내가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또 다른 데서 해야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창업할 때 보니까 단골이 없어서 힘든 거야. 일거리가 없어서. 근데 그냥 넘겨받으면 이어가니까 그다음은 자기가 또 이렇게 개발해서 나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덕성이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목공예센터가 잘 되면 좋겠어요. 거기는 이제 개인이 아니니까 첨단 프로그램으로 딱 해서 3d로 딱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제품이야.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거든. 기계도 많이 있어. 좋은 기계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걸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옛날보다는 쟁이, 쟁이 하던 개념에서 장인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좋아졌어. 여기는 거의 수공이잖아요. 목공 박물관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나무 종류도 이렇게 하고 시대별로 이렇게 좀 해서. 땅을 사놓기는 했는데 이제 몸이 그래서 좀 젊은 분하고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 내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목장 같은 걸 하고 싶어요.

목장도 하지만 닭장이나 뭐 이런 거 다 하면서도 어차피 그 샤프장은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작업장 크게 하나 만들어서 아기들 와서 이렇게 놀다가 새집도 만들고 새집도 쉽거든. 도면 딱 해서 요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은 있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꼭 목공박물관을 하시면 좋겠어요. 상상을 하니까 꼭 가 보고 싶어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목재

주요작업 : 맞춤전문, 파티션 인천총판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17

조각부터 인테리어까지, 일명 맥가이버

이거 다 해보고 한 번쯤은 다 경험해서 몇십 년 하다 보면 자동으로
기술이라는 게 몸에 배고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명 '맥가이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원인테리어 이 길 학 (1958년생)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다. 74년 제물포에서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하여
86년 서울 회사에서 조각 일을, 89년에 속리산 법주사에 들어가
불교 조각 일을 했다. 97년도에 송의동 현재 자리에
'성원인테리어'를 차리고 전국을 다니며 인테리어 일을 해왔다.

면담일시 22년 9월 2일, 22년 9월 17일,
22년 10월 24일, 22년 12월 15일

면담 정지선, 김순옥

원고정리 정지선

면담지원 허은영, 최지은

출생에서 결혼까지

사장님께서 기억나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을까요?

전 1958년에 인천 북성동 1가 1번지, 차이나타운 바로 앞에 지금 현 파출소가 있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거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살았던 북성동이 그때는 배가 수십 척이 들어오는 큰 항구였잖아요. 그 당시에 배들이 들어오면은 조기, 갈치, 뽕 고등어. 그리고 새우도 나오고, 가을에 가서는 꿀뚜기. 뭐야 김장철에 많이 쓰는 거 밴댕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물텀병이*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아귀라는 말을 안 썼어요. 아귀는 전통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일본서 넘어온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물텀병이야. 물텀병이는 값어치가 없고 그러니까 막 버리고 그랬어. 그거를 구루마에다가 해서 큰 솔단지에다가 얼큰하게 끓여서 하역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에다가 그거 한 사발을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떠주고 그랬어요. 노동자 음식의 문화였죠. 우리가 어렸을 때 지나가면 새우하고 같이 옆에 놓고 팔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기가 있으니까 가면서 새우도 집어먹고 그랬어. 그때 저것(물텀병이탕)도 한 그릇씩 떠주고 그랬는데 그게 매우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맛이 안 나잖아요(맛을 모른다는 의미). 그래도 배고픈 시절이니까 주면은 좋다고 먹고 그랬으니까. 그런 추억들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물텀병이가 고급문화가 됐잖아요?

형제, 자매가 있으셨어요?

4남 1녀. 내가 넷째로 태어났죠. 형님 두 분 누님 한 분. 밑에 남동생 하나 있고. 밑에 동생은 대학생이었는데, 예전에 인천에서 데모가 한창일 때 아

갑게 희생당했지. 하늘에서 부르니까 부르는 대로 빨리 갔지. 84년도에 주 안에서 김대중 씨가 출마 선거하고 나오고, 전두환이가 할 때였는데, 인천(구)시민회관 거기서 학생들을 대표로 해갖고 충청도 쪽 연수원에 교육받으러 갔다가, 여학생 네 명이 떠내려갔어. 우리 막내 애가 수영도 잘하고 그래서 건지러 들어갔다가 세 명은 구하고 나머지 한 명을 건지다가 거기서 못 나오고 그렇게 됐지. 인천 묘지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김대중 씨가 화환 보내고, 운동권에 같이 있던 애들이 한 200m 양쪽으로 줄 서서 태극기 흔들면서 그렇게 해줬어. 원래 동생은 혼자서 중학교까지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영등포로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가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 부르면 가야지. 어떻게.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어가서.

형제, 자매와 관계는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두텁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인천항이 하인천역이라 그래갖고 부둣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배를 두 척을 부리고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큰형님이 해룡호라는 조그마한 꽃게 잡는 배 사업을 하고 있을 때라 내가 툴툴이 형님 일을 많이 도와줬지. 내가 그런 일을 잘하고, 형들을 잘 따르니까 나한테 그런 거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형님들 하시는 일을 많이 돕고 살고 우애가 좋았지. 예전에 하인천이 폐쇄되면서 동지나* 쪽으로 가는 큰 배들은 연안부두로 이주하고, 우리는 배가 중선이라 좀 작으니까 소래로 갔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 아버지가 고령이 되시고 그러면은 형님이 하시니까 다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래 가서 좀 하다가 배를 다 정리하면서 도림동에 정착했죠. 저도 이 나무일이 좋다 보니까 나무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배 타는 일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배 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아. 배는 요만한데 거기서 뭐 화장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낚싯배에는 쪼그맣게 화장실도 만들고 그렇지만, 고기 잡는 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뒤에 가서 바다에다 덜러덩 누고 오면 그만이야(당시 배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셨던 점이 재밌었다는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그렇게 배가 좁으니까 배에서 담배를 같이 피도 말을 못 하는 거야(하하하). 형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13, 14년 차이 나거든요. 육지에 나와서는 그렇게 하면 매 맞고 혼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좁은 배에서는 말을 못 하니까 같이 담배를 피었던 게 에피소드지. 뭐 일하다가 기분 나쁘면 “너 담배 물고 할래? 뭐 할래?” 그러고 혼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하인천 부둣가가 어떤 모습이었고, 차이나타운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차이나타운이 없었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갖고 살던 동네 '중국 촌'이었지. 차이나타운이라는 건 나중에 형성된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나 지게 지고 구루마 끌고 생선 날라준 그런 사람들 숙식 제공하기 위해 여인숙이랄까 뭐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근처에 있던 올림푸스 호텔은 외국인들 들어오면 글로 저기(숙식했다는 의미)하고 했는데, 어렸을 때니까 호텔이 있는 것만 기억하지 자세한 건 잘 모르죠.

어린 시절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기억나는 음식이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보면 동사무소에 보리를 타러 갔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보리가 있어요. 기계로 눌러갖고. 그 당시에 꿀꿀이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부대찌개가 꿀꿀이죽인데, 원래는 그게 미군 부대 식당에서 먹고

남은 거를 사다가 지저분한 거 다 골라내고 다시 끓여서 파는 게 부대찌개 예요. 창영동이 원래 꿀꿀이 골목이었어요. 지금은 서점도 있고, 책방도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서 꿀꿀이 달아놓고 다들 그렇게 팔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거 먹고 살았다니까요. 옛날에 백마장 부평 삼거리. 거기서 가져다가 여기서 제조했다고 봐야지. 못 먹을 거 지저분한 거 빼고 다시 끓여서 새우젓 깡통으로 한 사발 넣어서 만든 거지. 그때 새우젓 한 통이 5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한 사발에 3원 주고 사 와서 국수를 삶아서 먹든, 밥을 말아서 먹든 그랬어요.

학창 시절엔 어떻게 지내셨어요?

북성동에서 태어나 여섯 살 때 도화 2동으로 와서 인천 서림초등학교, 동인천 중학교에 다녔지.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못 갔지. 내가 그때는 약간 건달기가 있어갔고 학교를 안 갔지. 그 당시에는 중학교만 나와도 많이 다닌 거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계속했는데, 중학교 다닐 때 김일용 사범이라고 운동을 가르치던 우리 학교 태권도 선생님이 있었어. 그때는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 깡다구를 가르치는 거야. 깡다구를 배우다 보니 우리 중학교 동창들이나 운동하던 친구들은 다 군에 가서도 특기생을 하고, 전국 체전 같은 데 나가서도 다 상 받고 다 그랬어. 그래서 운동하면서 깡다구를 갈아서 지금도 운동 신경들이 다 살아있어. 지금도 다 쟁쟁해요. 깡다구가 뭐냐면 “강한 힘!” 누구한테 지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가르쳤다는 거지. 뭐 완력이나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도 혼자 어디 가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르쳤다는 거지.

그럼 그 이후에 도화 2동에서 계속 거주 하신 거예요?

아니지. 도화 2동 여기 체육관이 있었는데, 백인엽 장군이 선인 재단 안에 세운 거. 그게 원래는 전부 국고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강제 수용하듯이 해서 안 나가면 불도저로 집 주변을 뺨 둘러서 구덩이를 파내버렸으니까 출입을 못 하게 했었죠. 비 오고 그냥 폭폭 빠지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쫓겨나듯이 해서 나가고 그랬죠. 거기서 뭐 보상을 줘 뭘 줘. 옛날에 그냥 강제로 이렇게 쫓겨나도 말을 못 했어요. 그냥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때는 박정희 시절일 때니까 보리나 밀가루도 타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쫓겨나서 만수동(도림동)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그럼 결혼은 언제쯤 하셨어요?

지금 딸내미가 36살이니까 한 40년 가까이 됐죠. 우리 마누라는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만났죠. 서울에 살 때 출근하다 보면 맨날 그 시간대에 길에서 꼭 나하고 부딪히더라고. 볼 때마다 '아. 참. 이쁘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쫓아다녔지. 우리 와이프는 미용실에 일 다녔는데 그 당시에 남자들은 미용실을 들락날락 안 했었잖아. 근데 나는 들어갔지. 그렇게 해서 다방에서 만나고 그랬어요. 당시엔 다방에서 커피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 만나는 데가 거의 다 다방이고 그랬잖아요. 술집들을 잘 안 가니까. 내가 마누라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 키도 크고 예뻐서. 우리 마누라. 영화배우 촬영도 몇 번 나가고 그랬어. 김진아 배우가 찍은 영화도 우리 마누라가 대역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연애는 한 5년 정도 하다가 인천 간석동에 있는 목화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여기 제물포 수봉공원 올라가는데, 거기 옛날에 주택 많았었잖아요? 거기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살았죠.

승의동 마을 주변 옛이야기

어린 시절 제물포 주변 풍경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제물포 기차역이 있었고, 그 옛날에 기차역 바로 위에 수인선 화물 철로가 다녔어요. 수인역까지요. 지금은 철로가 폐쇄돼서 다 집들이 있고 하지만, 거기가 옛날에는 철로여서 산책로도 돼 있고. 그리고 거기 옛날에 데이트 코스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낭만적으로 다니고 그랬어요. 저기 밑으로는 옛날에 미나리 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나리는 물에서 기르는 야채라고 봐야지. 미나리 저수지가 겨울에는 퐁퐁 얼면 거기서 썰매도 만들어서 놀았죠. 6살에 북성동에서 이사 와서 제물포 이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장롱 짜고 하는 공장들이 많았어요. 인천 항구로 목재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무로 인해 종사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은 이쁘게 뭐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구경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기차나 철로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여기 승의동에 경인선, 수인선 있었지. 그때는 전철이 다니는 시절이 아니잖아? 기차잖아. 칙칙퐁퐁 기차 다니는 시절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 철로를 징검다리 식으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건너가던 시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기차가 지나갈 때 안전장치가 없었어요. 그냥 반짝반짝 불만 틀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소를 몰고 가다가 소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소 끌고 가다 기차에 소가 깔려 죽으면 그 소고기 먹으려고 주우러 다니고. 옛날에는

다 그랬어. 그리고 리어카에다 짐을 많이 싣고 가다가 철길이니까 바퀴가 하나 빠져. 기차는 오는데 못 지나가 봐. 그 사람 욕심이 왜 그거 버리고는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저래도 이겨내다가 사고 나잖아. 이게 옛날에는 그런 사고도 많았어. 40년 전 이야기네.

목조각에 입문한 계기

목공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목공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게 74년도예요. 제물포에 있던 딱따구리 공예사였는데 공방처럼 하는 공예사는 그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인천 최초의 목공예사죠. 지금 제물포역사 뒤 먹자골목 쪽 타고 들어가다 보면 중간쯤에 옛날에 유명한 차이나타운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 그 골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가정집이야. 골목 안에 터가 한 250평 정도 되는데, 딱따구리 공예사가 그 안에 있었어. 어렸을 때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거기 기술자들이 삼국지 전쟁하는 장면을 조각을 하더라고. 그거를 보고서 '이거 내가 좀 해보고 싶다!' 그랬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거든. 학교 다닐 때부터 내 그림은 무조건 칠판에 딱 붙여갔어.

딱따구리 공예사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공예사 사장님이 공군 대령 출신이야. 공군 대령이니까 비행기로 미국도 다니고 그랬는데, 용산 PX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고 자기네 나라로 갈 때 나비장 같은 거 옛날 우리나라 전통 골동품을 선물로 사 갔었어. 우리 딱따구리 공예사가 그런 걸 납품을 했지.

그 당시 급여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처음에 들어가 갖고 1,500원 받다가, 그다음에 2,800원 받다가 한 3년 정도 되니까 4,000 원. 그 당시 쌀로 계산하면 3,600원이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월급 타면 다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 쓰고. 지금도 50년 가까이 된 그 조각칼을 갖고 있지만, 그 조각칼을 공장에서 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개인이 사야 돼. 서울까지 기차 타고 가서. 그 당시에는 전철이 없었으니까. 종로 5가까지 가서 이 조각칼을 사가지고 와서 닦아서 만들고 닦고 갈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던 칼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조각칼

(조각칼이 들어 있는 서랍장을 여시면서)이게 한 40년 50년 된 거예요. 요 것만 아니라 저기에 있는 것도 한 350자루 되거든? 왜 이렇게 많으면 부처님 눈 하나를 파도 깎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서 그래요. 눈속 파는 건 각이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죠? 눈을 팔 때는 또 이렇게 아로(등글게)가 살짝 져 있죠.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딱따구리 공예사에서 계속 목공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86년도에 옮겼어요. 여기 인천에서 했던 선배가 서울 광장동 회사 공장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조각하는 일을 계속했죠.

작품활동을 하러 간 속리산 법주사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인천으로 다시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89년도쯤에 작품 생활을 하러 충청도 속리산 법주사에 들어갔죠. 그 당시에 절에 들어가서 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교 조각을 하게 됐죠. 절에서는 주로 은행나무로 불상이랑 용주*를 조각했어요. 불상 뒷면에 그려진 그림을 탕화*라고 해요. 탕화는 주로 불교 학생들이 많이 그렸어요. 나는 조각만 하고.

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 당시는 우리가 다 해 먹고 살았어. 밥도 해 먹고 나물도 뜯어다 먹고. 이 절에서는 주는 거는 오로지 된장, 나물. 그 외에는 뭐 주는 게 없으니까 부족하면 우리가 알아서 저녁도 해 먹고 그랬어요. 겨울에는 칠팔리 캐러 다녔죠. 쌀로 술도 내려서 몰래 먹고. 절에 있으면서 생활했으니까 무조건 아침 7시 땡 하면은 한 시간은 무조건 공양을 올려야 했어요.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거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그 행동에 되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작품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온 걸 예쁘게 보셨는지 법주사 스님이 지금 성원인테리어 상호를 지어주셨어요. 내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후에 하면

은 뭔가를 이룰 거다. 그래갖고 ‘원할 원, 이룰 성’ 자를 써서 그걸 꼭 주고 싶다고 그걸 가지고 꼭 깊이 가슴에 새기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그걸 간직하라고 하셔서 그 증거를 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인테리어 사업과의 접목

사장님께서 94년에 다시 서울로 오셨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조각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내가 전문이 조각사 아니에요? 조각하는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 일본에 수출하는 작품 쪽으로 조각하다가,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그때서부터 인테리어 쪽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인테리어라는 게 거의 처음이라 별로 없을 때죠. 거의 집수리 뭐 이런 개념이었죠. 인천 시내고 서울 시내고 대한민국 어디든 다 다녔죠. 인테리어는 종목이 워낙 넓으니까, 천장도 세면으로 깨끗하게 쳐야 되고, 몰딩도 돌려야 되고, 가구도 짜서 갖다 맞춰줘야 되고, 문짝도 달아야 되고. 저는 주로 조각도 하지만 집안 실내 안에 목조계단이나 집을 이쁘게 꾸미는 실내 인테리어 그런 쪽으로 다 할 수 있었죠. 옛날에는 거의 손기술로 직접 작업을 하고 만들어 냈잖아요. 지금은 자재가 규격화돼 있어서 기계가 한다고 보면 돼요. 속도전이죠. 그런데 기계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계가 따라잡지 못하는 거는 손기술이 필요하고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테리어 작업은 어떤 걸 주로 하셨어요?

저는 주 종목이 목공 설비였어요. 그리고 타일, 페인트 같은 것도 좀 시키

고 그랬어요. 인테리어 하러 외부 현장 나가면 작업 지시도 내리고 디자인도 내가 떠서 만들고 디자인도 점주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면서 작업했죠. 목공이 제주 전문이었지만 목공일을 오래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일도 직접 붙여야 되고, 전기선도 가서 이어야 되고, 형광등도 달아야 되고 하다 보면은 그거 형광등 하나 한다고 다른 사람 부르면은 그렇게 못하잖아. 이거 다 해보고 한 번쯤은 다 경험해서 몇십 년 하다 보면 자동으로 기술이라는 게 몸에 배고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명 '맥가이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인테리어 현장이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인테리어하면서 인천에 음식점 공사만 한 10년 넘게 했어요. 인천에 음식점은 내가 공사를 많이 했죠. 음식점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부평 부흥로타리 8층짜리 동부 웨딩홀도 했는데, 거기 회장님이 십장생가마를 주문한 거예요. 음식점에서 신부들을 태우고 가는 십장생 가마를 회장님이 원하는 그대로 해서 조각을 해서 해주니까 회장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네 음식점 공사도 맡긴 거지. 인천의 목수들 한 4~50명 정도랑 한 3개월을 같이 공사했어요. 그때 그 회장님이 먼저 나고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고 공사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일 못 한다 그러면 “이 반장! 저 사람은 못 하니까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해.” 그러면서 돈 그 자리에서 딱 주고 “내일은 사람 바꿔.” 이 정도 돈에 대해서 철저한데 일 시키고 일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

그리고 동인천에서 답동 신포동 넘어가는 데 신신음식장이랑, 동인천역사 5층 안에 있는 음식점¹⁾도 했어요. 하다 보니 소개로 연결해서 간석동 목화

예식장도 하고. 특히 서울 종로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 15층 연회장 그 홀 꾸밀 때 거기는 이태리식 기둥을 다 조각으로 했어요. 한 두 달 정도 걸려 일일이 다 클래식 조각으로 했었는데, 그게 좀 감명이 깊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건물 보면은 다 조각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조각하는 인테리어를 굉장히 내가 많이 했지. 예식장도 그런 인테리어 느낌을 많이 품기 싫어요. 예식장 공사 하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같은 일하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협조도 많이 받고 그런 게 좋았었는데 지금들은 그런 게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식장 인테리어 외에 다른 곳의 일도 하셨나요?

도원역 앞에 보각사 절에 가서 지어주고 한 게 있고. 조만간 보수 좀 해주러 또 가고 그래야 돼요. 바쁘다 보니까 다른 거부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그랬는데, 빨리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자꾸 기둥이 썩어 들어가 갖고 마루가 자꾸 주저앉는다고 해달라는데 가서 해야죠. 바빠서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인테리어 업자들이 자기네가 하다가 막히고, 하기 힘들거나 못하는 거는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좀 해주고 그러긴 했어요.

조각이 주 전공이신데, 상호명에 목공예도 아니고 인테리어라는 용어를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대가 가면서 인테리어는 모든 걸 접목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품목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나무면 나무, 철이면 철 뭐 다 하는 거죠. 저는 이저저거 다 경험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되는 거죠.

1) 동인천역사 5층에 있었던 예식장 상호를 '엠버스텐'으로 기억하고 계심



성원인테리어의 작업공간

나무 이야기

그럼 목공예를 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나무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소나무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100%가 수입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입도 특수목이라 해 갖고 재질이 이제 나왕, 구르미(호두나무), 오크(참나무)가 있는데, 나무 강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는 나무가 좀 단단하고 강도가 세고,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는 연하고 무르고 부드럽고.

자재는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자재 구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지금 목재 단지 북항에 배가 들어오는데, 그쪽에 수입 목재 수입상들이 거기에 집합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재를 쌓아 놓고서 판매하니까 거기서 사서 쓰는 거죠. 그 전에는 목재 제재소라고 그러죠? 거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나무 재질도 만져보고 다 체크 해 보고 이제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30cm, 50cm 이렇게 mm수대로 맡겨서 재단 주문해서 받아왔는데, 지금은 규격화가 돼 있잖아요. 자재가 규격화됐으니까 규격화된 대로 그냥 제품을 사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죠.

자재 구매 방식이 규격화 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아실까요?

예전에는 원목을 석남동 목재 단지 그런 쪽에서 구입했는데, 지금은 목재 자체가 우리나라에 원목으로 들어오질 않잖아요. 수입 자체를 막아 갖고. 왜냐하면 그 원목 자체를 줄로 묶고 배가 끌고 오다 보니까 나무 성분에 세균이나 미세한 벌레나 이런 종자가 들어오면 세균을 옮겨 갖고 이상한 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정부 자체에서 원자재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래 갖고 지금은 제재소 하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나 보르네오섬이나 그런 데로 공장을 다 유입해서, 거기서 나무를 베서 제품을 만들어서 딱 규격화해서 약품 처리까지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넣어 갖고 인천으로 와요. 그 컨테이너로 자재가 오면 그 자재를 꺼내서 쓰니깐 문제가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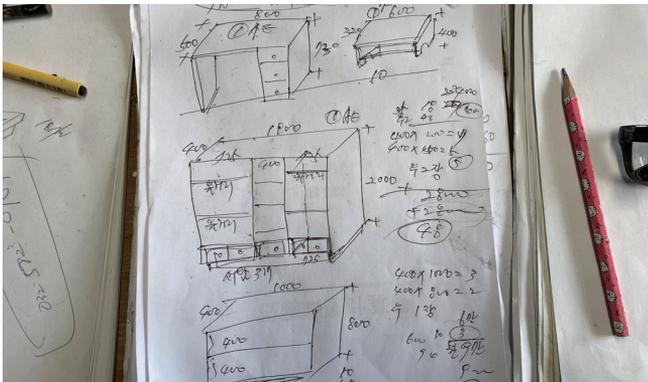
사장님께서서는 주로 어떤 나무로 사용하시나요?

특수목 쪽으로 하면 주로 많이 쓰는 게 미송 그리고 특수목 나왕. 나왕 같은 거는 대부분 보르네오섬에서 나오는데, 일 년 사이에 푹푹 자라는 거 있

쥬. 마디카는 숨처럼 가볍고 칼질하기 좋고, 부드러운 피나무, 소련 아니면 브라질 이런 데서 오는 다글라스*나 소송, 자작나무는 단단해요. 저는 작품에 따라 사용하는 나무가 달라요. 강도가 센 거는 센 대로 그 활용도가 있는 거고, 부드럽고 연한 거는 또 이렇게 그 나름대로 또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 소재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하는 것도 딱 특색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돼 있어요. 연한 거는 기계를 안 하고 손으로 조각하고 만들고 깎고 도장하고 이럴 때 쓰고, 강도가 센 나무는 기계 작업하면서 각을 살리는 작품을 할 때 쓰는데 쉽게 말해서 강도가 센 거는 만드는 과정에서 용도가 틀려지는 거지. 사람이 앉아서 부러지지 않는 벤치 의자라든가 의자를 흔들든가 아니면 침대라든가. 주로 깨끗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소나무를 권하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 원하는 사람들은 저런 특수 목 쪽으로 장미 나무를 사용하고 그러죠.

재료 쓰실 적에도 손님이랑 뭘 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고 주문받는 방식으로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갖고 원하는 거로 하면 장수 계산하고 그러죠. 자재값 들어간 만큼 인건비도 똑같이 1대 1로 그렇게 계산을 해요. 2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거의 지금도 한 150%까지 인건비를 잡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자재값에 1대 1로 하면은 간신히 인건비 정도 나오죠.



주문 물품 스케치한 노트

주로 사용하는 도구와 기계

그럼 업장에서 사용하시는 기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절단 커팅기, 마루노꼬*, 재단기가 있고, 일반 소모품으로 대패, 끌, 미싱기라고 곡선으로 오리는 기계가 있어요. 커팅기는 직선을 자르는 거고 구멍 파는 기계도 있고 다 있어요. 종류는 한 대여섯 가지 이상 기본으로 가져야 할 수가 있는 거죠. 목공 기계는 전기가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지. 요즘 기계는 휴대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참 좋은 게 많아요. 배터리로 해서도 쓸 수 있고 전기로도 쓸 수 있고. 전동 공구 기계가 편리하게. 요즘은 거의 기계들이 많이 일을 다 맞춰주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고 초보자라고 해도 이 눈썰미나 보는 각도 시각만 좀 잘 알아도 웬만하면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지.

특히 목수 인테리어 쪽에는 대패, 끌, 망치, 톱 이게 기본 한 틀이에요. 톱은 썰고 대패는 깎고 망치는 때려서 박고 끌은 찍어서 따내고 파내고. 4대 원칙이랄까. 기계로 못 자르는 구석구석 커팅하는 거는 다 톱으로 쳐야 되니까 필수죠.

그럼 목공 기계들은 언제 어디에서 얼마에 구매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목공 하는 데가 많이 성행했으니까 이런 기계가 많이 나왔어요. 서울 왕십리, 서울역 뒤 그쪽에 이런 공작소가 많았어요. 거기 가서 테스트해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계인지 아닌지 만져도 보고 다 실험해보고 나서 용달 같은 거 해갖고 우리가 싹고 오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기계가 500 가든가 300 가든가 그러면 그런 기계 하나 마련하려면 돈을 좀 아껴서 큰마음 먹고 사는 거죠. 내가 뭐 안 사고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작업이 속도전으로 가다 보니까 기계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절단기 같은 경우는 보통 300에서 400 가는 거고요. 그리고 원형으로 돌리는 미싱 기계 같은 게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선 가는 거죠. 각도면 치기 같은 경우는 그게 한 400정도 같걸요.

이 기계(각도 절단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 기계가 반자동이라 그럴까. 이거는 날을 올려요. 이렇게 이거는 깊게 파고 싶다. 얇게 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하면 똑바로 잘라지잖아요? 이렇게 넣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각을 펴 갖고 이렇게 딱 겹치게 해서 붙인다.’ 그러면 날을 옆으로 눕혀서 절단하는 거예요. 30도로 치려면 30도로 조정해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기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이 기계는 자동 대패, 그리고 이건 원형 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세깁이라고 그러더라고. 자르고 깎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형 톱 절단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원형 톱 절단기는 나무에 따라 톱날을 바꿔서 사용해요. 연할수록 나무가 무르니까 깨끗하게 나오게 하려면 톱을 바꾸



각도절단기

는 거죠. 톱날이 아주 미세하게 잘 들어. 톱날이 강도가 세면 이 톱날이 64 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나무가 연한 나무는 120날로 이렇게 돼 있어요. 회전수는 같은데 날이 여러 날이면 깎을 때 곱게 나가겠죠. 이게 입자가 작으면 간격이 머니까 자르면 거칠겠죠. 그렇게 나무에 따라 사용에 따라 톱을 이렇게 기계에다가 바꿔서 끼는 거지. 그리고 그걸 조절하면서 쓰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쓰면 되는 거 하는데, 나무 조절할 때 분석을 해 갖고 정밀하고 미세하게 써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조각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요?

조각하는 거는 보통 제가 칼을 한 30년 넘게 갖고 있으니까 그 칼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서각을 하든 조각을 하든 인물을 파든 다 이게 종류가 이렇게 다 달라갖고. 근데 칼을 쓰다가 갈면 닳잖아요. 이게 조각을 하다 보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럼 때워서 쓸 수 없고. 왜냐하면 칼은 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하고 닿으면 안 되거든 나무를 깎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러지면 버리고 다시 또 우리가 만들어서도 쓰고 다시 사서 또 갈고 닳고 해서 다시 또 쓰고 그러는 거야. 조각칼 갈 때는 야스리*라고 하는 줄을 사용해서 갈았어. 그런 거는 철공서 가서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고물상 가서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50년 된 조각칼이 한 10 자루 있고, 30년 된 것도 15자루, 근래에 만든 것도 한두 가지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조각하는 칼은 어디 가서 덜컥 돈 주고 얼마짜리 그냥 물건 사듯이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때가 묻은 거고 우리가 손수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애지중지 좀 뭐랄까 갖고 가는 거지.

지금 사장님이 만드시는 물건 중에서 어떤 거가 손으로 만든 작품일까요?

주로 이제 조각이나 저 간판 같은 거 현판 저기 지금 걸어놨잖아요.



사장님이 손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들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니 손이 보배일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서는 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이 손은 부모가 내려주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려준 손이죠. 하늘이 내려준 손 이거는 아무나 이런 손을 갖지 못하죠. 이 손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손이죠. 일생을 해도 못 따라오죠.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머리를 우리가 못 따라가듯이 이 손은 이 천하의 어느 지구상에 있어도 내 손은 못 따라오죠.

승의목공예마을에서

여기 승의동에 업장을 언제 차리셨어요?

여기 들어온 게 97년도 이때 온 거죠. 그전에는 목공 분야는 동구 배다리 쪽 상권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재개발로 구역 정리하고, 전철이 생기면서 다 철거하고 밀려나면서 목공예 마을 이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목공예 마을 자체가 없었어요. 여기 와서도 한 이십 년 거의 지나서 목공예마을이라는 게 생긴 거야.

목공예마을 생기기 전, 초창기 때부터 이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만두고 때려치고 지금 한 세 네 사람 정도만 원래 본 터야. 수도공예사, 안토니공예사, 전원공예사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다 다른 일 하고 있죠. 제가 이 일한 것만 해도 52년째인데, 인천 배다리 그때부터 같이 했던 초창기 우리 선배들은 다 죽고 없잖아요.

사장님은 어떨 때 이 목공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냥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싫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걸 보면 만족감을 느끼고, 그냥 소비자나 상대방도 꼼꼼하게 진짜 잘해주신다고 고맙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 기운도 나고. 또 그러면서도 사람과 좋은 인연도 많이 쌓고. 그런 게 좋았어요.

여기 송의 목공예마을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주변에 자꾸 건물이 들어서요. 건물이 들어오면 상권이 죽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될까 싶어요. 미추홀구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도 여기가 기왕 목공예 마을로 형성이 되었으니까 목공예 시설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 좀 해갖고 앞 간판도 양쪽으로 좌우 사이즈도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면 관광 도시라고 해서 특구 지역이라고 이렇게 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공예마을은 그게 없어. 서울 방향에서 오면 딱 1km 전방서부터 하나 해놔야 그런 것도 알고 찾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와서도 못 찾아 물어보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런 거 좀 해놔야 좋겠다. 이거죠.

앞으로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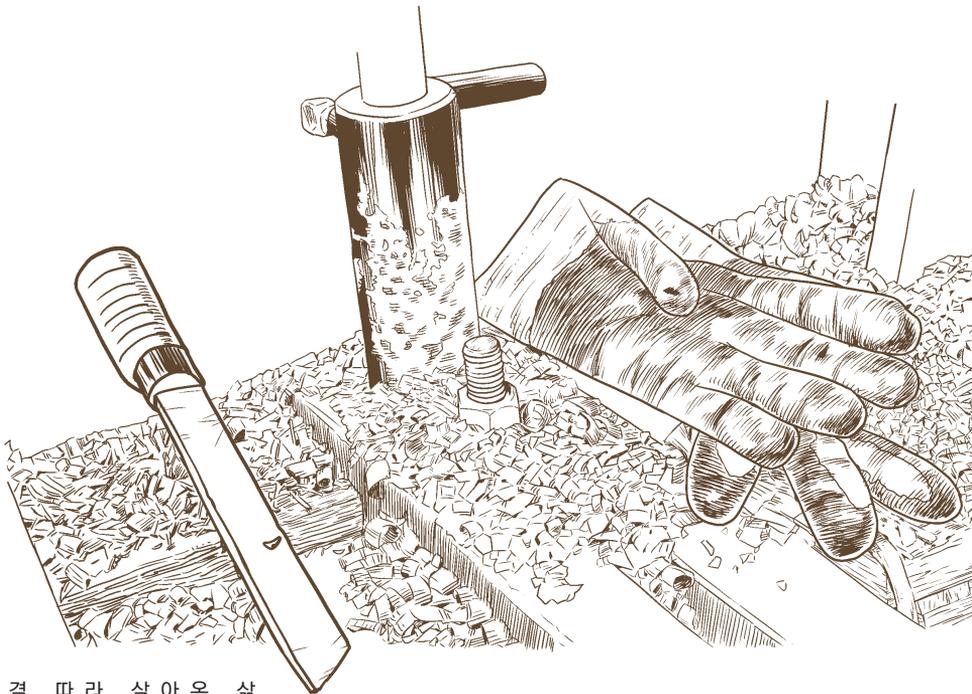
앞으로 얼마나 목공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한 5~6년 하고 이제 좀 쉬어야죠. 한 5년 정도만 더 하면 이젠 쉬어도 100세까지는 굶지 않고 살잖아. 우리 애들 다 장성했겠다. 애들은 또 나름대로 다 잘 살고 그러니까 좀 조용한 데서 공기 좋은 데로 가 갖고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남은 여생 저기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5년 후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이후는 천안 그쪽에 땅을 좀 사놓은 데다가 집 지어가면서 편히 살려고요. 지금도 농사짓고 있는데, 한쪽에는 저수지 물이 흐르고 한쪽에는 야산으로 돼 있는 소나무밭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300평 해놨는데, 집은 뭐 40평 정도 해갖고 국산 육송(소나무)으로 목조 주택을 지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한 10년이면 다 지을 것 같아요. 제가 기술이 있으니까 손수 지으려고 해요. 원자재도 딱 공급받을 것만 받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쓰고 그러려고요.

사장님의 멋진 소나무 집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 차례 긴 시간 인터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인테리어

주요작업 : 리모델링, 목조계단, 문짝, 문틀, 가구 등
 목공전문 제작 · 시공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17

윈스턴 스피커의 울림을 담은 장인

메이커보다 야무지게 소량 생산해서
여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울목공예 변경인 (1949년생)

시흥에서 태어나, 18살에 인천에 왔다. 20살 초반에 목선반 만드는 일을 시작으로 목공 일을 하였으며, 25살부터 서울목공예를 운영하다 22년에 가게를 넘기고 은퇴를 했다. 현재는 송의 목공예센터에서 목공체험 수업을 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8월 16일, 22년 8월 17일, 22년 10월 4일
면담, 원고정리 이혜숙
면담지원 정은주, 조연희, 양지원

승의목공예마을에 정착하기까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정인이고요. 생년월일은 49년 3월 1일이에요. 고향은 여기 가까운 시흥시예요. 시흥시에서 나서 여기 인천에 들어온 게 18살에 들어왔어요. 서울공예사를 경영하다 올 5월 말로 가게를 접은 상태예요. 여기서는 지금 목공 체험 지도사 1급을 가지고 목공예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미추홀로 온 것이 지금 한 40년 정도 됐어요. 미추홀구에서 꽤 오래 살았죠. 인천에 온 것이 지금의 송림동 있죠. 전도관 밑에 그리로 이사 와서 25살 때 지금의 이 도원역 있는 근처에 그때는 거기에 목선반 만드는 목공회사들이 많았어요. 그전에는 그때 당시에 농아들을 가르치는 목공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2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가구 사업을 했었어요. 30대 후반에 김포에서 우드박스라는 가구 회사를 한 15년 경영했었습니다.

그러면 직원 수도 꽤 되셨겠어요?

직원 수도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을 때는 한 50명까지 됐었어요. 크다고 하면 큰데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목공(예) 작업 이야기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하셨으면 혹시 특별한 고객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특별

한 주문이냐요.

고정적인 거래처가 그냥 10년 넘게 거래를 쭉 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지금 내가 후배한테 가게를 물려줬고요. 그 물려준 상태에서 거래처들을 지금 다 연결해 줬어요. 사실은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좀 하고 있겠죠.



서울목공예 은퇴식

그렇게 오랫동안 거래하신 분들은 보통 뭘 계속 주문하세요?

스피커도 했었고요. 스피커를 상당히 오래 했었어요. 10여 년 넘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볼링장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거 볼링장에도 목재제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건 계단이었어요. 실내 나무 계단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가 후배한테 넘겨줬죠.

볼링장 레일도 그렇고 나무 계단도 그렇고 나무가 단단해야 될 것 같아요?

단단한 나무들 많이 했었죠. 볼링장 후면에도 나무가 많이 쓰여요. 그 편이 있으면 편 뒤에 공을 받는 받침대가 있잖아요. 그거 받쳐주는 그 부품이 있어요. 목재로 된 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계단, 어떤 계단을 했었냐면 계단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많이 했었던 건 하나는 원형 계단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달팽이같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 계단에 부품을 많이 했어요. 철제와 나무가 조합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목재 부분을 제가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죠. 철제 부분만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한 메이커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 때 여러 공정이 합쳐서 하나의 제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목재로만 하는 나선형 계단도 꽤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설치된 원형계단

계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순서 같은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계단도요, 좀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일자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가 하면 또 꺾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빙글빙글 돌아가는 계단도 있고 계단이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특히나 한국의 건물들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계단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은 작은 공간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계단

이라는 게 그 집 안에 멋이잖아요. 꽃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장소를 좀 차지해도 멋있게들 만드시죠. 제일 멋있는 게 지난번에 청와대 가서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들 올라다니시던 계단이 있잖아요. 그것도 나무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제 가게 접으시고 은퇴하신 거잖아요. 그동안은 그림 안 해보신 분야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안 해본 거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거리에서 제가 안 해본 거 이런 간판 내지는 이런 조각 종류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저는 그쪽하고는 또 길이 틀리니까 그래서 소품 가구부터 시작해서 또 할 수 있었던 분야가 제가 스피커를 좀 한 십여 년 했었어요.

나무 스피커요?

예. 그래서 나의 스피커가 지금 제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만 좀 조그만 스피커가 아닌 엄청 큰 걸 했어요.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뀔 때니까. 윈스턴 스피커라고 그래요.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옛날 극장 화면 뒤에서 감춰져 있었어요. 뭐 앰프도 다 진동 공간이었겠죠. 그때 당



직접 만든 윈스턴 스피커와 사장님

시에는 지금 같이 무슨 디지털이 아니죠. 굉장히 오래된 스피커죠. 옛날 고전 스피커 그런 걸 재생해서 좀 만들었었어요.

이제 처음에 개발해서 만들 때 한국에서는 그런 거 못 만들었을 때 만들어서 성취가 될 때 거기에 나오는 제품들을 볼 때 아주 기가 막혔죠. 스피커 같은 데 들어가는 거는 아주 소나무인데 미국 소나무 소위 햄녹이라고 그래요. 거기 용이가 하나도 없는 거 조금 좀 선별하기 좀 어려운 것들 있죠. 그런 목재로 사용을 했고요.

스피커에 이름도 있었나요?

그거 제가 이름 짓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놨죠. 무성 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뀔 때니까 '윈스턴 스피커'라고 그래요.

목공예 거리의 변화

승의 목공예거리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배다리 그쪽에서 또 그런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도 그 옆전에서 쓰는 수차 있죠. 물레방아 그런 것도 만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돌아가는 그런 수차도 그때 당시에 그 배다리에서 만들었었어요. 많으니까 염색에 관계된 그런 것들도 많이 생산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것도 두세 집이나 됐었고요. 여기는 밀집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른 업종하고도 막 이렇게 섞여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여기 와서도 그렇게 자리 잡기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또 문 닫고 정리해버리고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들 다 또 손 놓고 이런 상황이었죠.

왜 배다리 쪽에 계속 안 계시고 이사를 오신 거예요?

배다리도 아시겠지만, 배다리에 주로 이 철로변 쪽에 있었는데 철로변 자체가 없어졌죠. 도로가 확장되면서 지금 여기 도원역 양쪽으로 지금 다 상가가 없잖아요. 거기가 다 목공소였어요. 동해사 있었고 그런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거기 있던 상가들이 싹 다 없어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 자체에 점유해 있던 땅들이 실질적으로는 있었던 거 아니고 전면에는 뭐 제대로 된 건물이었는지 몰라도 뒤쪽으로는 전부 철로변 땅이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가로로 돼 있다고 봐야죠. 그때 도로가 정리되면서 가게를 정리한 분들이 거의 다라고 봐야죠.

이사하면서 접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새로 유입되신 분들도 있고 이리지 않았을까요?

그 도원역 도원역에서 건너편 철로 말고 이 건너편 쪽에 목공소들이 그래도 꽤 유지돼 있었어요. 지금 거기는 또 운동장이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서도 또 밀려난 거죠.

요즘 여기 목공예거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목공예거리 분위기를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노쇠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벌써 70이 넘은 그분들도 제가 봐도 지금 한 1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의 타개책이 바로 무슨 제조를 목표 삼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죠.

현재 시점에 대한 바람

사장님 생각에는 지금 남아 있는 몇 개의 목공방이라도 잘 유지가 되려면 뭐가 좀 뒷받침이 돼야 할까요?

여기 이 목공예센터가 탄생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목공방들을 어떻게 해서는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박우섭 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만 해도 상당히 열의가 있으셨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죠. 그게 벌써 이제 10년이 됐네요.



목공예센터에서 진행되는 목공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관이나 민, 구에서 많이 할 수 있게 좀 도움도 주셔야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동네를 보시다시피 다들 영세해요. 솔직히 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없어요. 다 그냥 혼자 하는 그런 가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소일거리도 되고 그냥 호구지책이라고 그래야지. 지역화돼 있는 데 들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처음에 공방 시작하시고 구청에서 손을 대실 때 초기부터 이제 참여를 해봤어요. 그래서 구청 소회의실에서 구청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럴 때 다 참여를 하고 현지 시찰 같은 것도 같이 다 다녀보고 하여튼 100% 참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공무원들께서 얘기하시기에는 독일의 유명한 목재제품을 만드는 그런 데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그런 선진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델로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가졌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네가 좀 더 활성화 되고 하려면 대표되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거기에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제품이 없어요. 고유한 디자인도 없고 모든 제품이 다 이런 인테리어 내지는 이런 분들에 의한 부품 내지는 이런 거를 그냥 받아서 그걸 제조해주는 쪽이지 무엇인가를 꼭 집어서 제품을 만드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피력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천이 원래 야구의 본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문적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 데가 대전하고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에는 조금 규모가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이 만드는 건데요. 여기는 이렇게 기술들이 좋고 눈썰미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간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여기 사장님들이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전문적으로 SK 야구단에만 이렇게 납품을 한다. 박물관에도 야구의

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애석하게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졌었어요. 그게 야구 배트든 아니면 어떤 가구든 소품이든 그래서 딱 떠오를 수 있는 동네가 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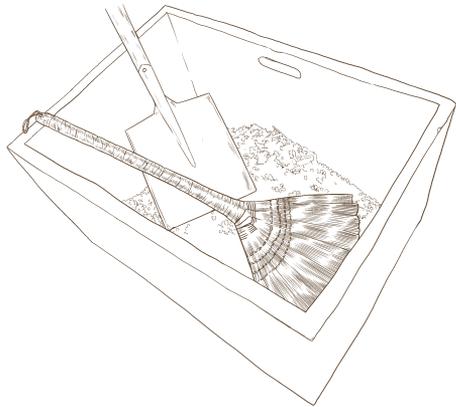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공방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저부터도 지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쉬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하고 뭐 거의 비슷한 연령대들이 지금 여기 여러 명 계셔요. 그리고 그 밑에 후배들도 다 60대 이상이에요. 중반도 되고 다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30~40대들이 같이 참여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게 아쉽죠.

나이대 별로 한 문제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의 시선도 필요하고 의견도 필요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 모든 것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도 되고 주문도 받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대 정도는 이 컴퓨터에 약해요. 다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자체가 컴퓨터 이런 데도 좀 약해서 그런 시장에 진출하기도 어렵고 이런 거죠. 지금은 여기서 목을 보고 지금 영업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목을 가지고 하는 시절이 아니죠. 온라인도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폭을 넓혀야 하는데 그 폭을 넓히려면 젊은 사람들이 좀 와야 되겠죠.

젊은 사람들도 이 나무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에 뭔가 매력을 느끼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은퇴하신 나이에 관심을 요즘 또 많이 가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여길 와도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의 필요하다는 첫째 급료, 폐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사람들을 채워줄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월급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가는 꼴이거든요. 자기 품을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좀 적죠. 그런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는 여러 분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목공예
(현재 은퇴)

주요작업 : 과거 - 원스톤 스피커, 나무 계단 /
 현재 - 생활가구 수업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49
 (현재 명진공예사 위치)

목공예 마을의 정직한 제페토

아침이면 부지런히 7시 전에 나와서 청소하며 하루 시작하는 거죠.

나무로 해달라면 뭐든지 다 해. 종류는 헤아릴 수 없죠.

노후에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튼튼한 의자를 만들고 싶어.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명진공예사
윤 덕 환 (1959년생)

인천 용현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중학교 졸업 후 1~2년 뒤 송의동 선배가 하던 목공소에서 목공 일을 시작하여 동산고 앞에서 15년 간 목공방을 운영했다.

현재 서울목공예 자리를 이어받아 공방을 바빠 운영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9월 2일, 22년 9월 21일, 22년 12월 28일

면담 김순옥, 허은영

원고정리 허은영

면담지원 정지선, 표기자

고향과 유년 시절의 추억

생년월일과 고향을 말씀해 주세요.

59년 6월 5일. 원래는 개띠인데 그때 나하고 동생하고 1년씩 줄어 갖고 돼지띠가 됐죠. 아버지는 강화 쪽이고, 어머니는 전라도인데 서울에서 만나서 인천 쪽에서 자리 잡고 용현동에서 많이 살았어요. 용현시장 부근 거기 못 가서, 남구청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지. 우물이 두 개 있었어요, 쌍우물이라고. 그전에는 그 우물물 전부 다 먹고 살고, 그거 갖고 빨래하고. 거기서 한 23년 인가 살다가, 물탱병이 그 뒤쪽, 용마루 쪽으로 이사 가고.

초등학교 때는 몸이 약해서 봄만 되면 횃배*를 얹아 개근상 한 번 못 타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타봤어요. 그때부터는 체력이 조금 됐지. 부모님들은 장사하시느라고 시장 한구석 노상에서 고생 많이 하셨지. 수입이야 겨우 먹고 살 정도지 뭐. 그때 당시에 학교를 세 명 다 다니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전부 무상교육이지만 그때는 기성회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못 내고 다니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도시락은 뭐 그냥 김치에다가 보리밥이지 그때 당시.

초등학교 때는 용현시장에서 독정이 고개 넘어서 용일학교 쪽 거기까지 걸어 다녔지. 옛날에는 골목 쪽이 (용일 초등학교) 정문¹⁾이었어요. 담 바로 뒤쪽으로 다가 용남시장 자리, 거기가 다 중국 사람들이 당면 공장 하고 그랬어. 우리 다닐 때는 거기 그쪽에 논밭이 많았어요. 논에서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지.

동문에서 장학금 같은 것도 많이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송년회 했어. 우리 7회가 그래도 잘 뭉치더라고요. 처음 만난 게 졸업하고 한 25년 30년 만

1) 지금의 후문 위치

에 만나니까는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이름표를 달아놓고 그러니까 몇 번 보니까 옛날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57년, 58년, 59년, 60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았었지. 학교도 10 몇반까지 있었고. (한 반에) 60명도 더 있었지.

중학교는 항도. 신흥동 해광사 밑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그게 선인재단이예요. 중학교 때 여기서 신흥동까지 걸어 다녔으니까. 청과물 시장이 있었지. 중학교 때는 또 신문도 돌려보고, 한 2년 했죠. 우리가 신문 돌리느라고 제물포에서부터 하인천까지 열차를 타고 다녔죠. 그리고 올 때는 하인천에서 용현동까지 걸어서 오고. 제물포(역사) 옛날에 여기 2층으로 안 돼 있었고 1층에 있었을 때, 그때 거기서 전철 타고 하인천까지 가면은 그냥도 막 타고 다니고 그랬었지, 옛날에.

생계를 위해 목공예의 길에 들어서다

언제부터 목공예 일을 하셨는지요.

목공예는 그때 당시 식구가 여럿이다 보니까 먹고살기 힘들니까 어려서부터 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한 1, 2년 있다가. 3남 1녀인데 위로 형, 내가 둘째, 밑에 남동생, 여동생. 형제들이 여동생만 빼고 다 연년생이에요. 그때 당시에 집에서 장손이 잘되면 전부 다 잘 될 거라고 장손만 믿은 거죠. 얼마 아버지가 노점 장사하시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 대학교 다니면 그때 당시에도 1년 치 등록금하고 학비가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직장은 기술 배울 때 그때 잠깐 있었지. 용현동 가정집에다 기계 놓고 옛날엔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공장이라고 번듯한 데도 없고. 70 한 2, 3년도 될

거야, 열일곱 살 때.

목공이라고 별거 없고 아까 제가 야구 방망이 깎아 드렸듯이 목선반* 그거
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중국에서 물건들이 다 들어오고 막 외
국에서 물건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없어
서 가구 짜는 걸 어깨너머로 배워 갖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하는 거
는 나무 상자. (양 손가락을 깎지 끼듯 맞물리시며) 끼워 맞추는 코너로킹*
해서 이렇게 끼어 맞추는 거죠. 저게 수출품이에요.

시작은 승의 목공예마을인데. 원래는 그 고전(고전공예) 자리가 우리 선배
가 했었던 자리예요. 선배가 하다가 나도 거기서 잠깐 한 1, 2년 있었고. 그
러다가 내가 어디로 갔냐면 동산학교 쪽 앞에 그쪽으로 갔어요. 동산고등
학교 앞에 거기서 한 십오 년 했죠.



동산고등학교 앞(송림동) 명진공예사 전경

거기도 우리 선배가 하던 텐데 ‘명진공예’로 내가 인수 받아 거기서 십오년 동안 했어요. 선배님인데 거래처도 많고 그런데 연세도 있고 몸이 안 좋으시다고. “야, 너 이사해야 되는데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서 좀 해라. 내가 여태까지 하던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니가 하면 괜찮을 거다.” 그 형님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지.

명진공예에서 보르네오 가구 손잡이 85년도에 한 5년 하다가. 90년도부터 동산학교 앞에 거기가 옛날에 제재소 자리였어요, ‘세기 제재소’. 옛날에는 송림동에도 제재소가 많았어요. 85년도만 해도 한 200만 벌어도 많은 거야. 공장장 월급이 150에서 200도 안 됐는데 내가 공장장보다는 더 벌었지. 그런데 배속에다 다 저축했지(웃음).

59년생이시면 지금까지 몇 년을 하신 거죠?

40년. 그런데 세월만 갔지 크게 한 것도 없어요. 지금은 내가 하던 일이 있고 또 여기(서울공예) 하던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일이 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도 보통 10시 넘어야 (출근하고) 공무원보다 더 했었는데. 지금은 부지런히 아침이면 한 7시 전에 나와서 뭐 할 거 없으면 청소를 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죠. 일이 바빠요. 지금 여기서 3개월하고 이틀 됐어요. 송의동 목공 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다 알아요. 제가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리고 서희 아파트(도원동) 짓기 전에 그쪽 길로 다가 목공소들이 많았어요. 그 건너편 쪽에 공예사들이 있다가 거의 철거되면서 다들 이쪽으로 온 거죠. 옛날에 배다리에도 공예 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80년도 이전에 있다가 한 87년도 그때 그쪽이 개발이 됐을 거예요.

나무, 친구보다 속내를 더 잘 아는

야구 배트 만드는 거는 원래 물풀레나무라는 거 그걸 써요. 그게 질겨 가지고 도끼자루 같은 것들도 다 그걸로 쓰거든요. 근데 누가 운동한다고 무거운 나무를 원해 갖고 멀바우*로다가 하나 깎아줬던 거지. 인도네시아 멀바우라는 나무거든요. 수입목인데 천연 그대로 쓰는 바닥재나 인테리어용으로 쓰는 거예요. 나무가 좀 단단하니까 바닥재로 많이 쓰는데, (비를 맞거나 하면) 나무에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외부용으로 못 쓰고 아파트 같은 실내 바닥재 그런 걸로 쓰죠.

우리가 고무나무 집성목 갖고는 원형 계단을 하고 있죠. 소나무 같은 것보다는 단단하지. 애견 배변 봉투함은 일반 스프로스*, 소나무 종류죠. 그것도 스텐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스텐이 미관상으로 보면은 나무가 낫다고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게 있어. 그리고 저 나무 상자는 자작나무 합판. 지금 쓰는 거는 몇 가지 안 되죠. 레드파인*, 고무나무, 뉴송도 쓰고, 특수한 거는 멀바우. 이게 멀바우 집성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카시아 집성목. 집성목은 나무를 붙여서 만든 거야.

국산 나무로 해보고 싶은데 느티나무는 고급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나무지. 괴목이라고도 그러잖아. 동네 어귀에 가면은 정자나무라고도 그러고.

채색과 도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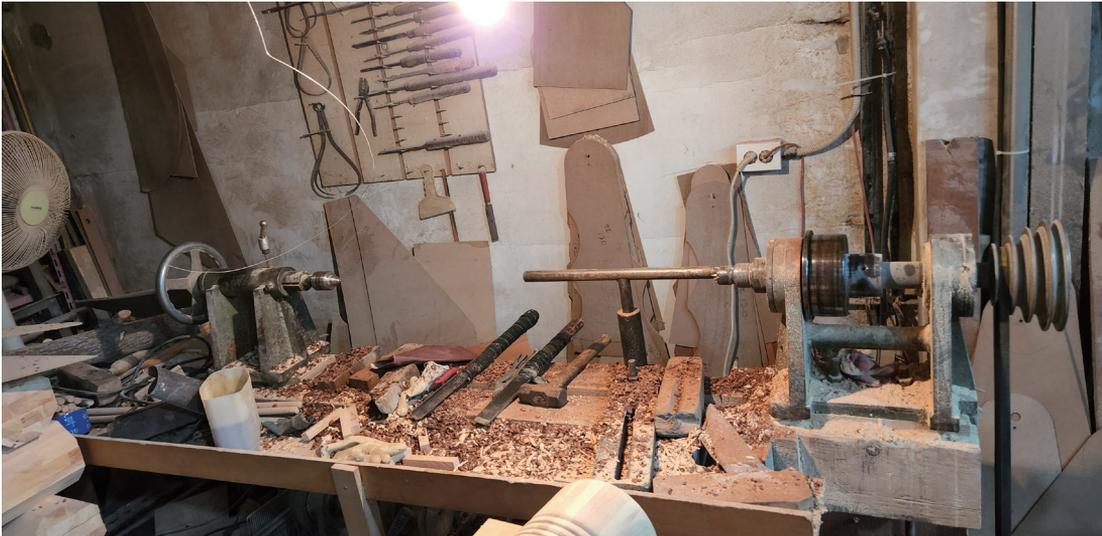
간단간단 하는 것만 여기서 채색하고 도료를 하지. 환경 때문에 칠을 하게 되면은 걸려버려. 도장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큰 것들은 김포 쪽 도장 공장에다가 맡기고, 전문 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간단간단한 거 그것도 눈치 봐 가면서 해야지.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주는 목선반과 그 외 기계들

로구로*에 대한 기술 좀 여쭙보고 싶거든요.

로구로는 제가 스무 살 이전부터 했어요. 지금은 목 선반이라고 하지. 쇠깎는 걸 선반이라고 그러는데 목 선반은 나무를 깎는 거. 예를 들어 식탁 다리나 가구 손잡이 같은 거, 프라이팬 손잡이라든지, 칼 손잡이. 둥그랴게 깎는 걸 다 목 선반이라고. 로구로 라는 게 일본 말이에요.

근데 로구로가 90년대부터는 거의 일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2층에 올라가는 거 난간 계단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로구로로 깎았는데, 그 기둥 같은 걸 전부 중국, 인도네시아 그런 쪽으로 다 수입해 오니까. 규격화해 대량 생산해서 딱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 깎아서 쓰는 것 같으면 가격도 비싸고 가격 면에서 밀리는 거지. 지금 목 선반은 거의 할 만한 게 없어요. 주문하면 식탁 다리 같은 거, 좌탁 다리 같은 거 몇 개씩 해주는 거지. 옛날처럼 홍두깨를 깎겠어요.



명진공예 목선반

기계 이름들이 일본 이름이 많아요. 띠톱을 갖다가 이제 오비노꾸라고 그러지. 모양 오리고 그러는 거는 띠톱, 자르는 건 또 마루노꾸라 그러고. 톱 종류를 노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톱을 아래 위로 내려가기도 하고 45도 각도로 눕힐 수도 있는데 축경사라고 45도까지 각을 줄 수가 있어. 옆으로 이렇게(팔로 각도를 나타내시며) 길게 칠 때 그러니까 기계가 조절이 되는 거죠. 테이블 쇼트라고도 그러고.

자동대패, 수동대패, 대패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빼파(사포) 치는 거 있고 애치센다*. 이거 따는 거는 (손가락을 맞물리시며) 코너로킹. 그러고 이제 동그략게 구멍 뚫고 그러는 거 보루방, 드릴머신이라고도 하고. 네모나게 구멍 뚫는 거는 각끌. 자르는 건 재단기라고 그러면 돼, 재단 톱. 목공 기계 파는 데가 있어요. 기계들은 다 우리나라 거지.

세월만큼 쌓인 고객과의 신뢰

지금 남동공단에 큰 기업이죠. ‘오성 체육’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제가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무 일만 있으면 나한테 다 시켰는데 지금은 대기업이에요. 오성 체육에는 늑목* 하고, 뿔뜯, 평균대, 체육관 의자 그런 거. 다 이렇게 가구 짜듯이 해요. 지금은 뭐 나무로 해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나무로 하는 거 있으면은 꼭 나한테 연락은 와요.

군납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하고. ‘홍보테크’라고, 거기에서 군납하는 군용 박스 도 많이 만들고. 부품들 보관하는 박스였는지. 사이즈는 뭐 한 600에 1200, 1800(mm) 짜리도 있고. 큰 거는 뭐 한 2400(mm) 나가는 것도 있고 2000(mm) 나가는 것도 있고. 한 1~2년 정도 했을 거야 아마. 미송하고

소나무 종류 합판으로 해갖고 겉에를 만들고. 안쪽에는 동그란 것들이니까 굴러가지 않게끔, 합판만 박으면 약하니까 기둥 세우고 막 그런 식으로 보강 다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신한 다이아몬드 목상자 일도 한 10년 넘게 한 거예요. 각 나라들 다 수출하는 거예요.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품 담는 거야. 그것도 남동 공단에 있지. 쇠 같은 거 그런 걸로 쇠를 깎다 보니까 금방 마모가 돼. 그러니까 인조 다이아몬드 그걸로 하는 거예요. 신한 다이아몬드에서 그거(인조 다이아몬드)를 받아서 수출을 하는 상자인 거죠. 한 달에 한 100개에서 150개.

내가 직접 말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소개해 갖고 자기네가 신한 다이아몬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또 스폰지를 다 넣어요. 내용물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폰지 넣고 또 작업을 하거든요. 목상자는 원자재 재단해서 코너로킹으로 귀탕이 다 따고, 조립하고 락카도장 칠해서, 통으로 만들어 놓고 뚜껑하고 몸채하고 축경사로 쪼개. 실크인쇄로 인쇄해가지고 다시 조립, 경첩 달고. 한 열 공정이라고.



목상자



스타벅스 강남점 내부

우리가 '스타벅스 강남점'에 인테리어 일을 좀 해준 게 있어요, 벽면 인테리어지. 이게 (사진을 보여주시며) 커피 도구들. 그때 로구로 의뢰가 와 가지고. 거기 책임자가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했지.

나무로 해달라면 뭐든지 다 해. 지금도 주문 들어오면 하죠. 목선반 주문 들어오면은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인천에는 저 중앙시장 안에 거기 '레몬트리'(카페)라고 거기 내가 해줬지. 배다리 중앙시장 안에 한복거리 있잖아요. 그 안에 가면 있어요.

저기 어디야 을지로 있는 거 '수포교' 그것도 하려고 그러다가 하도 일이 커서 그건 포기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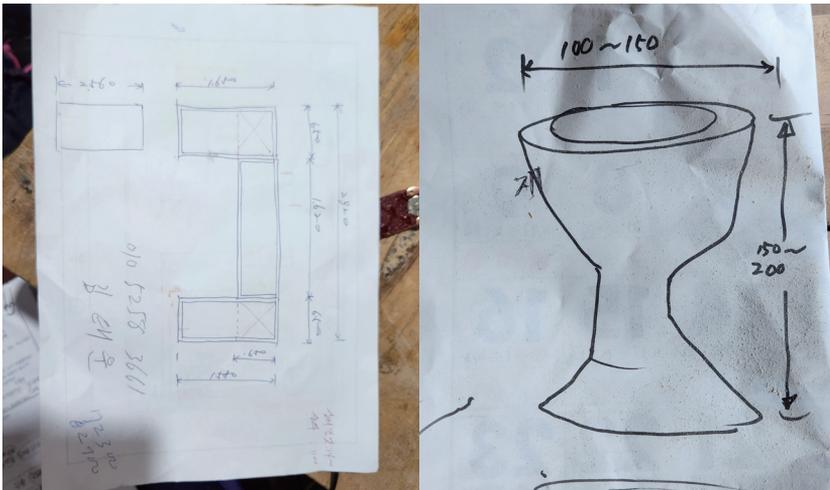
애견 배변 봉투함 같은 거는 각 공원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놓은 거 있고. 월미공원 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직접 설치는 안 했는데 여기서 만들어만 주면 그 사람들이 갖고 가서 설치를 해.



애견 배변 봉투함

저기는 들어 봤어요?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 거기서 인천 맥주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신포동에. 거기 대표도 내가 잘 알아요. 그게 부평, 구월동, 논현동, 저 연수에 있고, 송도 신도시에 있고 인천에 있는 것만 한 일곱 개 돼.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옛날에 형제들이 퓨전 술집 했어요. 구월동에 ‘코스보’라고 술집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지나가면서 “사장님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데 좀 어려워니까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그때 좀 해주고. 그런데 지금 뭐 다들 무지하게 컸지. 나중에 체인점 할 때는 내가 다 해줬죠. 지금은 지방 부산 쪽에도 있지. 서울에도 한 몇 군데 되지. 천안, 서산 내려가서 상판을 다 해줬어. 그때가 아마 2006, 7년도 될 거야. 그 아우하고는 인연이 되다 보니까 결혼식 때도 내가 가고 그랬었지. 맥학 협회라고 거기에 목침하고 복부 지압봉하고. 목침은 로구로로 깎아 갖고 반으로 쪼개고. 그래서 공정이 많이 걸려. 한 15년 했어요.

야구 배트 그런 거는 좀 특이한 거죠. 어디 가도 똑같은 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제작도안들

(하나 깎는데) 한 20분 걸려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몇 개씩 해 가는 거지. 그렇게 전문 생산은 아니지. 송림동에서도 가끔 몇 개씩은 했죠. 동산학교 야구부 애들이 저거 뭐야 땅 고르는 거 있잖아요. 너가레라고 그러지, 그런 것도 해주고. 거기 상자 텃밭 그것도 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누가 책장 짜 달라면 책장 짜주는 거고. 가구 짜 달라고 그러면 가구 짜주는 거지. 이거는 옷장 짤 거야. 이걸(설계도) 그려온 거야 그쪽에서.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인맥은 나뭇가지처럼 튼튼하게 뻗어 나가 결실을 맺는다

여기는 주로 원형 계단만 했거든요. 볼링장 일도 하는 게 있었고. 일은 선배님이 하던 게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 선배님은 내가 스물 한 두세 살 그 정도부터 알았으니까 나하고는 40년 정도 됐죠. 변경인 사장님. 그때 형님이 손잡이 같은 거 로구로 공장을 하셨어요. 나도 한 열일곱 살 때부터 로구로를 했으니까 같은 계통이니까 그때 만난 거잖아. 형님하고는 한 거의 10살 정도 차이 나니까. 그때만 해도 10살 차이면은 아주 깍듯한 정도가 아니라 웬만하면 쳐다도 잘 못 볼 정도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쪽에 재개발 돼가지고 어디 얻을 만한 데도 없고.

그런데 형님이 생각해서. 선배님이 몸이 안 좋으시고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어차피 가게 얻어야 되면은 이쪽 오면 어떻겠냐. 여기 일도 있고 그러니 좋을 거다.” 보증금은 어차피 들어간 거고 여기 기계 시설을 해 놓은 것도 그냥 싸게 해서. 뭐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몇 천 받아도 되는데

거래처까지 나한테 넘기면서 단돈 천만 원에 기껏값 정도만 해 갖고 “너가 해라.” 마음먹고 권리금 달라고 그러면은 전기 시설한 것부터 다 일일이 기계값 따지고, 자재 있는 거, 거래처까지 하게 되면은 돈이 꽤 되죠. 그래서 고맙죠. 거래처에 있던 거 내가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지.

선배님들 조언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이전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선배라고 한 세 사람 정도 있고 나머지는 동생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거지. 목재상 같은 경우 그 아우들도 나한테 자재도 싸게 주고. 일거리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목재상에서 직접 그렇게 하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재 같은 것들도 살 때 싸게도 사 오고. 목재는 용달차가 있으니까 북항 쪽에서 가서 직접 사 오는 거지. 북항 쪽 어디에 무슨 나무가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가면 항상 있어요, 나무들.

꿈은 소박하고 진실하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실까요?

원형 계단이나 목상자 저런 거는 계속해서 나갈 거 같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와 갖고 간단하게 몇만 원짜리고 해달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해주고. 실질적으로 뭐 내가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더라도 웬만한 건 샘플이 있으면 다 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다 하고 그러니까. 종류는 해달라면 해주니까 해야될 수 없죠.

오늘 저런 (행사용 비빔밥) 밥통 같은 거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 갖고 짜
냐 그거에 따라 틀리지. 저건 샘플도 안 주고, 사진도 안 주고, 그냥 생각해
서 만들어 오래. 소래 축제하는 데 쓴대.

앞으로 만들고 싶은 가구가 있으세요?

나는 의자를 좀 제대로 된 걸로 만들어 보고 싶어. 노후에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의자. 내가 다니던 회사가 의자 공장도 있었어요. 그 의자 공장에
서 나온 한 40년 넘은 의자들이 아직도 뽕뽕하게 있는 게 평양옥에 있는
의자 그거하고, 저쪽에 가면은 신흥동에 가면 모든 전골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어. 거기도 그 40년 된 의자하고 상관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튼튼해.
근데 그렇게 오래 가면은 돈이 안 됩니다. (웃음)

하시는 일에 만족하시나요.

불만족은 없어요. 내가 그냥 성의껏 만들어 주면 되니까. 불만족하면 안 하
면 되는데 간단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열심히 더 일하는 거죠. 그거밖
에 더 있어요.

승의 목공예마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모여 계시는 게 좋죠. 서로 일 같은 거는 협조들이 안 돼도 그래도 같
이 있는 게 맞지. 근데 같이 협업할 만한 일들이 없어요. 마땅한 게. 자기 주
특기들이 틀리니까. 지금 저 밑에 사람들 보고 계단하라고 그러면 못 하잖
아. 박스 짜라고 해도 못하지. 저런 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확장하셨잖아요. 후대에 계승할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이쪽으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놈은 음악적으로 하고, 피아노. 한 놈은 이제 장사 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언제까지 일을 하실 건지

노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힘닿는 데까지는 해야죠.

개인적인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이야기

제가 술을 보통 하루에 세 병씩 먹었어요. 두세 병씩. 지금은 안 먹은 지 몇 달 됐나. 술 먹다 보니까 일도 에러 나고 막 그러니까 ‘술 좀 안 먹고 한번 제대로 일을 해야지.’ 그러다 보면 손님들 다 놓치고 약속 안 지키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세수하고 나오면 한 5시 반도 되고, 6시도 되고 늦어야 7시 안쪽으로 나오니까. 한 달 보름 전 목 디스크가 좀 있었어요, 직업병이지.

이거 하면서 아픈 추억은 엄지손가락을 두 개 잘라 먹은 거. 잘라 먹었어도 살짝만 잘렸어서. 남들이 보면 우렁이 손톱 같죠. 발톱같이 생겨서 이게 톱에다 여기 잘라먹고 이쪽도 잘라지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저 결혼은 서른여섯이예요. 늦게 한테다가 이제 애들도 늦게 낳으니까 한 4년 만에 봤지. 애들이 지금 26이죠.

그때 좀 많이 늦으신 거 아니세요? 사모님 만나시게 된 계기 여쭙봐도 돼요.

나하고 아는 지인이 또 그쪽하고도 잘 알고, 서로 만나보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원래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속전속결이지. 나 만나러 왔을 때는 거의 스포츠(머리) 정도 됐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그때만 해도 단발머리를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머리가 자라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때야 다 좋지, 안 좋은 게 어디 있어.

일하실 때는 그림 사모님이 와서 도와주세요?

집사람도 나름대로 바쁘죠. 장애인 활동 도우미 하고.

평소 사모님께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돈도 못 버는 신랑 만나서 고생만 직사하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질 거야. 이쪽으로 이사 와 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더 할 거니까. 작년 6~7월부터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일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래서 그전에 못 해줬던 거 느즈막에나마 해줄 수 있게끔 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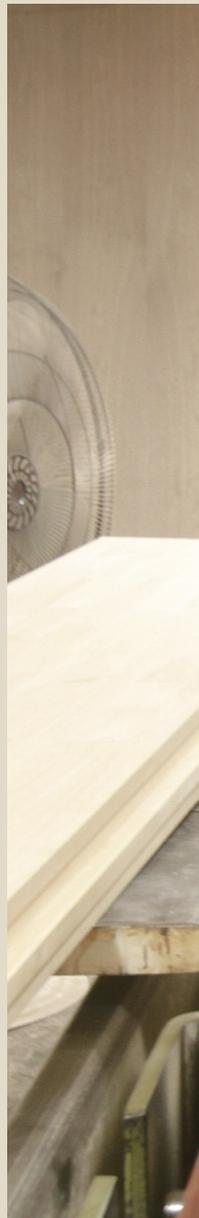


명진공사

주요작업 : 목상자, 로구로, 원형계단, 목재가구,
체육관련 용품, 인테리어 등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49

짜 맞춤으로 가구를 만드는 뚝심

나무가 좋아서 일을 했고요. 지금도 나무가 좋아서 하고 있고,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해요.







모던목공방
조 한 일 (1962년생)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나, 40년 넘게 목공 일을 해오고 왔다.
직장생활을 거친 뒤 송의목공예거리에 10여 년 전 자리 잡아
현재까지 모던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10월 21일, 22년 10월 31일
면담, 원고정리 이해숙
면담지원 정은주, 조연희

승의목공예마을에 정착하기까지

사장님께서 태어나시고 목공일을 시작하시고 승의동에 정착하시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충남 태안에서 태어나서 인천으로 와서 시작은 직업으로 가진 지는 오래 됐죠. 뭐 거의 40년 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직장생활을 많이 했어요. 여기 온 거는 한 10년 좀 못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동네에서는 막내일 거야. 솔직히 나무 만지는 걸 좋아했었어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취미로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직업으로 하기에는 좀 배고픈 직업이라고 저만 그렇지 뭐 잘하시는 분들은 또 돈도 잘 버시고 그래요.

요즘에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목공 배우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다른 공예하고 다르게 나무를 만지고 하는 게 훨씬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주부 생활가구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들 좋아들 하시고 만드는 거 좋아하시고. 나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싱크대 이런 재질로 하는 것은 몸에 해롭지만은 이 순수한 나무는 그렇게 해롭진 않아요. 원목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먼지를 마셔도 그렇게 해롭거나 뭐 일부러 먹어서 좋을 건 없겠지만은요.

목공 작업 이야기

요즘 나무로 뭐 많이 만드세요?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저런 가구를 만들잖아



작업장 내부

요. 저런 가구를 만드는 사람은 이 거리에서는 없어요. 옛날에는 짜 맞춤이라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기계가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건을 제가 만들면 좀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어요. 손님들이 뭐 해달라고 하는 거는 손님이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 주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을 만들어서 공방에다가 전시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예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런 말올 한 게 공방 카페를 하면은 이제 진짜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가치 있게 짜 맞춤식으로 일회용이 아니고 요즘에 가구가 일회용 됐잖아요.

주문받으시고 작업하실 때 어떤 종류의 나무로 작업하시나요? 색깔도 직접 입히시나요?

거기서 원하니까 밖에 있는 것도 같은 학교에서 주문받은 건데 그거는 또 그냥 나무 색깔이 그 자체로 이런 색깔도 나오잖아요. 저 뒤에 보면 월넛(호두나무)이라고 저기에다가 그냥 도장만 하면은 자연스러운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스테인*을 넣으면은 좀 덜 이뻐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연 그대로가 나무 색깔 그대로가 예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색깔 넣는 거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색깔 넣기도 힘들고요. 거기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서 도장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사포질도 잘 못 하면 다 이게 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커버해야 하고 해서 그냥 나무 색깔 그대로 하는 쪽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르실 때는 보통 어떤 기계를 많이 쓰시나요?

기계도 저희만 있잖아요. 다 가봐도 이런 기계 없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요즘에 이 나무가 중국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각이 딱 안 맞아요. 사 왔을 때 각이 딱 안 맞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 안 자르고 그냥 밀어서 자르면은 조금은 가내(직각이 안 맞는)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사면을 다 재단을 하고나서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장점이죠. 또 다른 분들 가지고 있는 기계는 또 없는 것도 있고 대패라든가, 평대패 그런 거는 또 저는 없고 가게도 좁고 하니까요.



사용하는 기계

사장님께서 가장 자신 있게 많이 만드시는 종목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가구를 자기가 만들면 저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냥 똑똑 잘라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짜 맞추) 좀 하면은 보기도 예쁘고 뒤틀림도 좀 덜하고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구는 뭐 거의 저런 식으로 만들거예요. 싱크대를 만들어도 그렇고 장롱을 만들어도 그렇고 장식장이든 서랍이든 그 앞판은 저런 식으로 원목으로 하되 저렇게 짜 맞추는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무게도 조정은 가능하죠. 그냥 나무를 이게 아무리 붙였어도요, 그냥 나무를 잘라서 문을 달아놓아도 저런 식으로 하면 뒤틀리는 거는 방지가 돼요. 이거는 저렇게(어슷하게 짜 맞추) 하려면 그만큼 공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직접 제작한 서랍

짜 맞춤 작업을 하려면 웬지 수학적인 뭘가 계산이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날을 잘 만들어야죠. 그렇게 깎아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옛날처럼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계로 하니까. 날은 맞추죠. 그렇게 맞춰야 만이 저런 식으로 짜 맞춤이 되는 거고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타카 후 본드 발라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구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짜 맞춤이 나 그래도 피스 조립 정도는 해줘야 튼튼하지. 사포도 잘 해 가지고 타킹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아요.



장식장 수평 맞추기

앞으로의 소회와 바람

그렇다면 앞으로 송의 목공예거리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리라기보다도 나무가 좋아서 일을 했고요. 제가 지금도 나무가 좋아서 하고 있고,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저는 경제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행복해요. 누군가도 나무 만지면서 사는 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해서 창업까지 이어진다면 좋겠죠. 지금 송의 목공예센터가 있잖아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후계자를 좀 양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거리 꼭 아니더라도 목공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귀농하시는 분들도 좀 배워가지고 시골에 가서 요즘에 또 공구가 잘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말씀하신 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혹시 사장님의 역할이나 필요한 곳이 있을까요?

만약에 센터를 중심으로 1층에 또 기계 같은 게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와서 배운다고 그러면 제가 좀 많이 다쳐봤잖아요. 안전 교육도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은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교육 위주의 수업도 좋지만, 센터에 전시공간도 생겨서 여러 사람의 작품들 상설 전시도 하면 좋겠습니다. 주차 공간도 그렇고 좀 아쉬운 게 많죠.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교육도 그래요. 제가 할 때는 주부 생활 가구 맡았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걸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만약에 좀 가까운 곳에 젊은 목공인이 온다면 혹시 선배로서 이분들한테 어떤 말씀 해 주시고 싶으세요?

글쎄 뭐 제가 조언해줄 정도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좋아해야 되요. 일을 배우시려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해야만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막무가내로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오래 못 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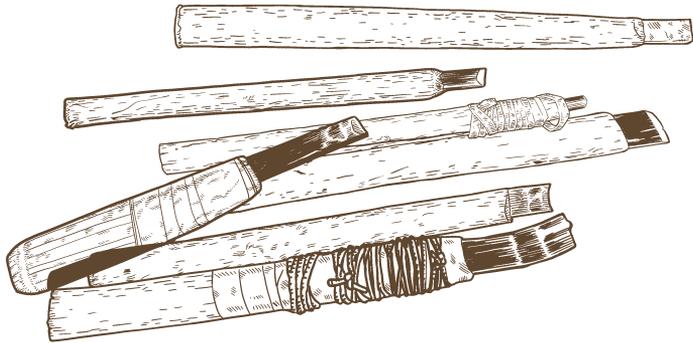
사장님은 직장생활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방을 내셨잖아요.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공방은 아무래도 자기 혼자서 하니까 그래도 자유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다 주니까 그것도 성취감도 있고요. 회사에서는 틀에 박혀 있으니까. 회사생활 할 때는 전체적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하니까요. 마음을 비우고 이제 물론 경제적인 게 좀 뒤를 따라와야 그것도 되겠지만,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저도 요즘에 와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냥 그래도 나무 만지는 게 좋고 그래요.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여기로 오기 전에 참 좋았는데, 여기 와서 많이 상했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도 술을 좋아해요. 저도 술 좋아하거든요.

꼭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글쎄요. 앞으로 그냥 열심히 해야죠! 솔직히 말해서 기회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시골로 가든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

고 있죠. 그래도 하려고 그러면은 한 5~60평은 돼야죠. 그렇다고 뭐 공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취미생활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노후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던목공방

주요작업 : 짜맞춤 가구 제작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3

목재의 숨결을 느끼며 나무를 바라보다

조각 일을 한 지 20여 년이 지나서부터 몸과 마음에 와닿는 목재의 숨결을 느끼며, 나무 덩어리에서 조각품을 보는 혜안을 갖게 되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손님이 원하는 것을 스케치하여 소통한다. 고통과 외로움을 통해 단단해지고 40년 넘게 한 길만 걸어온 끈기와 도전을 통해 목공 장인으로 거듭나고 싶다.







한일원목목공
김 종 필 (1962년생)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인천 부평으로 이사와
어린 시절을 보내고, 20대에 배다리에서 목공예에 입문하였다.
80년대에 '한일공예사'를 인수하여 이후 '한일원목목공'으로 이름을 바꿔
사십 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9월 13일, 22년 10월 1일
면담, 원고정리 김용경
면담지원 표기자, 정지선

목공장인으로 정착하기까지

어린 시절 주로 사신 곳은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태어난 곳은 전남 해남인데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 와서 화곡동과 목동에 전전하다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인천 산곡동으로 이사 와서 살게 되었어요. 제가 살았던 산곡동, 청천동은 양계장이 많아 닭똥 천지였어요. 우리 집은 그때 청천농장에서 올라오는 공동묘지 근방 동네인데, 영아다방 쪽으로 쪽 내려오는 길이 있는 메꽃마을에 살았어요. 닭똥 냄새가 맨날 나도 거기가 즐겁고 좋은 데였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살았으니까요. 우리 동네엔 양계장이 많았지요. 그 뒤에 맨 끝에 공동묘지가 있고 그래 거기 원적산이죠. 지금 원적산 주차장 자리 옆으로 올라가면서 거기가 쪽 전부 다 양계장 브로크(블록벽돌)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지요.

저는 16살 때 부천 소사 가서 살아보겠다고 일선에 뛰어들었는데, 최초로 프레스 일을 했어요. 그 철공 일이 가을쯤인데 너무 찬 거예요. 너무 차고 손으로 움직이는 기계에 닿는 찬 느낌이 싫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보다 해서 짜장면 먹고 도망 나왔어요.

또다시 사람을 쓴다는 곳을 찾아갔어요. 부평 5공단인데 수출할 무선전화기 박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철야를 해가면서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돈도 못 받고 나왔어요. 그냥 경험만 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 나이는 삶이라는 게 모르는 나이잖아요. 동생들하고 어머니 아버지와 불화가 많으니까 나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만 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부평 4공단에 취직을 했어요. 부평 4공단 맥심 옆 할인매장 옆에 한곡전기라고. 수출회사인데 거기서 한 삼 년 있고 퇴직했죠. 막말로 잘

렸죠. 그리고 나서 효성동에 동보전기라는 데 가서 형광등 만드는 데서 한 1~2년 있었고, 그다음에 슈퍼마켓 한 6개월 배달하고, 그 후에 도라무통* 만드는 데 있었어요. 여기서 1년 있었고 그러고 나서 군대에 갔다 와서 제대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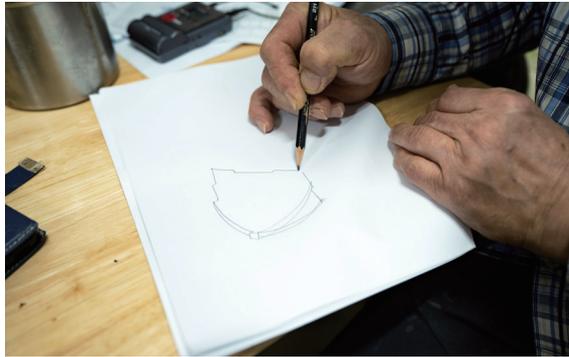
20대 초창기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20대 초반기 때는 주로 한미반도체 같은데서 포장 박스를 만들었어요. 포장 박스 100개씩, 조그만 거 300개씩, 그때는 나무 포장이 많았어요. 포장 재료가 모두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는 그게 단가가 좋고 한라중공업 같은 경우는 배 간판 같은 것도 받으면서 몇 번 해보고. 저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다 납품을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경기도 쪽 골프장을 한 20군데 했어요. 한 사람 개인 들어가는 거를 20군데 하고. 군데 그게 기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고객이 말한(주어진 그림) 것을 내가 설계해서 만드는 거지요. 저는 배운 건 없지만 상상해서 이렇게 저렇게 짜 맞추며 머리를 써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7~8년 전인데도 6백만 원을 받고 모형 배를 만들었으니까요. 아무튼 공주인데 거기도 몇 번 납품했는데... 그 시절에도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납품했는지 저도 신기해요.

언제부터 목공 기술을 배우게 되었나요? 그 과정은?

군대 갔다 왔을 무렵에 88 정비대대가 신천에 있었는데 미군 부대 박스가 많이 와요. 그 미군 부대 박스가 오면은 그 박스 자체가 뉴질랜드 소나무로 연했어요. 뭘 만들어 보니까 그게 범선 같은, 범선 같은 게 뭐냐 하면 그때 시절에 이런 걸 만들어서 또 달고 또 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 시절에 그걸 만드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면서 내가 살 길이 뭔가 해 가지고 무조건 배다리라는 곳으로 갔어요. 81년도에 배다리에 와 가지고 목공 기술을 배우게 된 거죠. 제 나이 20대로 한 2년 동안 배웠죠. 배다리에 모형 배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런 나무를 어디서 파냐고 했더니 배다리에서 판대요. 그래서 내가 배다리로 놀러 간 거죠. 놀러 갔는데 정말로 팔더라고. 그 사장님이 저 보고 배를 한번 만들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함이라든가 거북선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나무를 대졌어요.



스케치하는 모습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배 그림을 그려가며 했지요. 여기에 대포가 있고 여기도 대포가 있고 저기엔 헬기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회의장이 있고... 그 시절에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만들었어요. 남들보다 빨리 잘 만든 것이라 했어요. 3일에 하나씩 만들어 주니까 주인이 여기에 출근 한번 해보라 해서 월 12만 원 받고 도시락 싸 갖고 다녔는데, 그 집에서 일 년 넘게 있었고, 또 그 옆에서 1년 반에서 2년 반을 일하면서 수도국산에서 자취를 하며 배웠어요.

그때 사장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손님이 오면 연필을 잡고 손님 말을 스케치하라고요. 스케치를 해 가면서 표현을 조율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죠. 노트를 놓고 스케치를 해야 손님이 원하는 본이 나온다는 것을. 손님과 소통한 스케치를 바탕으로 혼자 꼭 빠져 배 만드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목공예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목공예 기술이 나아지고 스스로 연구하고 응용하게 되어 지금까지 왔어요. 내 목적은 어느 한 개의 기술이 아니라 그 하나의 기술로 인해서 응용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차츰 가구가 되고 돈이 좀 되더라고요.

어느 한 개만 갖다가 하면은 그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보는 거예요. 칠도 해보고 가구도 짜보고 조각도 해보고 했지요. 제 기술은 100%를 배운 게 아니라 다 눈으로 보고 응용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일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빠꾸도 많이 당하게 되고, 그러면 왜 빠꾸를 당할까 원인이 뭐였을까를 많이 분석을 하다보니까 일이 늘어가고 기술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들어오면 아주 바쁜 거예요. 마음이 급해져 서두르고, 서두르다 보면 하자가 나오고. 젊은 그 시절에는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죠. 가게 세 못 낼 정도로 힘들었지요. 그때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탄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기술이 좋아서 크게 벌릴 수도 없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벌릴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끝까지 가자, 열심히 해보자 하다 보니까 벌써 40년이 흘렀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만족스럽게 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끈기 있게 꾸준히 해 보니까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면서 내 자신을 파악하고 성찰하게 되었어요.

오기와 끈기로 꾸준히 버티다 보니 이제 먹고 살게도 되고 보람도 느껴요.
삶은 끈기와 버티기인가 봐요.

군함 제조와 목공예에 쓰이는 목재는 어떤 건가요?

보통 소비자들이 저처럼 직접 만들려고 군함 재료를 구하러 와요. 재료를 사러 와서 자기들이 조립해서 만들고 자기들의 행복을 느끼는 거죠. 본인들이 조립하면서 깎으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고 해서 직업으로 선택했지요. 그 시절에는 모형 배 판매가 많았죠. 재료 판매하면서, 그 당시 해군, 해병대들이 많았지요. 많은 해군들이 제대 기념으로 모형 배를 사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군함 만드는 그 목재의 재질은 조각이 잘 되는 마디카*로 꾸렸을 거예요. 마디카라는 나무가 있어요. 마디카는 인도네시아산인데, 그 인도네시아산 나무가 조각하는 용도로 제일 잘 깎였어요. 마디카라는 나무 재질은 인천에 있는 제재소에서 구입했어요. 평화 제재소, 영창 제재소 등이었죠. 우리가 직접 가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이 그걸 사다가 손님이 오시면은 나무를 갖다가 깎아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목재를 취급하는 제재소에서 배다리 근방 인천 송현동에 많았어요. 원목이 주로 인천 송현동쪽 제재소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배 도면 그림

대표님이 생각하는 목공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80년대 제가 20대 초반, 그때 당시에는 인천에서는 목공 하면 배다리였거든요. 배를 만든다는 배다리, 뭐 거기에는 목공이나 대나무나 함석, 덕트*나 그런 게 다 모여 있었으니까요. 배다리 시절에서 내가 그만두고 나오면서 송의동에 왔을 때는 새로웠죠. 서로 알지도 못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살려고 했죠. 어려울수록 공부를 해야 되나봅니다.

그때가 1984년 내지 198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배다리에서 조그만 가게를 차렸다가 너무나 기술이 없고 실력이 모자라는 판에 할 일도 별로 없고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서예학원을 한 2년 다니게 되었죠. 그때는 컴퓨터 시절이 아니니까 손으로 목공예를 하는 때라서 글씨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서예학원에서 저녁 10시까지 글씨를 썼어요. 서예는 입선만 세 번 했는데, 계속 서예를 배우고 싶은데 먹고살기 바쁘니까 포기했죠. 그 당시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맨날 빠꾸*만 당하고, 이렇게 헤매다가 목공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었고 그 과정도 많이 힘들었죠.

한 2년이 흐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2년이란 세월이 많은 걸 움직였어요. 그때 당시 행복했어요. 행복하다는 게 뭐냐 하면 일은 없고 돈을 못 벌어도 서예학원 가서 글씨를 썼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되어 상업체* 글씨를 배워 쓰고, 그다음에 거기 배다리 흘러서 여기 송의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죠.

잠깐이나마 그런 세월을 겪다 보니까 그때 일을 해도 남의 하청을 맡아서 하니 돈이 안 되고, 애를 썼는데도 인건비는커녕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받냐?" 그런 대우도 받고, 돈을 이만큼 줄 테니 해보라 하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무섭고, 막상 맡아 가지고 무리를 해서 낱밤 새기로 3박 4 일을 해서 끝내기를 반복하니 건강도 많이 해치게 되고. 내가 이걸 보면서 어저지로는 안되는 것이구나. 차라리 내 부족함을 메꾸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마음만 바쁠 뿐이지 나한테 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쉬는 게 낫더라고요. 근데 그런 힘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게 노하우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기계 사정이 안 좋았지요. 목공의 제일 기본이 직각이거든요. 직각을 못 맞추면은 물건이 다 삐딱해요. 내가 어디 상가(소비자)에 매대*를 꾸며서 납품해 가지고 갖다 줬는데 안 맞는 거지. 그걸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직각 맞추는 기계를 못 샀어요. 그게 좀 비싸니까 납 업체에서 몇 번 빌려 쓰고 해봤는데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빗을 내서 기계를 사서 해보니까 직각이 안 맞으면 모든 작품의 기초가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직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기본이에요. 사실 그 후 우리들도 헤매요. 잘못된 작품의 원인이 뭔가를 보면 직각이 안 맞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목공예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직각 맞추는 거더라고요.

대표님의 목공 스승이 누구시며, 대표님 가게를 갖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저의 목공 스승이라면, 배다리 목공예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이봉기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삶의 인간성부터 참 많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유 있는 모습하고 진실하고 강하시고. 이제 나이 들어 힘이 없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가게를 갖게 된 특별한 계기는 평범해요. 처음에 ‘신라미술’을 1년 정도 하다가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가게를 접었어요. 접고 한 5개월을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 중인데, 그때 수원까지 다니면서 간판 조각만 해주고 출퇴근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계속해서 수원까지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살까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한일공예사’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일공예사 사장이 저한테 “인수해서 좀 해 보라. 할 수 있냐?”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얼마에 인수하겠냐고 하니깐 2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 사업을 시작을 했죠. 처음엔 전 주인 상호대로 ‘한일공예사’로 운영하다가 ‘한일원목목공’으로 바꿨죠. 이제 한 사십 년 가까이 되었네요. 요즘은 교회용품 제작 의뢰가 많아 교회 용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모습

배다리에서의 깨달음

배다리는 어떻게 알고 가셨나요?

배다리에 목공소를 찾은 것은 버스에서 만난 사람이 들고 있는 나무 때문이었어요. 그때 청천동에서 12만 원 받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는데 삼십 분 걸리더라고요. 그 젊은 시절에 만드는 게 좋아 남들은 8시에서 8시 30분까지 출근하는 것을 저는 7시에 출근해서 출근하자마자 부지런히 만들었어요. 다들 저를 잘 보더라고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위에서 “김종필이는 잘 살겠다.” 말할 정도로 부지런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 년 다니다가 그 옆에 신라공예가 있어서 그리로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밤새워 일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포장 박스 짜는 걸 배웠는데 삼립빵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었지요.

그러면서 그 시절에 조각을 2년간 배우며 응용하면서 터득하게 되었지요. 남들보다는 빨리 움직이고 빨리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고려미술 업체에서 범선과 거북선 같은 배를 만드는 것을 배우고 만들면서 얼마간 다녔죠. 그러면서 조각도 배우고 글씨도 2년 배우면서 조금씩 혼자 터득해 나가다 보니 이 작업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배다리에 목공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중 안양 사람인데 지금은 거의 아흔 살이 됐을 거예요. 영흥도에 사셨는데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일을 잘하나 하면 그 사람은 문짝을 짜는데 다섯 수를 보고 짜요. 장을 짜면서 다음 계산, 다음 계산 입력을 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걸 봤죠. 한 번에 끝내고 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전개하면서 짜나가는데 거의 수동으로 일을 해요. 간간이 기계 질을 하지만요.

저 사람은 톱질하면서도 생각을 하면서 다섯 수를 보고 일을 하는구나. 마음속에서 지금 이 일을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를 할까를 구상하고, 다음 전개가 뭐가, 또 그다음 전개가 뭐가 하면서 입력시키면서 쳐나가면서 일을 하니 무지하게 빠른 속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분 작업을 보면서 생각하는 작업, 스케치하는 작업의 힘을 알게 되었지요. 아, 이래서 이 양반이 딴 사람보다 진짜 기술이 좋구나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작업장 전경

승의동 목공마을에서 발견한 목공 특기와 단련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여기 승의동 목공마을처럼 배다리에 한 13~14군데가 목공 말고도 대장간 부터 함석부터 그다음에 조각까지 다 있었어요. 여러 가지 중 내 몸과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나무더라고요. 사람들이 조각하는 그 모습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나 봐요. 나는 몰랐지만 여기 와 보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죠. 그래서 나는 이걸 꼭 하고 싶다는 생각과 욕심이 나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일단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목간판 조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주위에 고전조각, 인일조각 등을 비롯한 목공 일을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지만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선배고 많은 일을 해서 목간판도 많이 아시고 하시지마는 그래도 나 나름대로 혼자 노력해서 그분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우리 시절보다 더 앞서서 일을 했기 때문인지 그분들이 깔끔하게 작업하는 모습하고 내가 어설피게 하는 모습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꼈어요. 그게 성격이었더라고요. 그분들은 성격대로 일을 깔끔하게 하고 나는 내 성격대로 거칠게 일을 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일은 내가 빠르게 잘하나 내 부족한 걸 나중에 알았죠. 소비자의 마음을 무시하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오버더라고요. 소비자 눈과 마음에 들게끔 일을 해주는 게 우리 임무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걸 몰랐으니. 그렇게 되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내가 남들보다 일은 빠르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없이 살면서 빨리 벌어보려고 하는 그 패턴이 너무 잘못된 길을 가는 거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하면 그 시절에 내가 수급한 곳에서 싸우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일했다고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것 자

제가 잘못된 거였다는 걸 차츰 알게 되었어요. 실력이 없었다는 걸 알고 인정하는데 25년 세월이 걸렸지요. 손님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게끔 일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빨리 분석해야지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죠. 단순히 일이 아니고 어떤 의도로, 어떤 요구인지 움직이는 포인트를 잡고 해야 되는데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경우가 안 맞는 일이 종종 벌어지더라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반영해줘야지만이 내가 발전할 수 있더라고요. 내 자신도 핵심을 잡고 깊이 생각하고 일을 해야 나한테 발전이 오더라고요.

목공가게를 운영하면서 깨우친 인생 교훈은 무엇인가요?

배다리에서 헐리기 전까지 300만 원 전세 주고 일하다가, 헐리면서 이곳 송의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송의동 와서 본격적으로 내 가게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죠. 거기 배다리에서도 혼자 하다가 사업체를 안 했고 여기 송의동 와서 내 명함 걸고 했는데 ‘신라미술’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고전하다가 일 끝나면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서예학원을 한 2년 다니며 서예를 배웠지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글씨 쓰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그때 제 나이는 23살 정도 됐는데 이게 내가 갈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렵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면은 월급이라도 받는데 혼자 하니 돈이 안 되니 그만둘까도 했다가 버틸까도 하다가 고민하는 사이에도 세월이 흐르더라고요.

실패도 역경도 다 시간이 해결해 줘요. 이 목공은 실력이 있지만 깨우친 과정까지의 시간이 25년이 걸리더라고. 정말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물건 만드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터득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흘러야지만이 얻어지더라고요. 거의 5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나이가 60에 드니까 차츰 안정이 되네요. 지금은 너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 좋고, 일이 많다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느 누구 부럽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니까 주어진 일이 많고, 그래서 새벽같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죠.

목공예마을과 목공의 미래

목공마을의 현재 모습과 이상적 모습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송의동 목공마을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시에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한 그 자체로 고맙게 생각하죠. 앞으로도 목공마을의 고유성이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해요. 여기 목공마을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터치(간섭) 안 하면서 꾸준하게 유지되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송의동 낙후된 시설을 88올림픽 때, 아시안게임 때 조금 보조해줬을 거예요. 한 예로 그전에는 화장실이 없어 불편했었어요. 최근 저는 화장실을 꾸미고 주방도 꾸미고 조그만 사무실도 꾸몄어요.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넓게 한 거예요. 교회 일 하면서 그래도 돈이 되니까 나름대로 투자해서 남의 집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일하기 편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해야지요. 나에 맞는 환경을 만든 거죠. 제 생각에 조금 더 깨끗한 목공예마을을 만들기 위해선 서로서로 협조해야 더 나은 마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송의 목공예마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40~50년 이상을 사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곳 땅은 철도청하고 나라 땅하고 섞여가지고 공동명의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사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엉켜 있으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주 장기전으로 길게 마음먹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 변화가 오려면 어느 누가 전체적인 합의를 해서 한 사람이 이걸 통째로 사야지요. 나라하고 개인하고 합의를 해야만이 이걸 살 수 있는데. 어렵네요. 그래서 세 들어 살고 있어요.

숭의동 목공예마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9년 정도를 예상해요. 10년을 예상하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9년 그 이후에는 어떤 좋은 세계가 나름대로 오겠지요.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봐야지요. 내가 9년을 더 하면 50년이 넘는 목공 인생인데. 여기에 더 몰입하고 빠지다 보니까 40년이 넘고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때 가면 70살일 텐데 힘도 없겠지만 쉬어야겠죠? 누군가에게 목공 일을 시켜가면서 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럼 나도 좀 실 수 있을 텐데.

목공마을의 전통을 이어나갈 후계자는 양성하셨는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80%가 재주꾼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목공예가 생계유지를 위한 돈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목공 일이 지지분하고 먼지 많고 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거예요. 저희야 어차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먼지를 먹든 내 직업인데 하고 열심히 하며 살지만 말입니다. 누가 와서 한다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제 후계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현실은 젊은 층을 얻어야 되는 데 목공을 배우려는 젊은이가 없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직업이 참 재밌는 직업인데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일을 하든 노후를 생각하면 이게 망할 일은 없잖아요. 아무리 기계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와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이 목공예는 가치가 높잖아요. 목공은 정년이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업인데.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수입 보장이 안 돼요.

사용하는 나무의 종류

사용하는 나무 종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가 배다리에서 일할 때 한미 반도체 포장 박스를 제작했어요. 포장 박스 재료로 그때는 MDF*를 많이 썼어요. 가공한 것을 도장을 해 가지고 컬러를 만들어서. MDF는 아마 합판 집성목*을 갖다가 짜는 거지요. 한미 반도체가 지금 많이 커졌어요. 제가 한 10년 이상 거래했어요. 그때 당시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또 자기들끼리 막 찾아다니면서 하청해 가지고 조그만 기업을 내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목재로 박스 만드는 일은 안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미 반도체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청 나온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박스를 소개받으며 많이 했는데.

제가 당시에 만들었던 스낵바 만들었는데, 재료는 그때 당시에 뉴질랜드 소나무*하고 인도네시아산 나왕이 많았었어요. 어느 게 좋다는 것보다도 그 필요한 양이 소나무가 될 수가 있고 나왕이 될 수가 있죠. 필요하면 문짝 같은 거는 나왕이고 그 시절에는 나왕하고 소나무가 많았거든요. 지금

은 뉴질랜드산 소나무는 수입이 안 되어 구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주로 교회 용품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나무 재질이 다 다르게 사용
합니다. 교회 용품 같은 경우는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오크*나 고무나무*
를 상대를 많이 하죠. 고무나무는 일단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작하는 과정
의 재질이죠. 고무나무 자체의 이름이 고무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
토리, 상수리나무가 오크예요. 여기서 작업을 진행해보면 오크가 쓰기 좋
고요. 이 고무나무가 어떠한 가구를 만들 때 상당히 단단하면서도 그 안정
감이 있어요.



작업물 사진

일에 대한 책임과 열정

목공예에 대한 소회와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경험으로 보면 손님이 오면 서로 함께 이야기해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도 처음에 오시면 저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일치되는 지 스케치를 통해 조율해 보고 작품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지 않나 싶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경우는 먼저 반갑게 맞이해서 ‘뭐가 필요하시죠?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까요?’라고 상대를 하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림을 내가 모방을 해가지고 스케치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납기일을 약속을 하고 가격을 흥정해야 해요. 그게 약속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책임을 못 지면은 말으면 안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밤을 새서라도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기나긴 목공 인생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무엇인가요?

그래도 저도 건강하다면은 끝까지 해서 해 나가는데 내가 만드는 물건이 소비자한테 막말로 탈이 없고 잘 만들었다면 참 행복한 건데 저도 사람이라 실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이쁘다 할 정도로 소리 들었으면 하고 만들거든요.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내가 맡은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정성껏 만들었다. “참 예쁘다!”라는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지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목공마을의 현재 모습과 이상적 모습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송의동 목공마을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시에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한 그 자체로 고맙게 생각하죠. 앞으로도 목공마을의 고유성이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해요. 여기 목공마을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터치(간섭) 안 하면서 꾸준하게 유지되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송의동 낙후된 시설을 88올림픽 때, 아시안게임 때 조금 보조해줬을 거예요. 한 예로 그전에는 화장실이 없어 불편했었어요. 최근 저는 화장실을 꾸미고 주방도 꾸미고 조그만 사무실도 꾸몄어요.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넓게 한 거예요. 교회 일 하면서 그래도 돈이 되니까 나름대로 투자해서 남의 집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일하기 편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해야지요. 나에 맞는 환경을 만든 거죠. 제 생각에 조금 더 깨끗한 목공마을을 만들기 위해선 서로 협조해야 더 나은 마을이 될 것 같아요.

긴 세월 인내한 목공 장인의 애착 작품은 무엇인지요?

제 작품 중 애착이 가는 작품을 고르라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속과 판매를 빨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고 또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고 해서 애착 가는 작품 찾기는 어려워요. 다 내 손을 거친 작품이라 애정은 가지요.

현실은 아무래도 살기 위한 거니까 내가 살아야지 물건도 되고 돈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단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내가 가게를 얻으면 세를 내야죠. 먹고살려면은 그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현실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욕심은 끝이 없는데 안정되게 나가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그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다 보니까, 그 노력한 만큼 열심히 사니까, 내게 주어진 임무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도 되고 내가 원하는 순리대로

적금 넣고 편안하게 노후 대책하고 가니까 그래도 최대한 만족을 하죠.

목공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면서도 작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만들면 물건이 나오겠다 하고 머릿속에서 다 그리면 작품이 나오죠. 그리고 시작할 때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치수를 확인하고 일차 재단해 가지고 조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암산을 많이 해놓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절단하고 재단해서 조리까지 과정으로 계속 만드는 거죠. 머릿속 생각이 창조인 셈이죠.

목공의 매력은 내가 만든 물건을 소비자가 받았을 때 행복하고 좋아했을 때라고 생각해요. 손님이 왔었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을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빨리 이해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또 손님이 오셨을 때 어색한 분위기 없이 "필요한 게 뭐예요?", "사장님 나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거죠? 이런 건가요?"라고 표현했을 때 손님이 "선생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그럴 수가 있냐"는 말을 듣는 순간이 많이 행복합니다.

앞으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은 안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이 동네 토박이가 아니라, 어렸을 때 다니던 반장 댁 아들인데 저 친구가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왔어요. 점잖고 좋은데 목공이라는 게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좋아해도 막상 이렇게 보면은 어렵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열정은 물론 기본과 응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기계 다루는 거는 위험스럽고 무서워요. 저 자신도 아직도 기계가 무서워요. 제 손도 이렇게 나가

고. 제 주위에 목공 하다가 손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이렇게 순간이에요. 자만도 있지마는 기계를 쓸 때는 순간 무지하게 빨리 판단하고 해야 해요. 하여간 이 목공은 어떤 일이든 다 무서운데 이걸 특히 더 무섭더라고요. 이 계통에서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둔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혼합해 가지고 일을 좀 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초 일을 금방 하기 때문에 응용만 잘하면 이 공예일은 되거든요. 이 일은 물론 기계도 활용해야돼서 기계를 다루는 요령을 아는데 5년만 흘러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디아이와이(DIY)* 그런 기술보다는 현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눈으로 50%만 봐도 배운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그때 어떻게 했더라는 기억만 하면 내가 앞으로 할 때는 기억을 되돌려서 이럴 땐 이런 방법을 써야지 하는 지혜가 생겨요. 경험과 경륜으로 생긴 노하우를 앞지를 것은 없다고 봐요. 목공예 자체가 손으로 하는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지금 직원이 퇴근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일하는 직원에게는 이 일이 노동이고 저 또한 노동이지요. 근데 저는 머리 써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재밌게 즐겁게 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며 살죠.



한일 원목 목공

주요작업 : 조각, 교회용품 제작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3-1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목조각·목각

‘목공예의 달인’ 강오원
고전공예사

‘상감으로 나무에 혼을 불어넣는 장인’ 김인규
미추홀공예사

‘목간판에 새긴 나만의 글씨’ 진교육
인일조각

‘조각에 무아지경의 매력을 느끼는 장인’ 박호만
인일조각



목공예의 달인

“힘들게 일했던 사람이지. 이날까지 자식들 잘 키웠고...”
평생 한 우물을 파고 걸어 올린 장인의 담담한 말 한마디에
목공예 장인의 노고가 느껴진다.







고전공예사
강 오 원 (1953년생)

중학교 2학년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가구 조각을 배우기 시작하여,
인천으로 내려온 후 율목동, 도원역 인근, 배다리를 거쳐 송의동에 자리 잡아
‘고전공예사’를 운영한지 24년이 되었다.

면담일시 22년 8월 26일, 22년 9월 27일
면담, 원고정리 표기자
면담지원 정지선, 허은심, 양지원

목공일을 시작하다

어떤 계기로 목공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집안이 어려워져서 객지 나오게 됐는데 서울에 둘째 형님이 사는 데로 와가지고 어떻게 우물쭈물하면서 직장을 조금 다녀봤어요. 그러다가 금호동에 형님 아시는 분이 조각하는 데가 있다고 그거 한번 배워보겠냐고 가서 보니까 내 마음에 싹 들어. 조각하는 것이 내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각을 하기 시작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월급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용돈 정도도 안 되죠. 돈을 떠나서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신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금호동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공장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기로 했는데 갈현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모규원 씨라고 조각하는 대로 자리를 옮겨서 그분한테 목공일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홍대 나오신 분인데 작가나 다름없어요. 일을 잘하시고 그분 밑에서 많이 배웠죠.

그때 배우신 공예는 어떤 종류인지요?

가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공예를 해도 가구 조각만 많이 했어요. 저기 벽에 있잖아요. 저런 조각들은 그때 다 배운 거예요.

그 후 인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원동 동사무소 옆에 살면서 조그마한 가구 공장에 조각을 하는 기술자로 취직을 한 거야. 거기서 일을 하다가 주인이 내가 일을 좀 잘하고 하니까 도급을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맡아서 한 거야.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람이 한두 명이 됐고. 그 후 군대 마치고 율목동이라는데 방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한 거야.

혼자서 조각 일 시작하다가 거기서 결혼했지. 조각을 조금씩 하고, 군데군



조각공예품들

데 도원동, 부평 그런 데서 주문을 맡아서 개인 거래 했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도원동 옆에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크가구라고 큰 거래처를 하나 잡은 거지. 삼익가구 일도 했고, 옛날에 시계 케이스 공장이라고 있어요. 가나물산 이라고 수출하는 회사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죠.

바로크 가구에 조각품 납품하던 시절

예전 바로크 가구의 조각 디자인 생각나는데요, 그 조각 디자인을 사장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화려하기보다도 단단하고, 뭐랄까 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죠. 바로크라는 회사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나무질이 좀 단단한 걸로 해요. 바로크 위상돈 사장이 처음에는 가구 공장을 한 게 아니고 청우기업이라고 아파트 문짝 하다가 가구 공장을 시작을 한 거야. 바로크에 조각일 처음 시작은, 위상돈 사장이 가구회사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보고 조각을 다 해줄 수 있냐 하길래 "합시다." 그래서 바로크는 나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거기 조각을 내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시작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두고 했어요. 돈하고는 관계없지만 내가 그거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한 거죠. 처음에 만들었던 물건은 전부 내 머리에서 나온 가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때는 여기 도원동 헐리면서 배다리 쪽으로 옮겨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했어요.

조각 디자인 발상은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남의 것 결눈질도 좀 하고 외국책도 좀 봐서 내가 알아서 도면도 뜨고 그렇게 해서 작업한 거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도면을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어오면 그게 좋으니까 결정이 돼가지고 가구가 시작이 된 거죠. 가구 처음에 A타입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내가 모든 걸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한 거니까. 회사에서 만들어 달라는 조건도 걸려 있었지만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그런 정도로 내가 바로크를 전적으로 했어요. 그때가 재미있었지.

그렇게 하다가 이 조각이 대한민국에서만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 중국 쪽에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 쪽에서 조각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사람을 여럿 데리고 할 만한 가격이 안 되고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손을 들고 안 한 거예요. 그때 외교가 중국하고 터지면서 중국의 조각 기술이나 이런 게 한국 못지않아요. 지금도 한국 사람보다 중국이 더 잘해요. 아주 세밀한 조각을 중국 사람들이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하는데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진짜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림을 그려서 중국에 팩스로 보내잖아요, 사이즈하고 보내면 일주일이면 물건이 와. 일손이 많으니까 일주일이면 물건이 온다니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지.

가격 경쟁력이나 속도전에서 밀렸네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조각 쪽으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나 봐요, 중국에 비교하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80~1990년대인데, 창문에 들어가는 조각들이 한국에서도 수출을 많이 나갔어요.

IMF* 시절에 가구공장을 직접 운영하다

IMF 전후 가구 회사의 사정 이야기 좀 해주세요.

IMF 오기 한 3~4년 전에 바로크하고 내가 정리를 하고 가구 공장을 시작했어요. 가구 공장을 막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은 잘하고 물건은 잘 만드는데 대금 결제가 안 됐어. 옛날에는 당좌* 수표 받아가지고 날짜 돼 가지고 은행에 추심*시켜 놓으면 날짜가 잘 넘어가면 돈 되고 안 그럼 부도야. 그 당시 90%가 다 부도났어. 그 당시에 다 챙겨서 돈이 됐으면 빌딩

하나 샀을 겁니다. 그런 얘기 거짓말 같죠? 그거에 치어가지고 가구공장을 한 3년 하다가 다시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몇 푼 가지고 있는 거 다 거지 되겠다 하고 싹 정리한 거야. 정리하고 쉬었어요. 그래도 정리를 빨리했기에 버팀목이 되고 살았지. 우리 주변에 정리도 못 한 친구들 많아요. 우리 친구들 공장 더 크게 한 친구들도 많은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때 당시에.

가구 공장 하실 때 모든 가구를 직접 다 짜신 거예요?

사람 두고 공장을 했어요. 납품도 좀 하고. 판매는 나중에 좀 했지만, 처음에는 수공업으로 만드는 문짝이 있어요. 그 문짝만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큰 공장에다 납품을 했어. 문짝만. 그게 수입이 더 좋고. 내가 기술이 좋으니까 그거 만드는 걸 굉장히 선호했지.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게 일만 잘해주면 뭐 해요. 돈이 나와야지. 어음이나 당좌 다 부도가 나고 하니까 서로가 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만둔 거죠.

나무 이야기

혼자 사업을 운영하실 때 사용하시던 나무는 국내산이었나요?

공장에서 조각할 때는 마디카*를 많이 썼고 그 후에는 나무 여러 가지 다 썼죠. 나무라면 자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자재가 착착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통나무 제재 해다가 직접 말려가지고 썼어요. 옛날에 동화개발이라고 지금도 동화개발 있잖아요. MDF도 만들고 하는 그 회사 근방에 목재 회사가 많았어요. 평화목재 뭐 동화기업 그쪽으로.



제재목

등치 큰 나무들이, 지금들은 그런 나무가 보기 힘들는데 막 서너 아름 되는 거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것들. 국산 나무가 가끔 있는데 0.001%도 안 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요즘 편백나무라고 해서 좀 나와요. 지금 저기 있는 나무가 전부 국산 아니에요.

동남아 쪽에서도 온 거 있고,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죠.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 건데 산지까지는 자세하게 우리가 모르죠. 그냥 나무 좋으면 사 쓰고 했으니까. 우리가 수입을 한 것도 아니고 수입해다 놓은 거 가서 큰 거 한 토막씩 제재기에다 짜깨가지고(잘라서) 갖다 말려 놔다 쓰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나무를 사러 가는 게 아니고 거래하는 데가 저 북항의 수입상들이 있어요. 이 동네에도 합판 가게들이 있는데 한두 장 같은 거는 여기서 사는데, 북항에 전화하게 되면 거기서 보내줘요. 돈 송금시키면 거래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그냥 물건 보내주면 쓰는 거예요.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고르지 않아도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아니까 전화로 주문해요.

나무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나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육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거는 미송, 소련 거 하면 뉴질랜드에서 나온 거는 뉴송. 같은 소나무인데 산지에 따라서 좀 질이 틀리고 가격도 달라요. 지금은 뉴송보다도 미송이 제일 비싸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성돼 가지고 수입되는 게 없었고 인천 앞바다에 가면 통나무 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깎아서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외국 산지에서 통나무를 안 팔아요. 개들도 나무는 팔되 거기서 가공비에서도 좀 수익이 돼야니까 제재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지. 일본이나 가까운 동남아 쪽에서도 옛날에는 원목으로 막 팔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팔려고 그러죠. 인건비라도 챙기려고 그러고.

과거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수입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정집에 들어가 보면 식탁 같은 거 좋은 나무들 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나무 식탁 테이블 하나 떡판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 하나에도 몇백만 원씩 가는 게 수두룩하지. 아주 좋은 거는 1천만 원 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귀한 나무잖아요. 귀하다면 크기도 그렇고 나무 질도 좋고 하니깐 비싼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소나무도 굵은 건 있다 그러지만 많지 않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무슨 서원이라든가 이런 데 나무들 보면 아름다이 진짜 별 것도 다 했잖아요. 그건 외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진짜 한국에서 나온 나무. 옛날에는 굵은 나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때가 모르게 우리나라도 나무를 다 잘라다가 떨감 쓰고 이것저것 쓰기 위해서 굵은 나무 다 잘라서 쓰

다 보니까 지금 나무가 없잖아요. 한국에도 지금은 또 많이 나아졌죠. 지방에 가보면 편백나무 같은 거 아릅드리*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편백으로 제재해서 나오는 게 몇 프로 안 돼요. 그렇듯이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수입이 95% 97%까지는 전부 외국산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국산 나무가 쓸 만한 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마음대로 잘라서 쓸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쉽게 허가 안 내주잖아요. 국내산 나무가 수급이 안 되죠. 국내에서는 빨리 안 크잖아. 지금 저 큰 나무 있잖아요. 저거 참죽나무라는 나무 있죠. 저건 외국산보다 국산이 좋아요. 나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런 나무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커다란 통나무들 잘라서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인천 바다로 통나무들이 들어오면 바다 위에 떠 있었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나무 뗏목에 양 끝 가쪽에 철로 쇠고리 박아가지고 뗏목을 끌고 들어오면 돼요. 뗏목 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멍텅구리 배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냐 이게 엔진만 있어 끌고 오는 배가. 힘이 좋아서 막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세월아 네월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그때 그게 싸죠. 몇 달씩 걸려요. 동남아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한없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오는 거야. 거기 동화개발 앞에 개건너*라고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전부 바다였어요. 지금 송도가 없던 게 새로 생겼지만. 거기 바다에 가서 쳐다보면 동둥둥 떠 있어요. 토막 이런 것들 다 봤어요. 우리 보고 어떨 때는 "거기가서 나무 좋은 거 있다" 그래서 목재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디 어디 있다고 가보자 그러면 가서 보고 저거 좋다고 건져다가 제재해서 해봤어요. 우리 그때.

공구와 기계이야기

처음 일 시작하실 때 하고 현재하고 물건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공법이라든가 기계 같은 거가 바뀌었나요?

옛날에는 손으로 대패질했죠. 지금은 기계로 거의 다 하잖아요. 옛날에 기술자들은 손으로 대패질 망치질, 톱으로 자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목수지만 지금은 실제로 그것보다는 기계 잘 쓰는 목수라고 보면 돼요. 그럴 정도로 기계화가 됐다고. 저는 목공 목수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저기 보면 조각 있잖아요. 저게 필요할 때 만들어 썼던 거예요. 전부요. 주문하면서 한두 개 나무 걸어놓고 때로는 일부러 모양을 한두 개 깎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 물건이에요. 원래가 조각했던 사람이라 내가 조각하다가 목수 일을 늦게 배워서 목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죠. 저는 전천후로 다 해요. 지금도 조각 들어오면 조각도 해요. 지금 간판 들어오면 간판 파잖아요. 로구로*도 조금씩은 깎는데 복잡하고 일부러 기계 놓고 쓰기 싫어서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공구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내가 주로 쓰는 건 일본 거. 이거 내가 한 이십몇 년 썼는데도 아직 고장 하나도 안 나. 서비스 받을 일이 없어요. 다른 건 고쳤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도기인데 내가 쓴 지가 20 몇 년 됐는데도 고장이 안 나요. 옆에 사람들 각도기라고 중국, 대만 거 몇 년 못 쓰고 망가져서 버리잖아. 이게 마끼다 건데. 미국 거는 기계 덩치가 크고 일본 거는 압압하고 유연하고 잘 만들어져있고, 독일 거 좋은데 내가 지금 독일 거는 많이 사서 쓰는 게 없어요. 이런 드릴 같은 거 구멍 뚫는 드릴 같은 거 있잖아요.

보쉬 거, 이거는 독일 건가?

그런데 이런 기계들이 국산은 금방 못 써요. 아직도 못 따라와요. 처음에는 좀 싼 거 그냥 사 쓰다가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이십 년 썼어요. 여기 마끼다 일본 거. 한 20년 써도 아직도 견고해요. 근데 저 뭐야 마끼다 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오리지날 일본에서 만드는 마끼다가 아니고 대만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온 거는 한 몇 년 쓰면 각도 안 맞고 기계가 막 틀려요. 그런 점이 있어요. 또 요즘 일본 못지않게 독일 게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니까. 실제로 저는 일본 거 많이 써요. 저기 저 나무 깎는 기계도 일제고 일본제가 많아요. 수십 년 일하면서 선택을 해서 쓰는 것들이죠.



3-1. 작업공구



3-2. 작업공구

송의동 목공예 거리 이야기

송의동으로 오시기까지 과정에 대해 듣고 싶은데요, 이주해 올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목공소들 함께 오신 건가요?

그거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도원역 바로 옆에 도로 쪽에서 가게 하다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헐렸잖아. 지금 같이 그렇게 헐리면 보상이라도 받았지만, 그 당시 돈 몇백만 원 주고 그러고 쫓겨 다닌 거야. 도원에 있다가 저 배

다리 내려갔다 그 후에 부도나고 바로 IMF 이후에 승의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가게 안쪽에 반쪽을 내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다기보다 했던 일은 있고 진짜 연락처라도 하나 가지고 가게라도 한다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일 제대로 했나요? 놀았지 그냥. 놀면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후 2~3년 지나니까. 이 건물이 또 넘어갔어. 그때 500에 30만 원인가 내 기억상 그래요, 그거 500 보증금 날아갔잖아요.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여기는 1차 지나고 2차 때 성질 나 가지고 돈은 많지는 않았지만 이걸 내가 사버렸잖아. 경매에 내가 낙찰 받아 버렸잖아.

지금처럼 확장한 거는 그때 사 가지고 다 하신 거예요?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 그 사람 죽었는데 보증금 이거 다 까먹고 버렸는데 내쫓지는 못하고 이 위에 가게 하나 얻어서 보증금 그때 당시에 사백오십인가 얼마 내 생돈 쥐가지고 내보냈고, 이 가게 터 가지고 내가 그냥 쓰기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 이제까지. 그땐 굉장히 넓었는데 지금 보니까 넓은 게 아니야. 옆에 것까지도 다 샀어야 하는데 욕심을 안 부린 거지. 큰 거 샀으면 뭐 해. 그 옆에까지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경매로 넘어가는데 살까 하다가 그 뒤에 공장하는 사람하고 분쟁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손대지 말자고 안 산 거야. 잘했지. 그때 당시 IMF 때잖아요. 돈 몇억 있는 사람들은 괜 찮았지. 룰루랄라 했잖아요. 은행에서 나온 이자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런 시절에도 먹고 살 만큼 가지고 있었으니까 살만한 거죠. 집도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이것도 가지고 있고 돈도 좀 가지고 있었으니까 살만하고.

승의동으로 오시면서 이곳 분위기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이곳으로 올 때가 97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고 IMF 시절이야. 이거(현재 사

업장) 내가 2000년도에 샀을 거야. 와서 조금 이따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 연도가 대충 계산 나오지. 그때 당시는 목공예장 몇 개 없었어요. 여기가 모이고 싶어 모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일로 모였냐면 원래 도원역 있죠? 인천기계상사라고 그러면 다 알아요. 바로 건너편에서 내가 공예사를 했어요. 거기 갔는데 도로 확장으로 헐렸잖아. 쫓겨나는 거야. 이사 비용이라 그때 돈 몇 푼 받아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저 배다리 있잖아요. 유동 삼거리에 가게 조그마한 걸 또 하나 얻었어. 조그만 거 얻은 게 아니라 1층 가마니 가게 한 걸 내가 좀 얻어가지고 자리가 좁으니까 주인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천장이 높으니까 2층을 달아서 그 위에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 또 헐렸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넘어온 거야. 내가 한일공예 있잖아. 거기로 일단 온 거야. 여기 와가지고 좀 하다가 가구공장 운영한다고 정리하고 나갔다가 다시 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이죠.

송의동 마을에서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 간의 친목 활동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예전에 협동조합 대표 하셨잖아요.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끈다기보다도 뭐랄까 협동조합 내가 이사장 맡을 때 별로 융화가 안 되니까 하다가 안 한 거죠. 각자 자기 고집이 좀 세니까. 합동으로 모임 같은 거 할 때는 자기도 좀 죽여 가면서 남들도 좀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기 공예사 나무 쪽에 단합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

왜 안 되냐면 업종이 비슷하잖아요. 내 같이 이렇게 가구를 짜는 사람은 가구만 제대로 짜서 가격을 받을 만큼 받고 일해야죠. 지금 저 테이블 다리

같은 경우에 보면 구멍 파가지고 끼워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변형이 안 가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이 많이 들잖아요. 그만큼 돈을 좀 많이 받아도 받을 만큼 받고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목수들이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은 한 30만 원 받아요. 그 사람들도 현장에서 몸만 가서 30만 원 받는데 여기서 내가 공장 내 기계 써가면서 30만 원 받아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보다 돈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 내 인건비를 제대로 받아야죠.

2022년 ‘이어가게’ 선정되다

이번에 ‘이어가게’로 선정되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미추홀구에서 오래 했어요. 여기 송의동에서는 24년 했어요. 이 자리에서요. 저 밑에 한일공예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내가 꽤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삼십 년이 넘게 된 거죠. 이어가게 선정도 이 동네 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은 중간중간 사업자 안 내고 해서 해당이 안 돼요. 사업자 등록 있어야 인정을 해요. 다들 오래 한 사람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어가게 현판

목공 재능을 평생 업으로 삼아 살아오신 이야기

자손들에게 목공 사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요?

작은아들이 가끔 와서 이거 배우겠다고 하는데 내가 못하게 해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솔직히 말해 옛날에는 끼니 걱정까지 하고 살았는데, 진짜로. 우리 큰아들이 지금 마흔네 살인데 개가 뺏속에 들었을 때 쌀이 없어서 끼니 걱정했단니까.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울어 지 금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몸뚱아리만 가지고 객지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고향에서 부모님한테 돈 달래 가지고 나올 처지도 못 하고 진짜 몸뚱아리만 나와서 기술 배우려고 나왔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했지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가 엄청 어려웠죠. 진짜.

목공 일이 더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목공 일이 어렵다기보다 그 시절이 다 어려웠잖아.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웠잖아. 그 와중에 이 목공이 그때 당시 조각할 때인데 조각이 자개*한테 좀 밀려가지고 진짜 어려울 때 있었어요. 내가 먹고 쌀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하시면서 좋았던 시절은 언제인지요?

기업에다 납품하고 할 때. 한때는 돈도 잘 벌을 때 있었어요. 돈 잘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잘 나간 거지 그때 시절에.

자녀들에게 공예품 만들어 준 거 있으세요?

많이 만들어 갖다 줬는데 애들이 새로 아파트 사서 이사 가면서 싹 다 없애 버리더라고요. 별거 다 만들어줬었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달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도 가보면 옛날에는 내가 만드는 작품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져오는 거 싫어해 이제는.

이 안에 들어가면 교육하면서 만든 미니 화장대들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이 동네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조각일 겸해가면서 가구를 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저기 물건들을 보면 별 용도가 다 있어.



나무 현판 및 스케치

사장님 저 글씨를 사장님이 하신 거죠? 사장님 글씨도 배우셨어요?

아니 저거 컴퓨터로 뽑아온 거예요. 직접 쓰려고 그러면 저기 보세요. 손님 하고 잠깐 스케치하면서 제가 그렸던 거잖아요. 저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시간 낭비 안 하고 컴퓨터로 뽑아서 써요. 전부 컴퓨터로 하는데 그분이 자꾸 궁금해하니깐 내가 저렇게 쓴다 그걸 얘기하면서 써놓은 거죠. 과거에는 직접 쓰고 했어요. 지금 못 써요.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으세요.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목공의 달인’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용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그때 간판 하나 글씨 써가지고 판 거 가지고 나올 거예요. 아마 조각으로 한 거.

앞으로의 바람

평생동안 목공예로 한 우물을 파고 계시잖아요. 목재 산업의 변화를 보아오신 입장에서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내가 보기엔 힘들 것 같아. 이게 어떤 면에서 배우는 사람이 없잖아. 기술적으로라도 배우는 몇 명 젊은 사람이 있는데 완전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현시대에 맞게끔 맞춰서 하지. 뭐랄까 어려운 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라.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좋은 평 받으면 좋는데 뭐 좋은 평을 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힘들게 일

했던 사람이지. 힘들게 일했던 사람이라고. 그 지금 이날까지 자식들 잘 키웠고.

자식 자랑 좀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자랑요, 특별하게 뭐 할 건 아닌데, 잘 컸어요.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갔고 누구 말마따나 의사, 변호사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도 어쨌든 간에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보서는 그냥 뭐랄까? 그냥 밥 먹고 살 만한 직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고전공예사

주요작업 : 목간판, 조각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9

상감(象嵌)으로 나무에 혼을 불어넣는 장인

그냥 나무를 사랑하죠. 나무에 애착이 굉장히 많죠.

나무 냄새만 맡고도 다 알아요.

나무 냄새가 다 들려요.

톱이 싹 지나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톱밥 때문에.

그러면 ‘아, 이건 무슨 나무다.’대충 알죠.







미추홀공예사
김인규 (1955년생)

인천 송림동에서 태어나 19살에 서울에서 목공 일을 시작하였다. 주로 조각일을 하다 84년도에 처음 나무에 상감기법을 도입하였다. 공장을 운영하며 인천의 가구 회사에 상감작업을 납품해 왔다. IMF로 가구 공장을 접은 후, 현재는 송의 목공예마을에서 13년째 '미추홀공예사'를 운영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8월 26일, 22년 9월 3일
면담, 원고정리 허은영
면담지원 표기자

송림동 토박이, 목공예의 길에 들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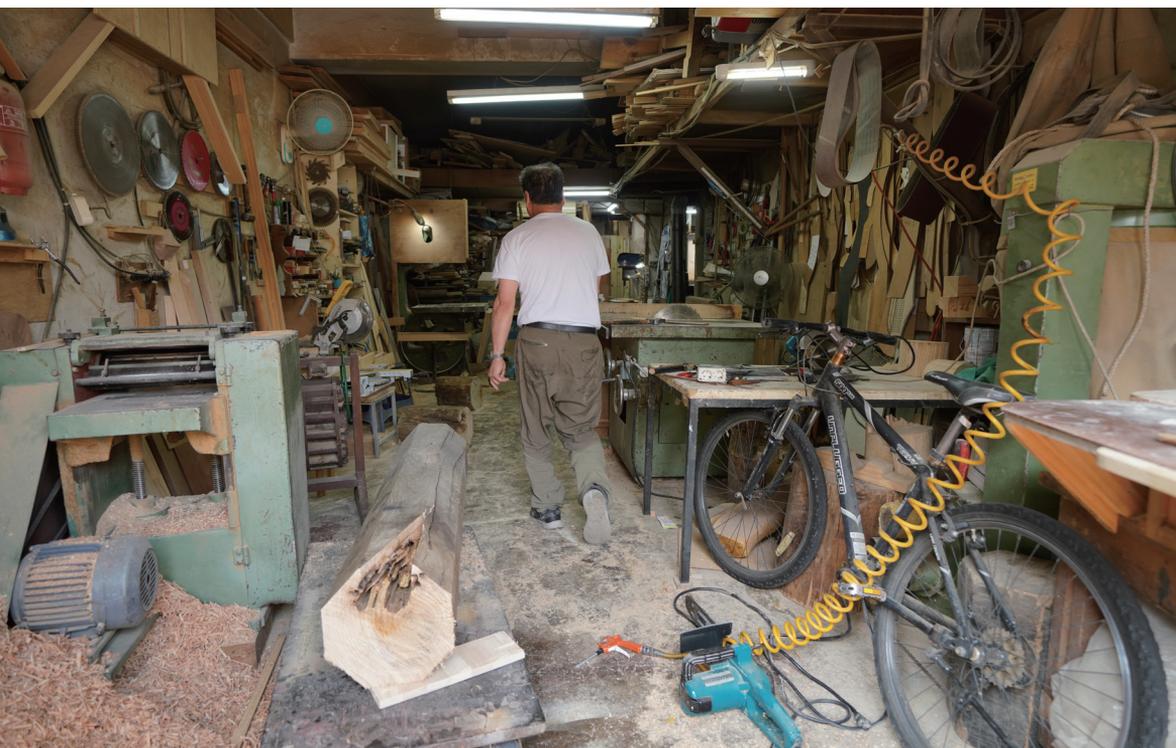
이름은 김인규고요. 우리 나이로 68세, 55년생. 고향은 인천 송림동. 거기서 내가 태어나 갖고 45살에 이사했나 봐요. 송림동에 45년 살았어. 송림동에 가면은 그 옛날에 교회가 불이 두 번 났었나? 불난 교회라고, 송림 침례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바로 한 20m 정도 올라가면은 우리 집이 있었어요. 산동네지 뭐.

초등학교는 송림초등학교 나왔고요. 중학교는 답동에 가면 '시은 고등공민학교'라고 있어요. 신흥 초등학교 바로 위에 있었어요. 지금 가면은 답동 맨션인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정식 인가 나지 않은 중학교. 집이 가난한 사람은 다 그 동네, 거기(시은 고등공민학교)로 왔지. 중학교 과정은 다른 학교하고 똑같은 교과서 갖고 똑같이 공부했어요. 인천 침례교회라고 교회학교야. 남녀 공학이었어요. 거기 오는 분들은 교사자격증은 다 있었어. 영어하고 수학은 실력들이 좋은 사람들이 가르쳤어. 그래도 큰 추억은 없는데 운동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공부도 곧잘 했고, 그랬어. 송림동에서 답동까지 걸어 다니고. 거기서 3년 과정 마쳤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하다가 열아홉 살 땐가부터 바로 목공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면 식구들이 굶어야 되니까, 내가 일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내가 스무 살 때 우리 아버지 환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아버지 40에 나를 낳은 거죠. 우리 어머니는 (결혼 후) 7년 만에 봤대요. 내가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또 귀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외아들을 되게 쳐줬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가 10년 만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거의 뭐 내가 귀한 자식이죠.

그래도 뭐 아버지가 벌이가 시원찮아요. 여기 이거 ‘참외전로’라고 그러잖아요. 참외전로를 왜 참외전로라면 동인천 가다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왼쪽이거든요. 거기가 아직 ‘참외전 거리’야, 그러니까 과일 시장이지. 과일 경매 부르는 데, 쉽게 얘기해서 농수산물 시장인데 거기는 과일만. ‘참외’가 주 종목이라 참외전 거리. 저희 아버님은 거기서 리어카 일을 하셨지.

그때는 친척이, 지금은 미국 가 있는데, 시계 케이스 공장을 했었어요. 그때는 패종시계 케이스를 나무로 했었거든요. 바쁘니까 일 좀 도와달라고 갔다가 그때부터 목공 일을 했죠. 그게 19세 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하게 된 거여.



미추홀공예사 내부

독립은 몇 세 때 하시게 됐나요?

84년도니까 서른한 살 땀가. 그분(친척)은 한 2년 하다가 망해 갖고 미국 이민 가시고. 나는 주로 서울에서 조각을 하긴 했는데, 주 전공은 목조각이 거든요. 인천에 누가 개업을 하는데, 도와 달라고 해서 왔다가 84년도에 처음 ‘상감’이라는 걸 개발해 갖고 그때부터 ‘상감’했어요.

‘송의 맨션’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전해가 우리 어머니 환갑이었어요. 환갑 때 부주(扶助) 들어온 돈 50만 원을 내가 얘기하니깐 장릉서랍에서 꺼내 주더라고. 84년도에 50만 원 보증금 걸고 했어. 그때는 확신이라기보다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일념 그런 거지, 확신 같은 건 없어요.

이태리 상감과의 조우, 독자적으로 상감기법*을 연구 개발하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상감이 있긴 있었어요. 우리나라 상감은 홍대 교수, 이름이 뭐더라, 광 모인데 그 양반이 처음으로 가구에 상감을 응용해 갖고 ‘사임당가구’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나는 신천리 어디 가구 공장을 갔었는데 이태리에서 상감이 왔는데, 0.6mm (0.6mm 두께의 염색 무늬목으로 장식한 가구). 그걸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감탄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상감 개발할 때 송림동 집에서 조그만 기계 하나 놓고서 일 년 걸렸어요. 다 수작업이죠.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넣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무늬목*을, 나무를 0.6mm로 켜는 거지. 그리고 그걸 오려서 박는 거야 다

시 (가구나 목재에). 붙이는 게 아니라 나무를 오려서 그 안에 또 끼워요. 상감 처음 시작할 때 잘 된다는 어떤 보장도 없었고 되게 어려웠던 게 염색이예요. 나무에 염색을 해야 되는데, 나무를 염료에 담갔다 꺼내면 될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얇아도 안 돼요, 염료가 안 스며들어요. 이렇게 사포질 조금만 하면 싹 벗겨져 버려. 그래서 또 공부를 했죠. 시청 옆에 가면 도서관 있죠?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했나 봐요, 그쪽 책을 찾아서. 그랬더니 나무에 염색하는 방법이 나무를 보면 세포막이 있고 세포층이 있고 세포핵이 있어요. 근데 세포핵 속에 공기와 이물질과 물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나무에서 “진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진이 세포핵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나무에 염색을 할라고 그러면 공기와 이물질 이런 걸 다 빼내야 돼, 강제적으로. 빼낸 거기다가 물감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기계도 만들었죠, 염색 기계를.

물을 끓여서 스팀을 집어넣어 갖고, 스팀압으로 진을 빼내서 그 안에다 염료를 집어넣는 기계를 만든 거죠. (염색 기계 그림을 그려주시며) 물 끓이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불 때서 수증기 끓이고. 또 여기 핸들이예요. 핸들을 8개를 잠그게 돼 있어. 그리고 안에 바킹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밸브 있고, 다리 4개 있고, 이걸 열어 갖고 나무를 집어넣어. 여기 압력이 한 50kg 정도 돼. 우리 압력밥솥 압력이 15kg예요. 애는 한 50kg 되니까 엄청 세. 잘못해서 터지면 큰일 나는 거야.

(무늬목을)염료에 하루를 담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불순물이 빠지면서 염료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이걸 내가 보일러 만드는 데 가서, 설명을 해 갖고 만든 거예요. 압력은 압력 게이지가 따로 있어. 가령 여기 이렇게 압력 게이지가 있잖아요. 봐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밸브를 잠그는 거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더 이상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여기는 또 이렇

게 벨브가 하나 있어 갖고. 이제 빼내야 될 때, 물건(염색 완성된 무늬목)을 빼낼 때 그냥 빼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팽창이 돼 있어 갖고 풀리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호수로 연결이 돼서 열면은, 이제 스팀이 빠져나가면 그때 가서 열어서 빼는 그런 역할이에요.

염료는 보통 어떤 종류를 쓰셨나요?

염색도 굉장히 복잡해요. 설명하려고 그러면 하루 갖고 안 돼요.

그래도 해주세요. (웃음)

하루 갖고 안 돼.

그래도 조금만. (웃음)

염료가, 그때 동대문에서 더 가 갖고, 어디 특수한 그런 염료를 파는 데를 알아 갖고. 그때 그 염료 집을 아는데(알아내는데) 내가 공중전화로 그 사



미추홀공예사에서 상감기법으로 제작한 가구



람 전화번호를 찾는데 그때 (공중 전화비가) 20원일 때거든. 다방에서 공중 전화비 5천 원 넘게 쓴 것 같아. 또 염료를 그냥 폭, 폭 하기만 한다고 해서 염색이 안 돼요. 염색이 돼도 햇빛 보면 금방 날아가 버려. 우리가 바래진다고 그러죠. 그니까 천(옷감)도 염색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학 처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햇빛 보면 다 바래져. 고착제가 있고, 염료가 붙어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화학제품이 있고. 또, 잘 스며들어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가 있어. 그렇게 되게 복잡해요. 염색에 관한 책 찾는데도 시청 옆에 도서관 거기 한 일주일 쫓아다녔나 봐. 이태리 책(이탈리아에서 발간한 염색에 관한 책)을 어떻게 구해 갖고 그걸 대여를 해서 복사하는 집 가서, 그때 당시에 복사하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신포동 어딘가 찾아가서 복사를 해다가,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역하는 사람 찾아서 번역해 달라고 그러고 번역비 주고. 시작할 때 돈도 투자 많이 했어요. 일단 나는 이거를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0.6mm 무늬목도 그때는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인천에도 무늬목공장이 많긴 했는데 두께 0.18mm 이러니까 들면 얇아서 뒤가 비쳐요. 그런 거 갖고 작업이 안 되니까. 막 그것도 수소문 엄청나게 했어. 거기 가니까는 밥상에 (붙이는) 엄나무를 0.6mm로 벳기고 있더라고. 엄나무라고 까시 돌친 나무 있죠. 백숙할 때 집어넣는 거. 그게 큰 게 있어. 그걸 파(破)나오면 막 버리더라고요. “갖고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갖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말아 갖고 전철 타고 오는데 그게 포르말린 처리하고 그래서 냄새가 막 나. 아무리 잘 싸 갖고 와도 냄새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게 좌우지간 그때는 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아서 어깨에다 떠메고 오고 그랬어요. 계속 염색 실험을 한 거지. 사업할 때는 지금 죽었는데 ‘부일 무늬목’이라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0.6mm를 해오게 했죠. 0.6mm 벳

기는 기계가 지금 홉플러스, 그 뒤에 교통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무늬목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제일 좋은 기계라 해 갖고 그 집에 서만 꼭 해왔지. ‘준성 무늬목’ 지금은 없어졌죠. 필름 생기면서 무늬목 공장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무늬목 하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한, 두 군데 있을까. 두꺼운 무늬목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상감기법을 가구에 접목하다

우리가 나무 색깔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칼라를 원하는데, 흑단 같은 거 까만색은 나무가 (색이) 나오는데 가령 월넛 하고 흑단하고 중간색을 원하는 거야, 그쪽에서. 그 염료 기계 갖고 그거(염색)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보루네오*에 납품하니깐 이거잖아요(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나밖에 못 하잖아.

보루네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잖아요. 손잡이나 이런 쪽에 알판이라고, 장롱 가운데 (상감으로) 문양 넣는 그런 거. 그런 걸 했는데 내가 독과점을 친 거지. 나는 그때 보루네오만 한 게 아니고 우아미, 그로리아가구. 그로리아가구가 위당학 씨라고 보루네오 조카예요. 그쪽이 보루네오, 동서, 바로크, 삼형제예요. 바로크도 내가 납품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바빴죠. 그때 그렇게 해서 많이 벌었어요. 84년도 4월에 개업을 해 갖고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그때 돈으로 2년 만에 2억을 벌었으니까, 월급 다 주고. 나는 상감을 이태리 방식 그대로 했고, 삼익가구는 내가 그랬잖아요, 물감이 염색이 안 된다고. 삼익 가구는 그냥 무늬목을 문양대로 오려 갖고 물감에 담갔다 꺼내. 그래 갖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포질을 못 해 (염

색이) 까지니까. 그리고 그 위에 살짝 도료 칠만 하는 거지. (삼익 가구는) 얇은 무늬목에다가 뒤에 종이 배설(排設)해서 쓰고 나는 0.6mm 쓰고 차이가 있죠.

공장이 잘 되실 때 보통 하루 생산량이 얼마쯤 되셨어요?

액수로 한 달에 보루네오 납품가가 한 3500에서 4000만원. 그때 보루네오 납품 업체가 330개인데 내가 서열 11위에 앉았어요, 그때 당시에. 협력 업체 사장단 회의가 있으면 그때 나 젊었을 때니까 머리 허연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가. (웃음) “애 뭐야. 도대체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러는 거지. 많이 벌었어.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으니까. 대한민국에 나 말고는 없었어요. ‘동양 특수목재’는 자기네 브랜드를 달고 나가니까 납품을 안 하고 나만 납품을 했죠, 그랬어요. 86년도, 7년도 이럴 때는 월급을 다 주어도 그때 돈으로 한 달에 3000만 원씩 떨어졌어요. 현금으로 양쪽 주머니 넣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는 젊을 때니까. 그게 돈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3000만 원에서 한 40만 원, 50만 원 어치 술 먹어도 표시가 안 나, 사실 그때는 재미는 있었어요, 돈도 잘 벌리고. 근데 상감이라는 그 게 아무래도 유행을 많이 타니까 92년도에 정리를 했어요.

지금 불박이장은 사실 장이 아니에요. 그 파티칼 보드라고 해갖고, 톱밥을 굵게 이겨서 뽀사 갖고 눌러서 그 위에 양면 비닐 계통을 붙인 거잖아요. 거의 꺾짝 수준이지 뭐. 지금 가구는 박스예요, 박스. 그냥, 박스 짜는 거야.

사업체 운영하실 때 직원분들이 주로 하셨던 일은 어떤 분야인가요?

남자들은 대부분 목수지 뭐. 목수하고 도장. 여자분은 주로 사포질하고 상감부가 있으니까. 상감하는 여자분도 따로 있었고. 도장반에서 칠하면은

사포질을 해야 되니까, 도장반에. 그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셨나. 샘플 제안을 받으면 내가 샘플 먼저 만들고. 그쪽에서 이제 오케이 하면은 작업 들어가고. 초보들을 데려다가 숙련을 시켰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 작업만 시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서너 달 되면은 숙련공이 되는 거. 숙련공이 해서 주면은 짜 맞추고 그러는 건 단순 작업이거든. 짜 맞추는 때도 그 숙련공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감 짜 맞추는 때, 좀 잘 맞는 것도 있고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잘 안 맞는 건 다시 가서 조각칼로 좀 끊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수작업이에요.

지금 뭐 레이저 나오니까는. 근데 레이저 나와도 원형이나 팔각이나 이런 데다는 불가능하잖아요. 레이저는 평면만 가능하지. 이런 데다가도 (직접 팔각모양 통을 들어 보이시며) 상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감이 레이저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자작나무 판재를 두드리며) 밝은 계통 나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레이저로 오리면 거의 다 이제 끄슬러 있어, 거뭇게. 그런 거는 이렇게 기계로 오려야 하고, 스카시로.

상감기법에 사용되는 도료와 목재의 종류

상감기법 하실 때 도료*와 목재는 주로 어떤 걸 쓰셨어요?

도료는 우리나라에 도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도료가 락카*하고 우레탄*하고 그다음에 페인트류, 바니시* 종류. 그리고 저 오일스테인* 그다음에 이제 좀 고급으로 가면은 카슈*. 카슈 위로 올라가면 옷칠. 제일 좋죠, 우리나라 옷칠이. 우리나라 옷은 한 400에서 500만 원 가요. 한 한 판이면 3.75 키로예요. 중국산이 한 80만 원, 90만 원. 거의 지금

옷칠하는 사람들은 중국산 옷 써요. 우리나라 건 너무 비싸 갖고 안 되고. 목재는 나무 염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종이니까. 나무에 기름이 많으면 염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염색이 잘 되는 나무는 단풍나무, ‘메이플’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단풍은 해봐야 요만하잖아요. 단풍나무는 캐나다 쪽도 있고, 미국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원목을 써야 돼요. 지금 들어오는 건 제품으로 해서 건조돼서 들어오잖아요. 그걸 염색 통에 넣고 한 며칠 걸려요. 진을 빼내고 염료를 채워 넣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인도네시아 쪽은 ‘나왕’이나 잡목 그리고 철도 레일 깔 때 옛날에 침목 썼잖아, 지금은 시멘트를 쓰지만. 그게 ‘아비동*’이라고 해서 그런 건 다 ‘남향재’라고 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나온 나무는 ‘남향재’라 그러고, ‘미송’은 미국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미송’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나무가 뉴질랜드에서 소나무가 들어오는데 그건 ‘뉴송’, 그다음에 러시아산은 ‘소송’ 그렇게 알면 돼요.

남은 나무 원료를 어떻게 처리하세요?

때죠. 난로 있잖아요. 겨울에 때요. 이거 버리려고 그래도 돈이잖아요. 안 그러면 ‘이건산업’ 같은 데 갖다 줘야 돼요. 그거 갖고 PB*나 MDF*나 그걸 만드는 거죠.

IMF, 위기에 처하다

그때 당시 공장은 어디에서 운영하셨어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건 여기 가면은 한화아파트 바로 옆 코너에 ‘승의 맨션’

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하에서 시작했죠. 84년도 4월달에 해 갖고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이든팀버’라고 합판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한 사 년 했나 그 자리에서. 거기서 1층, 2층을 다 썼거든. 그러다가 거기가 좁아 갖고 ‘동서 가구’ 있는데 옆으로 이사를 가 갖고 거기 있을 때가 출근부 도장 찍은 사람만 쉰 네명이었어요. 거기서 140평짜리 아파트 얻어 갖고 쓰다가 집주인이, 건물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라 그러더니 갑자기 계약기간 끝나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때만 해도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막 사람이 쉰네 명이 일하니까, 시설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번 옮길라고 그래봐요. 진짜 몇천만 원 깨지거든. 그래도 신흥동 ‘삼화 정미소’ 했던 창고 쪽으로 이사를 갔죠. 거기서 하다가 잘못돼 갖고 정리를 하고, 92년도인가 폐업 사실 증명원을 떼 게 어디 있거든 하여튼 9년을 했어요. 한 2년 쉬다가 다시 송의동 남구청¹⁾ 맞은 편 아래, 지금은 헐렸는데 그 아래 2층 건물 반지하에서 13명, 15명 정도 두고 했었어요. 그 회사도 IMF 때 부도를 크게 맞았어요. 98년도 12월 말일 날 부도가 난 거죠. 통보를 받은 거는 99년도 1월 2일 통보를 받았죠. 그때는 ‘이노센트가구’하고 ‘에몬스가구’하고 거기에 납품하고 아주 잘 됐었어요. 통장에는 항상 몇천만 원 있었어. 그래도 통장에 그만한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 월급하고, 퇴직금 같은 거 해결해 주고 그랬죠. 부도 맞은 금액이 그때 돈으로 2억 5천이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돈이죠. (지금이) 2022년도니까, 23년 됐으니까 굉장히 큰돈이예요. 당시 강남 집값이 25평 같으면 7, 800만 원 갔을 때니까. 그 사람들(직원 13명) 일단 퇴직금이고 뭐고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집 담보대출 받고 은행에 대출 원리금 있던 거를 한 3년 전에 다 갚았나 봐. 내가 한 육십넷인가, 다섯까지 빚을 갚았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은행 빚이라.

1) 인천광역시 남구청은 2018년 7월 1일 자로 미추홀구로 변경됨

그나마 집 한 채 있는 거 넘어갈까 봐, 진짜 노심초사하고 그랬어. 이제 다 갚았어, 빚은 없어.

거기서 부도를 맞고 직원 서너 명 데리고 신흥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일하다가 조그만 범종이죠, 기념종 그거 만드는 사람하고 인연이 돼 갖고 같이 가좌동으로 갔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리로 온 거지. 이 자리에 온 게 한 12, 13년 됐나 봐요.

수상 경력과 기억에 남는 작품들



청와대 감사장

수상 경력은 전국 공예대전에서 전국대회 장려상 받고, 특선 받고, 인천에서는 동상, 금상까지 받았나 봐요. 꽤 되죠. 청와대에서 시연도 좀 하고. 매일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동양자수’하는 사람은 가서 자수하고 나는 목공예 쪽이라 거기서 ‘장승’깎았어요, 청와대 사랑채에서.



상장과 작품전시



상감기법작품 : 훈민정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작품과 영감을 떠올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작품 중에서 찾상이 하나 있는데, 제목을 내가 ‘훈민정음’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좋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을 도안화 해서 찾상에 상감기법으로 새겨 넣은 거죠. 금상 받았나 봐요, 인천에서. 공예대전에서 금상 받았구나.

(영감은) 하다 보면 그냥 떠올라요, 갑자기. 그러면 메모해 놓고. ‘훈민정음’이라는 거 저거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한 6개월 시연을 했었나? 그래 갖고 감사장 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 (청와대 사랑채) 창문에 훈민정음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저거 찾상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런 식으로.

특히 내신 것도 말씀해 주세요.

특허는 못 박는 기계 있잖아요, 타카*라고 그러죠. 그게 쓰다 보면 알맹이가 떨어진 걸 몰라. 그래서 표시 나게 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거

나, 알 타카 편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게끔 해서 특허가 나왔죠. 필요하면은 막 머리를 써서 만드는 거지. 그거 말고도 많죠. 내가 원해서 만드는 기계는 많아요. 가령 0.6mm(두께)를 뭐 3mm나 5mm(넓이)로 정확하게 잘라야 되는데, 저 톱기계로는 도저히 자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딱딱. 이게 3mm를 원하는데 2.9mm 나 3.1mm나 이렇게 까지 그 정도는 되는데, 벗어나면 물건이 안 돼요, 그 기계를 내가 만들어 썼죠. 그걸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만들어 쓰는 거죠. 쇠도 어느 정도 알아요. 여기 이런 데 볼트 구멍도 낼 줄 알고, 볼트도 박을 수 있고

상호에 담긴 의미

‘미추홀 공예사’를 상호로 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난 인천 사람이니까. 그때는 ‘미추홀구’로 바뀌기 전인 ‘남구’였죠. 문학 쪽에 미추홀이라는 데가 인천의 옛 이름이니까. 남구청보다 훨씬 먼저 썼죠. 남구청이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미추홀구로 바뀐 지. 난 오래 됐죠. 이게 십 한 오륙 년 됐으니까.

처음에는 ‘예화 공예’였어요. ‘예화 공예’하다가 그다음에 ‘나래 공방’, ‘나래 공방’하다가 그때 사업자 등록증 새로 내면서 ‘미추홀 공예사’로 저기 신홍동에 있을 때 바꿨나 보다.

작품활동과 목공예에 대한 철학

나무나 목공예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나무를 사랑하죠. 나무에 애착이 굉장히 많죠. 뒤에 가면 나무가 많은 이유가,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귀한 나무들은 다 주워서 모아놓는 거야. 요거를 나중에 언젠가 써먹어야지 하고. (문 앞, 인도 쪽을 가리키며) 저것도 그래서 15만 원에 주서다 놓은 거예요. 저게 느티나무거든. 우린 느티나무 보고 괴목이라고 그래요. 괴목이 무늬가 참 예뻐요, 색깔은 노오랑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먹감이라고 있어요. 감나무인데, 안에 까만 문양이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먹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주 만나기가 힘들어요. 괴목은 그래도 이제 가로수도 많이 심고 그래 갖고, 좀 낫죠. 지나다니다가 봐 갖고 “파는 거냐?” 물어봐서 판다고 그러면 사다 놓는 거죠.

나무마다 향도 다 다른가요?

다 틀려, 다 틀려요. 나무 냄새만 맡고 다 알아요. 나무 냄새만 맡고도. 일반인들이야 소나무는 다 알겠지만, 괴목하고 참죽하고 나무 냄새가 다 틀려요. 이게 톱이 싹 지나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톱밥 때문에. 그러면 ‘아, 이건 무슨 나무다’ 대충 알죠.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나무의 가치

일본은 20년 이상 하면 무조건 명장을 지정해 준대요. 우리나라는 너무 까다로워. 일본은 공예 하는 사람을 정부에서 무지하게 많이 도와줘.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배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이라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

면 제대로 이걸 업으로 삼을 사람도 있지 않을까. 우리 친구가 십정동에서 목공예 학원을 하는데 배우는 사람들 많아요. 자격증도 따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직업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취미로 배우는 경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뭐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까짓 거 나무가 몇 푼이나 간다고.” 이렇다니까. 열 받잖아요, 그거. 얼마나 승질 나 “이까짓 거 몇 푼, 나무.”라니.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목재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와요. 잘라 나오는 게 없어. 자르기 시작하면 한 2~3년이면 다 민등산 될 걸. 우리나라는 나무가 얼마 없어 갖고. 우리 쓰는 나무는 백 프로 수입이라고 보셔도 돼요. 가끔 저렇게 나처럼 나무가 좋아서 그냥, 누가 벌목해 논거 돈 주고 갖고 오거나 그런 경우 말고는 우리나라 나무는 제재해서 파는 데는 없어요. 국산 목을 제재해서 파는 데는 없어요. 광주 가면 있는데, 거기는 간벌하는 나무들 있죠. 그렇게 산불 같은 거 나지 말라고 뽁뽁한 데는 나무를 중간중간 베 줘요. 산림청에서 주도해 갖고. 벌목하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간벌할 나무들은 다 표시를 해놔. 그러면 그것만 자르는 거야. 그냥 나무 함부로 잘랐다가는 우리나라는 영창 가요.

승의 목공예마을에 대한 견해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목공예마을이.

이게 3D 업종이다 보니까 배울 사람이 없어요. 일단 이 기계가 굉장히 위험해요. 톱, 둥근톱 저거. 탄탄한 나무를 푹푹 자르니까, 사람 살이 닿아 봐요. 그냥 푹푹 잘리지. 여기봐요, 이게 왼손이 네 개가 다 성치 않아. 이걸 안 구

부러지고 요만큼씩 잘라져서 다 조금씩 짧아. 우리 일하는 사람 다 그래요, 안 다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번씩은 다 다쳐.

목공 일이 되게 위험해서 배우는 사람도 없지만 이걸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1, 2년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이 정도 조각하려고 그러면 최하 10년은 조각을 해야 어느 정도 조각이 나오지 그냥 1, 2년 해 갖고 안 나와요. 누가 “배우겠다”고 그런 사람 있으면 좀 가르치긴 하겠는데, 배울 사람 없어. 먼지도 많이 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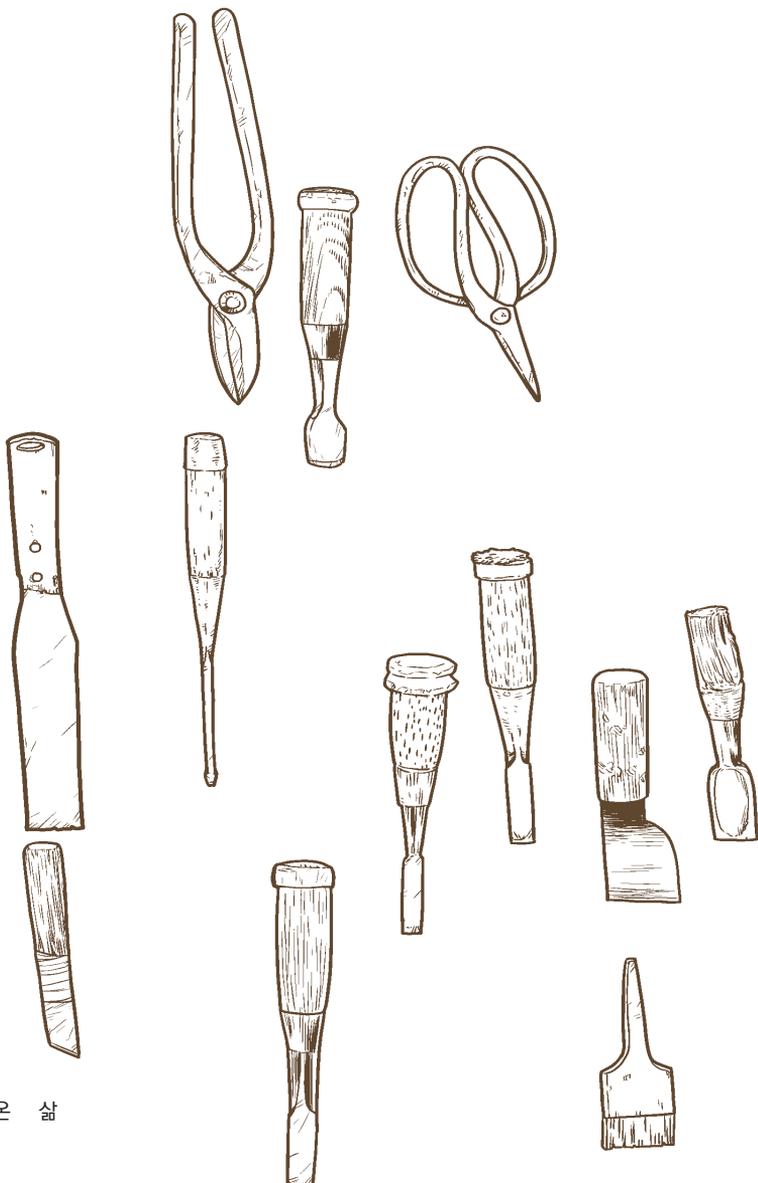
내가 구청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구청에서 이 동네 좋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별거 없는 거예요. 건물 주인들만 좋아지는 거지. 여기 (점포 앞) 주차장 판 것도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공예인들이 “손님들이 왔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냥 가는 분들도 많다.”고 건의해서.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대놓고 있잖아. 저렇게. 내차 여기 못 대고 저 위에 있어, 지금. 여기 못 대고.

은퇴 후 계획

만약에 여기가 헐리면은 강화로 들어갈려고요. 가게 되면 70이 넘은 거니까 여태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했잖아. 그러니까 거 가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물건들을 한번 해보려고.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꿈이 작게 ‘공예 공원’ 하나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마당에다 물레방아도 하나 돌리고. 그리고 뭐, 수로 하나 만들어 갖고 붓어도 좀 키우고. 마당에다가 벤치도 좀 놓고, 장승도 세워 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전시장,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 갖고 작품도

전시하려고. 작업장 따로, 전시관 따로. 이렇게 하나 갖는 게 꿈인데. 잘 안
돼 (웃음).

그러려면 최하 2~3억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웃음).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나고, 나 혼자 알아서 꾸미고 살아야지 뭐,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
겠지만.





미추홀공예사

주요작업 : 상감기법 목공예, 목조각, 범종틀, 친환경 목공작업 등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295

목간판에 새긴 나만의 글씨

조각은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글이나 그림을 이렇게 수작업을 하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것이 그 수많은 어떤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무는 진짜 죽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죽어 있는 건데 여기다가 뭔가 내 솜씨가 가면은 새로운 어떤 그 작품이 되고 장식품이 되고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조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관찰력이 많이 늘어나요.







인일조각 진 교 육 (1950년생)

전라남도 광양에서 자라왔다. 서울에 올라와 선배의 소개로 조각을 배워
목공일을 시작했다. 71년에 사업상 인천에 온 이후 우연히 배다리 쪽의
공예사에서 일하다가 '인일조각'을 열었다. 97년 승의동으로 이전해 50년 넘게
사업장을 운영 후 22년 11월 은퇴했다.

면담일시 22년 8월 25일, 22년 8월 30일
면담, 원고정리 김용경
면담지원 허은영, 정지선

고향과 어린시절

대표님 태어난 고향은 어디신가요?

나는 전라도 광양에서 1950년에 태어났어. 원래 태어나기는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어서 여수 백야도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은 광양에서 보냈어. 2남 4녀의 형제 중에 위로 누이가 있고 내가 장남이었어요.

대표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하셨나요?

나는 어릴 적에 참 영특했데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 앞에서 항상 리더 입장이었고 해서 그 당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할 정도로 매사에 좀 잘했어요. 모든 게 다 자랑스러웠었지. 어린 시절 내가 다닌 학교는 큰 학교였어요. 한 학년이 7~8반이었는데 한 반에 60~70명이 있었으니까 근 삼천 명 정도 되는 큰 학교였어. 거기서 전교 어린이회장도 했어. 내 개인적인 자랑입니다마는 학교에서 내가 조금만 몸이 아프다는 기미만 보이면 선생님들이 서로 양호실로 데리고 가는 등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또 아버님이 공직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빈곤하게 살지 않았고, 우리 어머니는 그 지역구 정당에서 여성위원장을 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 활동을 좀 하셨어요. 두 분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2남 4녀 모두를 잘 가르쳤어요. 그런대로 밥 먹고 살고 자신만만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림을 잘 그려서 전라남도 조선대학교 주최 전국 학생 미전에도 나가서 몇 번 입선도 하고, 학교 미술부도 내가 총괄해서 운영을 했어요.

조각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 지방 젊은이들에게 서울은 선망이 대상이었어요. 그때 서울 나들이를 몇 번 했는데 참 멋졌어요. 서울로 올라올 때 내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서 온 것도 아닌 거고, 아버지 돈을 몰래 가져온 거라 내려가면 반성문 갖고는 안될 것 같아 고민하는 찰나에 고향 선배가 조각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만났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이에요. 고등학교 선배인데 굉장히 반기면서 "야 너라면 이거 정말 잘할 것이다. 한번 해봐라." 하는데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특별한 계획도 없고, 우선 의식주를 당장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머물러 배웠던 것이 조각 기술, 목공예였어요.



조각을 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

서울 갈현동에서 일할 때, 사장 바로 밑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부장하고 친구 같은 관계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에 비해 대접이 소홀하더라고요. 그때 한 3개월을 이걸 배워서 서각 목공을 한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에 초급을 이미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도급제로 해 달라고 했지요. 자재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라 비싼 나무라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량을 내면은 재룻값은 변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기존 기술자들과하고 동일한 자격으로 일을 했었죠.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해고를 당했죠.

그래서 광주로 내려갔죠. 광주로 내려갔는데 공예품을 만드는 그분하고 유대를 가지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목공 기술을 습득했죠. 벽걸이 공예품 조각을 만드는 것을 배워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내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 마장동 원목 조합에서 나무를 사고 종업원을 6~7명을 데리고 청계천 뚝방* 판잣집 두 칸 임대해 해가지고 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호감은 가는데 가격이 비싸고 또 판매는 한정되어 있어 대중적인 소비가 안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 가고. 이런 공예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대량으로 구매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가니 영업 수지타산이 안 맞았지요. 문제는 이것을 어차피 처분을 해야 되니까 위탁으로 주고, 수금으로 간다고 하면은 몇 개 팔렸다고 돈 조금 주고. 도대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고를 판매를 하러 인천에 온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인천에 살게 되었어요.

인천에 오신 것은 언제쯤일까요?

내가 인천으로 온 것은 1970년대 초였어요. 그때만 해도 인천은 낙후되어

있었어요. 인천에 와서 재고 정리를 하면서 그냥 인천에서 한 2~3일 머무르면서 특별한 계획도 없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우연치 않은 사건으로 인천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인천에서 돈도 한 푼도 없고 시내버스에서 어떤 사람과 인사를 나눈 사람이 있었어요. 모래내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였는데 우연찮게 그 버스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무슨 목적인지는 지금 기억이 없는 데 그분이 가진 나무를 보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사장님, 이거 조각품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 명함을 주는데 ‘안토니 공예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다리에서 공예사를 하고 있는 전종원 씨였어요. 전종원, 그 사람은 인천의 최고의 목공 원로죠. 지금도 운영을 해요. 배다리 철교 좌측에서 내려가면 옛날에 신흥동 가는 삼거리길이 있는 전원 공예사.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죠. 종업원들을 많이 데리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처지를 이야기 했죠. 인천에 와서 이렇게 재고 정리를 하고 특별한 진로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찾아뵈게 됐다고. 그러니까 바쁘게 잘 와줬다고.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게 됐죠. 전종원 씨 가게예요. 거기서 내가 먹고 작업장 책상 위에 휴대용 침낭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자고 일하는 시절이었죠.

어느 날 바쁘니까 나보고도 공장으로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갔죠. 갔더니 거기 가구공장 사장이 광주에서 알았던 선배님이셨어요. 너무 반갑다면서 자기 공장의 규모가 커서 조각 책임자를 하나 주선을 하고 있는데 잘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옮기게 됐죠. 그러면서 전 사장하고는 좀 꺾끄러워진 관계가 됐죠. 내가 고향 선배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구공장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내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집사람과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고향처럼 인천에 머무르게 된 거죠.

부도 맞은 경험과 IMF 국난 속에서도 건재한 목공 사업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한 서너 번 맞았죠. 저는 성격이 약속 지키는 걸 참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직원들 월급이 내일 모래 돌아온다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나는 IMF를 모르고 살았어요. 오히려 IMF 때 연수동에다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그때 이사를 들어갔는데 식구하고 손가락만 들고 가서 모든 세간을 새 걸로 다 구비를 하고 그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집사람이 살림을 알뜰히 살아줘서 그래요. 아무튼 통장에 잔금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 사업하면서 IMF로 어려워 SOS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잠깐씩 용통도 해주고 그렇게 살아서 IMF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랑할 건 없는데 재미있게 살았어요. 현찰이 많지는 않은데 자금자족할 정도는 됐죠.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 생활하시게 되었나요?

아버님이 5.16 군사혁명 시절에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큰 과수원을 사가지고 이사를 하였지요. 전라남도 광주 근교에 있는 곡성이라는 곳인데, 그때 그 동네에서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그 혼한 오빠 동생이라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지내다가 사귀다가 인천에 저 혼자 지내다, 집사람과 결혼을 하여 집사람과 인천에 오래 살게 된 거죠. 저는 집사람이 그냥 좋아 평생을 두고 감사해요. 내가 사업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초라하더라도 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사니까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처음에 정착하신 데는 어디세요?

인천 중구 도원동이에요. 도원동은 그 당시에도 주거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번듯한 집은 별로 없고, 번듯한 집이라곤 월남촌이라고 그 양옥집 2층, 3층 집이 가장 번듯한 집이었죠. 내가 팔불출 같은 얘기 해 볼게요. 집사람이 집을 하나 사봅시다 어쩍시다 해서 그 당시 개발된다던 연수동에 가서 땅을 샀어요. 거기에 집을 짓고 해서 건물주가 되었지요. 아내 덕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정리를 해서 장남인 나에게 100% 다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양해를 구했죠. 우리 받지 말자 저건 두 분이 어렵게 모으신 돈이니까.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쓰고 가지게끔 받지 말자고. 우리 신혼 때 우리 부모님이 광주에 계셨는데, ‘노인들은 밤새 안녕’이라고 하듯이 우리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집사람이 병원비 쓰라고 우리가 살던 전세금을 다 빼서 목돈을 갖다 드렸어요.

자제분은 어떻게 두셨나요?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위로 딸 딸, 그다음에 아들. 예전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나는 장남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딸딸 손녀를 보니까 겉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데 섭섭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때 집사람한테 왠지 미안해하고 부담스럽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막내가 아들입니다. 제가 애들하고도 재미있게 농담도 잘하고 하지만 엄할 때는 엄하게 키워서 그런지 지금은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집에서 왕 대접을 받고 사니까요.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든 존중해 주거든요. 이렇게 받아주고 하니 행복해요. 특히 우리 애들이 내가 하는 일을 많이 지지해 줘요. 둘째 딸이 출가 전에 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아버지는 지금도 훌륭하신데 좀 더 크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목공예거리의 형성과정

목공예 사업은 어디서부터 하시게 되었나요?

배다리에서 시작했지요. 가게가 한 40평 되고 한쪽에 사무실도 있고 컷지요. 지금은 헐린 쪽에 있죠. 철로 길 쪽. 종업원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가 도시개발 도로 확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와중에 우연히 가게 임대를 했어요. 거기다가 ‘인일 조각’이라는 간판을 하나 붙여놓고 1년 치 임대료를 줬죠. 내가 ‘인일 조각’ 간판을 걸어 놓으니까 공예사들이 한두 명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배다리 그 동네가 목공의 거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송의 목공예거리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과정을 말해 주세요?

1997년 송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하나둘씩 이사를 오다 보니까 여기 송의동이 목공의 거리가 된 거예요. 나도 도시에서 살면서 보지만 이렇게 낙후된 도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구청에서 인천 도시발전 그런 계획에 여기도 철거지역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예요. 아시안게임 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철거가 된다. 이런 말이 나돌았죠. 그때 당시에 시 재정이 없어서 무산돼 버린 거죠.

그런 와중에 어느 날 남구청 기획실에서 공예인들이 모이게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차관급이 이 동네를 답사를 나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니까 좀 모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죠.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동네 그 친목이랄지 공예인들의 참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 기능을 가지고 3~40년간씩 해 온 기술업인데, 지원을 주실 일이 있으면 100%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더니 그분들이 동네를 한 바퀴 더 돌고 가더라고요. 그분들이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구청 기획실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그분들이 가시면서 지원을 준다고 하는데, 공예가들 조직표를 달라고 하더군요. 전화상으로 알려줬더니 통과가 잘 된 거예요.

이쪽에 올라가시면은 센터 있기 전에 2층 건물 있죠? 4억 지원금이 나와 이 동네가 공예 거리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이 이렇게 팔도 움직일 수가 없고 목 디스크가 심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2차 지원이 목공센터에 해 준다는 거예요. 말로는 20억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더라 2010년 후반기 같은데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관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목공 센터가 들어서고 친목회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목공 강의를 하게 된 과정을 알려 주세요?

산림조합 중앙에서 운영하는 목공의 기술 급수 자격을 준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친목회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급수 시험을 보러 몇 번 다니더라고요. 기능보다도 객관식으로 그런 시험인데 목공 센터가 들어서면서 평생 학습 교육하게 되었죠. 나는 이 계통에 원로이다 보니, 내 전문 분야의 서각 강의를 부탁하더군요. 그래도 처음엔 사양을 했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모셔다가 가르치라고. 근데 우연치 않게 내가 강의 진행을 하게 되어 사력을 다해 지도했어요. 한 3~4년간을. 아주 생소한 초보자들을 10시간 만에 교육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져가게 하려니 정말 처음에는 자신이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의 프로그램을 짜서 10시간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나중에 갈 때는 작품 두 개 정도는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교육생들한테 제가 존경을 많이 받고 호감을 많이 받

다보니 남구청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지도했어요. 근데 작년인가? 올해 초부터인가? 민영화를 시킨 거죠. 남구청에선 그래도 여전히 나한테 이걸 진행을 해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해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해 보라 하고 나는 빠졌죠.

나무 이야기

목공 자재는 어떻게 수급하셨나요?

인천이 원목을 수입하는 도시 중에 가장 선두라고 봐야겠죠. 공예 자재는 우리나라 나무는 별로 없어요. 거의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 오는 나무는 남방지구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쪽에서 가져와요. 열대 지방 거의 비슷하니까 온열대지방. 그러니까 그 수입자들이 그런 원목을 수입을 해서 제재업을 하는 쪽에서 판매를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부탁을 하여 필요한 두께만큼 잘라서 판매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사서 쓰는 거죠. 우리가 원목을 사 오는 경우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우리 목공 일은 거의 수작업이에요. 내가 이 목간판을 만들면서도 모든 글씨는 내가 손으로 다 써요. 그걸 조각을 하면 작품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컴퓨터가 글씨를 써 주기도 하지요. 컴퓨터만 좀 늦게 나왔으면 굉장히 할 일이 더 많죠. 목공은 거의 수작업인데 컴퓨터가 나와서 개성이 적어졌어요. 지금도 아주 옛날 손글씨로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공 작업하실 때 어떤 나무로 하시지요?

나왕*이 가장 무난하죠. 최근 들어 나왕은 수입이 안 돼요. 그린피스* 환경 단체들이 산림 훼손도 막고 있고, 거기다가 방대한 중국이 산업화 되면서 동남아시아 원목들이 통째로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나머지 자투리들만 받아오다 보니까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나왕 대체품인 집성목을 사용해요. 작업은 아주 힘들어요. 집성은 여러 조각을 붙여서 빗물에 오래 받으면 이게 퍼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작업 과정이 더더욱 힘든 게 앞뒤로 칠로 포장을 다 해줘야 돼요. 집성목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클립*해 놓은 건 사용을 잘 안 해요. 집성 목재 중 솔리드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냥 나뭇결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각할 때에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칼이 잘 안 맞아요. 이걸 엇그저께 인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 간판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솔리드라 해서 안에 여러 겹이 붙어 있는 거죠. 요게 집성목입니다. 집성이라는 말 그대로 나뭇조각을 갖다 이렇게 집합을 시켜서 본드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요즘은 이 접합시키는 본드도 좋고 기술도 좋아가지고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목공예를 하기 위해 자재 수급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재 수입은 목재소를 가는 거죠. 인천에 원목을 수입하는 제재소가 많으니까요. 내가 젊어서부터 거래했던 제재소는 인천제철 앞에 평화 제재소라고 있었어요. 평화 제재소는 소비가 전국 위주로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대성목재를 비롯한 목재소들은 목재 사업도 할 뿐만 아니라 목재하고 연관된 합판 제조, 가구 제조 등 여러 가지를 다하죠. 그 썬퍼니처 같은 데도 전국에 가구점들을 두고 대리점들을 두면서 운영을 하지요.

대성목재 옆에 대성목재하고 거의 맞먹는 목재사가 있었던 상호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회사 직장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났더니 자기네 회사에도 가구부를 창설 하는데 조각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진교육 당신이 와서 조각을 책임지고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인데 한 3년 정도는 미리 선불로 보장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다 정리하고 오겠다 했어요. 그러니 그건 좀 부담스럽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실험용이죠. 운영을 해서 잘 되면 밀고 가는 거고 안 되면 해체하고. 거기에 군침을 갖고 덤뻐다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또 한 번은 가구 공장에서 목수라는 친구처럼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자기 처제가 미군 장교 부인인데, 그 미군 회사가 현지 주둔을 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몇 개 벌렸나 봐요. 민영화도 시키면서 나를 필요로 해서 사이판을 가자는 거예요. 내가 처자식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절했지요. 그 친구가 몇몇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다들 큰 부자들이 됐어요.

사용하는 조각도와 공구

대표님이 사용하고 계신 조각도는 우리나라 제품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들입니다. 가까운 후배가 와서 작업장에 오면 ‘형님네 사업장은 박물관’이라 해요. 무슨 웅장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쓰는 문구용 조각도 같은 것이 많아서요. 칼은 오래 쓰면 버려야 해요. 무디어진 칼을 숫돌*이나 빼빠*에다 갈아서 쓰는 거죠. 이렇게 연마를 하



사용하는 조각칼

면 열을 받아요. 열을 받으면 이 칼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성질이 그 열에 의해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잘 갈아도 이렇게 우그러져 버리고 잘 안 들어요.

목공 작업을 하는 공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톱하고 또 다른 평범한 공구들이 있어요. 이게 스카시라는 기계인데,

호수별로 있는 거거든요. 나무가 거친 건 좀 센 거, 약한 건 좀 약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제재소하고 비슷한 오비노꾸라고 해요. 이게 다 일본 이름인데 오비노꾸. 둥근 톱날이죠. 제재소가 다 이런 기법이죠. 아까 저런 무늬를 이렇게 꺾는 거고, 이것은 올리는 거죠. 이런 곡선들을 올리는 힘들어요. 옛날에는 이런 목공 기구들도 발달이 안 났을 때에는 전부 사람들이 손으로 다 했죠.

요건 목재에 바르는 칠인데요. 목재에 바르는 칠이 종류가 있고 오일 종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나무에 따라서 바르는 기법이 틀려요. 칠을 바르면은 마무리하는 칠도 있어요. 칠은 한 번 발라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소비자들은 니스 한 번 바른다는 개념이잖아요. 목공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일반 고급 칠에는 하도가 있고 상도가 있고 그래요. 목공 작품은 샌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샌딩이라는 것이 밀칠이에요. 말씀 그대로 깎아내는 거거든요. 갈아주는 거 그러니까 칠을 해서 그 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로 칠의 평면을 잡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 갖은 뼈빠가 다 있어요. 이 뼈빠가 그 센 것 중간 것 아주 고운 거. 그래 가지고 이 샌딩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시아기칠*을 바르는 거예요.

인일조각을 운영하면서

인일조각 상호의 유래를 알려 주세요?

특별한 유래는 없지만, 처음엔 배다리에서 2층을 임대해 해가지고 '수정 조각'이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수정 조각이 제 첫 사업장이지요. '수정'이라는 한 것은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수정이에요. 그래서 수정 조각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상호를 한 번 바꿔 보려고 이거저거 고민하다 '인일조각'으로 바꿨어요. 옛날에는 학생들도 학교 숙제 작품으로도 우리 공예사를 자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저씨 인일 상호가 뭐예요." "인천에서 1등이다." 그냥 내가 이제 그렇게 즉흥적으로 웃기는 대답을 해 준 기억도 있어요. 사실 우리 큰 딸은 또 인일여고를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인일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해요. 잠재적으로 인천에서 1등. 참 좋다는 그런 생각도 담겨있겠죠.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주문은 어떻게 받아 하시나요?

오더*는 전부 소비자가 주문을 주셔서 합니다. 저는 0.1%도 영업을 안 해요. 주문 위주죠. 저희는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는 목공예는 생활용품으로 쓰거나 필수 도구가 아니니 고객의 주문에 따라 작업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요새는 이 일도 이렇게 메일로 다 받아요. 이렇게 메

일로 주문을 받아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첨단화(정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이 살기엔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노인도 배워야죠.

목공예 주문이 많으신데 그 비결은 무엇인지요?

제 기사가 인터넷에 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나 봐요. 조각가 진교욱에게 가면 잘해주더라. 정확하고 잘해준다. 그래서인지 지방에서도 오고 그래요. 독특한 글씨체와 조각 작품의 완성도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인천시에서 저에 대한 책을 하나 내준 게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구술로 해 가지고 나온 책이에요. 저와 다른 한 사람을 묶어서 책을 내주었어요. 가끔 메스컴에서 전화가 와요. 엠비엔인가 어디에선 ‘서민 갑부’도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그릇 규모가 아닙니다.” 해서 다 거절했는데 한 여자분 기자(인터넷 신문사)가 그냥 간곡히 취재 한 번만 해달라고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다 기억에 남고 제 작품은 다 애착이 가죠. 제 손길이 수십번 아니 수백 번이 갔으니까요. 이 노트가 인일조각 포트폴리오지요. 이게 지금 신영 초등학교 교표* 사진이에요, 전부 손으로 써서 하는 글씨죠. 학교 애들이 이 글씨체를 ‘진교체’로 하겠다 했어요. 여기 화엄정사라고 썼지요? 이게 컴퓨터에서 말하는 백송체라는 글씨거든요. 이 글씨도 컴퓨터가 써놓은 글씨대로 하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서 배열을 해서 빼가지고 내가 손으로 전부 고쳐요.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요. 컴퓨터로 글씨를 만들어도 제 손 글씨가 거의 한 40% 이상은 고쳐서 하고 있어요.



작품 노트를 보여주고 있는 진교욱 사장님



이길여 산부인과 기념관 간판 조각



중국집 시엔 간판 조각

그리고 여기 보면 재미있는 ‘시엔’이라고 시청 옆에 가면 중국집 간판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죠. 여기 사진 봐요. 길병원 재단 역사관을 만들 때 간판 내가 썼어, 내가 종이에다 써가지고 재단 측에 보냈더니 심의를 했나 봐요. 목간판 하려면 ‘인일조각’ 아니면 누가 손을 못 댔어요. 글씨를 못

쓰니까.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컴퓨터 나오기 전의 이야기네요. 여기 보시면 사과, 참외, 수박, 딸기, 배추, 양파...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만들었냐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했을 때 인천시 농협에서 우리 농산물 이용하자 캠페인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 목공의 일을 하다 보면 인테리어 현장에도 재밌는 장식들이 많이 들어가요. 목공예는 시대 발전하고 멀어진 게 지금은 실상이예요. 모양 하나만 뜨면은 수십 개고 수백 개고 만들어 내버리니까. 돈이면 다 되죠. 안 타깝죠. 저기 저 등 뒤에 보시면은 저 북 북자 써 있는 거 있죠. 저게 분당에 가면은 1층부터 5층까지가 전관이 청요리집이 있어요. 왕푸징이라고. 근데 그 집 전관 인테리어의 조각품을 내가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왕푸징 금판도 여기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비어 있죠. 엘리베이터 이게 누르는 그 칸이예요. 어느 건물주가 5층인가 몇 층에 자기가 당구장을 하면서 당구장 안내 표시를 1층 엘리베이터 이 표지판 누르는데 이걸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씌워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 ‘설화정’이라고. 이것도 제가 쓴 것인데요. 우리나라 이만섭 국회의장 계실 때에 강화에 인삼센터 가는데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밀어 가지고 공무원 국회의원 연수원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그 정자를 하나 졌는데 이만섭 씨 호가 이건가 봐요 ‘설화’ 그래가지고 설화정이라고 이걸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강화에 국회의원 연수원 산까지 내가 제작해서 배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산림조합 중앙의 현관에 붙인다고 이 벽에서 저 벽까지 가는 크기거든요. 너무 커서 두 토막으로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 공예품을 하다 보면 특히 서각 계통의 이런 간판을 합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

까 지금도 앨범을 들춰보면 참 세상이 너무 변해버렸다는 것이 느껴져요.

조각과 목공업을 바라보는 시선

조각에 대한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각은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글이나 그림을 이렇게 수작업을 하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것이 그 수많은 어떤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무는 진짜 죽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죽어 있는 건데 여기다가 뭔가 내 숨씨가 가면은 새로운 어떤 그 작품이 되고 장식품이 되고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조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관찰력이 많이 늘어나요. 목간판을 만들면서도 모든 글씨를 내가 손으로 다 썼어요. 그걸 조각을 해서 그게 제품이 돼서 나가죠.

근데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컴퓨터가 글씨를 써버려요. 컴퓨터로 인해 그러니까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도 아주 옛날 제 글씨로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만 좀 늦게 나왔으면 우리 수작업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 우리 같은 기능인은 컴퓨터 때문에 할 일이 적어졌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글씨도 컴퓨터가 써놓은 글씨대로 하면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글씨를 내가 컴퓨터에서 배열을 해서 빼가지고 내가 손으로 전부 고쳐요. 내 마음에 들게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글씨를 만들어도 제 손 글씨가 거의 한 40% 이상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작업을 들여다 보면 정성이 들어 있어요. 인천의 목공 장인으로 등록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만든 물건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룬 게 없었어요. 내가 돈을 조금 벌더라도 될 수 있으면 성의껏 해주자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건을 해가시는 손님들이 오죽하면은 안타깝게 보여서 그러는지 돈을 몇만 원씩 더 주고 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이 목간판에 대한 인식이 식상해졌지만, 옛날에는 이 목간판의 글씨를 사람들이 쓰지를 못했어요. 내가 다 써가지고 만드니까 나 밖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요즘은 컴퓨터 글씨를 응용을 하니까 너도나도 이제 기웃거리죠. 솔직히 이 목간판을 사수하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 거예요. 컴퓨터가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런 목공예를 한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이걸 해요. 이 목간판에 대한 옛 그런 전설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그 목간판에 대한 고증도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내 손글씨를 좋아해서 오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참 우스꽝스러운 게 내가 글씨를 써놓고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글씨가 있어요. 내가 썼는데 해놓고 봐도 내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TV 속에서도 보면은 특히 이런 공예 계통 문화재급들을 명장이다 뭐다 뭐다 하면서요.

인천의 목공의 전통을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단 소비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저도 이 목공을 하면서 광명과 일산에 있는 이케아도 자녀들하고도 한 3~4번 갔다 왔는데, 뭐랄까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돼가지고 모든 세계의 물질문명이 다 섞여 있어 버려요. 거기다가 그 엄청난 그 가격 경쟁.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목공 기술업이 침체기죠. 이케아가 오기 전에도 일반 가구 공장이나 여러 군데서 엄청 염려

를 했던 부분이지요.

손 공예로 만든 개성 있는 작품에 대한 애호정신 이런 것이 아쉬워요. 목공예 후계자가 없어요. 생계가 안 되는데 배우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목공 대기업에서도 소비자들을 파고들기 위해서 모든 가구의 조립 과정을 애들 블록 맞추기를 해서 제품을 팔아요. 이 계통은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마무리가 된 기술인데 명맥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기계화를 시켜서 따라가기에는 너무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는 미지수예요.

승의동에 목공예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승의동 목공마을에 있는 기술자들은 경력이 최소 20~40년이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체력이 있는 한 기존 단골들 확보로 그냥 잘 유지가 될 거예요. 또 요즘 뭐, 유행이 복고풍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옛것을 그리워서 수작업에 의뢰를 해서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목공예마을의 목공의 교육 과정을 보면은 각 분야가 다 특징이 있잖아요. 또 많은 교육생들이 지망을 하여 열성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들의 얘기를 전해보면 거의 다 취미, 그다음에 퇴직 후 노후 소일거리예요. 이런 쪽으로 인기도는 참 좋아요. 인기도는 좋은데 다만 사업적으로는 조금씩은 대형 기업들이 치고 들어와서 수입 면에선 염려돼요.

오랫동안 목공 일을 하시면서 생긴 직업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70이 넘어버리니까 손을 많이 쓰니까 손 관절이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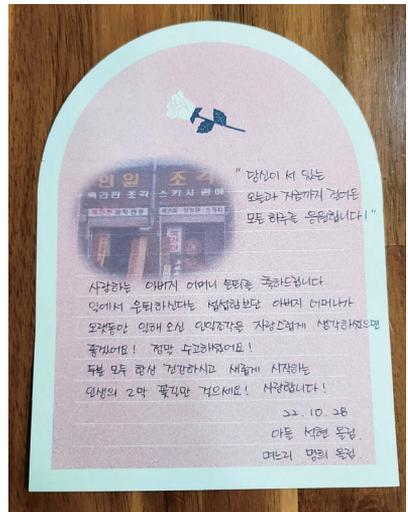
금은 와요. 예전엔 제가 힘도 세고 건강했거든요. 제 침대에는 물리 치료기
들이 있어요. 손에 뭐 지압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찜질 팩. 안마. 이런 것
들이 내 잠자리에 언제부턴가 동반을 하고 있어요. 손 관절이 아플 만도 하
죠. 이 맨손으로 삼남매를 다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키워서 결혼까지 다 시
켰으니 고장이 안 나겠어요.

자제분에게 목공 장인 인생을 물려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수를 안 시켜요. 이 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사업으로 하다 보
면 너무 힘들고 그래요. 이 서각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각 기술도 중요
하지마는 체력, 힘도 필요해요. 무엇보다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강제
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잘할 수 하게 지원하
고 싶어요. 편하게 해 주고 싶어요. 목공예 일 참 힘든 일이에요. 저처럼 힘
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쉬고 싶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도 얘기했어요. 우리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 돈을 쓸 일이 쓸 시간이 없지 않냐며.
남은 시간은 이제 돈을 좀 쓰고 살자고.
우리 애들은 항상 불만이죠. 아빠 좀 사
무실을 크게 해서 소파도 멋지게 갖다 놓
고 환경도 깨끗이 해서 운영을 하시면 어
떠냐고. 그때마다 좋은 말이다. 아빠는 그
냥 이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집사람



은퇴하신 기념으로 매느리가 쓴 편지

이 살고 있는 집은 최고로 해주고 싶어요. 내가 처자식을 보면 항상 안타까워 보여요. 돈 많은 자본주의에서 왜 하필이면 내 식구가 돼 갖고 이 고생 하나 싶죠. 그래서 형편이 닿으면 최선을 다해주자 그러죠. 식구가 즐길 수 있는 건 다 해 주고 싶어요.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 인생의 목표를 네 마누라만 위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 아빠 모습 안 보냐 아빠는 엄마를 위하기에 크게 사업을 안 하고 산다. 나는 그래요. 집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밖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별별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밖에 나가면 그냥 집에를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사람만 큰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인일조각
(현재 은퇴)

주요작업 : 목간판, 상량판, 스키시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3-1

조각에 무아지경의 매력을 느끼는 장인

조각을 시작하면 거기에다만 신경을 쓰니까 다른 것은 잊게 돼요.

무아지경(無我之境)이죠. 무아지경에 완전히 빠져 잡념이 없게 되지요.

사실 조각을 하다가 다른 생각은 못 하죠. 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더더욱 다른 생각 못 하고 그것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조각의 매력이죠.







인일조각 박 호 만 (1952년생)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15살에 서울로 상경해 목공을 배우게 되었다. 절에서 숙식하며 불교 조각, 가구회사에 납품하는 가구 조각 등을 해왔다. 32살에 동구 배다리에 정착하여 목공 가게를 시작했으며, 송의동, 석남동 등에서 공예사를 운영해왔으며, 2022년 인일조각 자리를 이어받았다.

면담일시 22년 12월 6일
면담, 원고정리 김용경

조각을 시작하고 현재까지의 과정

대표님 생년월일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호적에는 1952년 1월 3일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생일은 9월 24일입니다. 대부분은 호적을 늦게 신고하는데, 제 경우는 더 빠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 너는 서울을 가서 공부 좀 해라."하며 큰아버지한테 땅을 팔아서 줬는데, 그런데 큰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15살부터는 남의 집에 머물면서 목공을 배우면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제가 목공을 배우는 그 집은 큰아버지가 나무를 대주는 집 중 한 집인데 그곳에서 밥 얻어먹으며 목공을 배우게 되었지요. 서울 옥수동인데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잘 되는 동네여서 일하다 말고 지붕도 고쳐 주고, 문짝도 고쳐 주는 일도 했어요. 그때는 그곳 서울 옥수동이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워낙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갈 데가 없었지요. 남의 가게에 가서 일하고 밥 얻어먹고 그냥 일해주기도 하고 용돈을 조금 받기도 했어요. 그때는 돈보라도 먹고 사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조각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견습공으로 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죠. 그래도 싫지만은 않았어요. 이상한 기계로 자르고 조각칼로 조각해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했어요. 처음 제가 본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촌뜨기가 조각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때는 요즘처럼 딱딱딱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밥 얻어먹으면서

하기도 하고 돈을 받기도 하면서 되는대로 남의 집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20대에는 친구와 동업으로 가구 만드는 공장을 경영해 보기도 했는데 별로 재미는 못 보았지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나무 냄새를 좋아했어요. 20대에 공장 경영에 실패하고 남의 목공 가게에 들어가 그 당시에 유행인 벽걸이 조각을 배웠죠. 호랑이 조각, 사슴 조각, 우산 안에 두 연인이 있는 조각 등을 했어요. 글씨 조각은 나중에 했고 20대에는 거의 벽걸이 작품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일본에 수출하는 불단* 조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오더(주문)를 줘 가지고 한국에서 작업하는 것인데 거기서 월급제로도 있으며 불단 조각을 배우고 직접 했어요.

그러다 20대 후반에는 절에서 숙식하면서 하는 절 조각을 배워 하게 되었지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가들이 함께 큰 작품을 했어요. 절 조각의 으뜸은 뭐니 뭐니 해도 커다란 목불(木佛)이지요. 제가 목불 조각을 한 곳은 전북 김제 금산사 절에서도 했고, 지리산 실상사에서 했고, 오대산에 들어가서도 했죠. 보통 목불상을 만드는 데는 몇 달이 걸리는 대작이지요. 단체로 불상에 매달려 조각을 해야 하니 개인적인 자유는 없었지만 조각하는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럼 30대 때 대표님의 생활을 말씀해주세요.

30대 초반에는 배다리에서 목공 일을 하



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 나이 서른두 살에 결혼을 하며 배다리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결혼을 몇 년도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983년쯤) 배다리 시절부터 저의 목공 활동에 있어서 정착기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전에도 조각을 배우고 했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으니깐요. 옛날엔 거의 다 그랬잖아요. 배다리에 일하시던 때가 30대 초반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정도 되겠어요. 배다리에 살면서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이제는 둘 다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가족들은 제가 하는 일을 생계를 이끌어 주었으니 이해하고 인정해 주지요. 제 자식들은 제가 하는 조각에 큰 관심을 보이거나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듯해요. 근래에 와서 목공예가 힘들 뿐만이 아니라 수입 보장이 안 되는 힘든 노동이라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만둘래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70살이 될 때까지 다른 일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른 일을 해도 나무 냄새가 좋고 손에서 느끼는 나무 숨결이 좋아 나무 관련 일을 꼭 해 왔거든요.

대표님께서 20대에는 절 조각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30대 초반에 인천에서 자리 잡아 결혼하시고 조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차례대로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동안 목재를 다루는 일을 꼭 해왔고, 목공 여러 분야 중 가구 조각을 많이 했어요. 20대 중반에는 가구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주로 농(장롱)을 많이 했거든요. 가구업체는 당시에 있었던 보르네오, 동서, 라자, 삼익 등과 같은 가구 회사지요. 처음엔 종업원으로 하다가 내가 직접 시작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직접 목공 쪽 오너로 시작한지는 30년쯤 된 것 같아요. 대형 가구 업체 하청을 받아 운영하기도 했지요. 그때는 수입이 좋았어요. 배다리에 사업장을 가졌을 때 상호는 ‘대홍공예’

였어요. 배다리 사업장이 헐리면서 이곳 송의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 라인 건너편 삼거리 코너에 거기서 ‘대흥공예’란 가게를 운영하다가... 여기서 그만두고 석남동으로 갔었어요. 석남동 가서도 목공 가게를 계속했어요. 쪽 조각 일을 해 와서 같은 조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지요. 지금 송의 목공거리에 있는 분들과도 친분이 깊어요. 송의동에서 목공 가게를 할 때는 동생들도 같이했었는데, 동생이 교통사고 나고 그러는 바람에 여기 송의동을 접고 석남동으로 갔지요. 석남동에서 10년 넘게 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딱 터지니까 돈 받아야 되는 곳에서 돈을 줄 형편이 안 되니 돈줄이 막힌 겁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해서 버티다 못해 결국 집을 팔아 직원 월급은 주었어요. 힘들었어요. 그 후 목공 가게는 한 1~2년 쉬었어요.

IMF때 가게를 접고 쉬는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IMF로 쉬고 있을 때 인간문화재 허길량 장인에게 도와 달라는 요청이 와서 처음엔 석남동에서 파주로 출퇴근을 했어요. 자세히는 따져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이분과 한 13~15년을 함께한 것 같아요. 허길량 장인은 불교 조각을 하는 분으로 불교미술원을 운영하셨어요. 아마 이분은 2001년인가 그쯤 해서 국가 인간문화재 목조각장으로 인정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분 밑에서 조각을 배우고 도와드렸지요. 제가 허장인 보다 1살 나이는 많았던 것 같았지만 허길량 장인은 작품 전시회도 여러 번 가졌어요. 그분 전시회 도록(圖錄) 맨 뒤에 보면 함께 한 사람들 사진이 있지요. 저도 있고 그때 함께 한 조각가들이 이렇게 여러 사진에 있잖아요.

나무는 어디서 받아오세요?

제가 예전에 목공을 할 때는 원목을 쪼개서 썼어요. 원목을 제재소에서 사다가 쪼개고 말려서 쓰고 그랬거든요. 돈이 많이 드니까 반제품을 사다가 할 수가 없었지요. 지금처럼 다듬어진 나무가 아니죠. 그런 건 예전엔 없었죠. 배다리에서 목공 가게를 할 때, 배다리 쪽엔 목공소도 있었지만 다른 것들도 많았어요. 문짝 하는 데도 있고, 인테리어 하는 곳도 있고, 맨 그런 나무와 관련된 가게가 많고 만드는 데가 많았지요. 배다리에 죽제(竹堤)도 있었고, 합판, 함석* 같은 것도 있었어요. 또 큰 가구를 할 때는 아줌마들한테 외주를 주기도 했어요. 농에 장식을 하는 상감(象嵌)*을 주기도 하고 얇은 나무를 오려 붙이기도 일을 외주로 주기도 했어요. 저는 외주는 안 주었어요. 제가 목공을 하면서 사용하는 도구는 다양해요. 보시다시피 400자루가 넘는 조각칼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요. 또 스카시*하고, 그다음에 마루노꼬*, 루터*도 있고, 대패도 있고 많은 공구를 사용해 가며 작품을 완성해요.



사용하는 조각칼

목공 폐자재 처리 방법은 지금처럼 겨울에는 난로의 연료로 쓰면 됩니다. 다른 폐자재는 뭐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려야죠. 그래도 목공은 폐자재가 유해성분이나 유독 성분이 적은 편이지요. 그 때문인지 목공을 하면서 얻은 직업병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앉아서 깎으니 편하고, 톱밥과 먼지가 몸으로 들어가도 돼지고기에 소주 먹고 나면 괜찮더라고요. 나무 먼지가 돌가루 먼지보다는 소화가 잘되는 모양이에요.(웃음) 아직까지 큰 병이 없는 거 보편은요. 다만 작업하다 보면 손을 다치는 일은 종종 있어요. 이 손의 상처는 19살 때 다쳤는데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썩도록 내뒀서 이렇게 됐죠. 다쳐서 접합을 했는데 상처가 남아 있어요. 이 상처로 겨울이 되면 유독 이 부분 손가락이 시려요. 목공은 기계를 다루는 직업이라 손에 상처가 많아요.

조각에 심취하다

대표님의 기억에 남는 목공 경험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목공 경험이라면 32살인가 33살에 전주 불교회관에서 했던 불상 조각입니다. 그리고 20대에 오대산에서 공장을 할 때 조각 관련 기능대회를 나갔었지요. 잘했다고 상도 받았어요. 상가에 파는 기념품을 조각했는데 벽에 거는 벽걸이를 조각을 많이 했어요. 호랑이 조각, 사슴 조각을 했던 시절이네요. 근 3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함께 한 친구는 아직도 오대산 근방인 속초에 살아요.

무엇보다도 IMF로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파주로 출퇴근하며 절 조각을 배우면서 인간문화재 허길량 씨뿐만 아니라 조각의 명수들과 함께 조각한

일과 작품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배운 절 조각이 제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인연으로 불상 조각 오더를 주로 받게 되고 조각에 더욱 심취하게 되었지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조각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조각은 참 재미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일 것 같은 하늘로 올라가는 비천상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비천상. 제가 조각했어요. 이것을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만들었죠.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제 숨씨도 늘고 배울 것도 많아요. 이 작품은 관음상이에요. 머



작업물

리에 관을 썼다고 관음이라 부르지만, 자세한 것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관 쓰고 있으면 관음보살이라고 하고, 손 모양 등 다른 특징에 따라 부처님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해요. 지장보살, 아미타보살, 미륵보살, 무승보살, 등 다양해요. 워낙 많아요. 조각을 시작하면 거기에서만 신경을 쓰니까 다른 것은 잊게 돼요. 무아지경(無我之境)이죠. 무아지경에 완전히 빠져 잡념이 없게 되지요. 사실 조각을 하다가 다른 생각은 못 하죠. 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더더욱. 다른 생각 못 하고 그것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조각의 매력이죠. 이렇게 내가 한 작품이지, 처음과는 달라진 새로운 형태로 나오면 너무 뿌듯하고 기쁘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네모난 나무에 이런 관음상이 숨어 있다가 조각가에 의해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조각을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참 보람되죠. 무엇보다도 무념무상(無念無想)으로 몰입하는 조각의 과정이 참 좋지요. 조각은 무아지경의 매력을 느끼는 작업이지요.



조각 작업대

목공예마을의 미래와 바람

이곳 송의 목공예마을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최근 파주에서 하던 일이 부도가 난 후 2년 정도 쉬다가 여기 송의동에 가게가 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집에서 쉬어보니 하루가 길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전에 여기서 ‘인일조각’이란 간판을 걸고 목공 일을 하시던 진교육 사장님께서 저에게 작업실을 인계하셨지요. 진교육 사장님과는 전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정교한 조각 관련 일이 들어오면 제게 넘겨주며 함께 상부상조했었지요. 그러니까 진교육 사장님과는 예전부터 친분이 깊은 사이로 나한테 전부터 가게를 인수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노는 게 조금 길어지니까 지루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송의동 목공마을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가겟세나 내며 소일하고 싶어 이곳으로 왔지요. 남들은 쉬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나와 일하는 것이 위안이 되고 참 좋아요. 간판을 왜 안 바꾸느냐고요? 이유는 없어요. 간판을 바꿔볼까 해서 떼어 보려 했더니 타이루(타일)가 전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바꿀까 싶어 두었어요. 일단 그냥 사용하려고요. 저는 전에 배다리에서는 ‘대흥공예사’를 했고, 송의동 이사 와서도



마리아상 조각품



‘대흥공예사’로 했었지만, 석남동에서는 ‘동경공예사’로 했어요. 간판은 천천히 고민해 보려고요. 아직 간판에 대한 애착은 없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목공예마을의 전통을 잇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목공예는 침체 되어 사양길에 접어든 듯해요.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송의동 목공센터에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을 보면 취미로 하는 사람은 꽤 있지만,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목공을 취미로 한다면 재미도 있어 괜찮아요. 그러나 먹고 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힘든 고생뿐만이 아니라 수입을 보장하기 어려워요. 최근 손으로 만든 수공예다 해서 가격은 싸지긴 했지만 많은 양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는 한 번 하면 몇백만 원씩 해달라며 주문량도 많고 해서 수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주문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한두 개 쓴다고 주문하는 정도예요. 최근에는 종교재단이나 목공에 관심이 있는 몇 사람이 부탁하는 정도지요. 조각 예술품 같은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부탁한 거죠. 목공작품도 예술도 돈이 있어야 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씩씩해요.

최근에는 목공 대기업에서 애들 블록 맞추기 하듯 해서 반제품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나뭇 만드는 즐거움도 느끼고 자기가 만들었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많이 애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은 수공업은 이런 대기업과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도 힘들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목공 기술업이 침체기죠. 공인의 손때 묻은 개성 있는 작품에 대한 애호 정신이 못내 아쉽지요. 생계가 안 되는데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특히 이 계통은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마무리가 되는 기술인데 명맥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송의 목공예마을의 발전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송의동 목공마을에 있는 기술자들은 경력이 최소 20~40년이 넘어요. 다들 고령자가 되었지요. 그러기 때문에 체력이 있는 한, 기존 단골들 확보로 그냥 그냥 유지가 될 거예요. 제가 다시 송의 목공마을로 돌아온 것은 돈을 벌기보다는 목공마을에서 못하는 것을 내가 좀 해 주며 작은 일이라도 하며 소일하려고 왔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송의 목공 마을이 전통을 이으려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어떤 식보다도 국가에서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싶어요. 국가나 시에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절실하지요. 아무래도 가게 임대료가 비싼 데는 집세 내기도 빠듯하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싼 편이긴 해요. 한 500만 원에 3~40만 원 월세인데, 일 없을 때는 그것도 내기가 벅차거든요.

또 목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목공을 교육하는 목공센터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곳이 목공을 배울 수 있는 학교 같은 데가 되면 사람들이 찾게 되고, 서울 인사동처럼 고유한 특성을 지닌 곳이 되면 사람들도 찾게 되지 않을까요? 선진국 같은 데는 가업으로 빵 가게, 국수 가게도 쪽 이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전통은 희귀한듯해요. 저도 내 자식들이 좀 더 편하게 살게끔 하고 싶지 이런 힘든 목공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돈벌이 전망도 어두워요. 그래도 저는 이 동네, 목공마을이 잘 됐으면 좋겠죠. 여기 공예 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두 잘 되면 좋겠어요. 돈벌이도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면 좋겠어요. 여기 목공마을이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많이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은 앞으로 어떤 장인으로 남고 싶으세요? 그리고 목공하는

후배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제가 어떤 장인으로 남겠다는 거창한 꿈은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날
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내 할 일 하면서 지내면 좋은 거
같아요. 목공 하는 후배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면, 글썄요. 하여간 어
디서라도 자기 직업 열심히 일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요.





인일조각

주요작업 : 목불 제작, 목감판 제작, 상량판 제작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3-1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목선반

‘로구로 외길 인생’ 원철성
대우공예

‘나는 할 수 있는 나만의 목공’ 이철희
대한공예

‘지금은 행복한 나의 일’ 안희식
신정목공예

로구로 외길 인생

중학교 끝날 무렵에 뭣도 모르고 큰아버님을 따라갔는데
굵은 톱밥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서 나와서 아주 신기한 거야.
“야 저거 진짜 신기하고 괜찮다.” 어린 내가 보기에 그렇어.







대우공예 원철성 (1950년생)

인천 영종도에서 태어나 동구에서 살아왔다. 중학교 끝날 무렵 서울에서 로구로를 배우게 되었다. 세화 벽시계, 삼익 가구, 서진 피아노 등의 회사에 있다가 원진공예사를 운영했으며 79년도에 현재의 대우공예를 시작해 지금까지 로구로 작업 한길로 목공예에 종사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8월 30일, 22년 9월 23일
면담, 원고정리 조연희
면담지원 양지원, 정은주

목공은 나의 천직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하던 날 태어났어요. 근데 출생신고는 9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전쟁 중에 아버지가 늦게 올린 거야. 어머니 고향인 영종도 운서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서울 신당동 떡볶이 동네가 고향이야. 그 당시 아버님이 의용군*으로 끌려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탈출하신 거야. 여기 인천에서 송산까지 끌려가다가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뭐 20일 만에 영종도를 찾아오셨대. 그때가 나 태어나기 한 일주일 전 이라나 열흘 전에 여기를 오신 거야. 영종도가 마누라 고향이니까 거기를 찾아간 거야. 그리고 그해에 이제 내가 태어났지.

인천에는 일곱 살 때 왔어요. 집안이 다 인천 화수동으로 왔어. 송현국민학교를 5학년까지 다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송림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버님 친구분이 집을 하나 짓자고 그래서 그 친구분하고 집을 지어가지고 송림동에서 살게 됐어요. 송림동에서 송현동까지 학교를 걸어서 다녔어. 옛날에는 뭐 웬만한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그러다 5학년 2학기 때 정부에서 아이들 가까운 데로 다니게 하라고 해서 서림국민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어린애가 멀리 학교를 다니려고 해봐요. 옛날에는 송현 초등학교 가는 길에 강물이 흘렀어요. 옛날 현대극장 송림시장 앞에 독이 있었어. 그럼 비 오는 날 같으면 학교 가려고 건너다가 신발도 잊어 먹고 그랬지.

목공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내가 위로 형님이 있고, 여동생이 둘에다가 남동생까지 형제가 자그마치

여섯이야. 옛날에는 형제가 그렇게 많았어. 근데 형님이 20살에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장남이 된 거야. 서울 왕십리에서 사돈 아저씨가 서울에서 공예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예를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중학교 끝날 무렵에 큰아버님이, “야, 너하고 사돈 아저씨 되는 분이 있는데, 거기 한번 구경 가보자.” 그래서 난 뭣도 모르고 따라갔네. 근데 나무를 깎는데 아주 신기한 거야. 왜 신기하냐. 옛날엔 젖은 나무를 갖다가 딱 깎으면 줄기가 있어요. 나무가 젖어서 굵은 톱밥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서 나와서 아주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야 저거 진짜 신기하고 괜찮다.” 어린 내가 보기에 도 그랬어. 큰아버님이 “철성아 너 이것 좀 배워라. 고등학교는 가까운 데서 야간으로 다니고 기술을 배워라.” 아버지하고 얘기가 됐었나 봐. 내가 생각해도 기술을 배우는 게 좋을 거 같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시대는 기술이 있어야 했어. 그때 갔을 때가 여름 방학이었나 그래. 그래가지고 그다음 해에 왕십리로 간 거야.

옛날에 왕십리가 상왕십리, 하왕십리가 있었어요. 나는 하왕십리라는 데서 기술을 배우게 된 거야. 그리고 그 해에 한영고등학교 야간을 들어간 거야. 거기 바로 옆에 사근동이라는 동네에 한영고등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주야간이 거기 있었는데, 옛날에는 학교마다 야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어려워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 딱 갔는데 돈을 잘 버니까 이 사람이 먹는 것도 맛있는 거를 사주는 거야. 그 동네 앞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점심에는 중국 요리 같은 거 많이 먹고, 저녁에는 그 사돈 아저씨가 약주를 좋아해서 곱창 이런 걸 많이 먹었어. 또 그 사람이 서부 영화 이런 걸 좋아해. 옛날에 동대문 같은 데 가면 동대문극장, 명보극장* 이런 데서 외국 서부 영화를 많이 했어. 프랭크

시나트라* 출연한 영화 보러 갔다가 나와서 곱창을 사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나이는 어렸지만, 그때는 술 한 잔씩 먹고는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돈 밑에서 기술을 배운 거지.

거기는 띠툽*하고 실툽*, 로구로* 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 목공장인들은 웬만하면 이 세 가지로 다 했어. 지금은 중국산 바람에 여기저기 다 죽었지만, 옛날에는 발전하던 시대라 집집마다 일이 많았어. 띠툽은 스카시, 오비로 꾸라고 그래. 남미나 유럽 이런 데서는 목선반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로구로라고 했어. 로구로는 일본 말이야.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와서 목공을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돈 아저씨라는 사람도 일본 사람한테서 배운 거지. 내가 바로 그다음 시대야.

한국은 그래. 원래는 일본에서 다 건너 온 거야. 목공예 자격증 따러 가보니까 강사들이 일본에서 연수를 해가지고 온 거야. 목재진흥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활성화시키려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활성화는 잘 안됐어. 우리야 이제 자격증 따라간 거지. 자격증이 있어야 사람을 가르치는 거거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기술은 우리만도 못해. 배운 거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기술적으로는 우리만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르치고 왔으니까. 중학교 졸업하고부터 배웠으면 벌써 몇 년이야. 외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더라고. 지금 자격증 시대예요. 자격증도 없는 선생이 뭘 누굴 가르치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도 그때 당시에 얼마야 한 4~50만 원 줬지.

사장님 처음 배우실 때 로구로만 배우셨나 봐요.

그렇죠. 처음에 로구로로 시작한 거예요. 로구로를 배워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목공 일도 탄 거 많잖아요. 자르고 오리고 짜고 이런 거 하는데 나

는 판 거 안 하고 로구로 하나만 해. 목공이라면 나무도 자르고 가구도 짜고 별거 다 하는데, 나는 한길만 간 거야. 이렇게 한길만 한 사람이 드물지.

자격증은 몇 년도에 취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야. 6년 됐으니까 2016년인가 그래요. 자격증 취득하고 강의도 시작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가르칠라고 그랬지. 기초부터 해서 목공예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위험한 거야. 기계도 그렇고 또 우리 프로들도 손 많이 다쳐요. 프로들도 다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막상 또 가르치려니까 이게 위험해서 문제가 많더라니까 참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려고 오는 건데 위험하니깐 우리는 조립해 놓은 거 뭐 피스 가지고 타카*나 하나 쏘고 하니 배울 게 있냐고. 근데 목공일이 보기하고 틀려. 또 쓸 줄 모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다쳐서 위험해요.

대우공예의 시작

옛날에 내가 인천교에 있는 삼익가구라는 곳에 있었어요. 또 서진 피아노라고 그 옛날에 피아노 회사도 다니고 그랬어. 서진 피아노는 여주에 있는 건데 거기가 이제 대우로 넘어갔지. 그래서 옛날에 대우가 피아노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외래 서진 피아노를 알아줬다고 외국에서. 그래서 서진 피아노 마크를 붙여가지고 대우에서 판매한 거야. 그때 당시에 서진 피아노에 후배가 있어가지고 “형님 여기 와서 반장도 할 겸, 뭐 돈도 많이 받게 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하더라고. 자기는 그만두고 자기 사업하려고 그런데. 한 일 년만 있다 나온다는 게 어영부영하다가

5~6년 있었지. 거기에서 있다가 79년도에 나왔어.

대우공예가 된 이유가 거기서 하청을 주잖아 전부.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청을 맡아서 했었어요. 개네들이 갖다주기도 하고, 내가 가서 가져오고 그래서 여기 이름이 대우공예가 된 거예요. 밖에 세워놓은 간판에 대우 마크도 있잖아.

삼익 가구랑 피아노 공장에서 일하실 때도 로구로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특수직에 들어가서 그것만 한 달 치 저기 오다*를 딱 줘. 그럼 그거 한 보름치밖에 안 돼.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특수직이라 보급을 많이 받았지. 그리고 또 새로운 거니까. 이렇게 깎는 거 보면 쉬워 보여도 안 그래요. 그래서 막상 배우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 근데 특히 여자들은 더 잘해. 손이 섬세해가지고 여자들이 잘 깎아요.

삼익 가구에는 언제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세화라고 벽시계 만드는 곳에 있었어요. 나무를 짧고 조그맣게 깎아 가지고 반을 쪼개서 붙이고 막 그런 게 많았어. 후배들 양성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도 몇 년 했어 내가 또.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을 세 군데서 한 거야. 세화라고 하인천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삼익가구로 간 거지. 삼익가구 초창기 때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후배 되는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 그 후배가 “형님 일이 많아가지고 저 혼자서 안 돼요. 봉급 많이 받게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받고 특수직으로 들어간 거야. 거기서 있다가 공예사를 차린 거야. 원진공예사. 여기 신정공예사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서 했었어요.

대우공예는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9년도, 이걸 배웠으니 해야지. 그리고 그전에도 내가 여기 위에서 원진공예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좀 하다가 잘 안됐어. 처음에 배다리 쪽에서 있다가 거기가 철거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미리 와서 있었는데 손님이 안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있어야지. 거래처도 뭐 크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까지 몇 년 다른 데서 있다가 와야 되겠다.’ 했는데, 3년 후에 일로 넘어오더라고. 근데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진 피아노에서 이제 한 4~5년 있다가 과장한테 얘기를 했지. “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청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봐 가지고 내가 일로 넘어와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야. 직장 생활은 한 십 년 넘게 하고, 대우공예만 한 게 40년 이상이야. 세화 벽시계에 있다가 삼익가구 갔다가 원진공예사 했다가 다시 서진피아노 갔다가 대우공예를 열었지.

그럼 목공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신 게 총 몇 년 정도 되셨어요?

목공예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시작했지. 저녁에 야간 다니면서 배웠는데, 거기서 한 7~8년 배워가지고 내가 여기 인천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배 아버지하고 이제 형님하고 하는 사람인데, 공예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천에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 방직 공장에 그 실패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게 일이 많이 나왔어. 지금도 지하상가에 가면 그게 있어. 옛날 방직공장에서 쓰던 거랑 틀려. 근데 지금도 만들어가요. 옛그저께도 자기네들이 나무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만들어 가요.

목선반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아니면 또 목선반 중에서도 이걸 내가 좀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기술이 있으세요.

긴 봉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나 못 깎아요. 다른 공예사에서 의뢰받은 건데 못 깎으니까 나보고 해달라고 가져왔어. 내가 사용하는 기계 다이*가 길잖아.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딴 사람들은 못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3600이니까, 2m 70~80까지 깎아요. 인천에는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어. 그리고 0.1mm까지 따지는 정밀한 거는 딴 사람들은 못 해.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 나는 삼익가구 대우 피아노 이런 데서 도면을 보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밀 작업을 할 수 있지. 또 을지로 왕십리 이쪽에는 고급 일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일을 배웠거든. 그러니까 내 실력은 못 따라오지. 악기에 보면 다리인데 동그랗게 깎는 것도 있고, 뚜껑 올리는 것도 있어. 그런 거 다내가 한 거야 옛날에.



로구로 기계

이 기계도 사장님이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철공소에다 의뢰 해가지고 제작한 거예요. 옛날에 시작할 때 사용한 기계는 위에서 기름을 쥐야 돌아가서 나무를 깎을 때 기름이 막 튀는 거야. ‘야 이거는 아니다, 베어링으로 해서 기계를 제작해야 되겠다.’ 베어링은 안에 들어가 있던 말이야. 그러니까 기름이 튈 일이 없어요. 베어링을 찍어가지고 와서 만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한 35년? 40년 정도 됐지. 근데 몇 대만 들고 중단됐어. 이거 그때 당시에 120만 원 줬어요. 근데 다섯 대인가 만들고 중단됐어. 그 사람이 남는 게 없다고. 근데 이게 기름이 안 튀고 좋아.

아래 받치고 있는 나무도 그러면 한 번도 안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지. 이걸 바꾸기 또 그렇잖아요. 밑에는 많이 썩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막 오래됐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이를 그냥 없애고 조그맣게 모터 달아가지고 조그맣게들 해요. 그러니까 나는 길고 큰 걸 깎을 수 있는 거야. 딴 데서 못 깎는 거니까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 대우공예사가면은 2m 30, 40~50도 깎아. 그런 게 이제 뭐 자주 오지는 않지만 가끔씩 들어와요. 그런 일이.

야구방망이 같은 거 여기서 옛날에는 내가 막 깎고 그랬는데, 좋은 나무 나오면 여기 프로야구 선수들도 많이 깎아주고 그랬거든. 목이 굵으니까. 자기 손하고 무게하고 다 맞아야 되거든. 옛날에는 야구방망이를 다 수입해 왔어.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자기 손에 맞게끔 깎아야 돼. 외국 사이즈가 한국 사람이 안 맞잖아. 개네들 손이 크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운동하는 선수는 손도 크고 등치도 크고 다 큰데도 외국만 못 해. 우리 한국 사람하고 틀려. 모든 게 다 커. 그러니까 방망이도 굵어요. 그럼 자기 손에 맞게끔 해

야 이게 돌리기도 좋고 무게도 좋아. 옛날에 김성갑이라고 아나 몰라. 가수 누구 유인가 그 사람 아버지도 와서 방망이를 잘라갔어. 여기 안 온 사람이 없어. 야구 선수들이 다 왔어서 우리 집에 가서 보면 사인볼이 몇 개인지도 몰라. 다 왔다 갔지.

인천의 야구 - 야구방망이 이야기

야구 배트를 만들기 시작하신 것도 그쯤이신 거예요?

그렇지. 프로야구가 생긴 지 40년 됐지만, 지금 내가 야구광이야 광. 김광 현이를 내가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최정 그래. 올해 SSG가 진짜 잘하지. 내가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 아들보고 “야 올해 아니면은 인천이 이제 우승 하기 힘들 것 같다. 표 끊어라.” 하고 서울까지 갔어. 그때 한동민이가 홈런 을 때려가지고 우승을 한 거 아니야. 서울까지 간 날, 마지막 날 그것도 9회 말에 그때 이겼잖아. 두산을 잡은 거 아니야. 내가 “야 이제 내 생애 이런 거 못 볼 거다.” 그랬는데 올해 또 우승이야. 볼 것도 없어.

선생님, 야구방망이 만들어줬던 선수 중에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으세요?

많죠. 뭐, 먼저 감독했던 SK와이 번스 2군 전 감독 김정기는 저 아버지가 삼미 슈퍼스타즈* 그때 감독이었지 그 사람. 또 김성갑이 정민태 또 지금 여기 SSG에 있는

직접 제작한 야구방망이를 든 사장님



정경배, 이진영 하여간 인천에 웬만한 스타들은 우리 집에 다 왔어. 투수들은 또 박종환이 이런 사람들은 투수지만 이제 구경 같이 오는 거야. 같이 와서 어떻게 깎나 그거 구경하러 오더라고. 박재홍이 같은 사람은 손목이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돼. 이렇게 굵고, 야구는 잘했지. 근데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야.

김경기 같은 사람은 일본서만 방망이를 가져오잖아. 일본 거 꽤 비싸요. 여기서 한 이십만 원이면 개는 뭐 백만 원에서 백오십만 원 그렇대. 근데 기계에 물려서 이렇게 깎으면 부드럽게 깎여. “카!” 샌딩*을 싹 하면 샌딩이 크게 나오니까 비싼 나무가 이래서 좋은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나도 비싼 나무 쓰는 거야. 그리고 또 방망이가 탄력이 있어요. 저쪽에서 공이 터지잖아요. 딱 때리면은 탄력이 있어가지고 멀리 나가. 그래서 물푸레나무를 쓰는데 물푸레나무가 있어야지.

한국이 그래서 지금 뭘 쓰냐 단풍나무 캐나다산 이 나무를 쓰는 거야. 이게 흔하니까 수입하는데 싸고. 캐나다는 이 나무가 잘 자라나 봐. 그쪽에서 많이 수입해 와요.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지금 쓰는 게 이 이 나무야. 소프트 메이플 하드메이플 그래가지고 하드메이플은 단단한 거고 소프트메이플은 약간 좀 연한 거 연질이죠. 연질은 뭘 쓰냐, 나무 중에서도 가운데 심이 있어요. 그거는 연해 그러면서도 당당하대. 그것만 빼서 또 쓸라고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거야. 그래서 그걸로 만들려면 진짜 돈 좀 많이 받는 선수들이 그런 거 쓰지.

그리고 대전하고 용인 가면은 사람 키 몸무게 손목 다 짚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방망이를 만들어줘. 지금은 이름도 써주고 전부 다 기계화 돼가지고 분석해서 도장, 채색까지 싹 해서 나와 지금은. 그런 공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 해줬는데, 지금 그렇게 해주니까 거기서 해 오지 여기서 뭐 해. 우

리는 왜 못 하나. 나무가 없어. 나무가 그러고 또 한두 개씩 만들어 달라 그러면 돈도 안 돼. 그래서 아유 난 못해 거기 가서 해. 그래서 지금은 안 와요. 지금 누가 오냐, 고등학생 애들 인천고, 동산고, 제물포고 유명하잖아요. 고등학생 애들이 와서 깎아가. 개인 그리고 친구들, 야구 선수들 몇 명이 올 때도 있어. 처음 시즌 때 학교에서 주는 게 있어. 오십 자루인가 몇 자루를 줘. 그거 다 쓰면은 자기가 다 사서 써야 돼. 프로선수들도 일 년 동안 쓰라고 한 백 자루인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사서 써야 돼. 그렇게 돼 있어.

학생들이 쓰는 야구 배트가 선수들이 쓰는 거랑 키가 다른 거예요?

어 키가 달라요. 국민학교나 이런 애들은 기장이 한 650mm대고, 중학교는 한 750mm, 또 고등학교 프로들은 850mm 그래요. 체격하고 키에 맞춰서 길이가 한 10cm씩 차이 나요. 고등학교 애들은 프로 선수하고 똑같이 써.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저 알루미늄으로 된 거 많이 썼잖아요. 그게 탄력도 좋고 부러지지도 않고 싸니까 그것도 썼는데, 이 프로에서는 써먹을 수 없잖아. 그거 못 써먹게 하잖아. 예전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알루미늄 배트를 많이 썼어. 지금도 중학교 때 알루미늄 배트 쓰나 모르겠네. 아마 지금은 나무 쓸 거야.

혹시 작업해 준 고등학생 중에 프로로 가는 선수도 있었나요?

최지만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전에 그 친구 하고 또 누가 있나 몇 사람이 있어. 동산고등학교 출신들이 프로에 많이 가 있잖아요. 동산고 출신 애들이 우리 집에서 거쳐 간 애들이야 고등학교 때. 프로 되고서 안 왔어. 유명해지고 바빠서 못 오는 거지 안 오는 게 아니라. 후배 애들한테 얘기 듣지. 요즘은 야구방망이 작업은 어찌다가 들어와요. 여기서는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나무가 없어. 내가 깎아줄려고 해도 나무가 없어서 직접 나무를 가져 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깎아주고 싶어도 못 깎아준다는 거야.



공방 내 야구선수들 사진

목공 의뢰의 변천사

야구방망이도 깎고 지압봉 또 각종 다리도 많이 해요. 한 열 가지 돼요. 가구 다리 쉽게 화장대 같은 다리예요. 바둑판 다리 뭐 다리 종류는 다 하는 거야. 여기서 한 20가지 돼요. 그리고 이제 야구 글러브 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하는 거는 여기서 다 한다고 봐야지 뭐. 굴 따는 거. 여기 다 이렇게 꼬챙이 끼어가지고 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발 지압 협회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아요. 지압봉에는 단단한 박달나무를 사용해요. 나무가 단단하니까 지압하면은 힘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단단한 나무를 쓰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박달나무는 대부분 국산이에요. 수입제가 없어요. 그거를 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한 군데에서 그전에는 많이 깎아갔는데, 시대의 흐름에 저기 해서 그런지 많이 좀 죽었어.

스위스에서 요들송을 할 때 쓰는 악기도 주문이 들어와요. 스위스에서 7~8만 원 씩 하는 거를 여기서 제작하면 개당 1만 5천 원씩밖에 안 받잖아요. 나는 제작만 해주고 가져가서 칠해서 파는 거야. 공예사에서는 나무로 하는 거는 다 만드는 거지 뭐.



지압봉

만드는 거에 따라서 나무 사용하는 게 좀 다르신가 봐요.

그렇죠. 나무가 다 틀리지. 소나무 종류도 뉴질랜드 건 뉴송, 미국 건 미송, 소련 건 소송, 국산은 소나무 몰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나라 이름을 따서 불러요. 옛날에는 뭐 피나무, 향나무 국산들이 많았는데. 이제 잘 안 나와요. 산속 깊은 데 가서 베다가 또 건조 시켜야지. 나무가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 건조야. 건조 안 하면 다 터져버려. 그래서 건조 하는 과정이 있지. 우리나라는 딴 나라에 비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도 않아. 보급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근데 외국도 지금은 산림녹화 바람에 안 팔려고 그래.

나무가 예전이랑 요즘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나무 수급을 어떻게 하세요?

친구가 대동 목재라고 제재소를 해요. 그 친구도 한 오십 년 됐지. 친구들이 전부 나무 계통 친구들이 많아. 나무 만지는 친구끼리 친목회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 나무도 싸게 수급하고 나무에 대해서 알고 또 돈 없으면 “야 외상으로 하자. 나중에 줄게.”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해. 그 친구는 한 달에 100만 원어치 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 말일에 끊어주는 거야.

예전에는 제재소*가 가좌동 쪽에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가좌동이 제재 단지라 거기 제재 단지였어. 그리고 인천 여기서 송림동 로타리 쪽에도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 항상 그 집에 나무 냄새가 똥 냄새 비슷하게 나잖아. 물에다 담가가지고 있다가 배에다 싣고 오거든. 지금 만석동 동일방직* 뒤편에 가보면 말도 못 해. 지금도 그래. 그 동네 옛날에 나무 껍데기를 까가지고 불을 땀거든 사람들이. 땀감이 없으

니까 그 껍데기 베끼다가 굴러가지고 빨려 들어가서 죽기도 많이 죽었었지. 그 전에 진짜로 많이 죽었어. 대성목재가 거기 있었거든.

그전에는 우리가 잡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서 사야 돼요. 국산은 단풍나무가 많아. 지금도 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또 국산은 나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수입산밖에는 쓸 나무가 없어. 요즘은 국산은 다 비싼 거야 뭐든지. 그래서 국산 나무로 만들어주면 비싼 거야 가격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입제를 쓰는 거야. 그리고 별 차이도 안 나고, 가져가는 사람도 비싼 거 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나마 수급되는 게 소나무인데 그런 것조차도 많지가 않아. 건조도 안 되고 그래서 나무를 쓰지를 못해. 건조 안 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잖아? 다 터져서 막 여기저기 갈라져서 상품도 안 돼. 근데 수입제는 안 그렇거든. 건조가 다 돼 있는 걸 팔거든.

통나무가 오면 재에서 켜가지고 한 열흘, 조금 두꺼운 거는 15일, 더 두꺼운 건 한 달 그렇게 해서 건조해야 돼요. 건조장에 전기로 다 하는 데가 있어. 또 스팀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전기로 다 해도 한 달 걸려. 이런 판재는 한 이십일. 그러니까 10cm 틀리고, 20cm 틀리고 다 틀려요. 가격이. 나무가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못 해 나무 구입이 힘들어서. 기술을 가진 그런 목공인들이 부족한 것보다 지금 나무 수급이 더 시급한 거예요. 나무가 없으니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내 삶의 원동력 가족

우리 형제가 6남매예요. 대부분 공무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우리 집에 네 명이나 돼. 남동생은 서울대학교 나와서 통일원에서 국장까

지 하다가 나오고, 여동생은 연세대학원 간호과장이고 동생들은 다 잘 됐어. 나만 이제 많이 못 배워가지고 이걸 하게 된 거고. 또 남동생 하나는 미국 기아자동차에서 공장장이고 다 그래. 다 잘 됐어.

그냥 그 동생들 가르칠래니까 그런 것도 많았어. 학교에서 졸업을 할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사장한테 얘기해서 가불을 해서 또 갖다주기도 하고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는 빌려서라도 갖다주고 입학금 등록금 졸업장 낼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살았어. 동생들을 키웠다가보다 그렇게 많이 보탬이 됐지. 내가 큰형인데 그래도 돈을 조금씩 버니까. 그래서 지금도 동생들이 형을 무시하지 않고 옛날에 자기네 다 등록금 내주고 다 이렇게 됐으니까 잘해. 잘 됐으니까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 제일 큰 형님은 옛날에 계셨는데 스물세 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남동생 하나는 당뇨로 죽고, 것도 스물하난가 그래. 이상하게 둘이나 그렇게 죽었어. 옛날에는 다들 집집마다 많이 낳았어. 고생들 많았지 뭐.

인천에 뭐 꿀꿀이 골목이라는 거 들었나 몰라. 여기 창영동이야. 그제 창영 국민 앞인데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이 꿀꿀이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먹던 그 음식들 그거를 받아서 끓여 먹었어. 우리도 옛날에는 그거를 사다가 먹었어요. 형제들이 많고 그러잖아. 어머니가 다라이(대야) 큰 걸 머리에다 이고 사다가 먹었어. 어떤 건 뭍고 어떤 건 되고 막 그래. 이제 뭍어서 먹기가 뭐하잖아. 그럼 강냉이 가루를 거기다 노란 거 그걸 넣고서 이제 끓이는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먹는 소시지를 한국 사람은 못 만들어. 맛이 기가 막혀. 지금도 못 잊어.

옛날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다들 명절 때나 고깃국에다가 쌀밥 먹었지. 지금도 내가 밥을 빨리 먹는 편이거든. 왜냐 이렇게 반찬을 갖다 놓잖아. 형제가 많으니까 서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래서 금방 없어져.

결혼해서 뭐 돈이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 인심을 안 잃었나 봐. 동네에서 다 왔어요. 사람들이 축의금을 진짜 많이 냈어. 근데 신혼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있어야지. 집도 또 전세라도 하나 얻어야지. 나도 동생들 가르치고 그래서 돈 모아 놓은 게 별로 없었어. 그때 내 나이가 30이야. 우리 마누라가 이제 일곱이고 세 살 차이 나. 신혼여행을 온양 온천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서울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랬더니 마누님이 안 간대. 안 간다니까 어떡해. 그때 막내 처남이 전화가 왔어. 처남이 “우리 누나 고속버스 앞에 있을 테니까 걸로 오세요” 그러더라고. 가니까 거기 있더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간 거야. 한국민속촌 있잖아. 그때 개장한 지 얼마 안 된대요. 거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 우리 한복 입었거든. 우리 집사람이 이뻐나 봐 그래도. 일본 애들이 몇 명이 왔었는데 막 사진을 찍고 그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하루 어영부영 뭐 보내고 또 자연농원도 그때 막 한참 생길 때야. 자연농원도 가고 그게 79년도야. 내가 결혼한 게. 차라리 그게 난지도 몰랐지.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어요?

중매 반 연애 반이지 뭐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는 중매가 많았잖아. 누가 소개해서 다방에서 만나서 자유공원을 걸어서 홍예문 근처 쪽으로 이렇게 넘어서 그게 코스야. 그렇지 않으면 저기 연안부두 쪽으로 쪽 가고.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처음에는 낯설은 거야. 어떻게 보면 남녀 관계가 그래. 처음 서부터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오다 보니까. 애가 딱 들어섰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또 뭐가 문제였냐면, 옛날에 저 마디카레 나무가 있었어. 근데 그 나무가 깎으면은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비슷하게. 그때는 나무를 주로 많이 썼거든, 옛날에는. 근데 냄새가 나니까 내 몸에서 똥 냄새가 나는 거

야. 손이 배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살라니까 못 살겠더라. 변 냄새가 나니까 몸에서 나는 거 같이 생각 들었나봐.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혼하려고 그랬대. 그 냄새 못 살아. 우리는 그 냄새를 모르는데 딴 사람은 그 냄새를 맡는 거야. 우리는 맨날 그 나무를 깎으니까 냄새가 손에 이렇게 배는 거야. 그 나무가 그래.

못 다한 목공 이야기

냄새 많이 나던 나무들은 언제까지 많이 쓰셨었어요.

시계 회사 다닐 때는 계속 썼지. 그런데 삼익에 딱 오니까 좋은 나무는 다 있는 거예요. 큰 회사니까 무늬도 기가 막힌 나무들을 썼어. 대기업 회장 그런 집에도 장롱 같은 거 제대로 된 나무로 만들어 납품시키더라고. 옛날에 삼익가구가 그렇게 컸거든. 삼익가구가 유명했어. 고급 가구를 다 만들었어요. 좋은 나무는 다 갖다 거기서 만드는 거야. 장식장이니 소파니 용무늬에다가 뭐 꽃무늬에다가 해가지고 별 나무가 다 있어. 그리고 서진 악기도 그렇고. 악기 만드는 것도 대기업이라 좋은 나무는 다 거기서 쓰는 거야.

회사에서 만드는 과정이랑 이렇게 단독으로 작업하시는 과정이 다른가요?

어 틀리지. 큰 회사 같은 데는 기계로 반 사람이 하는 거 반 반자동이야. 기계에 나무를 걸면 위에서 딱 이렇게 찍어서 내려와. 그럼 한 칠십 프로가 모양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윤곽이 뚜렷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거를 사람 손으로다가 다시 물러가지고 선명하게 만드는 거야. 큰 회사에는. 반자동으로 하니까 많이 나와요. 처음서부터 사람 손으로 깎으려면 오래 걸

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나무도 싸고 많고 그러니까. 그때는 호황기지 호황기. IMF* 전에까지만 해도 호황 누린 데가 많아. 그 이후로는 나무 수입도 잘 안되지. 또 중국산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 그러면서 어려워졌지.

그 큰 계기가 IMF인가요?

크지. 근데 그 전부터 서서히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한테 밀렸어. 거기가 워낙 큰 시장이니까. 물건도 좋고. 예전에는 중국산이 안 좋았는데, 80년대 이후로는 한국하고 맘먹게 물건이 깨끗이 나오더라고. 그전에는 막 엉망이었는데 기술이 발전이 된 거야. 가격이 이제 우리하고 거의 맞먹어요. 인건비도 비싸지고 나뭇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개수 많은 것들은 아직도 중국에서 해 오지만, 웬만큼 만드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해. 백석이나 검단, 김포 쪽에 가면 자동차 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야 숫자가 나오고 돈이 되니까. 하나하나 다 깎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단가가 안 맞아.

처음 대우공예사 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송의목공예마을 분위기도 그렇고요.

분위기가 처음이랑 다르지. 근데 나는 이 안에서 하는 일을 말고 외부에서 하는 일을 많이 했어. 뭐 했냐면은 학교에 들어가는 건데 큰 학교에 가보면 층계에 올라가는 기둥을 만들었어요. 학교 전국에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 지을 때 층계 입구마다 양쪽에 기둥을 세웠어요. 예전에 손잡이 부분이 약해서 사고가 있었나 봐. 그래서 누가 크고 튼튼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국 학교에서 유행이었지. 인천은 내가 뭐 만수초등학교, 서림국민학교 웬만한데 곳은 내가 많이 했어. 이런 게 돈이 되거든. 여기서 맨날 깎

고 있어 봐야 돈 안 돼. 그리고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손잡이 공사를 했지.

접착제는 어떤 걸 사용하세요?

401본드*가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접착을 하면 한 1~2분 내로 빨리 굳어요. 접착력이 굉장히 빨라. 냄새는 본드 냄새 조금 나요. 알코올 냄새 비슷하게. 본드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붙이는 거는 다 발라야 돼.

오공 205본드*도 많이 써요. 그것도 본드 종류인데, 지금도 써요. 본드마다 한 5시간, 6시간 돼야 붙는 게 있고, 하룻저녁 지나야 붙는 거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빨리빨리 굳는 거 써요.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비싸도 속도가 빠른 것들은 써요. 그리고 접착력이 빨리 붙으면서 떨어지지 않는 거. 쓰지는 한 4~5년 됐다.

오공본드는 가격이 덜 들어가는데 접착력이 좋아서 가성비가 좋아요. 시간상으로 한 5시간, 6시간 걸린다고 봐야지. 그래야 떨어지지 않게 해 놓고서. 401본드 이거는 순간은 재깍재깍 붙잖아요. 숫자가 틀려요. 본드 종류도 뭐 지금은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시대는 좋은 시대야 우리 되게 잘 나와요.

아드님 두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뒤를 잇고 싶다는 아들은 없나요?

글쎄 작은아들은 이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가르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반대했어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하향사업*이에요. 젊은 애들이 인터넷으로 지금의 현실에 맞게끔 하면은 조금 날래나 모르는데, 중국 산에 밀려 뒤에 밀려 전망이 밝지가 않은 거 같애. 사람들이 지저분한 일들을 배우려고 하질 않잖아요.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기술 배우러 와서는 해



보다가 전망이 별로 밝지 않으니까 그만두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한 30년 있으면서 몇 사람 들어와서 배우려고 왔었는데. 다 하다가 그만뒀어요.



대우공예 내부

아무래도 오래 목공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직업병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직업병이라고 그러면은 나무 먼지가 많이 나니까 좀 좋지는 않지. 그래도 쇠나 이런 먼지보다는 나무 먼지는 좋다고는 그러더라고. 관절은 이제 나이 먹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가끔 저리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 별수가 없어요. 다 그러는 거지 뭐.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우리도 진작 옛날서부터 인터넷이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썼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지. 목공예마을 이름처럼 목공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활성화 돼서 배우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배우다 보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앞으로 얼마 동안 더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내가 계획은 정말 80세까지는 할까. 그래봐야 이제 뭐 한 5~6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만두래. 우리 집사람도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쉽지 않아요. 지금 나이 먹었다고 그만두고 노는 사람들 보면 뭐 재미가 있다. 만나봐야 남자들 술이나 먹는 거지 뭐. 어디 기껏 해봐야 산에나 가고.

목공이 좋아서라기보다 내 천직이다 생각하고 한 거지 뭐. 지금 와서 뭘 할 거야. 배운 게 소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지. 오래전에 친구가 전화국에 들어 오래. 목공방 할 적인데, 전화국에 들어가서 한 열흘 만에 나왔다. 다시 목

공 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천직으로 생각하게 된 거야. 계속 그냥 이것만 하고 또 내 기술이 있으니까 열른 그만 못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한길만 걸어오신 사장님을 장인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대우공예

주요작업 : 로구로(목선반), 야구방망이, 목공예품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5

백반집 같은 목공 장인

음식점으로 말하면은 갈빗집이나 홍어집, 횡집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백반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나무로 된 거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공예
이 철 희 (1957년생)

서울에서 태어나 군 제대 후, 울산에서 목재회사에 다니다가 인천으로 와서
가구회사에 다녔다. 이후 간석동에서 '대한공예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건물 재건축으로 송의 목공예마을로 온 지 10여 년이 되었다.

면담일시 22년 8월 19일, 22년 9월 5일, 22년 10월 21일
면담, 원고정리 정은주
면담지원 이혜숙

대한공예를 하기까지

사장님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대한공예잖아요. 이름을 대한공예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간단하죠. 뭐. 아들내미 이름이 이대한이라 그래서 대한공예로 지었죠. 딸은 이름이 이은형인데 아들내미가 먼저 태어나서 제가 그 시기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딸이 워낙에 무던한 애라 이름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섭섭해하지는 않더라고요.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는 길게는 했는데 사실 많이 오래 만나지는 않았어요. 길고 띄엄띄엄 보고, 길 가다 보고. 아까 말씀드리는 울산인데 거기는 이제 여기 같으면은 "나 송도 간다, 나 연수동 간다, 나 여기 신포동 간다." 이러는데 울산에서는 그냥 "시내 간다." 그러면 옥교동 한 군데예요. 옥교동 거기가 시내예요. 거기가 거의 뭐 신포동만 해요. 신포동 정도 되는데 약간 좀 변화하긴 한데 시내에 나간다 그러면 다 거기죠. 시내 나가다 보면 어찌 다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57년생이에요. 아들을 스물여덟에 얻었어요.

계속 인천에서 사셨던 거예요?

태생은 서울이고요. 군대 제대를 하고 울산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갔었는데 공공롭게 거기도 목재 회사더라고요. 뭔지 알지도 못하고 가보라 해서 무작정 가봤는데 거기서 일을 조금 더 배우고 나서 인천으로 오게 됐죠. 울산에서 근무했던 회사가 아마 동남 목재로 기억을 해요. 회사 생활

을 거기서도 하고 인천에 와서도 회사 생활을 했는데 사실 회사 생활에서는 제가 뜻하는 대로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오래 있었던 데가 2년, 3년 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해가지고 오래 못 있었어요.

인천에도 마찬가지로 목재를 해서 가구 만들고 인천에 몇 군데 있잖아요. 인천에 가구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던 곳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거기서도 부도가 났어. 가는 쪽마다 이렇게 부도가 나더라고. 그래서 직장생활이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자본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여기에 있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있었던 곳이 간석동이라는 데 있었어요. 거기가 전체적인 재개발은 아니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공예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 이분들보다는 좀 늦게 왔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원래는 여기보다는 배다리 쪽에 이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정리가 됐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터전을 잡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한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많죠. 나는 여기 한 10여 년 있었나요.

간석동에 계실 때도, 여기 계실 때도 지금 하시는 주 종목은 같으세요?

주 종목은 변함이 없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스탬프 작업이라든지 또 좁은 장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직접 만든 스탬프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능

사장님이 다양한 걸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손재주가 진짜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러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뭘 잘한다고는 못 느꼈고요. 어렸을 땐 공 차고 노는 걸 좋아했죠. 개구장이처럼 노는 걸 좋아했지. 실상 이제 나무를 만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자본 안들이고 하려다 보니까 나만의 할 수 있는 거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찾는 거지. 내가 만들어보고 또 해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거죠. 뭐 그런 거에 칭찬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재는 남 안 하는 것만 한다고. 그리고 우리 세대들은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지나친 칭찬이나 사실 그런 게 좀 어색했어요. 6남매나 되니까 일일이 신경 쓰지도 못했고. 제가 막내예요. 제일 위에 형님하고 저하고 7~8년 정도 차이 나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나는 잘 못 느꼈는데 위에 누나들이 셋이 있는데 누나들과 같이 크면서 자라다 보니까. 근데 자기 먹고 살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때는 부모님들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아버님은 건재 상회를 하셨어요. 건재라는 게 집을 지을 때 적절히 필요한 것을 말해요. 시멘트가 필요할 거고, 골조가 필요할 거고 뭐 그런 거죠. 어머니는 그냥 주부셨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잘살고 있다가 아버지 회사가 조금 어려워져 학교도 하여튼 뭐 다니다 말고 그랬어요. 아버님은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주문받았을 때에는 직접 하기도 만들고 그러

셨어요. 그런 쪽으로 보면 재능을 물려받기는 한 거 같아요.

아르바이트로 목공의 길에 들어서다

목공 쪽에 들어선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접하다 보니까 나이 스무 살 때. 그때는 뭘 모르니까 학교도 다니다가 공백 기간도 있고 돈 벌고 그냥 용돈 벌 욕심에 목공 쪽 아르바이트를 했지. 들어가서 하루에 돈 천 원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죠. 발을 잘못 담가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지금 같아서 괜찮다 이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무가 좋으니까 지금은 괜찮고 앞으로도 더 일을 할 수 있으니 괜찮지. 또 이게 제가 이제 몸에만 일이고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구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힘들니까. 힘든 건 사실 몸에도 좋은 건데 그마만큼 사실 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수입이 처음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힘들고 저희는 운이 좀 많이 따라줬고 80년대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일이 항상 넘쳤으니까. 이게 단가가 좋든 나쁘든 그걸 떠나서 하여튼 신발만 신으면 돈 벌었어요. 그때는 신발만 신으면 돈 벌었고 그렇게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괜찮았죠. 운이 좀 좋은 상태죠. 근데 지금 시작하면은 또 물론 자기 아이템을 갖고 하면은 어떨지 몰라도 그냥 우리네들 하는 거 보고 나도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렵다. 옛날에는 나무가 생활용품으로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산업에 밀리고 있고. 물론 플라스틱 쓸 사람은 쓰고 나무 쓸 사람은

나무 쓰는데 그만큼 시장성이 좀 좁죠.

백반집같은 목공일

사장님이 주로 하시는 거는 어떤 작업이신 거예요?

음식점으로 말하면은 갈빗집이나 홍어집, 횃집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백반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나무가 생활 공예 같은 게 경우에는 절구갱이 이런 것도 전부 플라스틱으로 나오지만 그런 형태 라든가 프로야구 선수들이 쓰는 야구 배트라든가. 이거는 스트레드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예요.

제 거 중에서 이런 거 보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글자 맞추고 하는 건데 도장이예요. 팬시 스탬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건 시장이 커요. 종류도 많고. 엄청 많아요. 제품이 많은데 일일이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 뭐. 이거는 꿀꿀이. 노트나 다이어리에 많이 하는 건데 오늘 꿀꿀이 모양 도장으로 꿀꿀해 찍고 뭐 이렇게. 해골 모양 도장도 있고. 이게 범위가 크니까 이런 형식이다라고 제가 하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웬만한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불도장 만들어서 꼭 찍은 거예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뭘 만드니까 하다가 내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한 거죠.



야구방망이 키링

목공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무라는 재질이 주는 부드러움과 또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잖아요. 그 재료를 만지시니까 그렇게 닳아가는 건가 그 생각도 들어요. 저는 나무를 만진 지 오래됐어요. 오래 했는데도 하면서도 나무가 좋은 줄은 몰랐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향이 너무 좋은데 향도 좋기도 했지만 이게 좋은지 그걸 잘 사실 몰랐고 그냥 나무인가 보다 했죠. 이렇게 쪽 지내다 보니까 나무를 만들면 저는 장갑을 안 껴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이 정도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살도 별로 없고 그래요. 잘 안 다치는 편이죠. 저는 아까 말한 합판인 건데 나무처럼 만드니까. 이렇게 넓게 나오는 나무는 사실상 없어요. 이게 상당히 넓은 나무예요. 이거는. 넓게 나온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 취급 품목이 아니고요. 일반 문구 스탬프 쪽으로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스탬프로 나와 있는 기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대충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나무로 된 거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목공에서 다른 사람들 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일을 할 수가 있을라나(하하). 특정 분야라. 그래도 일이라는 게 쪽 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나무 이야기

사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목재 가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진 나무 합판도 많이 하지만 부드러운 나무로 스피커 같은 걸 만들면은 센소리, 잡소리를 잡아

주니까 소리가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 스피커를 많이 알아주죠. 저는 진짜 이만한 거 선물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무가 매력적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매력적이라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진짜 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특수목은 색깔이 있는 나무예요. 이거를 쉽게 특수목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나마 고급 재료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나무가 생활 가구로서 계속 접해져 있다가 시대가 변하고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왔어요. 플라스틱이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만, 당시에 공예품이라는 게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졌다가 플라스틱이 들어왔는데 그게 나무 시장을 잠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시장이 사양화 되기도 했고요. 시대가 이제 좀 흐르다 보니까 나무라는 개념을 어린애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다시 나무라는 것을 젊으신 분들이 나무가 좋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나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간접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나무를 점점 알게 되는데 나무가 플라스틱 비슷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 나무가 깨끗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나무는 이렇게 보면 웅이도 있고 광술이라고 그러죠. 광술도 있고 그래요. 소비자분들이 깔끔한 것만 찾으니까 소비자에게 맞춰줘야 돈을 버는데 나는 나무 외에는 안 할 거야 이렇게 고집만 세우다가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돈도 벌어서 자식들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소비자분들이 깔끔한 것만 찾으니까 업자들은 그냥 깔끔하게 가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나무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나무처럼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나무 무늬를 붙인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나무라는 게 점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좀 먹은 사람들은 나무라는 따스함을 아는 거고요. 젊으신

분들도 이제 나무의 따스함 그리고 다시 나무에 대한 관심이 돌아왔지만 까다로워지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가공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해도 다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장비들도 다 바뀌게 됐지만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일을 했던 기계 가지고 따라가니까 좀 어렵긴 하죠.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제품이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예뻐서 기억에 남는데 그때도 보여주셨던 제품마다 나무가 다 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사이즈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건 고객분이 주문한 안마기 같은데. 누워서 이렇게 지압할 때 쓰는 거라고. 약기가 아니에요. 이거 앞뒤로 보니까 또 약기로 해도 되겠네. 하하. 오늘 한 50개 했는데 지금 제작 중이에요.

이 나무는 우리나라 소나무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무늬가 더 선명하고 이쁘긴 한데. 우리나라 소나무는 많은 옹이가 있어요. 이걸 농도가 좀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고 뉴질랜드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약간 가벼운 쪽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산 나무고 비슷한 나무인데 굉장히 예뻐요. 느낌이 좀 묵직하잖아요. 일반인들도 보면 알 수 있죠. 좀 단단하고 그런 거 이런 거는 당구 큐대용으로도 쓰고요. 일반적으로 당구 큐대는 단풍나무 메이플목인데요. 그건 강도가 작업하기에 좀 어려도 정도



고객이 주문한 안마기

가 좀 세가지고 탄력도 있어요. 현재 프로야구 한창이잖아요. 프로야구 야구 방망이로 많이 써요. 이런 나무들은 수입을 하는데 수입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재료상에서 수입을 해놔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찾아가 가지고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요. 재료상은 목재 회사 쪽을 이용하는데요. 수입상에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쓰기도 해요. 인천에 주로 많이 있어 지방에서 많이들 인천으로 와요. 인천에 제일 많아요. 저희가 소량으로 해도 공급을 받고 그렇게 맞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사장님께서서는 어떤 나무를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저는 단풍나무를 많이 쓴다고 봐야 돼요. 아까 스템프 손잡이도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 무늬가 이것도 다 자연적인 무늬인 거죠. 이거는 뉴질랜드 소나무. 소련산 나무.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세대 차이가 느껴져. 원래 소송이야 이거는 소련.

이런 용도는 저기 안 보이는 거 내장재예요. 겉에서는 잘 안 보이고 또 기초적인 공사를 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할 때 이 안에다가 합판을 붙인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시공을 한 다음에 합판을 붙이는 용도죠. 이거



대한공예 외관

는 사실은 튼튼하지는 않아요. 튼튼하지는 않는데 규격화가 되는 자재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요.

이 나무는 포플라라는 나무인데요. 포플라 나무 이것도 수입산이네요. 국산 나무는 다도나 그런 경우에 많이 쓰죠. 우리나라 나무도 많이 써요. 우리나라 소나무가 써본 중에서 결도 이쁘고 나무도 질감도 좋고. 우리나라 나무가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좀 굵어야 식탁용도 쓰고 하는데 알이 이렇게 작단 말이에요. 20cm 30cm 정도 되는데 사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예쁘지만 무거운데 그런 점에서 맞지를 못하니까 다른 나무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국산 나무가 사실 나무 중에 나무예요. 제일 좋아요.

소비자분들이 벌레 먹거나 결점이 많아도 난 이게 좋다고 한다면 그게 많이 쓰여지는 거고. 골라놓고 보면 그 나무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농산물 중에 벌레 먹고 하면은 주부님들이 싫어하니까 자꾸 깨끗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해주잖아요. "그래도 벌레 보는 게 난 우리 몸에 좋습니다." 한다면 농약도 덜 치고 좀 더 낫겠죠. 마찬가지로 국산 나무가 결점이 있어도 찾으시는 분도 있겠지. 작품이 되는데. 워낙에 깔끔한 걸 많이 좋아하셔서가지고 주부님들이 조금 달리 보면 우리나라 나무가 제일 예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제작과 주문

사장님께서서는 제품을 직접 개발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네요.

내가 직접 개발하는데 아무리 작은 거더라도 종합적인 일을 해야 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 나올 때까지 전부 제 손을 거친다면 괜찮은데 발주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처리하면서 한 군데 모아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복잡한 공정이 있어요. 상당히 공정이 많아요. 공정이 한 15회 정도 되지 않을까? 하나 만드는데도요. 인쇄부터 시작해서 고무 디자인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도 해야 되고. 내가 쓸 거라면은 간단하게 하는데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직격화가 돼야 되고 좀 깔끔하게 제품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게 되는 거죠. 스탬프 같은 종류들이 보통 거의 똑같은 작업 공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케이스이거나 그런 거는 좀 더 된다고 봐야죠. 스탬프나 그런 거는 저한테는 생산 품목 중에 한 가지이고 또 다른 주문 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주문은 어떤 걸 좀 받으세요?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아니고요. 목재로 짜는 거라면, 목재를 이용하는 거라면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봐야죠. 필요하신 거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경험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은 꼭 갖고 계시고 싶은 게 상자를 갖고 싶은데 그런 거를 그 용도에 맞게 제안을 드린단든지 이렇게 해서 짜게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자료 없이 손짓, 발짓 해가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래도 알아들어요. 같이 하면서 가르쳐주고 소재를 선택하거나 디자인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해드리는 데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하죠. 예를 들자면 집안에 쓰는 절구갱이가 있는데 그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다 작아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해주는 그런 정도로. 그거보다 크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분들께서 사이즈를 재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지금 쓰는 게 좀 작

아요.", "시중에 이게 좀 작으니까 조금 더 길게 좀 도톰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죠.



대한공예 내부

고객을 위한 천연오일

지금 만드신 게 어떤 거예요?

십자가인데요. 좀 언발란스한 거예요. 이렇게 손에 잘 쥐게 해달라고 주문을 받았어요. 손에 쥐는 십자가라고. 이렇게 손에 쥐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아요. 지금 이거 잘 오려야 돼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깔끔하고 이쁘게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발주가 이제 된 거니까 본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연습을 좀 해서 하려고 했지. 이거는 저 시골에 가면 정자 앞에 보면 왜 느티나무 한 그루씩 서 있죠? 큰 거. 그게 우리나라 정서상 마을을 보호한다. 뭐 그렇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느티나무로 이걸 제작을 하는 거죠.

좀 전에 쓰신 그 작업 도구는 어떤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실톱이라고 그러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게 스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 잔재에서 나온 말인데 정교한 걸 올릴 때 쓰는데 사실 실톱이라고 해야 원래 맞는 거예요. 주로 얘기하기를 스카시죠. 곡선을 자를 때 유리 같은 거에서 큰 원형을 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곡선을 요걸로 오리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저희는 예전부터 이걸 썼기 때문에 이걸로 고집을 하죠. 기계로 오리는 것보다는 이런 손으로 작업한 거는 좀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기계에 딱 떨어지는 거보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한 게 더 이쁘거든요. 사포로 마무리하는 건데 지금 공정상 50% 된 거예요.

오일을 왜 바르시는 거예요?



나뭇결 자체도 이쁘게 더 나오고 손에 이제 닿는 거니까 더 질감도 좀 좋게 하려고 써요. 오일은 독일산 거랑 외국 건데요. 수입품. 처음에 갈 때 초벌. 초벌을 하면 이게 느낌이 확 다를 거예요. 이 느낌하고 뭐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그렇죠. 이걸 천연 아로마 오일인데 고객들이 손에 쥐어야 되니까 이걸로 써요. 니스는 생활 가구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천연 아로마 오일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로 만들거든요. 1차로 연마가 되면 2차로 또 바르죠. 이제 좀 스며들게 놔뒀다가 바르면 마감으로 한 번 더 바르는 거죠. 이거 오렌지 향 나죠.

요즘은 가구가 이렇게 좀 필름 붙이고 판에다 작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순수 원목으로 장인들이 순수 원목으로 장롱이나 서랍장 같은 거를 만들었던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구점에서는 예전에 쓰시던 동백기름을 조그마한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사면 주는 건데 가구점 사장님이 동백기름을 조그마한 병에다가 줘요. 그러면 어머니가 갖고 오시면 이게 살림이거든요. 큰 살림인데 장롱이 하나 예쁘게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어머니도 여자분인데. 그러면 그거를 동백기름으로 가구를 계속 닦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예전 기법인 거예요. 동백기름이 오일로 바뀐 것뿐이지. 상업적인 걸로 바꿨을 뿐이지 사실 예전에 내려온 것은 동백기름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구에 손질하는 전통 방법이에요. 가정에서나 만드시는 분들이 하나씩 동백기름을 만들 때도 하시고 동백기름이 없으면 참기름, 들기름으로 가구에 발랐죠. 사실 여기에다가 들기름을 발라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상업적인 오일이라는 게 나와서 이걸 발랐는데 정확히 무슨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천연 그런 재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사실 어렵죠. 상업적으로 나온 오일이고 이걸로 대체를 하는거죠.



천연 아로마오일에 대해 설명하는 대한공예 사장님

시대에 따라서 오일도 달라졌네요.

많이 좀 변했지.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들은 동백기름이나 참기름, 들기름으로 장롱이나 가구를 손질하면서 애장품으로 갖고 계신 거죠.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지. 오일 바르는 기법이 우리 어머님들 손에서 이렇게 전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시절 꿈으로 미래를 그리다

사장님 꿈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운동선수나 연예계 쪽으로 하고 싶었어요. 사회를 본다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했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이도 좀 먹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닥치니까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전혀 쑥스럽지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회도 보고 얘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리드해가면서 했는데 그 시대가 다 어디로 갔네

요.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돈 버는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한 거지.
노래는 잘하는 거는 모르겠고 제가 어디 대회에서 나가서 최우수상 받았
어요. 그때는 노래를 쉽게 쉽게 불렀어요. 기억나는 게 최병걸 씨라고 그분
이 고인이 됐는데 그분 노래가 약간 좀 고고송이면서 어깨를 들썩하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서 됐나 봐요.

기타도 칠 줄 아세요?

앞길을 하나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타를 다시 사게 됐어요.
이젠 악기 하나 정도 다루고 싶고 하네요. 아들은 결혼 안 했고 딸은 36살
인데 집사람한테 어저께 나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는데 색소폰으로 할까
그랬더니 기타를 하래요. 기타를 친 경험도 좀 있고 그러니까 기타를 해라.
기타가 더 보기가 좋지 않느냐. 노래도 부르고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젠 그
렇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볼까 해요. 여기도 운영하면서.

대한공예사 사장님께서 만드시는 제품을 오랫동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도 주문할 날이 오겠죠?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한공예

주요작업 : 목재 가공, 스탬프, 당구 큐대 등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17

마루칼, 평칼, 삼부칼. 그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연장은 주로 세 가지면 돼. 세 가지가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마루칼, 평칼, 삼부칼이라고 부르지. 우리한테 이게 자나 다름없어.

세 가지 주로 많이 써요. 그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도 다 가능해요.







신정목공예
안 희 식 (1946년생)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으며, 16살에 인천으로 올라와 여러 일을 하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도원동에서 동생과 함께 목공 일을 시작했다.
현재 30년째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8월 3일, 22년 10월 21일
면담, 원고정리 정은주
면담지원 이혜숙

고향에서 인천으로 정착하기까지의 여정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고향은 경북 안동이에요. 인천에서 산 지 50년 정도 되는데 어려서 인천에 올라온 거지. 16살에 올라왔어요.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잘 생각도 안 나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있는데 다 인천에 살아요.

어린 시절에 친구하고 싸움하고 집에 못 들어온 적이 있어요. 개는 좀 부유한 집의 자식이고 나는 없는 쪽이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았지.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 다녀봤지만 변변한 교실도 없고 그냥 여름에는 나무 밑 돌 멩이에 앉아서 배우고 뭐 그랬지. 학교는 시골에서 6학년까지 다녔는데 지금도 그 학교가 남아 있어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요즘은 못 내려가요. 국민학교 동창회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나이들이 내일모레 80세가 되니까 동창회도 이제 못하지.

내가 4남매인데 우리는 다 동창이 아니야. 시골은 보통 형제들이 거의 동창인데 우린 아니야. 집안 상황이 동생들이 먼저 올라오고 저는 가족이 많으면 좀 힘드니까 좀 늦게 올라온 편이에요.

인천에 올라오셔서 경험하신 일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16살에 올라와서 안 해본 거 없죠. 내가 장남이니까. 한 일곱 가지 일을 해봤어요. 책가방, 깡통으로 양철로 만든 호롱 등불 등잔 그런 거 별거 다 해봤지. 옛날에 뭐 오줌통 물통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저기 보이잖아요. 어디 하나 있는 거. 옛날 그런 것도 만들고 술통 큰 것도 만들고 안 해본 거 없다니까.



직접 만든 오줌통(물통)

동일 양복점이라고 오래됐어요. 열일곱에 양복점에 들어갔으나 얼마 못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공이 돈이 더 많으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양복점을 그만두고 목공을 했지. 양복은 배울 때 뭐랄까 누나한테 매도 맞아 가면서 그때는 새벽 12시까지 했으니까. 작업이 12시 통금이 돼야 집에 와서. 아침 7시에서 밤 12시까지. 밥도 못 먹고 했지 그때는. 아는 사람 없으면 들어가야 하루 천 원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났어. 시간은 긴데.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열심히 다녔지.

신정목공예의 과거와 현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남매는 출가하고 지금은 집사람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군대 생활을 69년도에 했고 결혼은 72년도에 했어요. 중매해서 여러 번 만났지. 결혼하고는 송림 3동에 제일 처음에 왔어요. 전도관 있는데. 송림동 모습이 거기는 별



로 발전이 안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동네는 예나 지금이나 발전된
게 없어요. 지금은 서구 검암에 살아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있는데 4형제야. 다 인천에 사는데 사실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보지요. 나이가 많으니 아픈 데가 많아 가지고 자주
봐요. 지금은 즐겁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또 행복하지.



신정목공예 내부

신정목공예의 전신은 어디였어요?

열일곱에 양복점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목공이 돈이 더 많으니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양복 일을 그만두고 목공 일을 하게 됐는데 도원동에서 했어요. 남의 돈 내 돈 전부 내서 한 거지. 내 집이지만 남의 집이나 다름없었지. 그때 상호가 동생하고 같이해서 형제공예사였어요. 도원동에서 동생하고 같이 운영할 때 이거 전부 그거예요. 내 동생이 이 로구로는 인천에서 최고니까 동생도 따로 해요. 동생은 나보다 지금 더 크게 하고 있는데. 동생은 눈대중으로 그냥 다 해. 그때 당시에도 저거 로구로만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요즘은 좀 힘들죠. 힘이 드니까 어려운 거지. 내 나이가 내일모레 80인데.

지금 만드시는 제품에 사용되는 도구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허리 운동하는 거예요. 이 도구는 흙 팔 때 써요. 몇십 년 된 건데 철공소에서 주문 제작해서 맞춘 거예요. 이런 칼도 맞춰오고 그래요. 연장은 주로 세 가지면 돼. 세 가지가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마루칼, 평칼, 삼부칼이라고 부르지. 우리한테 이게 자나 다름없어. 세 가지 주로 많이 써요. 그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도 다 가능해요. 이거는 걸목* 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흙파는 거예요.

이런 기둥을 다 로구로라고 불러요. 이렇게 긴 거를 로구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만들 때 힘들어요. 만들면서 다치기도 하지. 전부 당연한 건데 뭐. 이거 하는 분들이 다 그래요.

주문량은 어떤가요?

주문량은 많아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해야지. 집에

서 놀아 보니까 더 힘들어. 그냥 내 손자 애들
 한테 손 안 벌리고 그 정도는 돼요. 편하잖아.
 애들 보고 돈 달라면 좋아해? 내가 벌어서 쓰
 면 좋지.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회사에
 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 개인도 많고 회
 사도 많아요. 회사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많지.
 회사 숫자가 많으니까. 개인이 주문하는 건
 하나씩 만드니까 몇 개 안 되니까 힘들지.



작업 도구



로구로 기계

목공 관련 일은 얼마나 하셨는지요?

오래 했지. 삼십 년. 일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다쳐. 손도 많이 다쳤는데 오른손보다 왼손을 많이 다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작업하는 모습

남기고 싶은 인생이야기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해야지. 애들한테 손 안 벌릴 정도는 되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요. 지금은 행복하니까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주문도 받고 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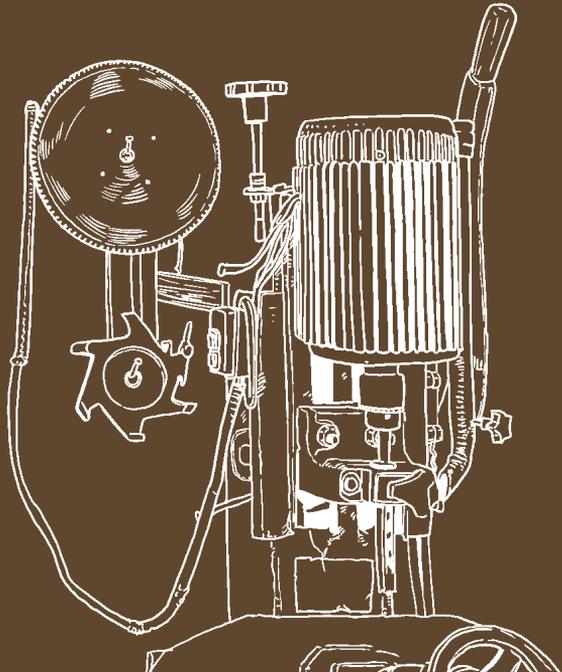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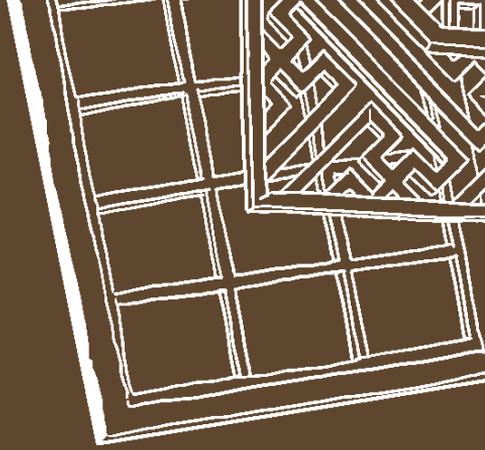
작업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인터뷰도 재밌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신정목공예

주요작업 : 로구로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7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툽 연 마

'88세 노장 연마장이' 김유일
유성툽연마

88세 노장(老莊) 연마 장이

74년에 공무부장으로 승진했지만 내 일을 하기 위해 퇴사한 후, 80년대 500원짜리 하나 보고도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게 일해 왔던 사람이에요. 아들 둘, 딸 둘을 다 대학까지 보낼 정도로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지금도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쓰지요.







유성 톱 연마 김 유 일 (1934년생)

군대 제대 이후 원주에서 큰 회사에 다니면서 기계를 다뤄왔다. 80년에 송의동 버스정류장 앞 건물에서 '유성 톱 연마'를 열고 41년간 톱을 연마하는 일에 종사했다. 21년 재건축으로 현재의 위치로 가게를 옮겨 운영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8월 31일, 22년 9월 29일
면담, 원고정리 정지선
면담지원 표기자, 허은심, 양지원

승의 목공예마을에서 유일한 톱 연마 가게

승의동에서 언제부터 연마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원래 가게는 지금 버스정류장 앞(승의 목공예센터)에 건축하는 자리에서 41년간 있었어요. 80년부터 500원짜리 하나 보고도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직장 다닐 때 알았던 선후배와 주변 도움을 많이 받아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작년(2021년) 9월 6일에 이사 왔어요. 가게 이름은 한문으로 넉넉할 유자하고 성할 성자(이를 성자 밑에 피 혈있는 한자)를 사용했는데, 내가 그냥 뭐 어디가 작문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이름인 유일이라는 거는 족보에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 집안에 24세 손. 유자 돌림이죠.

사용하셨던 기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사 오면서 기계를 많이 처분했지요. IMF 전에는 바이닝에서 나온 6,800만 원짜리 톱날 성형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제작 물량이 줄어서 정말 참 억울하게 고물값에 팔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아깝지요. 팜플렛도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사 오면서 이것저것 섞여서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네요.

갓타날 같이 넓은 문틀을 짤 때 쓰는 톱은 성형할 때 환봉*을 사다가 만들어요. 지금은 기계가 없어서 못 만들지만, 예전엔 톱 제작도 직접 했어요. 환봉은 승의공구상가에 있는 조일기계랑 거래해서 받았는데, 쇠 종류랑 규격만 알려주면 딱딱 해놓고 등그런 원판만 가져오는 거죠. 절단된 환봉을 기계에 물려가지고 원판을 깎은 후 2차로 밀링 작업을 해서 틱을 붙이는 거죠.

톱날을 만드는 이 기계는 구멍에 따라 톱날의 개수를 정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360도 회전되는 HARLEY(일본) 기계예요(회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사를 풀고 계심). 이거 좌우로 다 돌아가고 그래요.



톱날 만드는 360도 회전되는 기계(HARLEY(일본))

톱은 '긴노*'라고 하는 명칭인 재료로 합금을 했는데, 은이 많이 들어가는 접착이에요. 이거 전부 산소 달고 불에다 달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커멓게 된다고. 그때 콤프레샤 돌려 가지고 강도가 아주 센 금강석으로 만든 금강사(모래 형태)로 때리면은 이 쇠가 약간 거칠었던 게 뽀얗고 깨끗하게 그렇게 돼요. 그게 샌딩작업이지. 이사 오기 전에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다 없애고 천일에서 나온 국산 콤프레샤만 남았어요. 샌딩이 잘 되려면 연속해서 금강사로 때려야 하나까 차징(charging) 양이 많이 필요해서 큰 거예요. 이사 오기 전 가게에서는 톱 제작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했었지.

지금 연마하실 때 사용하시는 기계는 어떤 것이예요?

제가 사업장을 오픈하기 전에 큰 회사에서 공무부장을 했어요. 회사에 있으면서 일본에 출장 갔을 때 연마 기계 설계도랑 일부 부품(현재 사업장 캐비닛에 있는 부품) 같은 걸 줘서 그걸로 영등포에 있었던 대일 기계에서 지금 사용하는 톱 연마 기계를 제작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 오던 게 오늘까지 참 잘 썼어요. 국산 기계 그렇게 오래 쓰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저거 색깔이 아주 맑은 색이었었지. 한 해 가고 또 가다 보니까 저렇게 새까맣게 된 거예요. 일을 적게 하면 기계도 색깔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기계 돌리면 생기는 먼지가 많이 앉는데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쇳가루가 붙으면 철 수세미 가지고 문질러도 잘 안되고. 기계 돌릴 때 분진이 덜 나고 열처리되라고 물을 뿌려요. 처음에는 맹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연삭액*이라는 약물이 들어가서 희석이 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은 초경*팁이라고도 해. 이걸 가는 거지. 갈 때 사용하는 동그란 판을 다이아몬드 휠이라고 하는데 부산 다이아몬드 회사에



일본에서 가져온 설계도를 가지고 대일기계에 주문 제작한 연마 기계

서 제작되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빨갭게 달았다가 식으면은 그 강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강도가 참 세요. 저거 붙일 때도 전기 기계로다가 해 가지고, 빨갭게 달아야지만 붙어요. 또 접착제를 약칠을 해 가지고 이걸 붙이지. 규모가 커지고 제작을 하는 집들도 기계 자동화가 되기 이전에는 전부 아주머니들이 만들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거 붙였을 때 생산 수치는 지금으로 치면 얼마가 안 되지. 지금은 자동화가 돼서. 이거 한 달에 한 일곱 개씩은 써요. 기계 저거는 지금 새카맣게 돼서 그렇지 원래는 이런 건데 더 넓어. 이거는 6mm지만은 그거는 한 9mm나 10mm가 이렇게 되고, 이 구멍도 저 기계가 커요. 24.5mm가 1인치인데 인치니부*니까 한 삼십몇 mm 될 거예요. 요게 규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거기 계산 공식에 준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달라요. 이거는 측면으로 쓰는 거지만 이 건 스트레이트로 쓰는 거지.



가타날 가는 기계



문을 만드는 가타날

이 기계는 틱이 넓은 갓타날을 가는 기계는 이건데, 말하자면은 여기 문 같은 거 있잖아요? 문틀 형태가 다양하고 또 골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홈을 파는 공구를 갓타날이라고 하는데, 그 공구가 저만큼 넓은 거지. 지금은 이런 게 PVC로 이렇게 나오지마는 그전에는 나무로 해야 하나까.

연마 작업할 때 날이 잘 들게끔 갈아진 것을 어떻게 아세요?

보면 알아요. 육안으로 보이니까 끝이 안 보일 정도예요. 마모된 게 그냥 덜 갈리면 허영계 그대로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이게 되면 예리하게 갈려진 거예요. 그게 머리를 갖다 이렇게 대면은 칼 같은 거는 머리가 싹 끊어져요. 얼마나 잘 들으면. 얇은 거는 한 10mm 정도에서 한 15mm 정도는 갈 수 있고. 이 기계가 아니면 하질 못해요.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공예마을로 지정되기 전과 후에 변화된 것은 있었나요?

목공예마을이라고 해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여기가 내 집에서 가깝고, 가게 월세가 다른 데보다 조금 싸고, 활동하기가 편리하니까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송의 목공예마을을 바라고서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먼저 있던 거지. 제가 여기서 40년이 넘었고, 송의 목공예마을은 나중에 생겼어요. 송의 목공예마을로 만들었다고 해서 나오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여기는 지나가다 들리는 사람들이니까 큰 도움 받는 게 없어. 세공비로 처음에 4천 원 받다가 5천 원 받다가 지금 7천 원 받는데, 아주 좋은 거, 이런 250 규격 나가는 거 그거는 만 5천 원 받고. 그게 무슨 돈 되겠어요? 이거 바래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인테리어 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네들이 톱을 여러 장씩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제주도에서도 택배를 붙여요. 부산도 역시고, 전라도에서도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드렸는데, 지금은 물량들이 아주 줄어가지고 이상해 정말. 이거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러나 봐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지. 여기(송의동)에서 뭐 어떤 믿음을 갖고 뭐가 좀 나올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 이게 내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사실 공구는 한 번 연마하게 되면 몇 달씩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네에

서는 큰 물량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두 개 맡기자고 멀리 가지 않으니깐 우리 가게에 맡기기는 해요. 목공 일할 때 톱이 없으면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지. 우선 톱으로 깎는 집은 날들이 잘 들어야지만 매끈하게 나가니까 안 들으면 거칠게 나가고 안 돼. 털이 많이 생기고. 생각해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 나는 나고 저는 저고 이렇게 지내지. 그냥 내가 이거 하나까 와주면 고맙고, 안 오더라도 그만이고. 나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니까. 서로 간에 그런 관계로 지내요.

밖에 걸려 있는 ‘유성 톱 연마’ 나무 간판은 어디서 한 거예요?

고전공예사에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판재 내가 다 가져다주고 맡긴 거예요. 이 글씨도 제가 쓴 거예요. ‘신념(信念)-굳게 믿는 마음’ 이에요. 어때요? 잘 썼죠. 사실 제



김유일 사장님이 직접 쓰신 한자 : 신념



고전공예사 사장님께 주문한 유성 톱 연마 나무간판

아들들이 아버지 필체가 좋다고 남기고 싶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해보고는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요.

과거에도 이 동네에서 톱 연마해주는 가게는 사장님만 유일하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수(手)공구 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랬어. 옛날 톱인데, 이래 이래 끊는 거 있잖아? 손으로도 요만한 거 가지고 이래 이래 하는 거. 그거 줄이라는 게 있어. 그거 일본말로 '야스리'라 그래. 그걸로 끝에 이렇게 마모된 거 싹 싹 갈아주고. 그런 거 했드랬어. 그 사람이 아침마다 수봉공원에 운동을 꼭 나갔는데, 제물포 저 밑에 자동차 중고 매매 센터 있잖아요. 거기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모양이야. 그래 가지고 여기 작업장은 접고, 부인이 그 집을 다 수리해가지고 무슨 뭐 금속 절곡이니 뭐니 하잖아? 그게 그 집이야. 금속 절곡 간판 크게 붙었잖아. 여기 위에. 거기가 원래 자기네 집이지. 그러니까 부인이 세놓고 아마 딸네가 가서 있을 거야.

그리고 이석규씨라고 나하고 연배가 같은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가로공원 근처에 살고 있는데, 1년 전쯤 대장간 접고 구청 노인인력과에서 하는 용정초등학교 안전지킴이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송의동의 생활 모습

인천에 오셔서 거주하셨던 곳이 어디셨어요?

독쟁이 들어가다 보면 가로공원 있는데, 그게 수인역에서 주안역으로 가는 철길이에요. 주인선이라고 하는데 수인역이라는 데서 순전히 짐만

가지고 주안역에 갔다주면 그때 화차가 와서 끌고 가고 막 그랬던 가교 역할을 한 철길이에요. 그 철길 바로 아래 도로 옆 거기가 ‘송의4동 248번지’인데, 그 지역이 일자로다가 전부가 국민주택이었어요. 원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자마자 세입자로 계약해가지고 왔었지. 당시 국민주택은 이렇게 일자로 됐는데 마루가 있었고, 마루 양쪽으로 방이 있는데 좀 길었어. 마루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된 거지.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서 두 가구씩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었지.

내가 원주에 있을 때 제일은행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조금씩 조금씩 적립한 것이 그래도 그 당시에 몇십만 원이 되더라고. 그거 갖다가 국민주택 계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한 곳이 지금 하나아파트 자리예요. 예전에는 주공이 있었는데 77년도에 17평인가 13평인가 하는 주공아파트 302호를 불하*받았어요. 그러다가 안식구가 좀 아파서 팔고 1동 505호로 올라갔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했죠.

처음에 살았던 곳이 지금은 개발이 돼서 옛날 철길이 다 묻혔어요. 제물포 나가게 되면 역 밑에 왜 역 쪽으로다가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철길이 놓여 있던 데예요. 주인공원 철길이 이쪽으로 독쟁이까지 왔다 가는 거지. 수인역까지 돌아가고, 그 전에 수인선에 조그만 열차도 있었어. 그게 삼거리에서 송도로 해가지고 여기 수인역까지 오고 다 그럴 텐데 뭐. 나도 그거 타봤는데, 기차 그거 뭐 큰 힘도 없고 그래서 기차 지나갈 적에 빠른 사람은 갖다 뛰어가서 타(하하하 웃으시면서).

송의동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당시에 인천에서 주택이 제일 좋은 집은 길옆에 사거리 있잖아요? 송의2동 남구청(현 미추홀구청) 별관 그 밑에 건물이 제일 좋았어요. 거기 건물

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거기가 제일가던 데예요. 남구청 뒤에 쪽 내려가는데 거기는 교대로 썼죠. 그러다가 교대가 계산동으로 나갔잖아.

승의동에 혜진 뷔페랑 동원 예식장도 있었어요. 혜진 뷔페는 농협 뒤에 있었는데 없어진 지 얼마 안 돼요. 그 집이 영업을 하다가 주위 분위기가 전부 달라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동원 예식장은 지금 건물 짓다가 작업이 중단돼가지고 있는데, 바로 거기였어요. 거기 결함이 주차장이 없는 거였는데, 아직도 그 상태인 거 보니까 무슨 또 문제가 생겼는지 몇 해째 완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룡소주는 저쪽 넘어 제물포 위에 제물포시장 뒤에 있었어요. 우리가 오고 갈 때 보면 가동은 안 하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물포시장 그 밑에 주택 앞으로 물 고이는 저수지도 굉장히 넓었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제물포시장 바로 뒤가 다 와룡 공장 대지예요. 와룡 공장은 저쪽 편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고. 거기는 순전히 저수지만 있었고. 제물포시장도 반은 다 붕괴돼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수지가 여기 있었으면 그 위편으로 제물포시장이 있었지. 그다음에 거기를 다 이렇게 메꿔가지고 주택들을 지은 거예요. 제물포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용정초등학교 이쪽저쪽이 다 배나무 과수원이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동묘지도 있었지. 파출소 있는 부분에는 그 당시에는 경기 자동차 운전학원이 거기 있었고. 아~ 옛날얘기네요.

삶과 일의 원동력이었던 가족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 결혼하셨어요?

군 제대 이후에 원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홍천읍이 고향인 안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당시 강원도 원주에 극장이 네 개 있었는데, 안사람 이모님네가 운영을 했던 곳이었어요. 극장에서 안사람이 심부름하고 현금 같은 것도 관리를 다 하고 그래서 상당히 푹푹하게 지냈다고 해요. 주변에서 결혼하자고 권유가 많이 들어갔던 모양인데, 다 연결이 안 되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연결이 됐는지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것이 누구의 소개로만 전적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첫째 본인들 정말 의연히 서로 간에 존중해야만 되는 거고 이 결혼이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어느 정도 내가 하는 말은 저쪽에서 이해를 충분히 해야만 되고 저쪽 말은 내가 또 어느 정도 수용이 돼야지 합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만나다가 이모 되시는 분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나서 묻는 말에 소신껏 대답했더니 어딘지 모르게 좋게 봤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어느 곳에 갔다 봐도 너 배 하나는 안 풀리겠다. 결혼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안사람하고 서약서를 썼죠. 서약서는 ‘서로가 거짓말은 없고,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면 참 기실로 믿어줄 때에 우리의 만남이 정말로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원래 키가 좀 조금 작은 편이에요. 머리는 김자옥 씨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뒤로 올렸던 배우. 꼭 그런 형으로 처녀 때 딱 만났는데 그렇더라고요. 살짝 높은 신발을 신고, 근데 아주 뽀뽀해요. 걸음을 걸어도 고대로 가지 절대 꾸부러지는 적이 없어. 우리 안사람이 승의3동 부인회장도 했었고,

바르게 살기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민원 봉사, 인천경찰서, 인천 의회에도 나가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봉사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음식은 뭐든 하든 간에 잘했어요. 하다못해 부추 넣고 부침개를 해도 깔끔하게 냈어요. 담는 것도 그냥 덜컥 담는 게 아니고 채반에다 뭐 깔고 착착 썰어서 담아가지고, 아주 눈에도 뭐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안사람이랑 나랑 즐겨 마시는 커피(수O리O)가 있는데, 제가 집에도 박스째 사다 놔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처가 집에 가면 처제들이 다섯이나 있는데 날 붙들고 “형부는 언니를 사랑하나 봐!” 이런 소리 들었어요.

자녀분이 딸, 아들, 아들, 딸이시죠?

네. 공항에 다니는 큰아들이랑 은행에 다니는 둘째 아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큰딸이랑 인천대 나온 막내딸 이렇게요. 큰아들은 제 밑에서 연마하는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지금은 공항에서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건국대학교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일해요. 지금 여의도로 출근하는데 여의도 아니면 삼성동이나 을지로. 간혹 청라지구에 올 때 있어요. 큰딸은 조지아 주 주립대 거기에 유학 가 가지고 거기서 결혼했어요. 사위도 유학생이야. 막내딸도 인천대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남매를 낳았어요. 그것도 한 오십 줄에 되고 그렇지.

승의동엔 공설운동장이 가까이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자주 가셨나요?

그럴 새가 없었어요. 나는 가진 것 없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인천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런 여유를 즐길 수가 없었어요. 가족 건사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는 우선

가족이 먼저기 때문에 가족 먼저 잘 돼야 나한테 좋은 것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건실한 마음에서. 내가 생각해도 참 올바르게 살아온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한테도 지금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참 양심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 “난 이렇게 살았다.”

지금도 자녀분들한테 용돈 하나도 안 받고 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솔직하게 용돈도 천 원 하나 안 받아요. 이건 우리 아들, 딸들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감에 넘치시는 표정으로) 다른 거 하는 거보다 소위 이게 어딘지 모르게 은근히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좀 낫다는 거지. 그래서 일이 없을 때 이렇게 한가하게 놀아도 그러니까 평균을 잡아요. 한 달에 15일 일을 한다 해도 하루 한 세 시간씩 잡고 세 시간도 안 돼. 한, 두 시간 하면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 생활은 평균이 되니까. 뭐 일 없다고 아등바등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은 얼마 정도면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돈이 필요 없죠.

기계와 친했던 어린 시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청년 시절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예전에 사범학교라고 있었어. 그거 나오면 초등학교 선생은 되는 거고, 그 과정 지나면 대학교 가게 되는 건데 허나 거기까지는 욕심이 안 가고 고등

학교 선생은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공부했던 적도 있었지. 우리 아버님이 일본 사람 광산 지대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기계에 대해 자주 보게 되고, 또 그 주위에서 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참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일본 말을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하게 됐지. 내가 자랄 때 일본말을 일제히 습득하게 했었지. 그래 하여튼 일본 학교 4년 다녔는데, 거기서도 일본말을 잘했어.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일본어를 물어본 적이 있는 그런 건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근무하셨던 수리광산*에서는 어떤 광물이 나왔나요?

중석*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특수 철을 만드는 거야. 또 수수연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지. 그거는 꺾여지지 않으니까 쪽쪽 구부러지는 넓은 게 나와. 광물이 그런 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해보면 쪽 휘어져요. 갈피갈피 일어나는 게 부서지는 게 없어. 그런 걸 캐기 위해 갱도를 뚫는 기계를 만드는 작업을 아버님이 하셨지. 갱도가 잘 뚫리게 톱날이 잘 들게끔 만드는 거지. 보기에는 참 엄청난 큰 기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불에다가 벌렁게 달궈가지고 넣고서 이런 레바 하나만 쥐고서 만드는데, 그 큰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게 막 찢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다*에다가 딱 대면은 부르르하면서 그게 이빨이 갹혀.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되지.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일을 보고 자란 거예요.

일본어를 잘하신 것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직장에 다닐 때도 일본어 하는 것이 이점이 많았지. 일본에서 바이어가 오면 직원 누구 하나 응대를 못 해. 말이 안 통해서.

1) 몰리브데넘(molybdenum)의 황화물로 이루어진 황화광물인 '휘수연석'을 의미하는 것 같음. 구술자는 수수연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셨다고 함

그래서 일본 바이어가 온다면 일단 나부터 불러.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그 바이어가 나오면 내 담당이여. 호텔까지 데려가고 데려오고 그렇게 생활했더랬어요. 지금도 쉬운 말들은 할 수 있지만, 일본 사람 말에 의하면 “나는 일본 가서 살아도 언어 소통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 없이 원활하겠다.”라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참 오래된 얘기에요.

군대는 언제 가셨어요?

저는 독자였는데, 아버님이 마흔다섯에 저를 낳았고,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니 두 분 모두 60세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57년 7월 그때 보류 두 번이나 했어요. 당시엔 6개월밖에 보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독자는 보충역으로 면제가 되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었고, 뭐 말은 ‘제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든 병역의무는 풀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면제받으려고 마음은 안 먹고 보류를 했었죠. 학교 나오자마자 부모님을 두고 오려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있다 보니까 59년도 1월 11일부로 군에서 제대했어요.

군대 제대 후에 인천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아니요. 강원도 원주에 큰 회사가 있었는데 AID 차관*으로 전부 독일에서 기계를 수입해다 놔는데 다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또 줄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안 먼 형님 되는 사람이 거기 부장직으로 있더라고요. 그 때 말 한마디 던지니까 뭐 금방이지 뭐. 당시엔 그 기계를 다들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였으니까. 이 기계의 명판도 읽을 줄 모르는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있다 보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나에

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지고 일을 했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멋있게 했지. (약간 어깨 힘이 들어가신 듯한 표정) 아직까지도 그런 기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지금도 나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젊은 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내가 오토바이를 한 7년 이상 8년은 탔을 거야. 처음에는 차 살 힘도 안 되고 자전거도 살 힘도 안 되고 했는데, 어떻게 오토바이를 하나 샀었어. 처음에는 88을 샀었지. 배기량 88로.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뭘 실을 수도 없고 그거는 뒤떨어져서 안 돼. 나는 아주 힘이 있고 정신력이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120짜리 샀잖아. 첫 번째는 타기가 거북했지만 타던 사람은 몇 번만 타면 익숙해요. 그렇게 면허도 없이 타다가 임시 검문소에서 딱 걸렸지. 지금 옥련동 입구에 파출소가 있는 곳에 수인선 역(송도역)이 있었는데 그 삼거리에서 임시 검문소 쪼가리 갔다가 딱 세워놓고 사람들 둘이서 가지고 오토바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곤 먼저 키를 빼요. 경찰들이. 당시에는 무면허자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나도 면허가 없어서 딱 걸렸지. 오토바이 타는 데는 면허자 이상으로 탔지만 그래서 거래처에다 나 이만 저만 해서 여기 지금 잡혀 있다고 연락을 해야 하는데 당시엔 방법이 없었지. 그래서 내가 그 경찰 보고도 그랬어. “나 잡히면 안 돼요. 우리 네 식구 다 책임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면허 없이 오토바이 탄 잘못은 잘못이지만.”이라고 말하니까 연락해 주더라고. 그렇게 거래처 과장님하고 연락하니까 뭐가 한 장 쓰라고 하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 나와서 면허는 바로 땀지요. 남들은 오토바이 면허 시험을 세 번 네 번 가요. 저는 오전 내로 필기시험에 합격 되고 실기 시험도 금방 해 가지고 오전 내로 다 마쳤어요. 그거 보면은 나도 지금도 참 신기해.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 생각 하면(웃으시면

서). 그때 코스 돌 적에 참 아슬아슬했죠. 그래서 되거나 생각은 안 하고 했는데, 오~ 활발하게 탔던 경험이 있으니까 내 감각이 어느 정도 맞아서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합격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은행에 가서 도로 주행에 관한 세금 얼른 내고 댐방 오토바이 구입해가지고 왔어요.

젊은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으셨나요?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 내 주위에 가까웠던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한 12명 정도 있었는데 나보다 몇 년 전에 다 갔어요. 그중에서 여든다섯 된 사람이 있었는데, 작년 '6월 9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 여기 이 종이컵(사장님이 커피를 타서 주신 종이컵)이 그 친구가 한 박스 사다 준 건데 아직까지도 먹어. 여기 몇 개 남았어요. 일 년이 넘었는데 언제나 이거 뭐야 커피 여기다 먹으면서 생각하네. 그 친구는 나한테 참 잘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정말로 세상 먼저 떠나니까 섭섭해. 그 친구 딸이 나하고 면회를 가기로 했는데. 병원에서 요양원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개월도 안 넘었어. 근데, 갔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가지 못해서 딸하고 약속을 했었거든. 딸이 전화가 와 가지고는 “오래도록 아버님하고 막역하게 지내셨다는데, 얘기는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은 뵈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면회를 갈 예정인데 그때 전화를 드릴 테니까 만나서 같이 면회를 가자고 하더라고. 근데 그전에도 내가 면회를 하려고 몇 번 이래 신청했었는데 본인이 싫다고 그래. 자기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러다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세상 떠나고, 그 딸이 나한테 카톡 준 게 있어. 그거 읽어보면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운구차가 가다가 이 가게 앞에 있잖

아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썼대. 그 내용이 왔는데, ‘아마 마지막으로 나한테 인사를 하려고 차도 그렇게 정말 운구차가 잠시 멈췄던 모양이라고. 두 분이 진한 우정을 나누셨던 관계였나 봐요.’라고 말이야. 그 딸이 보내준 문자인데 한번 보세요.

‘유성 연마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복 씨 딸입니다. 불행히 뵈지 못하고 아버지가 6월 7일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오늘 장지에 가는 데 신호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운구차가 잠시 아저씨 가게 앞에 정확하게 멈추었습니다. 저는 아저씨 가게를 보고 무척 놀랐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아저씨께 마지막 인사드린 듯합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지나가는 길에 가게 문이 열려 있으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성의를 가졌어요. 처음 이 사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자기 주관이 굉장하 또 센 사람이야.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막 공격당했지. 내가 공격을 막 했지. 결국 그 사람이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가까워진 것이 그렇게 정말 잘했어요.

앞으로의 계획과 남기고 싶은 이야기

아직도 일감이 있으셔서 나오시는데, 혹시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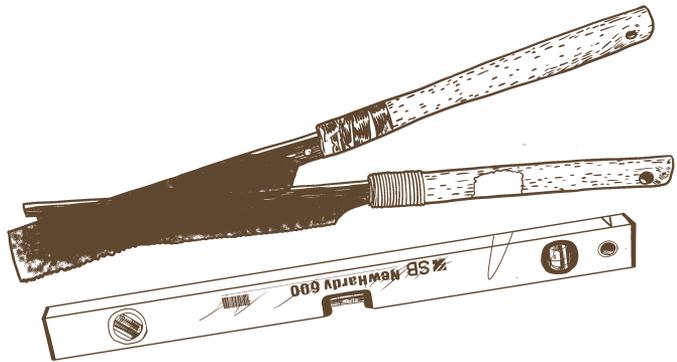
내 생각으로서는 잘하면 명년(내년) 2023년도 거의 채웠으면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처분하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뭐 들을 가치가 됩니까?

그럼요. 이 동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88세에 아직도 일을 하신다는 것이 한창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모르긴 몰라도 동네에 대해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일을 하는 것을 주위에서도 대단하다고 말을 하긴 해요.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맞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유성 톱 연마

주요작업 : 목공용 톱 제작 및 연마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17

송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미래를 그리다

‘벽화쟁이가 나무에 그린 그림’ 이현준
준아트

‘목공, 교육으로 꽃피우다’ 서희원
아셀트리목공방

‘차세대 목공산업으로 전환할 때’ 박승화
송의목공예센터



벽화쟁이가 나무에 그린 그림

나무를 태우면 테라피향이 있어요.

정신을 맑게 해주고 집중력을 키우게 되죠.

이런 판재 하나도 죽은 것 같지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처럼 늘 그냥 한결같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구나.







준아트
이 현 준 (1970년생)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벽화쟁이로 살아가다가 송의동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목공예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입주를 하고 우드버닝과 우드펜 작업을 하게 되었다. 현재 송의 목공예센터에서 우드버닝 수업을 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9월 7일, 22년 9월 14일
면담, 원고정리 허은영
면담지원 정지선, 표기자

운명처럼 벽화쟁이의 길로 들어서다

이름은 이현준이고. 나이는 70년생, 신셋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지도한 고3 담임 선생님이 그림을 좀 하나까. “너는 공부는 못하나까”. 공주에 ‘공주대’인가 거기 ‘만화학과’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나 한번 가 보라.” 그랬는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때 운동에 한참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애기 거슬러 올라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제가 자전거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우리 어머님하고 거래를 했어요. “반에서 몇 등 안에 들면 자전거를 사달라.” 사준다고 약속을 해 갖고. 근데 거래했던 거보다 성적이 더 좋게 나왔어요. 딱 들고 가서 자신 있게 “자전거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노’를 한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커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거의 접고, 배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졸업하고 또 축구에 빠져서 축구부 생활도 하고.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학업은 안 되고. (선생님이 권하신 대학이) 싫다고 하고 나서 성적이 안 되니까 대학을 못 갔죠. 졸업함과 동시에 ‘뭐 먹고 살지?’ 그 생각을 하다가 무턱대고 걸었는데 ‘디자인 학원’이라는 게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저거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접수하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버님이 건축업 하셨을 때 원래 단독주택 짓고 빌라 짓고 그러시는 환경에서 ‘아파트’를 하나 지으셨어요, 부평, 백운 쪽에. 그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제일 믿고 있던 오른팔이라는 분이 분양권 돈을 갖고 날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쇼크로 뇌출혈이 오셔서 쓰러지셨어요. 가세가 기울었죠. “막내한테는 쉬쉬해라.” 형제들 끼리는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 커서.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에 대한 약간의 속상함. 그것 때문에 학업을 거의 신

경 안 썼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하다가, 그냥 불현듯 본 게 그 학원, ‘예술 공원’이라는 학원을 접수하고, 학원비를 스스로 벌어서 다녀야 되겠다고 해서 막연히 그냥 버스 하나 타고서는 가다가 내린 곳 앞에 아르바이트 모집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면접 보고, 그날 바로 일을 시작하고, 그다음 날부터 학원 다니고 그러다가 군대 갔고. 말년 휴가 때였어요. 친구의 누님이 “나랑 같이 학원 다닐래? 제물포에 ‘공간디자인 학원’이라고.” “좋아요.” 그래서 국가고시 ‘광고도장기능사’라는 자격증 취득하고. 학원 원장님이 또 “동대문에 있는 회사에 한번 가 볼래?”, “좋아요.” 그래서 동대문 회사 출판사 프로덕션에 가서 디자이너로 있는 와중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했었던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학원 원장님 됐다고. “속셈학원 올라오는 계단 벽이 좀 험하니 까, 애들을 위해서 여기다 그림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젤이나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처음으로 큰 벽에다 그리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재밌는데. 해볼 만하겠는데.’ 싫어 그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벽화를 시작했죠. 그 학원 원장 형님한테 혹시 빈 교실이 있냐고 했더니 “교실이 많다.”고 하나 쓰라고. 거기 학원 한쪽에다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그게 95년도. 그렇게 그렇게 흘러서 벽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벽화할 때 사용하는 도구

벽화의 매력에 빠지다

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속셈학원에 그렸던 그림을 사진 찍어서 전단지 만들었어요. 상호를 ‘그린 그림’으로 명함도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어디로 갔냐면, 처음 시작이 속셈학원이다 보니까 학원가. 종합학원 있고, 미술, 피아노학원 있고 많잖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데를 막 다니는 와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극장에서 오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극장에서 간판 하시는 분들이 다 손으로 그렸던. 그러니까 어느 극장에서 오셨냐고 저보고 하는데, “저는 극장 간판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설명도 드리면서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거의 독학이었죠. 소재도 벽이라는 소재가 시멘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것도, 철판도 있고, 플라스틱 계열도 있고, 벽돌도 있고. 소재가 워낙 다양하고 하물며 벽이라는 건 또 유리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었죠. 제가 극장 계통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찾아볼 데도 많지 않고 그나마 그때 인터넷이 조금 될 때였을 거예요. 인터넷 찾아 보니까 ‘벽화’ 쳐보면 옛날에는 ‘고분벽화, 쌍영총’ 그거 나올 때였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업 벽화부터 서양화 전공하거나 동양화 전공한 분들이 벽화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어깨 너머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였어요. 디자인을 전공했어도 다양한 사람들과, 회화 전공자들과 같이 그림을 하다 보니까 어깨 너머로 그 사람들의 터치라든가 이런 그림들을 많이 배우게 됐죠.

어떻게 영감을 떠올리세요?

그게 너무 막연하진 않고요. 키워드를 찾아 나가려고 그래요. 이번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던졌을 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고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무수한 도안이 돌아다니죠. 결국은 뭘 그리느냐가 먼저가 아니고 주변을 좀 보게 돼요. 왜냐하면 골목은 좁은데 너무 확장성을 해놓을 수도 없고 확장은 돼 있는데 그렇다고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담이 있는데 위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나무를 갖고서는 연장(延長)을 해 갖고 ‘이 너머를 한번 자연스럽게 다시 표현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그림화 시키는 작업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없는 건데 너무 식상하거나 삭막하다 싶으면 없는 거를 차용해서라도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근데 주민들하고 같이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키워드, 핵심을 잡아내죠. 이분들이 원하는 게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꽃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나 꽃과 관련된 곤충이 있으니까 벌이라든가 나비, 개네들을 넣기도 하고.

그동안 해오면서 항상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그림을 그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그림을 보고 “그런 류의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그러면 할 때도 있지만 그건 많지는 않고요. 한 벽에서 이 벽으로 옮길 때는 이 벽에 맞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쪽에 해바라기를 넣는데 여기다 똑같이 해바라기를 넣는다 해도 똑같은 구도의 해바라기가 들어오진 않아요. 이 장소에 맞는 다른 해바라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매번 할 때마다 신선하고 재미있어요.

고향 인천에서 지역 활동을 하기로 결심하다



벽화작업 모습

송의 목공예마을은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셨나요?

벽화로 전국을 돌다가, 40줄이 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천, 나고 자란 곳에서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라고 인천문화재단을 통해서 ‘소무의도(소무의도 아카이빙 작업)’를 만났고, 여러 작가들이 가서 기록도 하고, 벽화로 남기기도 하고, 그분들 인터뷰도 하고, 나중에는 그걸 자료화해서 책으로도 만들었어요. 일종의 뜻깊은 여행길이었죠. 그 활동을 한 2년간 하다가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

가 마침 우각로 ‘문화마을’이라는, 거기를 제안한 거예요.

위에 보시면 전도관이라고 송의동 109번지. 지금 개발이라 그 있던 자리들은 다 소실됐고. 전에 제가 올라가서 본 동네의 풍경은 그냥 옛날 풍경인 거예요. 허름하고, 개발이 들어간다고 해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떠났고. 빈집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는 다양한 예술작가들이

몰리는 거죠. 영화감독도 있고, 연극 연출자도 있고, 연극배우도 있고, 시인도 있고, 만화가도 있고, 저처럼 벽화 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 친구 제안으로, 공방을 하나 따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고향인 인천에서의 유년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끔씩, 옛날 유년 시절에 살았던 곳을 그냥 한 번 순방한다고 그러죠. 저한테는 둘레길 같은 느낌으로. 아버님이 건축업을 하셔서 그때 지으신 집들을 다 둘러보고 다닌 적도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한 번 둘러보니까 일곱 채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천(川)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술래잡기 같은 거 하거나 담방구라고 해서 이렇게 도둑과 경찰 나뉘가지고 범인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을 할 때 그 천이 가운데 흘렀는데 그걸 뛰어넘고 도망가면서 술래잡기 비슷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다 덮여 가지고 천이 안 보이는데, 저 용일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뒤에 천이 흘러가지고 천 양쪽에 보면 골목과 골목 사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 골목 사이에서 미니 축구 같은 식으로 하다가 공이 빠지면 공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걸 주스러 천으로 내려가던 기억들이. 용일초등학교가 언덕이잖아요. 언덕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용일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해서 쪽 내려가다 보면 거의 경사면 끝쯤에 아마 그 자리가 천 자리였어요. 엄청 길었죠. 천의 원류가 어디라고 한다면은 ‘수봉산 자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천에서 더 올라가면 그 위쪽은 막아놨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그 밑으로 물이 흘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독쟁이고개’라고 그쪽부터 아마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가운데 천이 있어서 수풀이 양쪽에 있었고.

그리고 옹벽식으로 돌 있잖아요. 그 높이가 제 키가 이렇게 해서 올라올 정도니까 1미터 한 2, 30? 그렇게 높이 옹벽이 쌓여있었고. 사이에 천 폭이 1미터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담력 시험한다고 그걸 뛰어넘어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정들만 하면은 이사를 해야 해서 싫었죠. 제일 황당했던 때가 언제나 하면 옹현동이라는 데서 벗어나 부평으로 이사 갔을 때, 제 기억이 중2 때인가 그럴 거예요. 학교를 끝나고 집에 딱 왔는데 문이 열려는 있었어요. 근데 집에 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뽀뽀도 없고, 휴대폰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못 가고 집 대문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딱 오더니, “야 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이에요. “왜 우리 집에 짐이 없냐?”고 그랬더니 “빨리 타. 우리 이사 갔어.” 그러는 거예요. 트럭 타고 간 데가 백운역인데 “우리 이리로 이사 왔어.” 그러는 거예요. 막내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집이 이사를 갔던 상황이 그때 해프닝이죠(웃음). 지금 다시 생각해도 황당해요. 잊어버렸대요. 저를 잊어버렸대요. (웃음).

우드버닝, 벽화쟁이가 나무에 그린 그림

우각로 문화마을 시절 그때 목공예센터장을 만났고. 센터장도 부천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걸 접고 전도관 안에다가 공방을 꾸민 거예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중에, 나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침 목공하는 친구를 만나니까 목공예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그 전도관 ‘문화마을’이란 곳이 해체 위기에

와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여기 ‘창작 공방’이라는 공간이 생겼고. 그래서 그 당시에 평생학습관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겠냐.”라고 현 센터장이 제안한 게 ‘우드버닝*’이라는 게 있었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하겠냐. 어느 정도 기술이 갖춰진 다음에 해보겠다.”라고 해서 연습도 했고, 혼자서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했죠. 계기는 어쨌든 센터장의 제안으로 제가 우드버닝을 접했고. 현재까지 우드버닝 지금 한 7년 돼 가는 것 같아요.

우드버닝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게 기계잖아요. 애를 ‘우드버닝기’라고도 하고 ‘인두기’라고도 해요.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습득 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게 보시면 앞에 ‘팁’이 탈부착이 되는 건데 종류가 다양해요. 펜처럼 넓은 게 있고, 구슬처럼 된 것도 있어요. 팁이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마스터는 아니어도 ‘이 정도 갖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인두기끝 펜처럼 생긴 팁

우드버닝 제작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드버닝에 필요한 목재는 정해져 있나요?

일단 제일 기본 틀은 좀 맑은 나무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버닝은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쪽에 태우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때문에 맑은 쪽 나무에다가 버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자작나무. 자작나무 내피 쪽을 보면은 맑기 때문에 여기다가 버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버닝이 꼭 나무만 들어가지는 않아요. 가죽에도 되고, 종이에도 되고. 두꺼운 종이 같은 경우도 태우는 거니까, 태워지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테라피 효과라고, 나무를 태우면은 사람 정서에도 굉장히 좋은 테라피향이 있어요. 정신을 좀 맑게 해주고 집중력을 키우게 되죠. 아무래도 하다 보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타 목공 수업들은 망치질하거나 톱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나무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톱질이나 망치질은 없잖아요. 제 수업에는 음악을 틀어드려요.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시죠. 좀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힐링도 되고. 처음 수강하는 분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우드버닝 과정도 설명해 주세요.

버닝 순서라면은 (직접 시연을 하시며) 예를 들어서 도안을 판재에다가 올려놓고, 전사*를 하는 거죠. 전사는 뒷면에다가 먹지를 대고 그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판재)에 밑그림 도안이 배겨지겠죠. 그 상태에서, 버닝기를 켜고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무에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드버닝이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작품보다는 판재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액자에 끼 놓으면은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판재에 인두기로 시연을 하시며) 천천히 대고서는 일종의 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태우는 거예요. 연필은 예를 들어서 하트 모양을 하나 했다 그러면 지우개로 지워지잖아요. 나무를 태웠기 때문에 지우개로 지워도 버닝한 거는 안 지워지죠. 이렇게 면을 채워나가면 하트가 하나 나오죠.

흐리게 표현할 때는 여기 온도 조절이 돼요. 그리고 속도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선을 연하게 쓰고 싶을 때는 좀 빠르게 터치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점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을 무수히 긋다 보면은 연하게 얻는 동그라미가 나오기도 하고. 천천히 움직이면 진한 원을 구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1부터 7까지 돼 있는데 이게 온도계예요. 한 번 컷을 때 온도를 조절해서 이것도 계속 머물고 있으면 진해지죠. 그런데 같은 속도를 유지한 상태면 연하게 얻고, 온도를 좀 올려놓고 같은 속도를 해도 진하게 나오기도 하고.

우드버닝기는 온도가 조절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온·오프만 되는 기능이 있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다 온도가 조절되는 거라서. 이 펜(팁)을 얼마큼 본인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질이 달라지죠.

처음에 수강생분들 오시면 이 판재를 나눠드리고, 지금처럼 이런 선 긋기 연습을 제일 먼저 해요. 그 시간이 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분들이 처음 버닝기를 접하기 때문에 (판재에) 연필 선으로 다 그어 놓은 다음에 이걸 따라서 (팁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 단계에서는 (진열된 작품을 보여주시며) 이런 캐릭터 모양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있는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업을 하고요. 범주는 넓어요, 버닝이라게.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 테이블이 다 맑기만 하다 그러면은

테두리를 둘러 가지고 패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주변 지인들 사진 받아다가, 인쇄해 가지고 버닝으로 그려드리는 분도 계세요.



창작공방 우드버닝 작품들

초보자가 그 정도로 습득을 하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본인 능력 달려 있고요. 그리고 기초 수업을 토대로 해서 심화 과정을 따로 해요. 수업 과정에는 기초하고 심화가 같이 공존을 해요. 심화하신 분 중에 저하고 벌써 4년째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본인 작품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죠. 그분은 그냥, 항상 오실 때마다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집에서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동기 유발이라고 그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잖아요. 여러 사람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오면 하게 돼요.”라는 그분의 한마디가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대만큼은 행복하다고 하실 때. 본인들의 성장을 저는 옆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그걸 봤을 때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거. 단지 이 안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는 시간대만큼은 편하고, 있는 시간 동안은 행복하고, 유익하고 그랬으면 하는 거. 제 바람은 그게 다죠. 저도 여기서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시간만큼은 재미있으니까요. 이게 총 10강인데, 10강이라고 해도 주 1회, 두 시간씩이니까 20시간인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열심히 해서 기초 떼고, 심화 1년 정도 저랑 같이 최소 60시간 정도를 해도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강좌를 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우드버닝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수업하는 모습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펜

우드펜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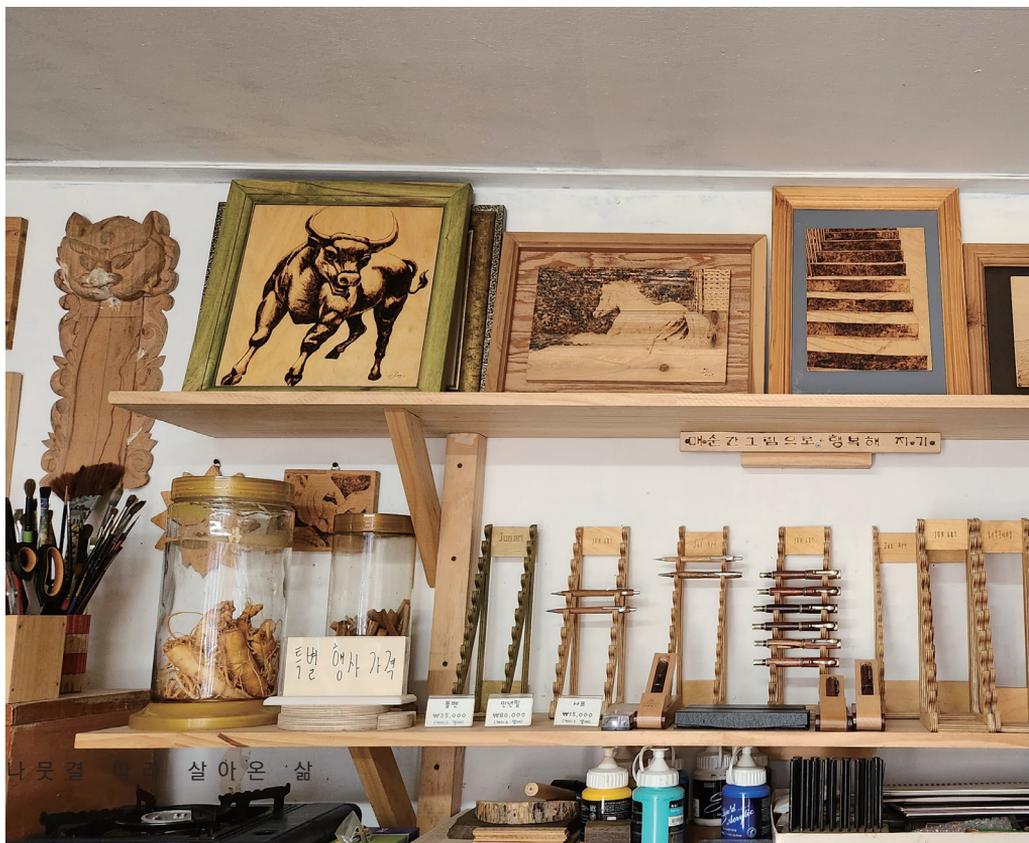
그것도 참, 그러니까 벽화도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는 형님이 그림 그려달라고 해서 뜻하지 않게 그림 그렸는데 그게 재미 있어서 그 분야로 뛰어들었듯이 실은 버닝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니까 나무 태우는 게 좋으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드펜 같은 경우는 옆에 지인분이 “니가 목공예 (마을에) 있으니까, 이 분들 하고 겹치지 않기도 하고. 손재주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받아서 뜻하지 않게 그냥 “우드펜? 나 잘 모르는 분야인데.” 마침 이 밑에 서울공예 사장님 아는 분이 우드펜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그냥 “전화 통화 한 번 하자.”고 그래서 그날 바로 술을 한잔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제 공방에, (우드펜 제작) 기계를 여기다 갖다 놓고 “우드펜 하는 걸 알려주겠다.” 하셔 가지고 그분 기계를 다 갖다 놓고. 또 그분이 아는 수제펜 만드는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거를 바로 그날 또 사러 갔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고 자연스럽게 그 스승님한테 전수를 받은 거죠. 전수 받고 한 달 정도 됐나,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손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드펜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런 게 있긴 있나 봐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안 하려고 하면 막 끔찍이 안 하는데 막상 뛰어들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드펜 제작에도 목재가 정해져 있나요?

단지 일반적인 나무는 쓰지 않고요. 특수목이라고 그래서 시중에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나무들을 많이 활용하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무 종류는 되게 많아요. 책에서 봤는데 만여 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무는 색깔이 자연적으로 속이 빨간 나무 있고, 노란 나무도 있고, ‘퍼플하트’라고 해서 보라색 나무도 있어요. 흑단이라고 검은 나무도 있고요. 흑단은 특히나 물에 가라앉아요. 애네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막 타공이 돼 있어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수축 팽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흑단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뜨거든요. 돌처럼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공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단단해서 가공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가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구 업을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쓸 수 있는 나무가 100여 종도 안 된대요. 나무 수종은 만여 종인데 백여 종밖에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드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드펜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그거죠, 여러 나무를 접해볼 수 있다.



그리고 우드펜은 말 그대로 펜이잖아요. 펜은 우리 인간하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글씨를 쓸 때,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 ‘파일럿트’ 해서 잉크병 놔두고 만년필 촉에다가 대를 따로, 나무로 만들어서 펜촉 이렇게 끼가지고 잉크 콧 찍어서 글씨 쓰고 했던 기억은 누구나 다 있을걸요? 것처럼 우드펜으로 만년필도 제작이 가능하고, 볼펜도 제작이 가능하고, 샤프도 제작 가능하고. 특히나 중요한 사인할 때는 대부분 다 수기로 사인을 하잖아요. 펜은 우리 인간하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녔고,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용으로도 좋고. 나무에다가 레이저로 각인을 해서 드리면 더 좋아하시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펜인데, 거기에 본인 이름까지 있으면 세상에 진짜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더

의미가 있죠. 나무가 주는, 저희한테 주는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껴지는,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드펜을 제작할 때 어떤 경로로 그런 특수목들을 들여오세요.

목공예마을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투리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쓰고 남은 나무도 있겠지만, 본인이 가구를 제작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갖고 있자니 짐이기도 하고. 제가 우드펜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저한

직접 작업한 우드버닝, 우드펜 작품



테 나눠주세요. “이런 자투리 나무가 있는데 이거 어디다 뭘 만들 수도 없다. 펜은 소량의 나무만 있으면 되니 니가 이 나무를 갖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특수목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물론 구매한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꽤 커요.

명명(命名)은 아내로부터

선생님 ‘준아트’ 공방은 선생님 성함에서.

이름 끝자, ‘이현준’이니까 ‘준아트’ 해 가지고.



우드펜 작품 사진

여담이지만 개명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개명하시게 된 이유는 있으세요?

그거, 와이프가 원해서요 (웃음).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갔는데 이름 세 개를 인터넷에서 개명하시는 유명하다는 분한테서. 이 이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고 하길래, 제가 끝자가 동자였으니까 그래서 준, 이현준, 현준이 나온데 그래 갖고.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개명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자.” 그래 갖고.

실은, 저도 안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 셋이 ‘현’자까지는 다 돌림자인데 큰 형이 ‘이현근’, 둘째 형이 ‘이현찬’, 제가 ‘이현동’이었는데 마침 옛날에 용현동 살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용현동’이었잖아요. 근데 나이는 먹어 가는데 동자라는 이름이, “현동아, 현동아.” 이러는데 무슨 애 취급하는 것 같고. 그때 거의 40대 조금 넘어서 개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혹(不惑)이라는 나이에 너무 아이스러운 이름보다는, 그래

도 마침 와이프가 난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개명이나 해.”라고 던진 한마디가, “현준이 괜찮은데.” 뜻하지 않게 개명을 하게 됐죠.

사모님 리더십이 있으신 거 같아요. (웃음)

저를 많이 케어해요. 제가 미용실에 안 간 지도 오래된 게 와이프가 제 머리를 깎아준 게 꽤 오래 됐죠. 슈нау저 두 마리를 키웠는데, 애들 키우다 보면 미용을 직접 맡기는 게 아니라, 미용기를 사거든요. 와이프가 저한테 실험을 했어요. 개 머리 깎던 그 기계를 제 머리에다 깎았으니까요, 똑같은 기계 갖고. 처음에는 약간의 실수도 좀 하고 그랬는데 (모두 웃음), 이제는 거의 프로 수준이 돼 가지고. 지금은 그 강아지들은 떠나보냈고. 그래도 한 17년, 15년 둘 다 키웠으니까 사람 나이로 치면 굉장히 고령이죠. 17년이면 거의 90살, 거의 그 정도 되니까요. 개네들 떠나보낸 지가 벌써 한 3년, 4년째 되거든요. 아직도 와이프는 “더 이상 개는 안 키운다. 남은 개라고 너밖에 없다.” (모두 웃음) 제가 개띠고요, 집안에 개가 두 마리였다가, 아니 세 마리였는데 두 마리 가고 “남은 개는 너밖에 없으니 너라도 케어를 잘 받아라.” 이제 이런 거죠, 뭐.

잘 어울리세요. 미용실 가면 사실 이렇게 깎아달라고 요구하기에도 힘든 헤어스타일 같으신데요.

저는 요구 못해요. 그냥 “앉아.” 그러면은. 저는 나름 헤어 스타일에 대해서는 해보고 싶은 건 다 했었어요. 삭발도 해봤고. 지금 이 머리도 와이프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머리니까.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빌려주면 알아서 헤어를 다듬는 거니까, 저도 만족을 해요.

그러시면서 두 분의 사랑은 싹 트시고. (웃음)

머리로 싹 트나요? (웃음)

벽화 하시면서 사모님도 만나시게 되신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2000년 초반쯤 되겠네요. ‘거리미술’이라는 이진우 대표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하고 만나게 된 것도 참 웃겼어요. ‘벽화쟁이’라는 간판을 걸고 제물포에다가 사무실을 차린 거예요. 한참 얻어 놓고 안에서 캔버스 앞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데, 문 앞에서 그림자 하나가 이렇게 올 듯 말 듯, 들어올 듯 말 듯 이러는 거예요. ‘뭐지?’ 그러면서 딱 열었어요. 그분이 키가 좀 커요. 앞에서 팔자로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려고 있더라고요. (웃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형도 바로 옆 건물 3층에서 벽화를 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벽화쟁이’라는 허연 간판을 내거니까 관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왔대요. 근데 또 마침 이 형님이 그때 인터넷에서 ‘벽화 동호회’ 이런 거를 막 개설을 해가지고 활동하고 그랬던 거죠. 저보고 가입하래요. 그래서 가입했죠. 말 그대로 코가 찢던 거죠.

그 형님이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은 자원봉사를 하러 다니셨어요. 저는 상업 벽화를 그동안 해왔던 사람인데 자원봉사라는 게 말 그대로 자기의 자본과 자기 기술을 동원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상업 벽화는 계산적이잖아요. 돈에 맞춰 줘야 하고 어떤 그림도 그 거에 맞춰서 그려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거라면, 자원봉사는 아마추어의 세계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사람들이 봉사하러 나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제 입장에서는 봤을 때 너무나 신선했던 거예요. 저는 한번 꽃히면 거의 올인하는 스타일이라서 생업을 팽개치고 자원봉사를 쫓아다녔어요.

하다 하다 나중에는 그 형님 일, ‘벽화 제작 교실’이라는 수업 책임 강사도 하고 자원봉사 벽화를 하러 전국을 돌면서 했으니까요. ‘거리미술’이라는 그게 전국구예요. 전라도에 ‘이번에 공사가 있으니까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차도 제 차로 가서 그림 그리고 올라오고. 근데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뒤풀이가 꽃이니까, 뒤풀이가 재밌잖아요. 그림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꽃 피우다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동암 쪽 어린이집에 벽화 그릴 일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때 처음 벽화 봉사하러 나왔던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다음 날 모닝콜 해달라고 하니까 모닝콜 해주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져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림을 전공했는데 자원봉사를 한다는 마음만 있다면 좋다. 자원봉사 많이 한 걸 보면은 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모닝콜 해달라고 했던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지금도 벽화 작업하시는 데 많이 참여하세요, 사모님도?

그럼요. 많이 싸우죠. 같은 계통에 있으면 그림 스타일이나 풍이라든가.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정식 코스를 밟아서 해왔던 완전 전공자고, 저는 사이드적인 접근을 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좀 있었죠. 없을 수가 없죠. 한 지붕에 사는 사람이니까. 든든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하고 또 위로도 되고.

**젊은 세대가 숭의 목공예마을 장인들에게,
그리고 나무를 바라보며**

이분들 한편으로는 존경스럽죠. 어떻게 보면 목공이 가공이 쉽다고 하기도 하지만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날물’이라고 그래서 톱니를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예전에 저희 협동조합 뒤풀이할 때 서로 꼭 자랑스럽게 “내 상처는 이거야.”라고 보여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다들 그 당시에 큰 상처이기도 하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엄지의 절반이 없으시기도 하고, 배 어느 부분에 톱니자국이, 나무가 이렇게 훑고 지나간 자리. 이런 것들을 다 훈장처럼 갖고 계신데. 실명(失明)될 수도 있어요. 나무를 켜다가 나무가 역으로 팽 튀어 올라올 때는 총알처럼 빨리 날라오거든요. 눈을 찌르면은 그냥 실명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밀다가, 툄 때는 명치를 맞으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숨 못 쉬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래도 이 몇십 년을 굳건하게 그렇게 해 오시는 거 보면 존경스럽죠.

목공일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

딱히 목공예에 대한 철학이라는 거는 없고요. 그냥 나무가 있으면 편해요. 산에만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생활에 우리가 어딜 가도 나무가 다 존재하잖아요. 철학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고 그냥, 편한 거. 이런 판재 하나도 죽은 것 같지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애네들이 수축 팽창을 해요. 비가 오는 날 습도가 높으면 애네가 머금어요. 그랬다가 다시 쨍쨍하면은 애가 또 팽창하고 이런 거예요. 죽어서도 편안함. 어떻게 보면은 늘 그냥 한결같고, 하는 데까지 하는 거구나.



준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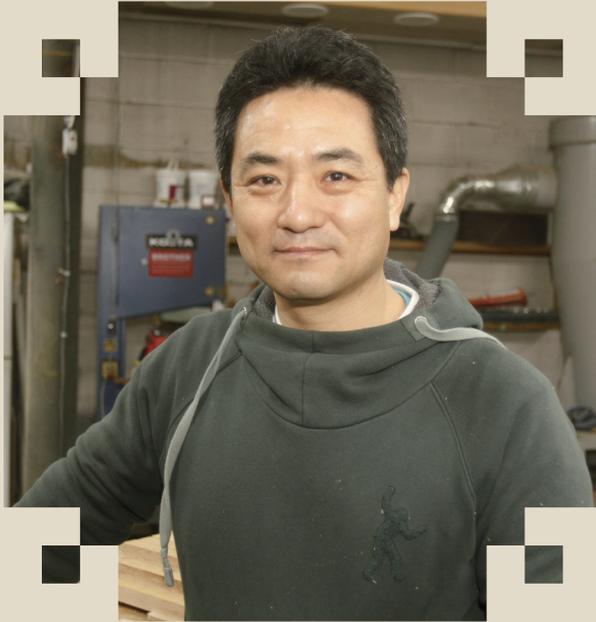
주요작업 : 벽화, 우드버닝, 수제 우드펜 작업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1

목공, 교육으로 꽃 피우다

100세까지 나이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가 시작한 일이에요. 어떤 가구를 짜 맞추고 판매하는 개념보다는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맞추고 싶어요.







아셀트리 목공방 서 희 원 (1976년생)

20대 후반 4년 정도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 끝에 목공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승의목공예마을에 온 지는 1년이 되었으며,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목공 교육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9월 21일, 22년 10월 5일
면담, 원고정리 조연희
면담지원 최지은, 이혜숙

목공인의 길을 걷게 되다

이곳에 온 지는 이제 1년 됐어요. 목공을 시작하고 막내를 낳았는데, 막내 아이가 6살이니까 6년 됐네요. 그전에는 제가 20대 초반에 공군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했어요. 군 근무를 하다가 20대 후반에 전역을 하고 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부를 하고 또 그쪽 관련 업종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친한 동생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고서 그때 삶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인가. 그러다가 물질에 쫓아가지 않고 내가 있는 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삶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종교적인 이유로 노인복지 쪽으로 어르신들하고 한 7년 정도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다시 인천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인천에 올라와서 무작정 시작한 게 목공 일이에요. 어릴 적 꿈은 여우 같은 아내를 만나고 토끼 같은 자식 셋만 낳자 했는데 진짜 딸 둘 아들 하나, 셋을 낳았어요. 일단 반을 이룬 거죠. (웃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실 제가 직장생활을 노인복지 쪽으로 일을 하고 올라왔을 때,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으며, 뭘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회사를 들어가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또 제2의 인생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늦게 시작한 거 백 세 인생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때 찾은 게 목공이에요. 앞으로는 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목공 체험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목공을 좀 늦게 시작하셨는데,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기술을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게 없어요. 이제 주문 제작으로 가구도 만들고 그러는데, 옛날 가구를 조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통 방식으로 제가 배우진 않았지만요. 뭐 그 외에 다른 형식으로 가구를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혼자 터득했어요. 예전에 인테리어를 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게 구조적으로 맞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냥 보기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조적으로 오래 가고 튼튼해야 되거든요. 제가 설계 쪽을 공부해서 이걸 나무에 접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형제가 3남 1녀거든요. 형제들이 손으로 뭐 만들고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취미가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목공으로 찾게 됐죠. 그런데 사실 취미로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숙련 기간이 필요하겠단 싶어서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안 걸고서 목공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누구한테 배우기보다는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구나, 저건 저렇게 하는 방식이 맞구나.’ 터득한 거죠.

제가 하는 건 전통 짜 맞춤* 방식은 아니고요. 전통 짜 맞춤 방식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가의 배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생활에서 일반 가구 만들 때 사용되는 방식들 위주로 터득했어요. 원래 가르치는 것에 콘셉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생활에 주로 쓰이는 가구의 조립 방법이나 그런 위주로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한 게 맞나 안 맞나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실생활에서 침대나 농과 같은 주로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 위주로 터득해

서 주로 만든 것도 생활 가구였어요. 물론 뭐 인테리어 현장에 가서 더 큰 것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집약체가 가구예요. 또 “의자를 만들 줄 알면 웬만한 가구는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도 계시는 데 맞는 것 같아요. 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구 만들 때 피스 조립하듯이 해서는 내구성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승의 목공예거리에 공방을 열다

형제들이 목공 쪽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니깐 장비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맨 처음 집 옥상에서도 만들고 했는데, 옥상에서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다치니깐 안 되겠다라고요. 장비를 들 곳을 찾다가 지금 공방 뒤쪽으로 한 10분 거리에 창고 식으로 조그만 공방을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사업장 규모의 4분의 1도 안 됐는데, 침대 길이가 기본 2m거든요. 거기서는 진짜 일하다가 장비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 했었어요. 그때 작업 공간에 너무 치여서 좀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 싶더라고요. 장비도 여러 개 두고 싶고 그런 고민들이 많다 보니 저도 여기저기 찾아봤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리가 났어요. 물론 집에서 가까웠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 때 회사에 대한 네임벨류*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가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 제가 여기서 평생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 갔을 때 “인천에 목공예 거리를 몰라?”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목공 장인들이

많잖아요. 물론 저는 길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도 있어.’라는 네임벨류라는 건 무시 못 하거든요. 저는 전자제품으로 따지면 삼성 LG가 있듯이 이 목공 쪽으로 인천에서는 목공예거리가 있고, 거기에 일원으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껴요.



아셀트리 공방 내부

만드는 것에 따라 사용하는 기계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은 갖췄는데 예전에는 갖춰지지 않아서 참 힘들었죠.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장비 있는 업체에다가 부탁하는 식으로 제작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는 다 중고로 산 거예요. 보통 일본 아니면 독일 거 많이 쓰시는데 제 것 같은 경우는 다 국내산이에요. 딱히 선호하는 제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능적인 부분을 봤어요. 공방 준비할 때 메이커를 보고 고

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생활에는 또 아직 저 같은 수준에
는 그냥 이름 있고 그런 것보다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장비 가지고도 충
분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터득하셨어요?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냥 기본 일단은 모든 기계가 수직 수평이 맞아야 돼
요. 그러니까 세팅만 잘해놓으면 다른 거는 사실 안전만 주의하면 사용하
는 데 문제는 없거든요. 또 원래 항공정비 쪽으로 해서 기계 만지고 그런
거는 크게 겁내고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제가 운용하는 거 하고 안전은 또
별개거든요. 사실 저도 기계를 만지다가 살 떨릴 때가 있어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면 같은 작업을 하는데도 어제
는 괜찮은데 오늘은 또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한 번
쉬어요. 괜히 무리했다가 다치고 그런 것보다는 딱 안전이 먼저니까. 그래
서 다른 공정 먼저 하고서 좀 느낌이 괜찮다 싶을 때 그때 해요. 물론 이게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다른 것보
다 업에 있어서는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셀트리, 목공 교육의 시작

아셀트리 이름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12지파*가 있어요. 그중에서 한
지파가 아셀 지파인데, 아셀의 뜻이 ‘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이라는 뜻이
예요. 그래서 제가 목공을 하니까 뒤에 트리라는 영어를 붙여가지고 ‘복을 주
는 나무, 기쁨을 주는 나무’라는 뜻으로 아셀트리라고 지었죠. 근데 어르신

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발음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상호를 아셀 나무로 할까도 했어요. (웃음)



아셀트리 상호

아셀트리에서 주력하는 목공 분야는 무엇인가요?

교육 위주로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도마나 소품 같은 걸 주로 만들어요. 할로젠 등을 전등으로 해서 초를 녹이는 워머도 만들고요. 연기가 안 나서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겨울에는 방을 온기로 따뜻하게 해주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체험할 때 접목을 하려고 만들고 개발하는 거예요.

굵은 나뭇가지를 있는 그대로 사용해 만든 워머



예전에는 사실 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요. 사실 먹고살기 힘들었잖아요. 물론 우리 아버지 세대 때지만 여가 활동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죠. 물론 제가 어린이도 가르치고 있지만, 문화생활을 노년이라도 좀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물론 어린이들 교육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은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추는 거고, 요즘에 이제 그런 취미 활동으로 많이 하니까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배우는 이유가 결국에는 직업 훈련이나 마찬가지로요. 어떤 걸 할 건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대학까지 나오지만 결국에는 “목표가 뭐야?”라고 했을 때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공무원 저는 그거를 개념으로 봤을 때 교육을 배우는 건, 사실은 직업 훈련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을 가르칠 때는 좀 더 폭넓게 ‘이런 세계도 있다, 이런 분야로 내가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시키고 싶기도 해요.

세대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그냥 어떤 가구를 짜 맞추고 판매하는 개념보다는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거, 또 삶의 목표를 맞추는 거에 저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게 맞나 고민이 많아요.

체험을 시작한 건 오래되지 않으셨네요?

네, 여기 와서 시작했죠. 제가 단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니까 숙련하면서 터득 좀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교육할 때 접목해서 좀 디테일하게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 했거든요. 그래

서 한 4년 반, 5년 동안은 그쪽에 치중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 이런 분야는 내가 가르쳐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체험 쪽 까지 같이하게 되었죠.

처음 교육을 했던 수업은 예전 공방에서 한 첫 개인 레슨인데, 조그마한 선반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들고 싶다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공간이 작으니까 완성한 제품을 밖에 진열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조그만 선반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만났던 그분하고 지금도 연락이 되시나요?

주로 우리 자동차 사면은 아시죠? 차 판매업자하고 같이 오랫동안 연을 맺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취미로 호기심에 이것도 만들고 싶고 저것도 만들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자기가 그걸 만들어가지고서 좀 가격을 다운시키고 싶으신 마음에 오셨거든요. 이게 이제 차이가 좀 있죠.

필요할 때 ‘나 이거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은 오시겠죠. 늘 항상 365일 만들고 싶은 게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외부 출강도 나가시는데, 주로 어떤 수업을 하세요?

목공이죠. 학교나 문화센터로 나가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바짝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작업을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어린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다 보니 목공 출강을 나갈 때는 1시간 타임으로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요.

판로 개척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영업 비밀까지 이야기해야 해요? (웃음) 농담이고요. 블로그나 SNS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한 게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교육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어서 영상도 만들고 체험 키트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도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들 좋아하셔서 체험을 나가는데, 저는 사업가 마인드도 있어야 되니까 항상 불안하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데이클래스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목공 체험을 시작하자 했을 때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제가 단체로 출장을 나가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기에 와서 체험하실 분들도 필요하잖아요. 니즈가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나가서 만나는 분들 같은 경우 자기 선택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직접 이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가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도마나 전구, 스탠드 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우드카빙*이라고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뒤집개나 젓가락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체험을 하면 좋을지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공방에는 사장님만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인테리어 소품들이 눈길을 끈다.

우드카빙도 따로 연마 하신 건가요?

시간 날 때 연습했었죠. 사실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혼자서 깎으려고 그러면요. 몇 시간은 걸려요. 그러고서도 만족도가 잘 안 나오는 분야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장비가 있으니까 틀을 만들어주고 다듬기를 체험하게 하죠. 그 수준까지 가야지 처음부터 막대기 하나 주고 “이거 깎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며칠을 해도 힘들어요. 그래도 나무만 만지니깐 탄생각은 안 들잖아요. 미션이 주어지면 정신은 맑아져요.

체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늘 숙제예요. 그래서 서칭하다가 접목해 보면 괜찮겠다 싶은 게 생기면 산에 돌아다니다가 나무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보고,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는 거죠. 소품 같은 것도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보고요.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만들면 만족감이 달라요. 뿌듯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길게 봤을 때 아직은 초기 단계잖아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은 좀 구축하는 단계이지 활성화 단계는 아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커리큘럼도 필요하고 또 교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공 체험은 어떤 교수법을 가지고서 하는 게 맞나 그런 걸 지금 또 체득*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길게 봤을 때 감히 몇 년 하고서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특히 전문 분야 쪽은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보는 것과 다른 걸 보시나 봐요?

제가 인테리어를 할 때는요. 집에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먼저 봐요. 근데 소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품을 먼저 보거든요. 자기 관심 분야가 먼저 눈

에 띄잖아요. 저 같은 경우 식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잖아요. 좋은 나무가 없나 찾아봐요. 썩은 나무도 ‘활용하면 되게 예쁘겠는데.’ 그러고서 주워서 와요.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병이에요. 직업병. 거룩한 직업병이죠.

체험을 할 때는 미리 재단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하시나 봐요.

조립만 할 수 있게 준비해요. 체험할 때는 재단까지 다 해놓고 그다음 과정은 어쨌든 목수가 하든 누가 하든 다 해야 되는 불가피한 공정들이 있거든요. 사포질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시키면서 조립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직접 재단하는 건 고급 과정인데, 고급 과정까지 가려면 오래 걸려요. 저도 숙련도 있게 하려고 연습한 시간이 4~5년이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이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안전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장비는 함부로 못 만지게 해요. 안전 교육을 충분히 몇 번을 되새기고 가르치고 나서 이 정도는 댔겠다 싶을 때 제가 장비를 만지게 해요.

목공 교육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많은데, 사실 목공을 하면서 최고의 강점이 뭐냐 하면요. 물론 이렇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치열하거든요. 근데 체험을 하시는 분은 또 달라요. 체험하시는 분들은 사실 심적으로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면 많이 힘들어요. 일종의 스트레스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거든요. 근데 목공을 하다 보면 그런 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다른 거

를 할 수 없게 계속 미션을 줘요. 목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도 뒤따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장시간 목공 체험을 하지는 않지만, 며칠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단계를 나눠 가지고 하다 보면 머리가 되게 맑아진대요. 그런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잠 못 자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목공 작업을 하면서 날아갈 것 같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그런 나약함에서 건강해지고 목공 체험하시는 분들이 하나 같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걸 보면 뿌듯하고 좋죠.

목공 공방을 하기를 잘했다 싶은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늘 항상 느끼죠.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 목공을 시작하게 된 취지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복지를 하다가 나왔을 때,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였잖아요. 100세까지 나이에 제약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가 시작한 일이라 만족도가 높죠. 주위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보면 내가 원치 않게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펜대만 들고 있다가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걸 이야기로 많이 들으니까 ‘내가 목공 분야를 하길 진짜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해줘서 받는 만족도와는 좀 달라요.

재료를 선택할 때도 고객의 니즈를 먼저 생각하다

선호하는 나무가 있으세요?

선호하는 거는 보통 원목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집성목*하고 제재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나무를 바로 켜가지고서 건조시킨 원목을 제재목이라고 해요. 제재목을 만질 때가 사실은 제일 재밌죠. 근데 가구를 만들 때는 이제 일률적인 사이즈가 나와야 되고 두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집성목이라고 해서 나무하고 나무를 붙여가지고서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선호한 거는 이런 원목으로 만든 제재목이지만, 실제 제가 가구를 만들고 그럴 때는 그것보다는 비중이 집성목으로 하는 것에 집중을 많이 두죠. '재밌게 뭘 만들고 싶다. 시범 삼아서 이거 해보고 싶네.' 그런 게 있을 때는 제재목으로 만들어요.

나무 수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때그때 찾아서 하는데 주로 제가 하는 거래처가 있긴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저렴한 데를 찾아보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거리가 머니까, 거리상으로나 제가 쉽게 그때그때 수급할 수 있는 데는 주로 김포 쪽 강화도 쪽이 많아요.

인터넷으로 찾는 곳은 보통 목공 취미로 하는 그런 카페들인데, 거기에 입점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 만들기도 하고요. 물건을 수급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급하지만 않고, 배송비에 대한 제약이 크게 없으면 인터넷이 폭이 넓죠.

목공본드는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주로 국내용을 많이 쓰고요. 오공205본드*라고 그래요. 그걸 많이 사용해요. 사실 좀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친환경

적이고 또 업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본드예요. 월등히 성능이 좋다고 보다는 이제 가성비 부분인 거죠. 가격도 갖추고 있고 또 기능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걸 만들 때는 저 본드를 잘 지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것보다는 일단은 가구는 강도가 좋아야 되고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본드를 사용해요. 그런데 국내 제품은 아니고 외국 제품인데 타이트본드*라고 있거든요. 거기 거를 많이 사용하죠. 제가 사용해 보니까 건조 시간은 오공본드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강도가 좋아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본드는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도마를 옛지그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도마는 집성하다 보니까 타이트본드를 사용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식자재를 사용하는 거라 본드가 좀 찢찢할 수 있잖아요. 외국 FDA 승인* 받은 본드를 사용해요. 그나마 기준치에 적합한 것이겠죠. 이런 기준에 맞는 본드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가구 본드는 또 달라요. 같은 브랜드라도 넘버가 달라요. 고급 라인일수록 가격이 비싸고요.

아무래도 도마니까 물이 계속 닿는데 나중에 틀어지거나 떨어지지는 않나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가구로 만들고 그럴 때도 사실 수분하고 원목하고는 상극이거든요. 그나마 그거를 보강한 본드가 지금 사용하는 본드예요. 야외에서도 어떤 걸 집성해가지고 세팅하거나 제작할 때 사용되는 본드예요. 많이 비싸요. 그래서 저도 아껴 써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본드를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검증된 본드예요. 아무래도 인터넷상에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양에 제가 맞

취주지 않으면 저도 판매를 못 해요.



맨 위 오른쪽에 있는 도마가 옛지그레인 제품이다.

도색을 할 때는 어떤 걸 사용하세요?

제가 써보니까 수성은 요즘에 잘 안 써요. 도장은 주로 수성하고 유성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유성이었죠. 근데 유성 같은 경우는 희석제가 신나*인데, 신나를 사용하다 보니까 매우 독해요. 이게 신경계를 건드려서 머릿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이를 보완하려고 친환경적으로도 나

온 게 수성이예요. 수성 바니쉬*라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좋긴 좋아요. 제가 또 이제 그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좋은데 수성은 코팅력이 좀 약하다는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수성이나 유성이나 칠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코팅력이잖아요. 외부 오염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코팅력인데 수성 코팅력은 유성만큼은 안 돼요. 희석하는 것도 유성 같은 경우는 신나로 하는데 얘는 물로 희석하니 그만큼 코팅력이 약해요. 또 때가 잘 타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유성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나니까 기능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유성으로 도장을 하고요. 안전을 더 우선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수성을 써요.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는 되게 대충대충 하는데 작업할 때 그럴 때 좀 되게 예민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내 작품을 만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의 의뢰를 받아가지고서 만들 때는 나중에 또 그런 문제점이 피드백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방어를하려고 좀 꼼꼼한 편이거든요. 다른 분이 만든 거를 평가를 하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셨네.’ 하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 이제 뭐 백화점이나 그런 데 돌아다닐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구 같은 거 진열한 곳을 가면 그런 게 다 눈에 보여요. 이제 큰 그림은 사실 잘 안 봐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세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작업하기 힘든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좀 과할 정도로 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테이블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예쁘다 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막 다리 밑을 본다던가 그래요. 그런 게 직업병이

라면 직업병이겠죠.

또 목공 쪽은 아무래도 기관지 쪽이죠. 그래서 늘 항상 작업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관지가 많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늘 항상 보기에 칼칼하죠.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이제 또 도장 작업할 때는 어쨌든 유성 제품 같은 경우는 신나를 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신경계를 많이 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럴 때 있죠. 제가 전체 공정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도장 작업이에요. 칠할 때 제일 싫어요. 너무 싫어요. 적응이 잘 안 돼요. 보통 후각이 민감하다고 해도 제일 무더지는 게 후각인데,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체험할 때는 도장 작업은 패스하거나 수성으로 해요. 사실은 고급 제품으로 넘어가거나 단계를 업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오일을 발라야 돼요. 이제 고급 오일들이 있는데 보통 외국 고재*나 고급 가구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오일로 마감하거든요. 그게 더 오랫동안 관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전통 짜 맞춤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아직 기회가 안 되나 봐요. 어떤 딱 맞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 플랜이기는 한데, 이제 목공 체험을 할 때 사실 지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들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 같은 경우 가끔씩 제가 유튜브를 보거나 영상을 볼 때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지금도 힘든 과정인데 손으로 다했지.’ 그거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거든요. 정말 그 옛날 분들은 정말 대단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몇백 년 전이 아니고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라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구를 만들고 뭐 구조를 만들고 제가 볼 때는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짜 맞춤이나 그런 수공구를 전동 공구가 아니고 수공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고 싶은 바람이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고상하잖아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 나 혼자서 탕탕탕 망치질하고 끌* 가지고 톱질하면서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짜 맞춤 의자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의자는 정말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짜 맞춤으로 하게 되면 정말 탄 데 없는 그런 의자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 동양 방식은 아닌데 흔들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체어 만들 때 되게 디테일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유튜브나 그런 영상 보면서 하라고 그러면 하겠죠. 어떻게든 하긴 하겠는데 정말 내가 수작업을 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이 커서 아빠처럼 목공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은 말고 내가 기반을 좀 잡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목공만이 아니라 다른 공예 쪽으로도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늘 항상 아침에 인사하는 게 “잘 놀다 와.” 그러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있는 위치에서 즐기고 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목공을 하고 싶다면 물론 경제적으로도 좀 그런 수익 창출이 좀 받쳐줘야 되겠지만 좀 즐길 수 있는 것을 업

으로 두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본인의 바람이 그렇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승의목공예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는 어떠세요?

제가 목공을 할 수 있기도 했지만,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숙련하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다면 목공 쪽 분야 또 공예 쪽 분야가 여기에 많이 들어올수록 좋아요. 목공 쪽을 또 업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 인테리어 현장이나 그런 데 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존경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정말 실력은 좋으신데 돈 안 되는 데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공방 운영을 하는 게 사실 큰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높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세대교체가 되고 나서는 아마 다른 분야에 그런 공예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정말 재미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환경은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아요. 목공예거리 뒤편에 골목도 걸어보셨어요? 전 너무 좋아요. 진짜 어디 가서 쉽게 볼 수 없는 골목이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그냥 힐링인 것 같아요. 어디에도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그거부터 좀 살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숙제가 많죠. 뭐냐면은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공중시설들이 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되게 열악해요. 여기는 그나마 재래식이라도 화장실이 있는데 저기 아래쪽은요 화장실도 없어요. 편의시설만 제대로 만들어 놓고 활성화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뒷골목 돌아다니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아 그 뒷골목이. 그리고 그 골목이랑 목공예센터

앞에다가 플라마켓을 해도 얼마나 재미있어요. 사장님들 공방마다 특화된 것 중에 내놓을 만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팔아도 되고 재미있는 거 많아요. 근데 화장실 없으면 짱이에요.

제가 꿈꾸는 거는 뒷골목은 있는 그대로 살리고, 편의시설 만들어 놓고 버스킹 공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 딱 마시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고 체험하고 사진 찍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인사동처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물론 하드웨어 쪽으로도 좀 세련돼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되면은 목공예거리가 제2의 전성기가 될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나무를 접한다는 거, 나무를 취미로 생각하고 나무를 삶에 접목한다는 건 되게 고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물론 상업적으로 이런 나무를 만지기도 하지만, 원목을 만질 때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 고상함을 삶에 잘 접목하고 또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숭의 목공예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그런 고상한 취미를 갖고 싶고 고상한 가구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아셀트리 목공방

주요작업 : 목공체험공방, 인테리어소품, 가구맞춤제작
위치 :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17

차세대 목공산업으로 전환할 때

현재 목공일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좋아요. 90% 이상이죠.







송의목공예센터 박 승 화 (1971년생)

IT 회사에 다니다가 40살 때 목공 일로 진로를 바꿨다.
우각로 문화마을을 계기로 지역에 자리 잡아 토지금고시장, 송의목공예거리,
송의공구상가에 공방을 운영해왔으며 현재는 송의목공예센터
센터장으로 목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면담일시 22년 6월 29일, 22년 12월 15일
면담, 원고정리 표기자
면담지원 허은영, 최지은

목공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우선 본인 소개부터 해주세요.

저는 박승화이고, 오십 하나고 고향은 충남 청양입니다. 청양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외지 생활을 했어요. 천안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은 경영학과 MIS 나오고, IT(정보기술) 전공을 해서 IT 회사를 한 10년 다녔어요. 그런데 IT 쪽이 변화가 너무 심해서 계속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로를 바꿔야겠다 싶어서 딱 40살 때 바꿨죠.

우리 집 주변에 목공방이 있었는데 거기 지나치면서 ‘저런 거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바로 위에 형하고 나무로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요. 썰매, 팽이, 연 이런 거를 다 만들었고 바로 위에 형도 나무로 만드는 것 좋아하고. 그래서 목공방에서 만드는 것 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찾아가 한 번 목공예를 배우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IT를 접었죠. 부천에서 개인 사업으로 목공방을 시작해서 현재는 승의공구상가 쪽에 있고 일 시작한 지 10여 년 됐죠.

목공 사업 이야기

목공 일 시작 초기 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개인 목공방 개업 전에 한 1년 정도를 목공일 배웠는데, 싱크대 만드는 거, 백화점 카페에 들어가는 가구들,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1년 한 2개월 정도를 배웠어요. 직접 그거 만드는 회사를 들어가서 직접 부딪혀 가지고 다습

득하고 그다음에 더 배웠다가는 앞쪽에 배운 것들을 까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다른 것보다도 원목을 만지는 공방인데 그래서 부천의 역곡역 쪽에다가 가게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꾸며놓고 하니깐 사람들이 일부 오고 예술가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하다가 그때에 우각로 쪽 초기 세팅할 적에 그때 예술인들도 알게 되면서 ‘우각로 쪽에 목공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공을 하려면 공간이 좀 커야 되는데 여기 동네에는 목공예를 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랬더니 알아봐 준 게 전도관 공간을 처음으로 열어줬어요. 다른 예술가들한테 한 번도 안 열어줬는데 처음으로 그 공간을 내준 거예요. 대신 본인이 알아서 꾸며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화가 이현준 선생님하고 같이, 돈은 적게 들여야 되고 면적은 넓고, 그래서 벽에다 그림 페인팅하고 보수 작업을 하면서 꾸며놓고 시작했죠. 그때 수강생으로 우각로 주변 송의1, 3동 사람들이죠. 송의1, 3동에서 모집을 해준 게 첫 번째로는 대부분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많이 오고 초반에 교육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지기 시작했죠. 사실 목공은 각 동네마다 다양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용현5동에서 지자체 차치 교육 프로그램에 좀 넣고 싶다 그런 요청을 했고 장소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상인회 건물로 들어가게 됐어요. 토지금고시장 쪽에 정착을 하면서 부천에서 이사를 온 거죠. 용현동에 있으면서 토지금고 시장 상인들 매대 이런 것들 고쳐주고 환경 개선을 좀 해드리며 1년 반 정도 그곳에서 활동했죠. 그 후 송의동 여기 모던공예 자리 있잖아요, 거기 자리로 제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기 전에 이쪽 목공예 거리가 그전부터 약간 목공 거리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

진 측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라 조금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에 듣긴 들었지만, 선뜻 움직이기는 뭐했는데 어느 시점에 같이 활동하게 된 거죠. 여기서 가게에 있는 거는 한 2년 정도 있었을 거고.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었죠.

센터장님 개인 목공방에서 만든 제품은 어떤 것들이가요?

여기 목공예거리에 있는 분들하고 비슷해요. 가구 주문받으면 제작하고 또 소품 같은 거. 저 같은 경우 인테리어 쪽도 좀 배워서 그쪽 일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차후에는 지금 CNC라든가 그런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한 약간 전문적인 영역으로 만들어가려고요. 이것저것 주문으로다가 만드는 방식이 아닌 제가 상품화를 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한 발판을 삼으려고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목공예거리 말고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지금은 CNC 기계를 도입해서 사용해요.



개인 목공방 내부

직접 나무를 만져가면서 일하는 느낌은 어떠세요?

좋죠. 관심 있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밤새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이 목공 일이 좋죠.

현재 하고 있는 목공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세요?

만족도 아주 좋아요. 90% 이상이죠.

승의목공예센터에서 일하게 되다.

승의목공예센터에 어떤 계기로 들어오게 되셨는지요?

목공예센터는 작년 말에 공모가 떠서 경쟁해서 받아서 위탁 경영하고 있어요. 여기 목공예 건물 짓기 전에 창작 공방만 있을 때,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반(2014년경) 움직일 때 그때부터 들어왔어요. 용현5동에 있다가 옮기고 싶은 시점이 생겼어요. 용현5동 오기 전에는 승의동 전도관에서 처음 강의를 열어줘서 했고, 부천에서 용현5동으로 공방을 이전해서 움직이다가 승의 목공예마을에 오게 되었어요. 창작 공방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죠.

위탁을 받아서 이 마을에 들어오시게 된 거잖아요. 센터장님이 이곳에서 일과 활동을 하시면서 여기 현업에 종사하시는 목공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업력이 대충 30년 이상에서 40~50년까지 되는 분들이예요. 평생

이것만 하신 거죠. 그리고 배다리 쪽부터 쪽 해서 마지막에 송의 목공예마을에 정착을 한 건데, 이분들은 이게 평생 업이니까. 다른 가게들 예를 들어 중국집이 쪽 있으면 다 경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슷한 업종들이 쪽 있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오면 서로 자기 가게로 들이려고 하죠. 처음에 와서 장인분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조성하고 활동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초반에 와서 인사하는데 반갑게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굴러온 돌같이 재는 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러 다니느냐 이런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던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자고 하고, 계속 인사하고 하니까 쟀 뭐야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래도 인사하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그것도 잘 안되더라고요. 또 나이가 비슷하면 그냥 커피 한잔하면서 도란도란 얘기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할 공간도 작고 또 얘기도 잘 안되고. 저 혼자 하면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 컨설팅 업체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움직이니깐 그나마 빨쫂한 게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저도 초반에 부천에 잠시 있다가 올라와서 초반부터 여기 움직이면서 창작 공방에서 수업 진행하면서 장인분들과 같이 하고, 송의 목공예센터 짓는 것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된다고 조언도 했어요. 이런 모든 장비도 상의해서 다 목록화해서 목공 장비 들고 한 거죠. 그렇게 초반에 협동조합을 운영했어요. 여기 공예사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공방을 송의 로타리 공구상가 쪽 큰 데로 옮겼죠. 공구상가 쪽으로 옮기면서 그 공방을 사서 들어가 거기에 아예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협동조합 운영이 흐지부지되고, 결국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한 2~3년 보냈어요.

송의목공예센터장이 되신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목공예는 특수 영역이라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 힘들고 전문 업체에 위탁으로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처음 위탁 모집을 한 거겠죠. 근데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거 하면 또 옛날처럼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전에는 완전히 없는 상태였고 지금은 그래도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면 다시 살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도전해봤죠. 주변에서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죠.

지금은 처음에 시도하셨던 협동조합 시스템은 아닌 거죠?

이거는 비영리단체 ‘뿌리 깊은 나무’이고요, 그것도 한 8년 정도 됐죠. 원래는 동호회로 시작해서 취약계층 결손 가정 책상 등 만들어주고 어린이집에 책장 등 만들어 주고 했죠. 그 단체에서 여기 목공예센터에서 활약하는 사람은 저 포함 2명에서 일 보고 있어요.

현재 송의목공예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목공예센터에서는 목공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최적화된 장소로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현재 정규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들어가는데, 목공 분야를 세분화해가지고 기초, 심화 또 우드버닝 따로, 목선반 따로, 조각 따로, 서각 따로, 다 영역별로 있거든요. 나무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세분화시켜서 한 곳에서 가리키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가르치는 방법은 일단은 선생님들은 보통 여기 송의동 목공거리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지금 한 7~8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르치는 거는 이제 돼요. 초반에는 일만 하시다가 알려주는 거가 쉽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는 올랐죠. 물론 아직도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다는, 만드는 쪽으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베이스로 하시는 선생님들 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드는 능력은 훨씬 탁월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실제 적용하는 데는 더 낮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에 장점은 있죠. 현재 목공 일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이 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을 전문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능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요소를 메꿔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이 사계절 내내 진행하기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2차적인 거는 이벤트 교육 같은 거가 있죠. 낮에 1~2회 정도에 진행할 수 있는 도마 체험 또 간단히 애들하고 하는 체험 등등 그런 것들이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들이 있고 또 계층별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으로 실버, 아동, 장애인 그렇게 나누어진 체험 교육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진행이 있고 다양한 외부 기관에서 프로그램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나무를 만지는 센터로서 그거에 부합하게 움직여줘야 하기에 여기서 교육시킬 수 있는 건 여기서 교육하고 여기서 만들어서 어디다가 기증을 하는 거면은 또 되게끔 도와주고 이렇게 미추홀구에서 일어나는 나무와 관련된 활동을 전반적으로 연결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센터에서 업무 모습

센터에서 중요하면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 교육 분야네요. 교육을 할 때 기존 장인들의 수공으로 하는 방법하고 CNC나 레이저 접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그거까지는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센터가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요. 내년에 추진하는 과목 중에 청년 창업 과정을 하나 신설을 해요. 그 과목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과라든가 경제 지원과라든가 연결을 해서 청년들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우리 쪽에서 제안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기술은 센터에서 1년 동안 가르치겠다 이거죠. 충분히 정착을 할 수 있게.

그러면은 그 나머지 그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창업을 한다는 거는 돈도 필요할 거고 일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중에 기술은 이쪽에서 좀 담보해 주고 결국은 여기 목공예 쪽에 정착할 수 있게끔 1년 동안 수강료 2만 원을 거의 무료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술만 배우고 딱 데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를 1년 동안 하면서 여기서 씨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를 씨앗을 뿌려놔야 향후 5년 뒤에 그 친구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근처에서 움직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 세대 그만두면 이렇게 메꿔지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젊은 친구들이 할 때는 옛날 방식의 그런 거로는 안 되죠.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될 지속 가능한 업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시대에 변하는 거에 빠르게 대처하고 접근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하고 기기와 융합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 승산이 있고 옛날 건 옛날 뼈대로 기존 어르신들이 하면 되는 거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맞는 상품을 만들어내야죠.

목공 산업의 변화 양상

목공 산업과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추구하시는 방향하고 평생을 이쪽에서 일하신 목공인들하고 서로가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느끼시는 점 또는 그 변화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온 분야는 나무를 가지고 생활 가구적인 것만 해왔어요. 그런데 그 분야를 플라스틱이라든가 MDF, PB라는 다른 소재들이 그걸 대체해서 만들어 왔는데, 그 소재들이 환경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건강 때문에 나무에 주목하고 있는데, 단가가 옛날에 비해 몇 배가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비싸게 지불하고라도 지금은 나무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부가가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옛날 분들은 목공예분야를 가구적인 것에만 치중해요.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주로 나무가 가변성이 좋으니까 초반에 만드는 건 거의 나무로 만들어요. 모형 뜨고 그거를 다시 주물로 해서 나중에 대량 생산하는 거는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목형을 나무로 만들어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무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요즘은 TV를 감춰다가 버튼 하나 눌러오면 TV가 밑에서 쭉 올라오고, 애들 공부해야 하면 벽장에 있다가 문이 짝 열리든가 아니면 밑에 들어가 있다가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고 해요. 침대도 지금은 누르면 등 쪽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모든 생활 가구들이 기술 진화에 의해서 IT 적인, 전자기기적인 것과 결합해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런 제품들은 나무로 만들어야 고급스러운 거예요. 나

무가 아닌 플라스틱이나 MDF로 만들면 싸요. 나무제품에 IT 적인 게 적용 되면 엄청 고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일하는 거는 옛날 가구 주문 들어오면 그거나 짜고 하니까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뜨는 산업이에요. 지금은 나무로 만든 가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고급이어서 훨씬 비싸겠지요. 나무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무수하게 그런 좋은 나무 재질(나뭇결)을 써서 예쁘게 해서 브랜드만 붙이면 굉장히 비싸게 나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나무 자전거는 기발하죠. 자기가 타면 이 주변에는 자기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맛에 비싸더라도 타는 거지.

옛날에는 자르는 거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응용하고 했다면 앞으로는 컴퓨터가 대신해주니까. CNC나 레이저, 또 요즘 로봇 팔로 해서 입체적으로 깎는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CNC 정도는 일반화되고 있어요. 저도 도입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장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서 몇십 년 동안 현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IT 방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갭이 있겠네요.

네. IT는 컴퓨터 기반이라 연세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쉽지 않고, 적용하기 힘들죠. 이제 올해부터 시작인데, 올해부터 장인들이 그만두기 시작을 해요. 연세들이 많으셔서.

목공 1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의 세대교체 시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옛그저께 저기 홍조각 사장님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들이 이

제 생기죠. 올해 몇 분 그만두시고, 그만두시려다가 일단은 잠시 멈춰 계신 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꺼풀 벗겨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목공예 노하우들을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일부 물려주고 목공예마을이라는 것에 걸맞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공법도 바뀌고 세대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기존 세대의 마인드나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것은 중요해요. 높이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 하면 장인정신, 끈기. 이거는 내 업이려니 해요. 직업이기 때문에 게을리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아침에 정확하게 남들보다 더 일찍 오려고 하고.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이 손가락질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걸 내 업이니까. 그리고 또 자부심을 가져요. 원래 이런 일 중에서 목수나 목공예가 다른 모든 분야에 비해 최고로 쳐요. 목수를 하는 게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서요. 구조 짜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목수 양반이라고 부르는 게 그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안 되니까 약간 존칭을 해주는 개념인 거지.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그냥 자기 일하는 거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진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장인정신이 있어요. 주문 맡은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냥 지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기존 장인들이 지속적으로 안 했으면 여기가 쇠퇴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여기 있으면서 터를 지켜주고 업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거리로 남은 거죠.

숭의목공예마을과 목공 산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얘기하다

숭의동 목공예마을의 구심점이 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마을이 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이쪽 목공예 마을로서 향후에 시민들이 이 목공예를 좋아하게 되고 또 문화적으로 가치 있게 하려면 미추홀구의 큰 자산(자랑거리)이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목공예 교육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산업으로 봐야 하는데... 목공예센터 하나 가지고만은 약할 수가 있어요. 볼거리가 없어요.

장인들의 능력을 살려서 이 마을이 존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게는 센터나 창작 공방에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또 필요해요. 초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는 1층 작업실을 공동 작업장의 개념으로 쓰자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전시장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전시장을 꾸릴 거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먼저 알죠.

자기 가게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모두 다 전시해 놓고 그래야 아무래도 주문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여기서 더 뭐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공방이 작아서 진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은 온라인 장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죠. 매장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그 매장에 올리게끔 하고 거기에서 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를 찾아야죠.

앞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센터장님이 선봉에 서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의목공예센터에서 진행되는 목공체험 교육

송의목공예마을의 미래

여기도 일단은 제가 내년까지가 계약되어 있어요. 2년씩이니까 내년까지죠. 만약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다른 변화가 오고 하는 거겠죠. 지금은 좋은 기회가 뭐가 있냐면 도시재생이 여기에 물려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안에 목공예마을이 포함되어 있어서 평화시장 예술가들과 같이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물론 목공예마을이 예산적으로는 많이 안 잡혀 있지만, 의미 있게 쓰여 지도록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로드맵 하에서 그 예산이 잘 쓰여지게 해야 이게 의미 있는 거겠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당연히 하죠. 빨리 접할수록 더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나무, 이거는 소재에 불과한 거고, 모든 공학도들은 만드는 거로 해서 회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작 철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쪽으로만 다 간단 말이에요. 그 인재들 중에 일부는 나무를 활용해 만드는 거를 하면은 시장이 개척되는 거예요. 나무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은 굉장히 다양해요. 나무는 가구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옛

날에는 원목 가구를 나무로 만들었던 적이 있고 그 뒤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뺀 거지, 한계가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그거를 제품으로 가공을 해내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죠. 예전 방식으로만 하면은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섬세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하는 거를 CNC나 레이저로 하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해지죠. 예를 들어 어떤 텍스처의 물결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엠보싱처럼 물결 모양으로 실제 나무 가공 자체를 다양한 무늬로 만들 수도 있고, 타공, 짜 맞춤 이런 모든 것들을 쉽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기회가 되는대로 새로운 방식들을 계속 연구해서 젊은 목공인들에게 뭔가 길을 터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비전 있게 볼 수 있도록 저부터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로 어떤 성공한 모습도 보여줘야 이 일이 가능하구나, 또 저런 걸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느끼게 해줘야죠. 목공예를 하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모든 삶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 만드는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구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져요. 우리가 사는 게 의식주잖아요. 적어도 주거에 해당하는 자기 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려가고 예쁘게 뭘 만들 수 있고 만족도가 높죠.

많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미추홀구와 목공예센터가 잘 협치해서 송의동 목공예마을에 대해 참신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특화된 명소로 존속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추홀구 송의목공예센터

송의목공예센터는 목공예 전문 장인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목공예 기초부터 생활가구 만들기, 목공예 심화 과정 등 다양한 목공예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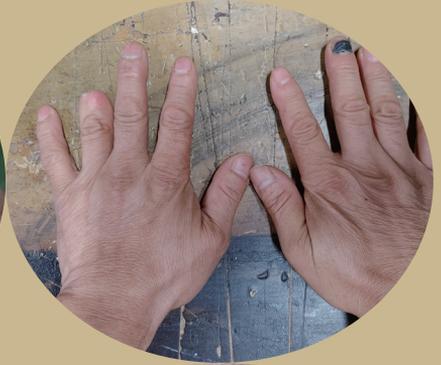
- 2013. 08. 송의목공예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13. 09.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창작공방' 준공
- 2014. 10. 송의목공예마을 사업자 협동조합 설립 (2018년 청산)
- 2015. 09. 목공예센터 신축 준공
- 2015. 12. '송의목공예센터' 개관
- 2021. 10. 민간 위탁 운영 - 비영리단체 '뿌리깊은 나무'

위치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9-8



나무 장인들의 손에는
평생 나무와 공구를 만지며 살아온
치열한 삶이 담겨있다.



나
가
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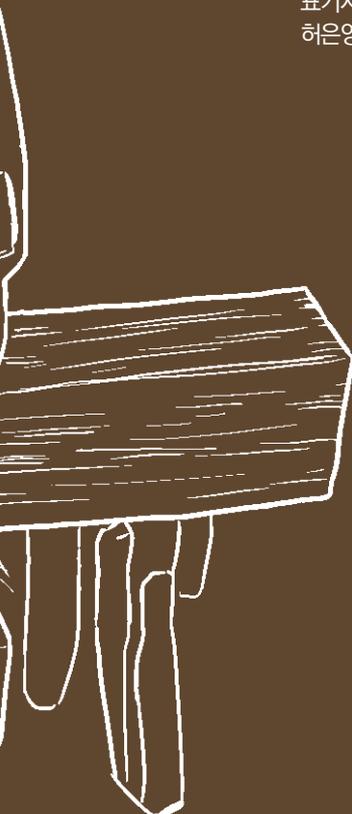
기록후기

기록 멘토

허은심 '송의목공예마을 장인들의 구슬채록에 동행하다'

미추홀시민기록단

김용경 '내 삶의 궤적 앞에 손때 묻은 것에 관심있게 해 주는 계기'
이혜숙 '목공예마을의 미래가 이곳의 목공장인들에게서 시작되기를 바라며'
정은주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정지선 '장인(匠人)의 경이로운 삶을 들여다보며'
조연희 '기록, 그 이상의 의미'
표기자 '인천 역사에 길이 빛 날 목공장인들'
허은영 '나무를 닮아 단단하고도 유연하게 살아오신 삶들'





필자는 2021년 미추홀기록단과 동행한 구술작업에 이어 2022년 승의목공예마을 장인들의 구술 채록을 함께했다.

미추홀기록단과 구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 수정하고 현장에서 채록한 구술을 하나, 둘 성실하게 저장해 갔다. 부족한 점을 살펴 채우며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쌓여 갔다. 구술 채록으로 쌓인 결과물들을 정리하고 도서용 원고로 편집하는 과정까지 오는 동안 2022년은 이미 12월에 들어서 있었다.

미추홀기록단원들은 먼저 목재산업과 지역을 공부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기록안을 작성했다. 구술자와 라포형성 준비를 하면서 목공예 센터장과 인근 평화시장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채록하여 목공예 마을과 장인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였다. 학산문화원이 섭외한 구술자들과의 라포형성 시간으로 몇 차례의 업체 방문과 각 면담자에게 배정된 구술자의 개별 방문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얻어진 정보들로 활동 기획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질문의 질을 높여 갔다. 그러던 중 비보를 접했다. 구술선정자 중 홍조작 대표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구술채록의 중요함을 깨닫는 순간이다.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마음이 급해진다.

본 인터뷰가 진행되는 시점은 여름을 전후하여 가을까지 진행되었다. 구술은 현장에서 이루지는 것이 많아 더운 여름 목공 작업에 여념이 없는 구술자와 면담자 열기로 더욱 뜨거웠다. 구술자의 직업 특성상 나무 분진과 기계 소리 가운데서 채록할 수밖에 없는 녹록치 않은 구술 현장이다. 구술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현장에

승의목공예마을 장인들의 구슬채록에 동행하다

미추홀시민기록단 멘토 허은심 (인천사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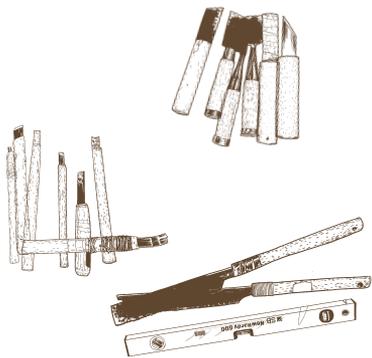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서로가 응원하고 도와가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

2021년에 이어 진행된 구슬이라 조금은 수월할 것이라 기록단원들의 생각은 이내 빛나갔다. 구슬은 언제나 처음이다.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대상이 같지 않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는다. 지난해의 현장 경험으로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신념이 두려움을 누르고 구슬자를 설득하고 구슬 채록에 집중하도록 했다. 몇 차례의 구슬이 진행되면서 우려는 불식되었고 기록단의 면담은 두터워졌다.

개인적으로 2009년 인천의 한 목재 기업의 사사(社史) 만드는 일에 참여한 것이 인연이 되어 2017년 한국합판보도협회 사사, 2019년 한국목재협동조합 사사까지 이어졌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목재사를 공부할 수 있었기에 미추홀기록단과의 구슬 동행은 더욱 의미가 있었다. 2022년 진행된 학산문화원 미추홀기록단 목공예 마을 구슬채록을 통해 한국목재 기업 이야기뿐 아니라 목공예 분야에 종사해온 미추홀구 소상공인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접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시기에 미추홀기록단원들과 구슬작업에 동행하며 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멘토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의 배움을 함께했다. 지난 2년간 미추홀기록단은 바이러스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미추홀시민아카이브'의 참여자로 의미있는 시간을 남겨놓았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아카이브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목공예 장인들의 구슬 채록은 학산문화원, 미추홀기록단, 구슬자, 그리고 묵묵히 지켜보아 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그 결과물들이 미래 자산으로 남아 빛날 시간이 될 것임을 기대해 본다.



내 삶의 궤적 앞에 손때 묻은 것에 관심있게 해 주는 계기

미추홀시민기록단 김용경

2022년도에 목공 장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우리네 삶의 매혹을 관찰했습니다. 매혹이 없는 나날은 지루하기에, 보이지 않는 매혹 때문에 목공 장인들의 삶은 망가지지 않고 조각도를 다시 부여잡고 힘든 일을 묵묵히 다시 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무에서 말하는 숨결과 나무 자체가 가진 매혹을 알기에 그 나무 덩어리에서 비천상을, 마리아상을 그리고 실용적인 가구를 탄생 시키는 마술과 같은 기적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농부는 땅의 매혹에, 어부는 바다에 매혹되는 성인(聖人)이라면 목공을 하는 장인들은 나무에 매혹되어 평생을 목공 인생에 바칩니다. 농부와 어부가 땅과 바다를 신뢰하는 것처럼 목공은 나무를 무한히 신뢰합니다. 무한한 때로는 무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매혹을 찾아내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노동 강도가 힘들어도 나무에 매혹되어 반세기를 만족하며 살아왔고 여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나무 덕분에 그래도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다고 감사의 미소까지 보냅니다. 살아 있는 날까지 목공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소박한 희망도 말씀하십니다.

올해 목공 장인 구술 인터뷰는 내 삶의 궤적 앞에서도 좀 느리고 손때 묻은 것에 더욱 관심 갖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구술 장르의 가치를 발견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구술 작업에 함께 한 미추홀 시민기록단 단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공예마을의 미래가 이곳의 목공장인들에게서 시작되기를 바라며

미추홀시민기록단 이혜숙

2022년 초여름, 누구보다 빨리 서울목공예를 운영하시던 변경인 님을 뵈었던 첫날이 선명합니다. 조용한 송의 목공예센터 강의실에서 만난 변경인 님은 넉넉한 미소로 세 차례 인터뷰에도 자세하게 과거부터 목공예센터의 미래까지 찬찬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목공의 역사와 인생을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인천 초기 목공예거리의 모습이나, 전성기 수출의 큰 몫을 차지했던 목공예 제품이나 격동의 시기 쇠락해 가던

인천 목공예거리의 변천까지 오롯이 함께 겪으며 직접 경험으로 느껴오신 각종 풍파가 이야기 속에 함께 녹아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누군가는 성공하기도 했었지만, 좌절의 시간에도 목공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만 보더라도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일을 천직으로 삼으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허락지 않아 공예사 운영은 멈추셨지만, 가능한 한 오래 목공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신 변경인님의 의지에 존경의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모던목공방 조한일 님께서는 꼼꼼한 성격 때문에 짜 맞춤으로 가구를 만드신다지만, 그 마음속에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커다랄게 자리 잡고 있음이 인터뷰 내내 느꼈습니다.

주변 지인께서 작업 받침대를 두 개 주문하신다길래 급히 부탁을 드렸더니 하룻밤 만에 어찌나 반듯하게 만들어 주셨던지 "이걸 가까이서 받침대로 어떻게 쓰냐?"며 감탄하시는 데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지는 것이 절로 신이 났습니다. 이래서 전문가가 해야 일이 제대로 마무리 되는구나 싶은 것이 주변에 솜씨 좋은 분을 알게 되어 새삼스레 기록단 활동의 장점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미추홀의 여러 맛집도 그렇고 올해 송의 목공예거리 장인들의 인터뷰도 가깝지만 실제로는 멀었던 이웃의 새 모습을 발견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솜씨가 필요한 곳

과 연결되고, 또 이어지는 여러 활동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큼은 아니더라도 송의 목공예거리가 '인천'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목공 특화 거리가 되어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행복을 체험하고 만들어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시간의 단순한 체험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일생의 소중한 목공예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의미가 이 거리의 미래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봄부터 연말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미추홀학산문화원 관계자분들과 멘토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2년 송의 목공예거리 속 변경인 사장님과 모던목공방 조한일 사장님과의 인연이 더욱더 마스한 한해였습니다.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미추홀시민기록단 정은주

지금, 이 시각도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된다. 나는 몇 년 전부터 다이어리에 일정을 기록하였다. 일정이 많아 기억하지 못하여 적기 시작했지만 한 해 한 해 나의 기억이 들어 있는 것 같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동안의 기억을 살펴보면서 '이때는 이랬지, 몇 년도에는 '어느 곳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라는 추억에 젖기도 하였다. 거기서 기록

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했다.

시민기록단으로 활동하면서 작년 기록 활동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사전인터뷰의 중요성이다. 작년은 우리 지역을 살펴본다는 것에 매력이 있었다면 올해는 인물 중심으로 심층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도 있었고 과정이 대상에 따라 달라야 하고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물에 대한 접근은 개인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 그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인터뷰하는 내용에 관한 공부와 심리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카이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하는 활동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 좋았다면 지금은 아카이빙이 얼마나 어려운 분야이고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해냈을 때 느껴지는 희열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 아닐까 한다.

인터뷰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을 더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딩에서 보면 INPUT에 따라 OUTPUT이 달라지는 것이 기본이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도 아카이빙을 계속하겠지만 늘 이 고민은 하게 될 것 같다.

기록이라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이라고 하면 거창할까? 기록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조금은 결이 다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남아 있는 기록과 유물로 과거를 찾기에 그렇다. 서민들에 관한 것은 남겨지지 않기에 말이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의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기록은 시민이 일상을, 주변을 기록하는 평범한 기록이다. 그래서 과거 역사와는 결이 다르다. 우리가 사는 곳곳을 살피고 기록을 남기는 것, 오늘의 모습을 내일에 남기는 것,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일에 남기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기록이다.

장인(匠人)의 경이로운 삶을 들여다보며 미추홀시민기록단 정지선

이번 미추홀시민기록단이 기록으로 남긴 것은 ‘송의 목공예마을 장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송의 목공예마을의 장인들의 솜씨를 이어갈 후계자 양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미추홀구에서 오랫동안 목공업에 종사하시는 장인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목공 장인들을 만나보니 대부분 4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목공예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중에서 가장 어르신이자 송의 목공예마을의 유일한 톱 연마 사장님이셨던 88세 김유일 사장님(유성톱연마)의 삶을 기록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다. 여러 차례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톱 연마에 대해 자료도 찾아보고, 모르면 사장님께 물어보면서 톱 연마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사장님의 이야기는 점점 흥미로워졌다. 특히나 기계를 다루는 게 익숙하신 사장님은 핸드폰 활용도가 남다르셨다. 카톡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고, 은행 업무도 핸드폰으로 처리하실 정도로 스마트한 어르신이었다. 더운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처음 인사드리고 몇 차례 찾아볼 때마다 연락이 안 되면 어찌지 하는 우려가 무색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셨고, 이 원고를 마감하는 오늘도 카톡으로 좋은 글을 보내 주셨다.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르신을 만났다는 것이 인생 후반전에 이제 막 들어선 나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두 번째 구술자는 고려목공소의 차기대 사장님이셨다. 처음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비가 많이 내렸던 날이었음에도 너무나도 온화한 미소로 맞이해 주셔서 긴장감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던 기억이 난다. 솔직히 시민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를 하러 가는 것은 나름의 책임이 따른 것이라 질문도 잘 준비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가기 때문에 긴장이 많

이 된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내 주시면서 말도 참 재미있게 해주셔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덕분에 풍부한 내용이 기록됐다. 이 책은 다 실리지 못했지만, 사장님 덕분에 목공소와 목공예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배다리에서부터 시작된 미추홀구 목공 산업의 발자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군대 시절 에피소드는 정말 흥미진진했는데, 이 책에 그 내용을 다 실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손자에게 “장인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잘 살았다고 느끼신다는 사장님! 그리고 요즘 집에서 “난~~ 행복합니다!!”를 늘 흥얼거리신다는 말씀에서 삶이 어렵더라도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긍정적인 사장님의 모습이 나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세 번째 구술자는 성원인테리어의 이길학 사장님이셨다. 인터뷰했던 장인 중에서 유일하게 인천 태생이셨던 사장님 덕분에 인천의 60년대 이후 모습을 인천 토박이의 시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미술을 잘했던 사장님이 마을에 있었던 목공방의 영향으로 목공예로 직업을 선택하고, 작품 활동을 위해 절에 들어가 불교 관련 조각을 하다가 웨딩홀의 장식을 조각하셨다는 말씀에서 목공예는 예술적인 감각이 필수여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나 서랍 가득히 들어있던 40년 이상 된 손때 묻은 조각칼을 보니 예술가 한 명을 만났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느낌이 들

었다. 불상이 나무로 조각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던 나에게 공부 더 해서 다시 인터뷰 오라고 혼내셨던 사장님. 그리고 일본어로 된 목공 용어를 쓸 때마다 일본말 쓰지 말고 가능하면 한국어로 바꿔서 설명해주시려고 애썼던 사장님의 멋진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사실 처음엔 목공예와 목공소도 구분하지 못했던 나였지만, 이번 기록과정을 통하여 미추홀구가 목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지리학적 이유,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나무의 종류 그리고 장인들의 눈과 손으로 창작되는 목공 작업 과정을 관찰하면서 장인의 경이로운 솜씨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미추홀구 주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시민기록단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 같다.

내년에는 어떤 삶을 기록하게 될까? 벌써 기대가 된다!!!

기록, 그 이상의 의미

미추홀시민기록단 조연희

미추홀시민기록단 모집 소식을 접하고 심

장이 뛰었다. 기록한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몇 해 전부터 인천의 오래된 골목을 사진으로 남겨두던 나에게 도전해볼 만한 욕심 나는 활동이었다. 인천에서 나고 자라 한 번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인천은 고향 이상의 특별함이 있다. 도시의 개발로 옛 모습을 잃어가는 인천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송의 목공예거리의 목공 장인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무척 설레는 일이었다.

본격적인 기록 작업에 앞서 사전 인사를 다녀왔을 때가 떠오른다. 여름이 막 시작되어 싱그러움이 느껴지던 날이었다. 재미있게도 송의 목공예거리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로구로 장인이자 터줏대감인 대우공예 사장님과 이곳에서 가장 젊은 목공인인 아셀트리목공방 사장님을 담당하게 됐다. 음악으로 치면 전통 클래식과 퓨전 음악의 만남이라고 할까. 나중에 목공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노아목재 사장님이 구술자로 추가되면서 조화롭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인터뷰를 거듭 진행하면서 사장님들이 살아온 인생과 목공에 대한 나뭇의 철학을 들으며 함께 동화되었다. 기자 활동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었지만, 이처럼 오랜 시간 만나며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 건 처음이라 묘한 감정이 일었다. 기록을 위해 만난 사이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은 묘한 기분. 녹취를 풀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더 깊이 빠져들었다.

나이와 목공업에 종사한 시간, 전문 분야가 달라도 하나 분명한 건, 목공에 대한 진심은 같다는 것이다. 몸이 허락하는 한,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사장님의 말이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인천 지역사에 깊이 빛 날 목공장인들

미추홀시민기록단 표기자

목공예거리 아카이빙은 이론 수업을 마친 후 마을탐방을 시작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6월 초여름 더위는 삼복 더위 만큼이나 무더워서 온 몸이 끈적이고 갈증이 심했다. 탐방을 마친 후 카페에 들러 평소에 잘 안마시는 아이스커피를 폭풍 흡입했다.

목공예거리 아카이빙은 때 이른 무더위에서 이미 난조가 예견되었던 걸까? 그 후로 구슬인들에 대한 사전면담 차 송의동을 찾았던 날도 불볕더위였다. 목공소마다 에어컨이 없고 길가에도 잠시 머물만한 그늘조차 없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마주하게 되는 생경함이 오히려 살짝 텐션 업 되는 점도 괜찮았다.

목공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미흡한 터라 공부를 하면서 질문지를 만드는 과정에

선 수차례 고치고 고치면서 적잖게 고민을 했다. 한평생 목공인의 삶을 살아온 장인들의 삶에 나는 얼마나 진실되게 다가가서 공감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였다. 다만 질문지의 구심점은 분명했다. "구슬인들의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라"는 어느 강사의 말 한마디에 주목하고 도전했다.

질문지를 가지고 장인들과 사전미팅 약속을 하고 구슬 장소에 갔는데 부재중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면담을 할 때 경우에 따라 적잖이 당혹스러운 적도 있었다. 그러나 거듭 거듭 구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 자신도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순발력이 부족한 면도 발견하여 초심을 되새기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곤 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을 우선 고려하며 진행했다. 곤혹스러운 경우로 상심할 때도 있었지만 또 다른 경우에서 구슬인의 푸근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장인들의 업력은 평균 30~40년이 넘었다. 우연히 들어서게 된 목공일이 전 생애에 걸쳐 당연히 해오고 있는 일이 되었다. 당연히 라는 말속에 세월이, 사회 또는 가족에 의해 붙여진 과업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도 될 만큼 목공업은 인천지역에서는 상징이 될 만한 업종이었다. 인천지역사에 기록,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해오고 있는 장인들은 당신들의 생애를 예사롭게 풀어주셨다. 일하다가 사고로 잘려나간 손가락을 보았다.

‘당신들의 그 손이 한 일가를 이루었고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경의의 훈장을 달아드렸다. 목공인들은 시류(공공정책)에 밀려 이리저리 사업장을 옮겨다니고 현재도 여전히 그 불안함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송의동 목공예거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목공예센터의 활약상에서는 차세대 목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목공인들과 관계기관의 협치가 관건인 것 같다.

목공 장인들과 6-7개월 교류하면서 처음에 대면했을 때의 낯선 느낌은 이제 없고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어 있다. 한평생 한 우물을 길어 올린 그들의 노고와 업적에 진심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린다!

나무를 닦아 단단하고도 유연하게 살아오신 삶들

미추홀시민기록단 허은영

2022년을 앞두고, 학산문화원 시민기록단 2기 모집 공고를 접한 순간부터 ‘코로나 감옥’ 탈출은 시작되었습니다. 운동화 끈은 이미 단단히 묶어 두었기에 불려만 주신다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음에 달려간 곳이 ‘송의 목공예마을’이었습

니다. 미추홀구청 앞을 지나 사거리리를 한 번 지나고, 두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루트업에 베레모를 쓴 ‘제페토’가 명랑만화 버전의 웃음을 웃고 있는 그곳입니다.

사실은 현실의 제페토들이 터를 잡고 강산이 몇 번 바뀌고 나서야 목공예센터가 생겼는데도 그 거리를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22년, 한 해 동안 십년지기 친구 집보다도 더 많이 방문한 곳이 목공예마을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눈 감고 찾아가라고 그러면 못 찾겠지만 두 눈 똑바로 뜨고는 정말 잘 찾을 수 있을 정도지요.

첫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은 삼감기법의 장인 ‘미추홀공예사’ 대표님이셨습니다. 삼감기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업체를 크게 운영하셨던 대표님은 예술가이자 발명가이며 나무박사님이십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듣노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나무와 함께한 인생이 머릿속에 그려져 한동안 여운이 계속됐을 정도였습니다. 못다 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으실까요.

목공예마을의 젊은 세대이신 ‘준아트’ 대표님은 벽화와 우드버닝 작업을 넘나드는 예술가이자 수제 우드펜 작업도 하시는 목공예마을의 ‘블루오션’이신 분입니다. ‘아카이빙’ 선배이기도 하신 대표님의 배려 덕분에 인터뷰 과정은 동네 사랑방처럼 따뜻했습니다. ‘자유’와 ‘봉사’라는 자칫 어울리기 힘든 두 단어가 공존하는 대표님 인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명진공예사’ 사장님은 참으로 나무를 닦아 정직한 삶 그대로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삶

의 나이테를 숨김없이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말보다는 작품으로, 작업으로 보여주시는 인생을 다 담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기록을 열망하고 기록으로 모인 시민기록단 덕분에 마음의 다락방에 깊이 넣어둔 ‘열정’을 꺼내어 먼지를 닦고 기름칠을 한 한 해였습니다. 무척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을 준비하다

2022.4.7.(목) 16시
 시민기록단 활동과정을 준비하다.
 2022.4.22.(금) 9시
 기록특강1 : 아카이빙의 이해
 2022.4.29.(금) 10시
 기록특강2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 사례
 2022.5.13.(금) 10시
 기록특강3 : 미추홀구 역사와 목공예산업
 2022.5.20.(금) 10시
 기록특강4 : 합판보드 산업과 목재공업협동조합
 2022.5.20.(금) 12시30분
 승의목공예마을 구술자 18명 첫 방문과 인사
 2022.5.24.(화) 12시
 승의목공예마을 구술자 단체미팅_1
 2022.5.26.(목) 12시
 승의목공예마을 구술자 단체미팅_2
 2022.5.27.(금) 9시
 기록특강5 : 구술사란 무엇인가
 2022.6.3.(금) 10시
 목공예마을이 이동해온 경로를 탐방하다.
 2022.6.10.(금) 10시
 시민기록단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2022.6.17.(금) 10시
 구술 실습1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2022.6.21.(화) 15시
 승의목공예마을 사전조사_ 사진촬영, 명함수집
 2022.6.24.(금) 10시
 구술 실습2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2022.6.29.(수) 13시
 승의목공예마을 주변인 사전면담1_박승화, 이옥진
 2022.7.1.(금) 10시
 사전조사 진행현황 공유 모임
 2022.7.8.(금) 10시
 구술기록 준비 모임
 : 공통질문지 논의, 조 편성, 구술자 선정
 2022.7.14.(목) 13시30분
 승의목공예마을 주변인 사전면담2_민후남
 2022.7.20.(수) 9시
 지역문화 탐방 워크숍(강화, 교동 일대)

기록을 시작하다

2022.7.27.(수) 14시
 구술자 사전면담 : 구술자와의 첫 만남
 2022.7.28.(목) 17시
 서울목공예 변경인 사전면담(이혜숙)
 2022.8.3.(수) 17시
 신정목공예 안희식 첫 번째 면담(정은주, 이혜숙)
 2022.8.16.(화) 16시
 서울목공예 변경인 첫 번째 면담(이혜숙, 정은주)
 2022.8.17.(수) 15시
 미추홀공예사 김인규, 준아트 이현준 사전면담(허은영)
 2022.8.17.(수) 16시
 서울목공예 변경인 두 번째 면담(이혜숙, 조연희)
 2022.8.18.(목) 14시
 인일조각 진교욱, 한일원목목공 김종필 사전면담(김용경)
 2022.8.19.(금) 9시30분
 구술기록 준비 모임 : 인터뷰기획 논의
 2022.8.19.(금) 16시
 대한공예 이철희 첫 번째 면담(정은주)
 2022.8.20.(토) 11시
 고전공예사 강오원 사전면담(표기자)
 2022.8.22.(월) 14시
 명진공예사 윤덕환, 성원인테리어 이길학
 사전면담(김순옥)
 2022.8.23.(화) 16시
 고려목공소 차기대, 유성툰염마 김유일 사전면담(정지선)
 2022.8.24.(수) 15시
 고전공예사 강오원 첫 번째 면담(표기자, 정지선)
 2022.8.25.(목) 14시
 인일조각 진교욱 첫 번째 면담(김용경, 허은영)
 2022.8.26.(금) 17시
 미추홀공예사 김인규 첫 번째 면담(허은영, 표기자)
 2022.8.29.(월) 16시
 보령목공 이복섭 첫 번째 면담(표기자, 허은영)
 2022.8.30.(화) 11시
 대우공예 원철성 첫 번째 면담(조연희)
 2022.8.30.(화) 15시
 인일조각 진교욱 두 번째 면담(김용경, 정지선)
 2022.8.31.(수) 16시
 유성툰염마 김유일 첫 번째 면담(정지선, 표기자)

2022.9.2.(금) 9시30분	2022.10.4.(화) 11시30분
기록 현황 공유 모임	서울목공예 변경인 세 번째 면담(이혜숙)
2022.9.2.(금) 13시	2022.10.5.(수) 10시
성원인테리어 이길학 첫 번째 면담(김순옥, 허은영)	아셀트리목공방 서희원 두 번째 면담(조연희, 이혜숙)
2022.9.2.(금) 17시	2022.10.14.(금) 9시30분
명진공예사 윤덕환 첫 번째 면담(김순옥, 정지선)	기록 현황 공유 모임
2022.9.3.(토) 16시	2022.10.21.(금) 14시
미추홀공예사 김인규 두 번째 면담(허은영, 표기자)	모던목공방 조한일 첫 번째 면담(이혜숙, 조연희)
2022.9.5.(월) 15시30분	2022.10.21.(금) 15시
대한공예 이철희 두 번째 면담(정은주, 이혜숙)	신정목공예 안희식 두 번째 면담(정은주)
2022.9.5.(월) 16시	2022.10.24.(월)
고려목공소 차기대 첫 번째 면담(정지선, 허은영)	성원인테리어 이길학 세 번째 면담(김순옥)
2022.9.7.(수) 13시40분	2022.10.28.(금) 9시30분
존아트 이현준 첫 번째 면담(허은영, 정지선)	원고 제작 모임
2022.9.8.(목) 10시	2022.10.31.(월) 16시
보령목공 이복섭 두 번째 면담(표기자, 허은영)	모던목공방 조한일 두 번째 면담(이혜숙, 정은주)
2022.9.13.(화) 18시	2022.11.2.(수) 10시
한일원목목공 김종필 첫 번째 면담(김용경, 표기자)	노아목재 김창선 첫 번째 면담(조연희)
2022.9.14.(수) 14시	2022.11.18.(금) 10시
존아트 이현준 두 번째 면담(허은영, 표기자)	원고 제작 모임
2022.9.17.(토) 13시	2022.12.2.(금) 10시
성원인테리어 이길학 두 번째 면담(김순옥)	원고 제작 모임
2022.9.21.(수) 10시	2022.12.15.(목) 13시
아셀트리목공방 서희원 첫 번째 면담(조연희)	목공예센터 박승화 두 번째 면담(표기자)
2022.9.21.(수) 16시	2022.12.15.(목) 10시
유성툽연마 김유일 두 번째 면담(정지선)	성원인테리어 이길학 네 번째 면담(정지선, 허은영)
2022.9.21.(수) 17시	2022.12.16.(금) 10시
명진공예사 윤덕환 두 번째 면담(김순옥, 정지선)	원고 제작 모임
2022.9.23.(금) 14시	2022.12.28.(수) 13시
대우공예 원철성 두 번째 면담(조연희, 정은주)	명진공예사 윤덕환 세 번째 면담(허은영, 표기자)
2022.9.27.(월) 12시	
고전공예사 강오원 두 번째 면담(표기자)	
2022.9.27.(월) 18시	
고려목공소 차기대 두 번째 면담(정지선, 허은영)	
2022.9.29.(목) 16시	
유성툽연마 김유일 세 번째 면담(정지선)	
2022.9.30.(금) 9시30분	
기록 현황 공유 모임	
2022.10.1.(토) 14시	
한일원목목공 김종필 두 번째 면담(김용경, 정지선)	
	기록을 정리하다
	2022.12.26.(월) 13시
	지역문화아카이브포럼
	'미추홀시민아카이브를 시작하며'
	시민들의 기록사례 발표

#. 위 과정 외에도 미추홀시민기록단은 사진 촬영, 검수 과정 등으로 송의목공예마을의 구술자들과 마을을 기록하였습니다.

단
어
사
전



ㄱ

가다	틀
각끝	목재에 정사각형의 구멍을 뚫는 기계
개건너	개를 건너
겉목	작업물의 전체 형태를 결정짓는 작업을 할 때 '겉목 친다'고 함
고무나무	고무를 채취하는 열대 식물
고재	오래된 고재목을 이용해 만든 가구
교수법	준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교육방식
교표	학교를 상징하는 무늬를 새긴 휘장
그리스	기계의 마찰 부분에 쓰는 매우 끈적끈적한 윤활유
그린피스	핵무기 반대와 환경 보호 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급진적인 국제 단체
긴노	일본어로 '은'을 뜻함
꽃제비	북한에서 집 없이 떠돌면서 구걸하거나 도둑질하는 유랑자
끝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겉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는 연장

ㄴ

나왕	용늪향과의 활엽상록수로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목재 자원
네임벨류	이름값, 이름의 가치, 즉 명성 혹은 인지도
노아	구약 성서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
뉴질랜드 소나무	뉴송이라 하며 소프트우드에 속하는 침엽수종
늑목	몸을 바르게 하는 데에 쓰는 체조 기구. 나무 기둥 사이에 여러 개의 가로대를 고정한 것

ㄷ

다글라스	북미산 나무. 미송 종류 중 하나
다테스지	세로줄, 수직을 의미
다이	작업 테이블, 받침의 일본말
당좌	예금자가 수표를 발행하면 은행이 어느 때나 예금액으로 그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금
대현금속	1994년 6월 설립한 산업디자인(환경) 전문회사의 자격을 갖춘 중견기업
덕트	공기를 매체로 하여 열, 수분, 가스 및 분진 등을 운반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시설
데모	어떤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전망을 가능하기 위하여 만든 시사적 작품
도라무통	드럼통을 속되게 이르는 말
도료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재료
도면	토목·건축·기계·토지·임야 등의 구조나 설계 따위를 제도기를 써서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그림
도제식	도제 관계와 같이 제자가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던 방법
동일방직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에 있던 주식회사로, 광목·포플린·재봉실·혼방직물·면직물을 생산하여 국내시판과 일부를 수출했음
동지나	제주도 남쪽부터 타이완에 걸쳐있는 서태평양의 연해
등미리	창살을 다듬는 방법
뚝방	뚝방의 방언. 홍수를 예방하거나 물을 저장하기 위해 하천이나 호수 바다 둘레를 높이 막아 쌓은 언덕
띠톱	둥근 고리 모양으로 된 기계톱으로, 주로 곡면을 제단할 때 사용

ㄹ

락카	섬유소나 합성수지 용액에 수지, 가소제, 안료 따위를 섞은 도료
레드파인	아메리카 적송(赤松)
로구로	녹로의 일본어 표현으로, 나무를 기계에 고정하여 회전시켜 깎아 내는 목공예
로라	롤러
루터	목공과 가구제작에 흠 파는 용도로 쓰이는 휴대용 전동공구

ㄹ

마디가	가공이 용이하여 모형용재에 최적이며 조각, 악기(플루트), 제도판, 흑판, 완구, 합판, 연필재로 쓰임
마루노고	'동글다(마루まる)'에 '톱(노고のこ)'가 더해져 원형톱을 의미하는 일본어, 동근 원형톱날이 부착된 테이블쏘를 뜻하기도 함
매대	상점에서 물건을 놓고 파는 자리
멀바우	강도가 높고 내충성, 방부성이 우수하여 주로 가구, 악기, 구조재로 사용되는 나무의 종류
명보극장	1957년 개관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영화 상영관. 2008년 4월 30일에 폐관되었음
목공소	나무로 가구, 청틀 따위의 물건을 만드는 곳
목공예	나무를 가공한 공예품. 또는 그런 가공 기술
목로	널빤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
목선반	원통형 물건을 깎는데 쓰는 공작기계. 일본어로 로구로라고 함
목형	주로 주형을 만드는 데 쓰는, 나무로 만든 모형
무늬목	종이처럼 얇게 깎은 나무. 또는, 나무 모양이 나게 무늬를 새겨 넣어, 외양을 장식하는 건축 자재로 사용하게 만든 얇은 합판
물텀벙이	물매기의 지역 방언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아귀를 물텀벙이라고도 말함
미송	북아메리카주에서 산출되는 소나무

ㄴ

바니시, 바니쉬	광택이 있는 투명한 피막을 형성하는 도료
방직 공장	실을 뽑아서 천을 짜는 공장
보루네오	1966년에 설립된 가구회사
부빙가	아프리카 고급 특수목
불단	부처를 모셔 놓은 단
불란서	'프랑스'의 음역어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빠구	BACK의 일본식 표기가 시초. 물건이나 의견 따위를 받아드리지 않고 물리침
빠빠	우리나라 말로는 '사포'이고 영어의 'sand paper'에서 페이퍼 발음을 일본식발음인 '빠파'에서 유래

ㄷ

사이	목재의 부피(체적)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원래는 '재(才)'라는 단위가 맞는데 일본어 어원인 '사이'라는 용어도 목재 거래 현장에서는 많이 쓰고 있음
사쿠리	우리나라 말로 흠대패를 뜻하는 말로써, 흠을 파내는 데 사용하는 대패. 문틀에 미닫이나 미세기 창문을 끼우는 흠을 파는 데 쓰는 대패를 말함
살롱	양장점·미장원 또는 양주 파는 술집 등의 이름
삼미 슈퍼스타즈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한국프로야구 소속 구단으로 최초의 인천 연고 구단
상감기법	금속이나 도자기, 목재 따위의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서 그 속에 같은 모양의 금, 은, 보석, 뼈, 자개 따위를 박아 넣는 공예기법. 또는 그 기법으로 만든 작품
상업체	사회적인 글씨체, 장사 글씨체
새터민	한국 거주 북한이탈주민
샌딩	사포를 써서 표면을 살짝 벗기는 작업
샌드위치 판넬	다른 종류의 재료를 샌드위치 모양으로 쌓아 올려 접착제로 접착한 특수합판
사프장	작업장
세강	예리하고 사나운 뜻을 가진 일본말
솔리드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목재. 목재를 길게 절단 후 옆으로 이어 붙인 형태
수리광산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리 394'에 위치한 광산. 중석과 몰리브덴이 주요 광종으로 일제강점기에 등록(추정)되었고, 1996년에 말소된 광산

숯	칼 따위의 연장을 갈아서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스카시	나무를 오려내는 전통 싣통
스프러스목재	소나무과에 속하는 큰 키의 바늘잎나무, 가문비나무이며, 펄프 제작을 비롯해 여러 장소에서 건축재 및 가구재로 다양하게 사용
시아기	마무리, 사상, 정삭 등 마무리작업을 뜻하는 일본말
신나	도장을 할 때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혼합용제
신신옥	1958년부터 신포시장(인천 중구 우현로49번길 7)에 있었던 튀김 우동 식당. 현재는 아들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음
신접살림	처음으로 차린 살림살이
싣통	톱니 부분이 가늘고 길게 실 모양으로 된 톱
ㅇ	
아교	짐승의 가죽, 힘줄, 뼈 따위를 진하게 고아서 굳힌 끈끈한 것
아름드리	둘레가 한 아름이 넘는 것을 나타내는 말
아비동	말레이어 열대 지방에서 나는 질이 좋은 목재
아스리	쇠붙이를 다듬거나 깎는 데 쓰는, 강철로 만든 공구를 일컫는 용어, 우리말로 '줄'을 뜻하는 단어
아적장	곡식 단이나 그 밖의 물건을 임시로 한데에 쌓아 두는 곳
에치샌다	벨트연마. 고리 모양의 연마 벨트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연삭 연마하는 가공법. 위에서 내려다 보면 알파벳 'H'모양이라 '에치샌다'로 부른다고 함
엿지그레인	나뭇결을 살리는 가공 방식 중 하나
연삭액	금속의 연삭 작업을 할 때 연삭 부분에 공급하는 액체로서, 마찰을 적게 하고, 금속 분말 및 탈락된 숯돌 입자를 씻어내어 숯돌 입자가 막히는 것을 방지함
오공205본드	오공본드에서 나오는 목공용 접착제
오더	영어 order. 물품을 주문하는 것
오일스테인	목질 바탕에 목재 무늬를 드러나 보이게 하기 위해 칠하는 유성 착색제
오크	떡갈나무, 참나무 따위를 이르는 말
요코 스킨	가로줄, 횡선, 수평을 의미
용주	불상 앞에 세워져 있는 기둥에 용무늬를 조각한 것을 말함
우드버닝	불에 달궈진 버닝 펜으로 나무를 태우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인두화'라고도 함
우드카빙	목각, 목각 장식품이라는 뜻으로 나무를 조각해서 장식품이나 도구를 만드는 일
우레탄	주 사슬 속에 우레탄 결합을 가지는 합성 고분자
우루과이라운드	경제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의 새로운 다국간 무역 협상을 이르는 말
웃길	윗길의 방언. 질적으로 훨씬 나은 수준
원 바이 식스	inch로 표현하는 목재 치수, 원 바이 식스는 '가로 x 세로'가 '1inch x 6inch'인 각목을 말함
의용군	전쟁 중 뜻이 있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되는 무력집단
인치니부	니부 : 6mm를 이르는 일본말, 인치니부 : 볼트의 규격을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로 31.75mm의 통통을 의미함
ㅈ	
자개	금조개 껍데기를 썰어 낸 조각. 빛깔이 아름다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칠해 썰어 가구를 장식하는 데 씀
전사	글이나 그림 따위를 옮기어 베끼
제재목	베어 낸 나무로 용도에 따라 만든 재목. 각재나 판재 따위를 이룸
제재소	베어 낸 나무로 재목을 만드는 곳
중석	주기율표 제6족 원소의 하나. 크로뮴 족에 속하는 전이 원소
집성목	나무를 적당하게 작고 일정한 크기와 형태로 절단한 뒤 이를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합해 만든 목재
짜 맞춤	판재의 끝을 베어 상대를 만들고 이것을 직각으로 짜서 고정하는 이음법

ㄸ

체득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 뜻을 깊이 이해하여 실천으로써 본됨
초경	합금으로 만들어진 티
축	서로 이을 재목의 한쪽을 홈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깎은 부분
추심	은행이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어음, 수표, 배당금 따위의 대금을 받아 내는 일

ㅋ

카슈	옷나뭇과의 상목. 교목. 캐슈도로는 캐슈열매의 껍질에서 짜낸 액체를 주원료로 함
코너로킹	사개물림, 상자 등의 모서리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서로 물리게 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계
킴	1990년 5월 18일 창립한 최신 가공 설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초정밀기어 및 구동장치 전문 생산 업체

ㅌ

타이트본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목공용 본드. 무독성이며 가구 사용에 대한 FDA 승인을 받은 제품
타카	못/스테인플러 심과 유사한 고정용 핀을 박는 총 모양의 큰 도구
타킹	타카로 조립하는 것을 의미
탱화	천이나 종이에 부처, 보살, 성현들을 그려 벽에 거는 불화(佛畵)
팁	날부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크에 설치하는 절삭 공구 재료의 조각

ㅍ

프랭크 시나트라	1940년대 미국 최고의 가수 겸 배우
----------	-----------------------

ㅎ

하향	쇠퇴하여 감
함석	겉에 아연을 입힌 철판
항고	아외옹 식기를 가리키는 말로 반항(飯倉)을 의미
홍송	젓나무를 이르는 말. 나무를 베면 심재가 붉은색이어서 홍송(紅松)이라 부름
환봉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쇠로 만든 창이나 쇠막대기
횃배	회총으로 인한 배알이
흔문	헛 문짝

A~Z

ABS	판질을 찍듯이 열처리해 만든 제품
AID 차판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장기용자의 하나
CNC	컴퓨터를 통해 성형 틀 가공 공정 따위의 정밀한 작업의 수치를 제어하는 방법
DIY	전문 업자나 업체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직접 생활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고 수리하는 개념
FDA 승인	식품과 의약품의요기기 관련 미국의 행정기구를 말함
IMF	'IMF외환위기'라고도 불리우던 사건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1997년 12월3일~2001년 8월 23일)를 체결한 사건
PB	나무를 매우 작은 칩으로 잘게 부수어 작은 알갱이로 만든 후 접착제와 혼합하여 고온으로 압축해 만든 판재
MDF	나무의 섬유조각을 분리해 접착제를 밀어넣고 강한 압력으로 만들어진 판재

1~9

12지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인 12개 부족
3D업종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의 머리글자인 D자를 따서 만든 용어
401본드	록타이트에서 나오는 순간접착제



승의목공예마을의 나무장인 이야기

나뭇결 따라 살아온 삶

2023년 3월 20일 발행

펴낸이 정형서

펴낸곳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기 획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후 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 록 미추홀시민기록단 김용경 이혜숙 조연희 정은주 정지선 표기자 허은영 김순옥

기록멘토 허은심

검수 천영기

디자인 모모하시니

일러스트 오현석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26

Tel. 032-866-3993-4

haksanculture.or.kr

ISBN 979-11-982450-0-7 (04090)

979-11-968891-0-4 (세트)

송의동 나무장인의 삶으로 인천 목공예 역사를 훑다

이 책은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내기 위해 시작한 목공 일이 평생의 업이 된 목공장인들의 생애를 담은 구술사입니다. 이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배다리, 송의운동장, 도원역 인근 등 목공예 상가들이 밀집해있던 지역의 변화를 알 수 있었고, 사용하는 나무의 종류, 접착제와 사용하는 기계들이 달라지는 과정을 통해 인천 나무산업의 흥망성쇠의 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비 매 품 / 무 료
04090



9 791198 245007

ISBN 979-11-982450-0-7
ISBN 979-11-968891-0-4 (세트)